

#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보고서**

## 목차

### 제1장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추진 범위
2. 연구 추진 방법
3. 연구 추진 일정
4. 연구 수행 체계

#### 제3절 연구 기대효과

### 제2장 미술 아카비스트 환경 분석

#### 제1절 국내 선행연구 및 전문인력 운영 현황

1. 조사 목적 및 범위
2. 미술 아카이브 관련 선행연구
3. 미술 아카비스트 전문인력 운영

#### 제2절 아카비스트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1. 조사 목적 및 범위
2. 국내 미술 아카비스트 관련 제도 및 활동 환경
3. 국외 미술 아카비스트 관련 제도 및 활동 환경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제 3장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운영 사례

#### 제1절 기관 교육 프로그램 사례

1. 조사 목적 및 범위
2. 국내 교육 프로그램
3. 국외 교육 프로그램

#### 제2절 대학 교육과정 사례

1. 조사 목적 및 범위
2. 국내 대학 교육과정

### 3. 국외 대학 교육과정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제4장 전문가 의견 조사

제1절. 자문회의

1. 조사 목적 및 범위
2. 주요 논의내용

제2절. FGI

1. 조사 목적 및 범위
2. 주요 논의내용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제5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제1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설계
2. 프로그램 추진 방향
3. 프로그램 운영 목표
4. 커리큘럼 개발

제2절.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1. 교육 프로그램 개요
2. 교육 프로그램 구성
3. 교육생 모집
4. 지원자 정보 분석
5. 교육생 가이드북 개발
6. 교육 프로그램 실행

제3절.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평가 및 분석

1. 참여 교육생
2. 워킹그룹
3. 정량·정성평가 종합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미술 아카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커리큘럼 제안

1.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칙
2. 교육 프로그램 구조

## 제2절. 향후 과제 및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점

1. 향후 과제
2. 시사점과 한계점

### [부록]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기관 운영 현황

자문회의 및 FGI 사전 질문지

정량·정성평가 개별 응답 분석

### [표 목록]

### [그림 목록]

### [참고 문헌 목록]

### [별첨자료]

- 협업연구진 전문의견
- 자문회의/FGI 회의록 및 주요의견 정리
-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 교육 프로그램 홍보 KIT



## **제1장**

---

###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최근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는 작품의 물리적 수집을 넘어 창작의 맥락, 예술적 실천, 사회적 의미를 포괄하는 '기록화(Documentation)'와 '아카이빙(Archivin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특히 현대 미술의 복합성과 다매체적 성격이 심화됨에 따라, 작품을 둘러싼 창작 과정과 맥락에 대한 체계적 기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장에서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술 아카이브 분야의 전문적인 직무 체계 확립은커녕 제도적·인적 기반이 현저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미술 아카이브 업무는 국내 일부 직렬을 제외하면 공공기록 관리직, 사서, 학예연구사 등 타 분야 전문직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미술 아카이브 분야 고유의 직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인력 양성 체계의 부재는 국내 미술 아카이브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용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한국 미술계의 기록·보존·해석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미술 아카이브는 기록관리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등 기존의 범기록학적 지식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영역이기에, 시각예술의 특성과 창작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전문 교육이 요구됨.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을 위한 세부 전문분야의 자문을 바탕으로 균형잡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함으로써 그 실효성과 발전 방향을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적합한 전문 인력 양성 커리큘럼을 제안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국내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활동 현황과 진입 경로 및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국내·외 미술 아카이빙 교육 기관 및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자 함.
-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사전 연구를 통해 현황 분석, 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규 교육과정 개발 및 정책적 제언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예비 미술 아카이비스트가 실무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미술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한국 미술계의 기록·보존·해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제2절 연구 추진 개요

### 1. 연구 추진 범위

#### 가. 연구 범위

- **미술 아카이비스트 관련 선행연구 및 직무 분석:** 국내 미술계 현장에서의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주요 역할과 핵심 역량 등을 고찰하고, 최신의 현황 사례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시범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시범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 **국내·외 기관, 프로그램, 교육과정, 제도 현황 비교·분석:** 국내·외 미술 분야 아카이브·아카이비스트 관련 기관 운영 사례,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향을 설정함.
-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시범 운영 과정 개발:** 자문위원회·FGI·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 구성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문가 의견을 프로그램 설계 및 향후 제언에 반영함.
- **시범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 및 성과 분석:** 예비 아카이비스트 대상 10회차 시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성을 검토함. 또한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조사와 더불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 및 워킹그룹(강사) 대상의 정성·정량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제언 도출함.
- **최종 개발 커리큘럼 제안 및 향후 과제 제언:** 시범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을 위한 최종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함.

#### 나. 연구 추진 상의 한계

- **연구 표본의 제한성:** 이론 및 실습이 가능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현실적으로 교육생 모집 및 참여 인원(25명 내외)이 제한되어 있어 평가 및 결과 해석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자료 접근의 제약:** 일부 국내·외 아카이브 운영 사례나 교육과정 정보는 각 기관이 공개한 범위 내의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였기에 실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조사 및 정량적 비교에는 한계가 존재함.
- **제도 연계의 간접성:** 제도화 및 정책 가능성에 대한 제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의 과정을 필요로 함.

## 2. 연구 추진 방법

[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 ■ 국내·외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현황 분석

- 제2장 미술 아키비스트 환경 분석을 위해 제1절에서 국내 선행연구 및 전문인력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제2절에서는 아키비스트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함.
- 제3장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미술 전문 기관 교육 프로그램 사례와 대학 국내·외 대학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함.  
\*제2장, 제3장 현황 분석 및 사례 조사 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웹사이트 정보를 참고하였음.
- 제4장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자문회의, FGI를 개최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 현황을 분석하고 핵심 역량을 도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에 반영하였음.

### ■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시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5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위해 전문 워킹그룹과 협력하여 ①, ②, ③의 사전 연구 파트를 토대로 시범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함.
- 실제 미술관 및 작가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반영한 사례 분석, 구술 인터뷰 진행 및 아이템 기술, 메타데이터 실습 등의 교육을 통해 현업 적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교육생의 자율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북/매뉴얼/템플릿 지원함.

-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교육생, 워킹그룹(강사진)의 정성평가·정량평가를 통한 시범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개선 방향 도출함.

#### ■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확대를 위한 제안

- 제6장 결론 및 제언을 통해 향후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도출하고, 시범 운영의 전반적인 피드백을 반영한 실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안을 도출함.
-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 양성 관련 제도·정책 지원 방안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함.

### 3. 연구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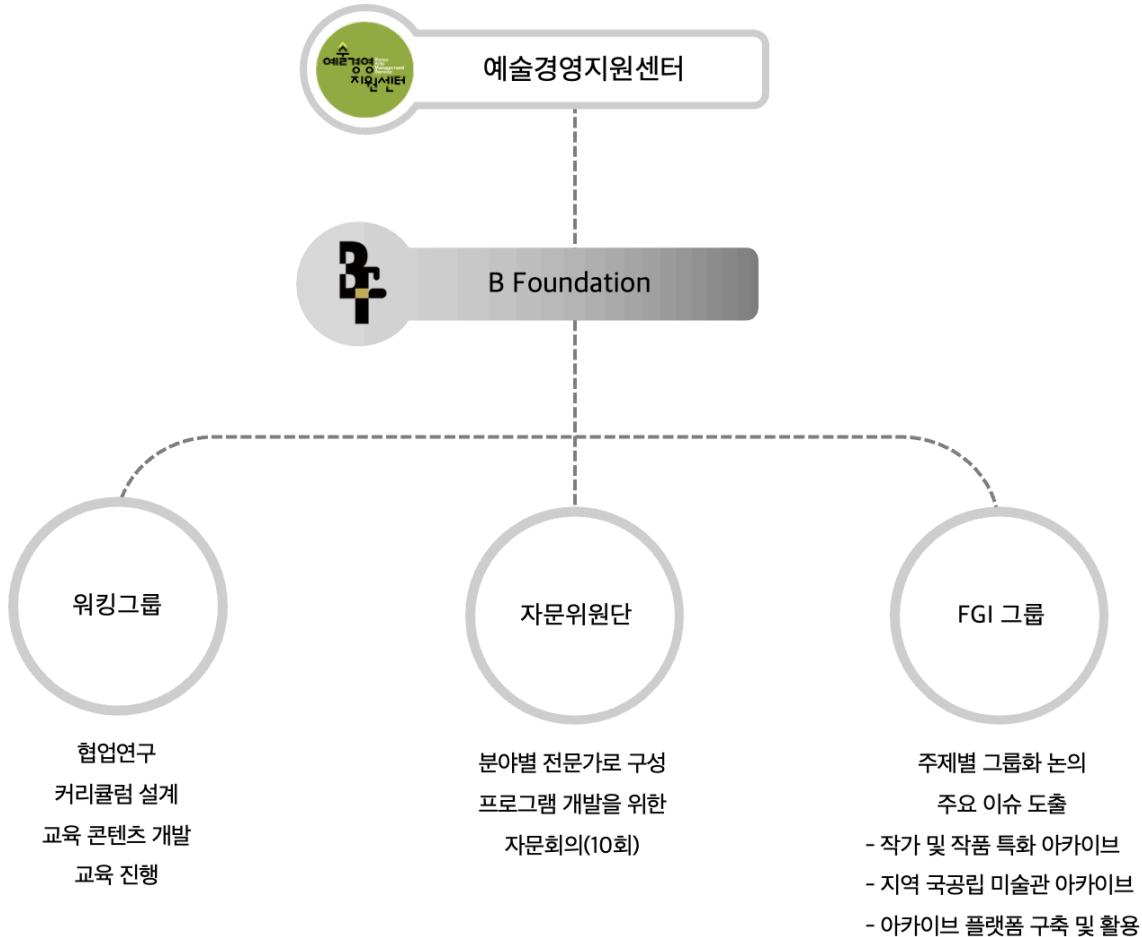
- 착수일로부터 240일 (2025.04.17. ~ 2025.12.12.)

단계	연구 방법 및 절차	2025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황 분석	사전 연구 및 미술 아카이브 국내·외 전문기관 운영 현황 조사	●	●	●							
	아키비스트 양성 유사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조사	●	●	●							
	아키비스트 관련 대학 운영 과정 및 커리큘럼 조사	●	●	●							
	아키비스트 관련 정책 및 제도, 직군 현황 조사	●	●	●							
연구	자문위원회, FGI 섭외 및 진행			●	●	●	●				
	자문회의 및 FGI 결과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설정						●				
기획	워킹그룹 협업 연구 및 커리큘럼 기획 및 개발			●	●	●					
	커리큘럼 및 운영 방식 확정					●					
제작	교육 프로그램 실무 가이드북					●	●				
	프로그램 홍보 KIT					●	●				
진행	교육생 모집 및 수강 안내						●				

	교육 프로그램(강의, 실습, 현장 견학, 멘토링) 진행						●	●	
	교육생 관리						●	●	●
평가	교육생 대상 피드백 및 만족도							●	
	워킹그룹 대상 피드백 및 만족도							●	
	프로그램 개선 및 발전방안 도출							●	
보고	프로그램 진행 데이터 아카이빙							●	●
	결과보고 진행								●

#### 4. 연구 수행 체계

[그림 2] 연구 추진 체계도



### 제3절 연구 기대효과

- **미술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과제 탐색:** 국내 미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작가·작품의 장르, 매체, 주제, 세대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출발점으로 삼아 미술 아카이빙의 실천 전략을 도출하고, ‘미술 아키비스트’의 전문성과 역할의 방향성을 재정의함. 나아가 한국 동시대 미술의 기록·보존에 대한 구조적 특징과 미술 아카이브를 둘러싼 작금의 과제를 탐색함.
- **미술 아카이빙 환경의 활성화 및 영향력 확대:** ‘미술 아키비스트’ 직군 양성의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을 도출하고, 국내 미술계 내 아카이빙 문화와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며, 미술 아카이브 기관을 포함하여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미술관·저널·작가 스튜디오 등 다양한 주체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미술 아카이브의 전문지식과 방법론을 모색함.
- **실무자 중심 커리큘럼 개발 및 산업 경쟁력 탐색:**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기관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미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국내 미술 아카이빙 분야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함.
- **현장 연계형 교육 운영을 통한 실질적 역량 강화:** 미술 아카이브 및 기록학 실무자 중심의 강사풀 운영과 사례 실습, 기관 견학,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현장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함.
- **제도 및 정책 연계 기반 마련:** 사전 연구와 시범 운영 성과를 종합하여, 아키비스트 관련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정규 교육과정 개발 및 자격 제도 도입에 대한 실질적 검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제2장

---

### 미술 아키비스트 환경 분석

## 제1절 국내 선행연구 및 전문인력 운영 현황

### 1. 조사 목적 및 범위

- 본 절은 국내 미술 아카이브 분야의 선행연구와 전문인력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미술 아카이브 개념과 실천이 어떠한 경로로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전문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요구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부터 실제적 운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담론과 실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미술 아카이스트’라는 전문인력 범주가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운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우선 미술 아카이브 관련 선행연구를 시기별 주요 연구 주제와 쟁점을 비교하며 기관 및 현장 사례의 양상을 분석함. 미술 아카이브 개념의 도입과 기록관리학 기반의 논의 확장,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변화 양상과 함께 동시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아카이브 개념이 예술 담론과 교차하며 확장된 양상도 살펴보고자 함.
- 국내 미술 분야에서 ‘미술 아카이스트’가 독립된 전문 직무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아카이브를 다루는 국내 주요 미술관 및 아카이브 기관을 대상으로 삼아 조직 구조와 인력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전문인력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주요 기관으로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공립 미술관과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아르코예술기록원,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같은 공공 기관, 리움미술관과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같은 민간 기반의 아카이브 기관 등을 포함함.
- 최근 채용 공고에 기재된 담당 업무 및 자격 요건, 우대 조건 등을 분석하여 기관별 미술 아카이브 관련 직무의 범위와 구조를 살펴보고 이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요구 조건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절에서 ‘미술 아카이스트’는 미술 아카이브의 수집 및 분류, 정리, 기술, 보존,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설정함.

### 2. 미술 아카이브 관련 선행연구

#### 가. 시기별 연구 변화 과정

##### ■ 탐색기(2000~2009)

- 국내에서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인 2000년, 김기현은 석사학위논문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를 통해 국내 아트 아카이브 도입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음.<sup>1</sup> 국립현대미술관과 일부 사립미술관의 도서자료실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전문 아카이브로 기능하기에는 구조적·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미술자료 보존과 활용에 체계적인

<sup>1</sup> 김기현,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0. 이 논문에는 해외 주요 미술기관의 사례를 제시해 국제적 기준과의 격차 해소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한국에서도 미술기록 보존 및 활용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촉구함. 특히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기록관리 체계 확장 속에서 미술 아카이브 제도화 가능성을 논의함.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후 기록학 전공에서는 2006년 명지대학교의 정명주가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했음.<sup>2</sup>

- 이 시기 미술 현장에서 아카이브의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구열 컬렉션을 기반으로 1999년 설립된 리움미술관의 한국미술기록보존소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했던 미술인 구술사 채록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의 개소와 2002년 미술정보포털 달진닷컴의 오픈 등 민간 영역에서의 사례가 등장함.
-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준비를 앞두고 기초/타당성 연구 단계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방안으로서 아카이브가 강조되기 시작함.<sup>3</sup>

### ■ 도입기(2010~2019년)

- 본격적으로 국내 미술기관의 공공적 측면에서의 아카이브 논의가 진행되면서, 김달진(2012)과 같은 미술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아카이빙 작업을 해온 전문가들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됨.<sup>4</sup>
- 특히 백남준 자료 연구에 중점을 둔 백남준아트센터의 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문화정보원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아카이브 시스템이 등장하였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연구센터도 개원하면서 김인혜(2012)의 연구<sup>5</sup>처럼 학예사로부터 어떻게 기관을 운영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학술과 실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됨.
- 이후 기관의 전반적인 아젠다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서 보다 실질적인 문제들을 기록관리학의 전문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사례들이 급격하게 확대됨.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연구센터 초기부터 근무했던 이지은(2015)은 기록관리학 전공의 석사학위논문으로 국제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기록물 기술규칙(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ISAD(G))2판의 기술영역과 요소를 기준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한국의 기술규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에 적용 가능한 기술요소를 제안함.<sup>6</sup>
- 한편 이 시기 미술 아카이브 논의와는 별개로 동시대 미술의 주요한 흐름으로서 ‘아카이브 아트’를 방법론 삼는 미술가들의 제작 방식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를 전시의 주제 또는 접근법으로 삼는 경우도 두드러졌음. 이에

<sup>2</sup> 정명주,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6. 이후 명지대학교에서는 현재까지도 미술 아카이브 관련 석박사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sup>3</sup> 김판구(책임), 류시천, 나종희, 이민창, 최준호, 백선경, 『사이버아시아문화전당 개발방안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2007.

<sup>4</sup> 김달진, 「한국 미술아카이브의 분포 상황 및 수집 여건과 과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집, 2012.

<sup>5</sup>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 운영 구상: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아카이브 운영구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호, 2012.

<sup>6</sup> 이지은,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5, pp 7~8.

대한 현장 비평은 물론 이경래(2020)<sup>7</sup>, 박장호, 크리스 로(2020)<sup>8</sup>, 이혜린(2021)<sup>9</sup>, 김연희(2023)<sup>10</sup>,  
지가은(2024)<sup>11</sup> 등의 연구 논문도 다수 발표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표 1] 미술 아카이브 학술 연구 현황 – 시기별 비교분석 (2000~2019)

구분	탐색기 (2000~2009)	도입기 (2010~2019)
주요 연구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아카이브 개념 국내 도입 첫 연구 논문 등장 (김기현, 2000)</li> <li>- 기록관리학 중심으로 개념 재정립- 국내 미술아카이브 설립 사례 연구(김철효, 2009)<sup>1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미술기관 중심으로 운영·정책 연구 본격화</li> <li>- 미술관 기관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례 연구 (이호신, 2018)<sup>13</sup></li> </ul>
주요 기관 및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움 한국미술기록보존소(1999) 설립</li> <li>- 미술인 구술사 채록 사업(2000~2007)</li> <li>- 김달진미술연구소(2001), 달진닷컴(20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백남준아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공공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개시</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정립과 필요성 강조</li> <li>- 해외 사례 소개 및 제도화 가능성 논의</li> <li>- 제도적·이론적 기반 부족, 민간 중심 시도 활발</li> <li>- 공공 차원의 정책 논의는 초기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중심의 제도화·전문화 진전</li> <li>- 미술 아카이브 운영·정책 실무 연구 확대</li> <li>- 아카이브 개념이 예술 제작(아카이브 아트)과 융합되며 확장</li> </ul>

## 나. 미술 전문 인력 변화 과정

### ■ 공립 미술관의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본격화

- 2024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개관으로 기존의 미술관 내 운영 부서가 아닌,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서 미술 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됨. 컬렉션 중심의 연구, 독립된 프로그램이 가시화됨으로써 국내 미술 아카이브의 흐름에서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
- 그 밖의 공립 미술관 역시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이 지역 미술관의 기록유산 보존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적 단계이자 실질적 조치로서

<sup>7</sup> 이경래, 「‘아카이브 아트(archival art)’의 동시대 기록학적 함의 연구」, 『기록학연구』, 64호, 2020.

<sup>8</sup> 박장호, 크리스 로, 「슬기와 민 – 페리지 060421~170513’ 전시의 탈근대적 아카이브 특징에 대한 연구」, 『전시디자인연구』, 33권, 2020.

<sup>9</sup> 이혜린, 『아카이브와 현대미술– 기록 생산과 수집기록물을 활용한 미술작품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21.

<sup>10</sup> 김연희, 『자크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과 ‘포스트 인터넷’ 아카이브 이미지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흥익대학교, 2023.

<sup>11</sup> 지가은, 「아카이브 기억의 재현 불가능성과 미래적 픽션의 재구성 김아영과 린제이 시어스 작품 연구」, 『현대미술사연구』, 55집, 2024.

<sup>12</sup> 김철효, 「국내 미술아카이브Art Archives 설립 시도 사례」, 『조형 아카이브』, 1권, 2009 .

<sup>13</sup> 이호신, 「미술관 기관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례연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권 4호, 2018.

마련됨. 해당 사업은 2019년 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주도 아래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체계적 관리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대전시립미술관의 시범 운영을 계기로 매년 확대 추진되고 있음.

### ■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논의 활성화

- 국립현대미술관을 위시하여, 공립 미술관에 아카이브가 도입되면서 아카이브 업무를 맡을 전문인력의 충원과 함께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또한 민간 영역의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아카이브 기관에서 시민 또는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진행됨.
- 그러나 기록학 분야에서 2000년부터 기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 성과들에 비해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직무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이지은(2024)이 유일하게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에 대해 연구하였음.<sup>14</sup>
- 이지은은 미술 아카이비스트는 자료 관리자 이상으로 예술가의 협업자이자, 예술 작품의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해석하는 주체로 정의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카이비스트의 직무, 자격요건, 역량 기준 등을 정리함. 또한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인력의 역할과 양성 방안을 규명하고, 미술관 실무자 및 기록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적합한 근거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함.
- 그 밖에 국내 미술 아카이브 현장은 인력과 예산 부족 및 제도 미비, 단기 프로젝트 중심 운영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많은 기관에서 비정규직이나 비전문가가 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명함. 이에 따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교육 체계와 직렬 및 직책 관련 제도 정립의 시급성이 강조됨.<sup>15</sup>

### ■ 미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고도화 요구

- 미술 전문 아카이비스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한편, 보다 넓은 범위의 미술분야 측면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제3차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연구』(2023)<sup>16</sup>나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2024)<sup>17</sup> 등과 같은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들의 큰 범주와 방향성은 다소간 차이를 보임. 특히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인적자원 관리 방안 연구』(2024)<sup>18</sup>는 전문인력에서 아카이비스트의 역할도 그 중 하나로 중요성을 조명하고 있음. 또한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sup>14</sup> 이지은,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권 1호, 2024.pp.10-12.

<sup>15</sup> 이지은, ibid, pp.25-26.

<sup>16</sup> 『제3차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3

<sup>17</sup>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2024.

<sup>18</sup>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인적자원 관리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고용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직무 체계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격 인증 등의 필요성 강조하고 있음.<sup>19</sup>

- 전문인력 중 아키비스트는 기관 내에서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기록을 관통하는 맥락을 발견하는 주체로서 새롭게 부각. 그러나 현재 미술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은 요구되면서도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제시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보고서들의 일부 내용에서는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함.<sup>20</sup>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2019)<sup>21</sup>의 종료 시기가 도래했으므로, 향후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틀에서 미술 아키비스트에 인력 양성 방안의 제도화 실행이 요구됨.

### ■ 학예사 및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제도와의 비교

- 전문인력의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진 학예사(큐레이터) 자격 인증제도는 1999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2000년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시험 및 경력 인증 방식으로 운영 되었으며, 이후 최근에는 실효성에 대한 재고, 전문성 강화 등을 목표로 개선안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또한 인접한 전문인력 정책으로서 미술 감정 분야에서 관련 논의가 2006년을 전후하여 추진되기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법제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진행 중임.
- 가장 최근 연구로는 20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모델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있으며, 국내 시가감정 관련 정책과 제도의 현황을 폭넓게 정리하고, 해외 유수의 감정 기관들의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국내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확보를 촉구함.<sup>22</sup>
- 교육과 실무가 분리되지 않고 효율적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현장에 적합한 시가감정 직무역량에 따른 교과목 체계 및 커리큘럼, 단계별 교육 모델을 다채롭게 제시함. 이후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25년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초급/중급으로 나누어 운영하였음.<sup>23</sup>

<sup>19</sup> 김현경, 이경진,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인적자원 관리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p.232.

<sup>20</sup> 김혜인, 김현경, 변지혜, 『제3차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3. pp.153~155.

<sup>21</sup>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문화체육관광부, 2019.

<sup>22</sup> 한국화랑협회(책임연구: 기혜경),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모델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pp. 267-268.

<sup>23</sup>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급과정 수강생 모집 요강.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4181&page=1&txtKeyword=&ddlKeyfield=T](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4181&page=1&txtKeyword=&ddlKeyfield=T) (2025.12.13. 접속)

### 3.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운영

#### 가. 기관별 아카이브 조직 구조 및 전문인력 운영 체계 분석

##### 1)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 ■ 조직구성

- 서울시립미술관의 아카이브 기능은 학예연구부 산하의 미술아카이브과가 전담함.
- 미술아카이브과는 전시·교육·국제교류·수집연구 기능을 포함하는 학예연구부 내부에서 독립된 과 단위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미술관에서 생산·취득되는 기록물과 컬렉션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서비스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를 갖춤.

[그림 3] 서울시립미술관 조직도<sup>24</sup>



###### ■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 계약 형태와 직무 분야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규직은 학예 1명과 기록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제 학예 5명, 기간제 인력(학예 3명, 기록 2명), 매력일자리 학예 3명으로 운영됨. 이와 같이 학예·기록·운영 인력이 혼합된 구조를 통해 기록 정리, 데이터 구축, 전시 지원, 열람 서비스 등 아카이브 운영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sup>25</sup>

###### ① 학예 분야

- 학예연구관은 조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운영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음. 이들의 업무는 미술아카이브과의 책임자로서 아카이브 운영의 정책적 결정과 주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업무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기간제 코디네이터는 예술자료의 수집 과정에 참여하여 전시 및 연구·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홍보 콘텐츠 운영, 국제교류와 전시 평가 관련 업무 등 실무를 지원함.

<sup>24</sup> 서울시립미술관 <https://sema.seoul.go.kr/kr/sema/landing#orgArea> (2025. 12. 5 접속)

<sup>25</sup>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아카이브과 업무분장표 2025.3.4일자 참고, <https://sema.seoul.go.kr/kr/sema/landing#org3-6area> (2025. 12. 5 접속)

- 매력일자리 코디네이터는 도서자료 중심의 자료 수집·정리 지원,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운영, 상설전 및 기획전 지원, 도슨트 운영 등 교육·전시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함.

## ② 기록 분야

- 기록연구사는 아카이브 관련 정책, 규정, 지침의 수립과 운영을 담당하며, 자료 관리·출납과 보존서고 운영, 열람 공간 운영을 통해 자료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유지함. 또한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아트아카이브 DB 구축, 자료 정리기술 수행 등 기술 기반의 기록 업무를 전담함.
- 기간제 연구원은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 인력으로서 보존서고 운영, 보존관리, 정책, 규정 운영 보조,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기관 자료 정리 및 DB 구축 보조 등 실질적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참여함. 아울러 리서치랩 운영, 자료 수집, 정리·해제 지원을 수행하며,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과 연구 기반 서비스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음.

## ■ 최근 채용 현황

- 서울시립미술관의 최근 채용 공고는 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학예 업무보조(계약직), 기록물관리 업무보조(계약직), 서울형 매력일자리 전시 큐레이터 등 총 네 유형으로 구분되며, 전시·학예·기록관리·교육·운영 등 아카이브 관련 직무 전반을 포괄함.
- **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아카이브 기반 콘텐츠 기획과 자료 조사·연구를 포괄하는 다기능 학예직
- **학예 업무보조:** 학예 실무 비중이 높으며, 아카이브 기반 기획·운영 역량을 실무 현장 지원
- **기록물관리 업무보조:** 기록관리학 기반의 전문 실무직으로, 아카이브 기술 업무 지원
- **서울형 매력일자리 전시 큐레이터:** 학예 실무 경험 축적을 목표로 한 단기 프로그램 기반 학예직으로, 미술아카이브 운영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

[표 2]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채용공고 최근 현황

분야/직급	담당 업무	필수조건	우대조건	고용 형태	고용 기간	공고 일시
임기제지방 학예연구사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아카이브 콘텐츠 기획·운영</li> <li>○ 미술관 및 아카이브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자료 조사 및 수집·연구</li> <li>○ 기타 미술관 학예 관련 업무</li> </ul>	①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공·사립 미술관 전시기획, 미술교육, (미술아카이브 등)자료조사	○ 공인 외국어능력(영어) 성적	계약직	2년 (연장 가능)	2024. 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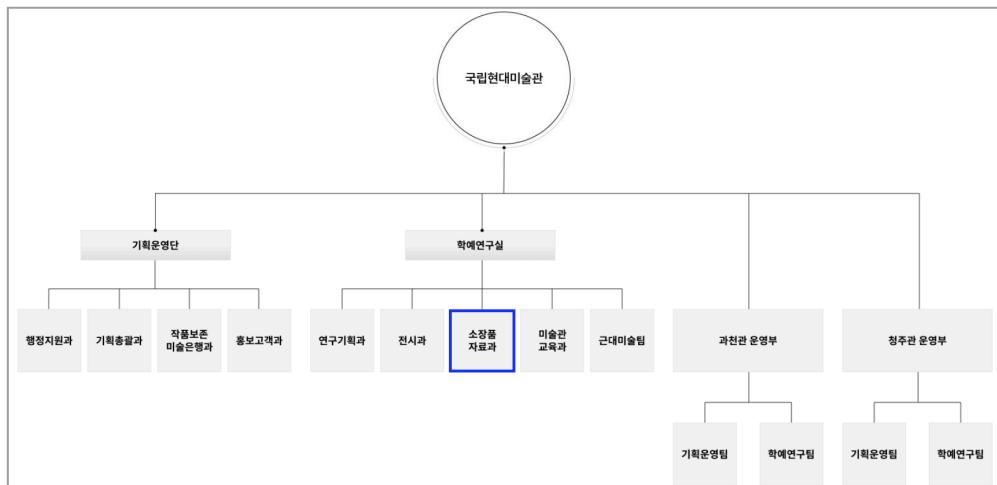
		• 수집 및 연구, 기타 학예업무 등 미술분야 경력				
학예 업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트아카이브 수집 업무 보조</li> <li>○ 프로그램(연구, 전시, 교육, 공공) 기획, 추진 및 운영 업무보조</li> <li>○ 각종위원회 운영업무 지원</li> <li>○ 기타 학예 업무보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학과 전공자 미술사, 미학, 미술이론, 예술학, 예술기획, 예술경영, 큐레이터학 등 관련학과 졸업(예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분야 관련 업무 경력자 경력기준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우대사항 : 현대미술·시각예술(건축, 디자인) 분야 콘텐츠 기획 및 출판 현대미술 아카이브 기획 수집 및 관리 업무 국·공립 또는 등록미술관 전시, 교육, 연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련 업무경력 등</li> <li>○ 외국어 활용 가능자 우대</li> <li>○ 국가유공자 우대</li> </ul>	계약직	11개월	2025.01.01
기록물관리 업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트아카이브 등록·분류·정리 업무 지원</li> <li>○ 아트아카이브 보존서고, 대여, 열람(리서치랩운영) 지원</li> <li>○ 아트아카이브 관련 정책(규정, 매뉴얼) 운영 지원</li> <li>○ 아트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li> <li>○ 기타 아카이브 업무 보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학과 전공자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학과 졸업(예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분야 관련 업무 경력자 경력기준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우대사항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증빙서류 제출) 공공 및 민간기록물/문화자원 연구·수집·정리·DB 관리 업무 박물관 및 미술관 아카이브 기획·구축·수집·관리 업무 현대미술 아카이브 연구·수집·정리·DB 관리 업무</li> <li>○ 외국어 활용 가능자 우대</li> <li>○ 국가유공자 우대</li> </ul>	계약직	11개월	2025.01.01
서울형 매력일자리 전시 큐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기획창작 지원</li> <li>○ 도슨트 및 전시장 관리 지원</li> <li>○ 교육사업 운영</li> <li>○ 소장작품 관리 및 학술연구 업무</li> <li>○ 기타 서울시립미술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 미술 또는 미술학(미술사, 미학, 예술학, 큐레이터학 등) 관련 4년제 학사 학위 소지 또는 석사 수료 이상</li> </ul>	없음	계약직	약 4개월 (연장 가능)	2025.07.09

## 2) 국립현대미술관

### ■ 조직구성

-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 기능은 학예연구실 산하의 소장품자료과가 전담함.
- 소장품자료과는 연구기획과, 전시과, 미술관교육과, 근대미술팀과 함께 학예연구실 내부에 배치된 하위 부서로, 소장품의 등록·관리·보존과 더불어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연계하는 핵심 조직으로 기능함.

[그림 4]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sup>26</sup>



### ■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 소장품 관리, 수집·조사연구, 기록 정리 및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등 미술관의 핵심 연구·자료 기능을 수행하며, 학예직·공무직·기간제 인력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소장품 관리

- 학예연구관은 소장품자료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수증 및 조사연구 업무를 관리함.
- 학예연구사는 연간 작품수집 계획 수립, 관련 제도 정비, 수집 위원회 운영, 소장품 및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등 수집·관리 전반의 전문 업무를 맡음.
- 공무직은 소장품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 소장품 수집·활용 지원, 부서 내 학예 보조 업무 등 실무 기반의 연구 보조 역할을 수행함.
- 기간제 근로자는 소장품 조사연구, 전수조사 및 반출입 지원,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소장품 등록 및 정보 연구 등 소장품 관리의 실질적 실무를 담당함.

#### ② 아카이브 관리

- 학예연구사는 소장품 및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등 수집·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아카이브 기반 콘텐츠 구축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자료 표준화 및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을 운영함.
- 공무직(사서·기록물정리원)은 수집기록의 정리·기술·보관 및 출납, 아카이브 컬렉션의 정리·기술, 미술연구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함.

<sup>26</sup>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about/organization.do> (2025. 12. 5 접속)

- 기간제 근로자는 미술관기록의 수집·정리·기술,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기록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수집기록 보관 및 출납, 아카이브 정리·기술 업무 등을 수행하며, 미술연구센터 운영 지원 업무에도 참여함. 또는 현대미술가파일의 수집·정리·기술과 디지털정보실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 기반의 자료 구축 및 제공 기능을 수행함.

### ■ 최근 채용 현황

- 미술관기록, 아카이브 컬렉션, 건축 아카이브 등 분야별 정리·기술 인력을 충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공무직과 계약직을 통해 기록 정리·보관·출납, 미디어아트 및 건축 아카이브 정리,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지원 등 아카이브 실무를 담당함.
- 각 공고는 담당 컬렉션과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전공지식과 정리·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표 3]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분야/직급	담당 업무	필수조건	우대조건	고용 형태	고용 기간	공고 일시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기록(일반) 정리, 기술, 보관, 출납 등</li> <li>○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컬렉션 정리, 기술</li> <li>○ 미술연구센터 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분야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li> <li>○ 미술이론, 기록관리학 관련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이론에는 미술사학, 미학, 예술학, 큐레이터학, 박물관학을 포함</li> <li>* 미술교육학, 미술경영학 등은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아카이브 수집, 정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li> <li>○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li> <li>○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li> <li>○ 어학성적(영어) 우수자</li> </ul>	공무직	-	2024. 10.21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기록(건축) 정리, 기술, 보관, 출납 등</li> <li>○ 우규승, 조성룡, 건미준 등 아카이브 정리, 기술</li> <li>○ 미술연구센터 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분야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li> <li>○ 건축학, 미술이론, 기록관리학 관련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학에는 건축, 건축이론, 건축역사 등을 포함</li> <li>* 미술이론에는 미술사학, 미학, 예술학, 큐레이터학, 박물관학을 포함</li> <li>* 미술교육학, 미술경영학 등은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미술 아카이브 수집, 정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li> <li>○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li> <li>○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li> <li>○ 어학성적(영어) 우수자</li> </ul>	계약직	1년	2025. 0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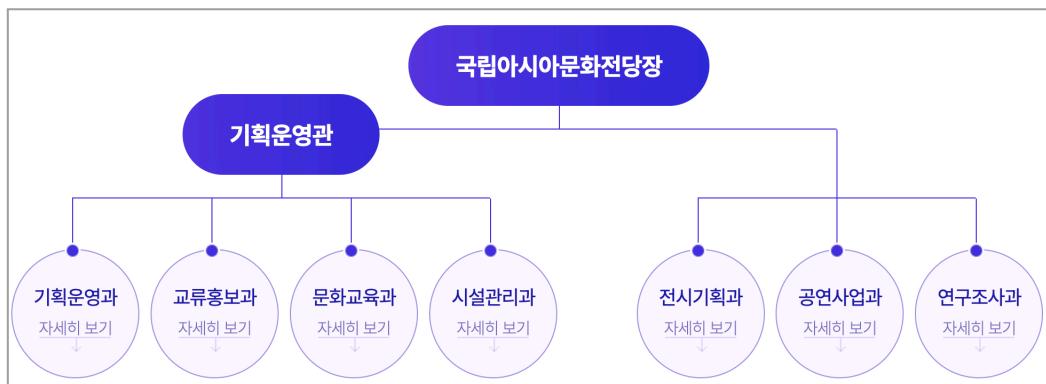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기록 수집·정리·기술</li> <li>○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지원</li> <li>○ 미술관기록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분야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li> <li>○ 미술이론, 기록관리학 관련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이론에는 미술사학, 미학, 예술학, 큐레이터학, 박물관학을 포함</li> <li>* 미술교육학, 미술경영학 등은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아카이브 수집, 정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li> <li>○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li> <li>○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li> <li>○ 어학성적(영어) 우수자</li> </ul>	계약직	약 7개월	2024. 12.18
-------------	---	---	--	-----	-------	-------------

###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조직구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카이브 기능은 전당장 직속의 조직 아래 위치한 연구조사과에서 전담함.
- 연구·콘텐츠 생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특징임.

[표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도<sup>27</sup>



#### ■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카이브 및 자료 관리 업무는 연구조사·소장품/아카이브 관리·도서관 운영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연구 기반 콘텐츠 생산과 자료 축적, 관리·서비스가 통합된 구조로 운영됨.

##### ① 연구조사

- 아시아문화 관련 연구조사 계획의 수립·추진을 비롯해 연구 성과 확산, 학술 프로그램 운영, 연구자 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함.
- 아시아문화 관련 조사·연구 자료의 발간·배포, 자료 수집(구입·수증·수탁)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며, 아시아문화 콘텐츠 생산의 기초가 되는 지식 기반을 마련함.

##### ② 소장품/아카이브 관리

-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소장자료(소장품·아카이브)의 등록·보존·출납 및 수장고 운영, 전시 기획·운영을 담당함.

<sup>27</sup>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acc.go.kr/main/organization.do?PID=080401> (2025. 12. 5 접속)

- 수집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전시·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박물관형 아카이브 운영 체계를 통해 자료 축적과 활용을 병행함.

### ③ 도서관 운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의 자료 수집·등록·정리·서비스뿐 아니라 제작·폐기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 자료 운영을 담당함.
- 도서관 및 박물관 콘텐츠 개발, 공간 운영,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관의 지식·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 최근 채용 현황

- 아카이브 관리 업무를 공무직 형태로 채용하며, 아카이브 등록, 활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특별열람실 운영, 열람 지원 등 기록·자료 기반의 실무를 담당함.

[표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분야/ 직급	담당 업무	필수조건	우대조건	고용 형태	고용 기간	공고 일시
사무원 (아카 이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카이브 등록</li> <li>○ 아카이브 활용</li> <li>○ 특별열람실 운영</li> <li>○ 아카이브 열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학과* 학사 학위(4년제)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보유자  * 사학, 민속학, 인류학,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미술사학, 박물관학, 문화예술학 관련 전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업무 근무경력  * 관련분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아카이브 자료 관련 업무 경력(인턴 제외)</li> <li>○ 관련분야 자격증 ※ 중복의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관련분야 자격증: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정사서 1~2급</li> <li>○ 컴퓨터 관련 자격증</li> <li>○ 외국어 우수자</li> </ul>	공무직	-	2025. 05.28

##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아르코예술기록원

### ■ 조직구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카이브 기능은 문화기반본부 산하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 전담함.
- 시각·공연·무용·음악 등 분야별 예술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디지털 기반 아카이브를 운영하여 국가  
문화예술 자료의 저장소로 기능함.
- 또한 위원회가 수행하는 문화예술 지원·교육·연구 기능과 연계된 자료 수집·정리·보존·서비스를 담당함.

[그림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sup>28</sup>



## ■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일반직·일반직Ⅱ·계약직·파견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총 32명이 근무함. 이 중 정규직(일반직·일반직Ⅱ) 15명, 계약직 3명, 파견직 14명이 배치되어 있음.
- 분야별 수집·등록·서비스, 구술채록 및 사업운영, 디지털·정보화 관리, 열람서비스 및 교육·홍보의 네 개 영역으로 나뉘며, 각 직군이 역할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수행함.

### ① 분야 수집·등록·서비스

- 일반직·일반직Ⅱ·계약직은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공연예술 등 장르별 예술기록의 수집·등록·서비스를 담당하며,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의 기획·운영과 소장 컬렉션의 연구·활용을 수행함.
- 파견직은 각 분야의 수집·등록·서비스 실무와 구술채록사업 운영, 연구·활용 업무를 지원함.

### ② 사업운영

- 일반직 선임은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사업과 공연영상화 사업을 총괄하고, 대내외 협력 및 관계 구축, 예술기록물관리전문인력지원 사업을 관리함.
- 파견직은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사업 및 공연영상화 사업의 실무 운영을 지원함.

### ③ 디지털 및 정보화 관리

- 일반직 선임은 디지털 정책 개발, 운영시스템 구축·관리, 디지털화 기획·관리, 통계·데이터 관리, 아날로그 매체 전환 운영 등을 총괄함.
- 일반직·일반직Ⅱ는 운영시스템·DB 통합관리, DA-Arts 콘텐츠 기획·관리, 데이터 연계, 특수자료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담당함.
- 파견직은 DA-Arts 콘텐츠 운영·검수, 디지털 메타데이터 표준화, 파일·스토리지 관리 등 디지털 기반 실무를 지원함.

<sup>28</sup>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getStaffList.do> (2025. 12. 5 접속)

#### ④ 열람서비스 및 교육·홍보

- 일반직 선임은 열람실 운영·이용자 서비스 총괄, 시설·자산관리, 기획열람 서비스, 민원 대응을 담당함.
- 일반직·일반직 II는 열람서비스 제공, 일반자료 구입·등록·제작 관리, 예술기록관리 교육과정 개발·운영, 누리집 모니터링, 이용자 통계·고객만족경영 업무를 수행함.
- 파견직은 콘텐츠 기획·홍보, 교육 운영관리, 현장실습생 운영 등 서비스·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함.

#### ■ 최근 채용 현황

- 시각예술 분야 학예직과 예술기록물관리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며, 소장기록 조사·정리·기술·서비스, 기획컬렉션 구축, 구술채록사업 운영, 기록물 등록·열람지원 등 기록관리 전반을 담당함.
- 학예직은 육아휴직 대체로 한시적 계약직 형태로 공고되었으며, 예술기록물관리전문인력은 파견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임.

[표 5] 아르코예술기록원 채용공고 최근 현황

분야/직급	담당 업무	필수조건	우대조건	고용 형태	고용 기간	공고 일시
학예(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수행하는 기록관리 및 활용업무 (시각예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기록 현황조사 및 분석</li> <li>- 기획컬렉션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선별 및 평가, 수증</li> <li>- 소장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기술, 조직화</li> <li>- 소장기록물의 서비스 및 활용기획</li> <li>○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의 기획과 운영(시각예술 분야)</li> <li>○ 기타 사무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행정, 예산집행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시각 분야 관련학과 석사(수료 포함) 이상 학위 소지자</li> <li>②예술기록관리 관련 업무 경력자</li> </ul>	없음	계약직	약 1년 2개월	2025. 08.11
예술기록물 관리전문인력(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기록물 정리 지원</li> <li>○ 예술기록물 등록 지원</li> <li>○ 기록물 열람이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li> <li>○ 시각예술분야 미술사 또는 예술이론 관련분야 전공 (석사이상)</li> <li>○ 기관 및 단체 등 유관업무 경력 3년 이상 (전일근무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리학 (또는 문헌정보학) 종복학위 소지자</li> <li>○ 예술기록관리 실무 및 연구 경력 보유자</li> <li>○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경력 보유자</li> <li>○ 외국어 (영어, 한자 등) 가능자</li> </ul>	파견직	약 10개월 (연장 가능)	2025. 02.11

## 5) 대전시립미술관

### ■ 조직구성

- 대전시립미술관의 아카이브 관련 기능은 학예연구과 내부에서 수행됨. 별도의 아카이브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학예 부서가 기록관리·자료 축적·콘텐츠 생산을 포괄하는 방식이 특징임.

[그림 7] 대전시립미술관 조직도<sup>29</sup>



### ■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 아카이브 업무는 학예연구과의 전시·수집·보존 기능 속에 내재된 형태로 운영되며, 별도의 전담 인력을 두기보다 학예 인력이 기록관리와 자료 축적 업무를 겸임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임.

### ■ 채용 형태 및 최근 채용 현황

- 대부분 단기 계약직 형태로 총원되며, 기록관리·자료실 운영·전시 지원 등 학예 업무 전반을 보조하는 구조를 보임.
- 최근 채용은 학예보조원(기록물관리자), 휴직자 대체 학예보조원, 실무연수생(인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미술 아카이브 사업, 자료실 운영, 소장품·아카이브 자료 관리, 전시 및 교육·홍보 지원 등 기록·자료 업무와 학예 실무를 병행하는 형태가 특징임.

[표 6] 대전시립미술관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분야/직급	담당 업무	필수조건	우대조건	고용 형태	고용 기간	공고 일시
학예보조원 (기록물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전미술 아카이브 사업 업무<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술관 자료 보유현황 파악 및 분류·목록화·기술 작업 등</li><li>-자료 매체별 보관·라벨링 작업 등</li><li>-대전미술사 사료집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업무 보조 등</li><li>○ 미술자료실 업무전반</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련전공자(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미술사학, 예술학 등) 관련 학사 혹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li></ul>	없음	계약직	8개월	2025. 01.24

<sup>29</sup> 대전시립미술관 <https://www.daejeon.go.kr/dma/dmaStaffList.do?menuSeq=6068> (2025. 12. 5 접속)

	<p>-도서 수집·출납(도서관리시스템 운영)·분류·정리 업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업무 지원</li> </ul> <p>-관련 전시 업무 지원</p> <p>-기타 대전미술 아카이브 및 미술자료실 관련 협안업무 지원</p>				
학예보조원 (휴직자대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아카이브 사업 및 자료실 업무 전반 지원</li> <li>○ 전시 및 교육홍보 제반 업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분야(미술사·미술관·박물관학·미술교육·기록관리학·문화정보학·문화콘텐츠학) 관련 학사 혹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아카이브 사업 및 자료실 업무 전반 지원</li> <li>○ 전시 및 교육홍보 제반 업무 지원</li> </ul>	계약직	<p>약 7개월</p> <p>2025. 07.22</p>
실무연수생 (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전시 및 교육 지원</li> <li>○ 소장품 및 아카이브 자료 관리 지원</li> <li>○ 문화행사 운영 및 보도자료 관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대학 문화예술 관련학과(미술사학, 미술교육,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 등) 졸업자 (예정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 우대</li> </ul>	계약직	<p>약 6개월</p> <p>2024. 12.23</p>

## 6)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 ■ 조직구성

-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의 아카이브 관련 기능은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학예연구팀 내에서 수행함.

[그림 8]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조직도<sup>30</sup>



### ■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 학예연구팀은 팀장, 학예연구사, 주무관, 기간제 근로자, 학예사 인턴 등으로 구성되며, 전시 기획·소장품 수집·보존·연구·대외협력·자료실 운영 등 핵심 학예 기능을 폭넓게 담당하는 구조를 가짐.

<sup>30</sup>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https://www.jma.go.kr/web/page.php?pcodes=EB0102> (2025. 12. 5 접속)

- 학예연구사는 소장품 DB 구축과 자료 정리·기술, 기획전 아카이브 자료 조사 및 도록 제작, 전북미술사 연구 시리즈 기획 등 아카이브 관련 업무를 학예 기능과 병행하며 수행함.
- 기간제 근로자와 학예사 인턴은 전시 진행, 자료 목록화, 아카이브 지원, 자료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학예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 ■ 최근 채용 현황

- 최근 채용은 모두 계약직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유형은 지방학예연구사(6급 상당), 지방시간선택제(6급 상당), 단기 학예연구 계약직으로 구분됨.
- 아카이브 관련 직무는 독립된 기록관리 전담 직위를 두기보다 전시·연구 중심의 학예직을 기반으로 충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실제 업무에서도 학예연구사가 아카이브 조사·정리·연구·전시 기획을 함께 수행함.

[표 7]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분야/직급	담당 업무	필수조건	우대조건	고용 형태	고용 기간	공고 일시
학예연구 (아카이브) /지방학예 연구사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근현대미술사 연구 및 전시</li> <li>- 전북근현대미술사 관련 전시기획 및 해외교류 등</li> <li>- 전북근현대미술사 조사연구 및 학술행사 기획 추진 운영</li> <li>○ 소장품 및 아카이브 수집·조사·연구</li> <li>- 소장품 수집 관리 및 조사 연구</li> <li>- 전북미술사 아카이브 수집·조사·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li> <li>○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근현대미술 전시기획 및 연구) 국·공·사립미술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전시기획 및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사, 미학, 미술이론, 철학, 인문학 중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논문으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li> <li>○ 관련분야 논문 및 저서 등 직무 관련 연구 실적</li> </ul>	계약직	2년 (연장 가능)	2025. 06.10
학예연구 (아카이브) /지방시간 선택제 (6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근현대미술사 아카이브 수집 및 연구</li> <li>○ 전북근현대미술사 학술행사 기획 추진 운영</li> <li>○ 전북근현대미술사 관련 전시기획 및 해외 교류</li> <li>○ 소장품 및 아카이브 수집·조사·연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li> <li>○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사, 미학, 미술이론, 철학, 인문학 중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li> <li>○ 관련분야 논문 및 저서 등 직무 관련 연구 실적</li> <li>○ 일본어 능통자</li> </ul>	계약직	2년 (주35 시간, 연장 가능)	2025. 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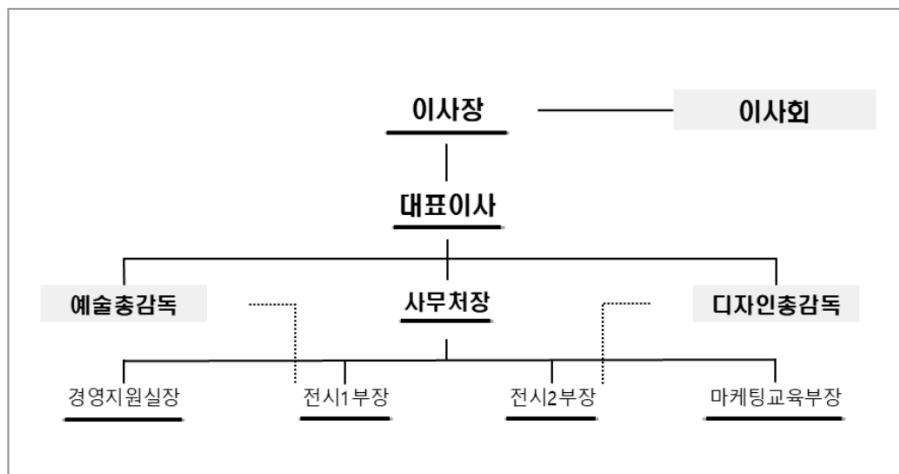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공·사립미술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연구 및 전시기획			
학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립미술관 기획전시 운영 지원</li> <li>○ 도립미술관 아카이브 자료 연구 및 관련 전시기획</li> <li>○ 도립미술관 아카이브도록 편찬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근현대미술사 전공자</li> <li>○ 국·공립미술관 전시기획 및 아카이브 관련 직무 경험자</li> </ul>	계약직	9개월 2025. 01.06

## 7) 광주비엔날레

### ■ 조직구성

- 아카이브 전담 부서는 없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AI라키비움)은 교육행사팀에서 담당하는 구조임.

[그림 9] 광주비엔날레 조직도<sup>31</sup>



### ■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 AI라키비움 구축, 자료실 운영, 재단 생산자료 분류 등 디지털·기록 기반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기관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 ■ 채용 형태 및 최근 채용 현황

- 광주비엔날레의 아카이브 관련 채용은 모두 단기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AI라키비움 구축·운영을 중심으로 한 사업 기반 인력 충원이 특징임.<sup>32</sup>

<sup>31</sup> 광주비엔날레 <https://www.gwangjubiennale.org/gb/foundation/organization.do> (2025. 12. 5 접속)

<sup>32</sup> 광주비엔날레 AI라키비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2025-04-21) 참고. <https://www.g2b.go.kr/> (2025. 12. 5 접속)

- 최근 채용은 AI라키비움 사업 지원 및 관리, 기록관리시스템·웹사이트 구축 용역 발주·품질관리, DB 구축, 국고보조금(e나라도움) 관리, 연계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직군으로 구성됨.
- 전담 아카이비스트를 두기보다 프로젝트 기반 기간제 인력을 통해 AI라키비움 사업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는 구조를 보임.

[표 8]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분야/직급	담당 업무	필수조건	우대조건	고용 형태	고용 기간	공고 일시
기간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라키비움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비엔날레 AI라키비움 사업 지원</li> <li>- 아카이브 DB구축 등 용역발주 및 관리 지원</li> <li>-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관련 업무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학위를 취득 후 국내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대사관, 문화원, 미술관, 문화재단 등) 경력 1년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수탁 및 보조금 사업 관리 업무 유경험자</li> <li>○ 영어능통자·TOEIC 800점, IELTS 6.0, TOEFL(IBT) 90 이상 중 택 1</li> </ul>	계약직	약 4개월 (연장 가능)	2025. 08.20
기간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라키비움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리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등 용역 발주</li> <li>- 용역별 추진과정 검토 및 품질관리</li> <li>- 기타 AI라키비움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정보, 기록관리, 정보처리 등 기록관리 유관학과 또는 인문학 미학 미술 등 인문·예술 학위 취득자</li> <li>○ 위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공립·사립미술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아카이비스트, 기록물관리, 데이터 관리 등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li> <li>○ 영어능통자·TOEIC 800점, IELTS 6.0, TOEFL(IBT) 90 이상 중 택 1</li> </ul>	계약직	약 4개월 (연장 가능)	2025. 08.20
기간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비엔날레 AI라키비움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화 사업(IT) 용역 추진과정 검토 및 품질 관리</li> <li>- 연계프로그램 및 홍보 등 기획 운영</li> <li>- 일반 행정 및 e나라 도움 보조금 관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li> <li>○ 정보처리, 문헌정보, 기록관리 등 유관학과 또는 미술사, 미술 이론, 예술경영 등 인문예술 관련 학위 취득자</li> <li>○ 국내외 문화예술기관(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단 등)에서 채용분야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li> <li>※ 채용분야 관련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능통자 : TOEIC 800점, IELTS 6.0, TOEFL(IBT) 90 이상 중 택 1 또는 영미권 학사 학위 이상 소지</li> </ul>	계약직	약 1년 3개월	2025. 08.20

		①전산(정보시스템 기획 운영 유지관리), ②아카이브 연구수집 정리DB관리 및 전시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③회계결산 보조금 사업 관리			
--	--	--	--	--	--

## 8)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 ■ 조직구성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관장을 중심으로 학예팀과 자료팀으로 구성된 이원적 조직 구조를 가짐.
- 두 팀이 긴밀히 협력하여 미술문헌 기반 아카이브의 수집·데이터베이스 구축·열람 지원·출판·전시 기획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특징임.

### ■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 학예팀은 전시 기획·운영, 교육 프로그램 기획·진행, 후원회 관리, 박물관 홍보·대외협력, 출판 및 연구 등 박물관 학예업무 전반을 담당함.
- 자료팀은 미술문헌 및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정리·기술·보존·DB 구축·열람서비스 등 핵심 기록관리 기능을 전담하며, 자료의 장기보존과 공개 서비스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 ■ 최근 채용 현황

- 최근 채용은 자료팀 팀원(정규직) 충원 사례와 같이 자료 수집·정리·관리 등 아카이브 실무를 담당할 장기 인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기관의 소규모 운영 특성상 채용 공고는 매우 드문 편이며, 필요 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임.

[표 9]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sup>33</sup>

분야/직급	담당 업무	필수조건	우대조건	고용 형태	고용 기간	공고 일시
자료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수집/정리/관리 일괄 지원</li> <li>○ 자료실 운영 업무 보조</li> <li>○ 서울아트가이드 아카이브 원고 자료 목록화</li> <li>○ 자원봉사자 관리 지원</li> <li>○ 업무 관련 자료 전산화</li> <li>○ 온라인 콘텐츠 업로드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가능</li> <li>○ 문서 작성 능력(엑셀, 워드 등), 인터넷 사용 그 외 컴퓨터 활용 능숙자</li> <li>○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포토샵 외) 우대</li> <li>○ 장기 근무 가능자 우대</li> <li>○ 미술/문헌정보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관련 경력자 우대</li> </ul>	정규직	-	2022. 01.10

<sup>33</sup> 서울아트가이드 <https://daljin.com/218/312739> (2025. 12. 5 접속)

## 나.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직무 범주 및 요구 역량 분석

### 1) 공통 직무 범주

#### ① 자료 수집·평가·선별

- 기록물의 수집 정책 수립부터 현황조사, 선별, 평가, 기증 협의로 이어지는 수집 전반의 업무를 수행함.
- 기관의 수집 방향과 대상을 고려하여 수집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을 진행하여 기증자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수집 대상을 확정함.
- 수집 이력을 관리하여 향후 수집 정책 및 전략을 보완하거나 중장기 수집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한국현대미술의 현장과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삼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국 미술 기반의 아카이브를 아우르는 수집 범위를 구축함.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은 지역미술사 발굴을 중심으로 수집 범위를 집중하는 사례를 확인함.

#### ② 자료 정리·기술·DB 구축

- 기관의 관리 기준과 자료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기술 규칙을 적용하여 메타데이터 작성하고 기술 계층을 설정하거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자료를 체계적인 구조에 따라 관리함.
-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수집기록(건축·미술)’과 같이 자료의 성격이 구분되어 있어, 담당 분야에 따른 전공 기반의 기술 역량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고, 반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과 같이 문헌 자료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는 목록화와 색인 작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직무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③ 보존·서고 관리

- 자료의 장기 보존을 위한 보존환경 관리, 보존 서고 출입·출납 관리, 기록물 이관·재정리, 포맷 마이그레이션, 스토리지 운영,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함.
- 국립현대미술관과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스토리지 관리, 아날로그 매체 전환실 운영 등 디지털 보존 체계를 포함하고 있고,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보존서고 관리와 열람·보존 업무가 기록연구사 중심으로 수행됨.
-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처럼 전담 서고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학예직 인력이 보존 관리와 출납 업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함.

#### ④ 전시 기획 및 콘텐츠 제작·연구·활용

- 아카이브를 접할 수 있는 전시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통해 아카이브의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여러 방면으로 확장함.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아카이브를 다각도로 활용한 전시를 기획하거나 출판물 제작하는 등 아카이브의 재구성과 담론을 확장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연구센터 운영과 작가 파일 구축을 통해 아카이브 기반 연구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대전시립미술관은 연구 논문 발간을 통해 기록 자료의 학술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

## **⑤ 열람 서비스 및 이용자 지원**

- 열람실 운영을 운영하며 자료 검색과 아카이브 열람 업무가 이루어지며 이용자 대면 서비스와 각종 문의 대응이 함께 수행됨.
- 일부 기관에서는 열람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마련함.

## **⑥ 시스템 운영 및 기술 표준화**

-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디지털 파일 및 스토리지 관리, 디지털 정책 수립, 열람 시스템 개선, 지침 및 매뉴얼 제정 등을 수행함.
-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의 경우 자체 아카이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료 등록, 정리, 열람 체계를 운영하며, 내부 지침을 통해 학예 및 기록 인력이 공통의 메타데이터 기준과 업무 절차를 수행함.
-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기록과 소장품 아카이브를 통합한 시스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공립미술관에 배포하기 위한 미술아카이브 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⑦ 행정·사업 운영**

- 아카이브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사업 성과 관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계약 및 용역 발주와 그에 따른 품질 관리, 대외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역시 주요 업무로 수행함.
- 광주비엔날레는 AI라키비움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용역 발주와 품질 관리, 국고보조금 집행 등 사업형 아카이브 운영이 행정 직무의 핵심으로 나타남.

## **2) 직무 요구 역량 특성 및 인력 운영 구조 분석**

### **① 아카이브 직무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정리·기술**

-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리·기술(arrangement & description)’은 아카이브 업무의 중심축으로 작동함.
- 국립현대미술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르코예술기록원·대전시립미술관·전북도립미술관 등은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정리·기술 경험” 또는 “기록관리학 기반 정리능력”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역시 자료 수집·정리·관리 전 과정을 수행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함.

### **②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능력의 비중 확대**

- 최근 미술관·아카이브 기관들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운영을 핵심 전략으로 삼으면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기반 역량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비롯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 스토리지 관리 등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능력을 직무에 포함하고 있음.
- 광주비엔날레는 AI라키비움 구축을 계기로 IT·정보화 사업 관리 경험을 필수에 가깝게 요구하는 등 디지털 기반 업무가 직무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추세임.

### **③ 자료 분석·현황조사 등 조사 기반 업무 강화**

- 자료의 가치 평가와 현황 분석까지 확장되면서 조사·연구 능력을 요구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 전북도립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사 기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자료 현황조사·기초연구를 필수 직무로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국립현대미술관·아르코예술기록원 또한 컬렉션 조사·수집 전략 수립, 기획컬렉션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정규 학예 및 기록직의 주요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음.

#### **④ 이용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역량의 중요성 확대**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리서치랩 및 열람실 운영을 기록물 관리 업무로 포함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주요 직무로 명시함.
- 기록정보서비스 역량은 기관 간 차이와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 항목임이 확인됨.

#### **⑤ 기록관리 전담 인력의 부족과 학예 및 기록관리 혼합형 직무 구조**

- 국내 미술관 생태계에서는 기록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부족하며, 아카이브 업무가 학예 직무에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확인됨.
- 서울시립미술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관은 별도 기록관리 전담 부서 없이 학예 부서 내에서 자료 정리·기술·열람·콘텐츠 기획을 병행하는 조직 구조임.
-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전공자와 미술사·예술학 기반의 학예직이 동일 직무를 수행하며,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은 ‘우대사항’으로만 제시되는 경향이 있음.

## 제2절 아카이비스트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1. 조사 목적 및 범위

- 본 절에서는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를 둘러싼 직무적 특성과 현장 환경에 대해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 집중하여 국내·외 다양한 사례로부터 분석하고자 함. 단, 법령 부분을 제외하고 최근 동향을 살피고자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 기관/단체 위주로 현황을 파악하였음.
-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도,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내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는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업무가 기존 제도 내에서 어떻게 포섭되거나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도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반면에 사서직 자격제도의 경우 전문인력으로서의 지위와 교육체계에 대한 논의가 그보다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sup>34</sup>
-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만의 고유한 직무 범위를 드러내고, 향후 문화예술 전문 매개인력의 틀에서 미술 아카이브 분야의 전담 인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분석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 전문 인력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미술관 조직 내 아카이브 기능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한국 문화예술에서 지속 가능한 기록관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 2. 국내 미술 아카이비스트 관련 제도 및 활동 환경

#### 가. 기록 및 미술 전문 인력의 법령

##### 1)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제도

###### ■ 제도 개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 배치가 시행됨.
-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기록물의 생애주기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도입됨.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0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35</sup>

<sup>34</sup>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sup>35</sup>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06호, 2025. 5.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5. 12. 5 접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 이들은 행정기록물의 일련의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통계 작성 및 관리, 관할기관 기록관리 지도 및 감독 등을 맡음.
- 자격 요건으로는 기록관리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관련 교육 이수자 등이 해당하며, 국가기록원 교육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2024년 국가기록원 주관 자격증 시험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730호)<sup>36</sup>에 의하면 필수과목은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 관련 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전자기록 생산 환경과 업무 절차 등)을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기록정보서비스론 중 2과목 선택하여 주관식으로 필기 시험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해 자격증을 수여함.<sup>37</sup>

## ■ 직무 범위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의 전 생애주기(생산-분류-정리-평가-보존-활용)를 총괄·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기록관리 정책, 실무, 서비스에 해당하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는 행정적·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록의 표준화된 생산 및 이관, 보존 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데 초점을 둠.
- 기록물관리기준표·분류체계·보존기간기준 등과 같은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의 제·개정, 기록관리 관련 내부 규정·지침 마련 등을 핵심 직무로 꼽을 수 있음.
- 특히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의 평가(폐기·재책정·보류 결정), 가치 있는 기록의 선별·수집, 보존서고 및 수장고 관리, 보존환경 점검 등의 업무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만의 가장 차별적 업무라 할 수 있음.
- 또한 아카이브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서비스의 공공성 및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록물의 검색·열람·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에서 공개·비공개 결정 여부, 기록물을 검색하기 위한 목록이나 도구, 메타데이터 관리를 비롯한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업무가 강조되고 있음.

## ■ 정책적 배경 및 관련 연구 현황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0년 기준, 전국 26개 대학원에 전공 과정이 개설됐으며, 국가기록원 또는 민간기관에서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음.
- 2010년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면서 ① 기록관리학 석사학위자, ② 학사학위자 + 교육과정 +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투트랙 체계 마련함.
- 이후 2013년 자격시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입시 위주의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 역시 학교마다 고르지 못한 교육의 질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내부적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sup>36</sup>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한 자격증 시험은 2024년도에 진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진행되지 않음.

<sup>37</sup>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recordsMngPro/recordsMngProInfo.do> (2025.12.5. 접속)

- 이에 기록학계에서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1998)<sup>38</sup>의 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김순희(2009)<sup>39</sup>, 정연경(2010)<sup>40</sup>은 실무 중심에 집중할 것을 교육으로 집중할 것과 정희찬·김수정(2018)<sup>41</sup>, 정숙영 외(2021)<sup>42</sup> 등은 실무진의 재교육을 강조한 바 있음.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는 김유승 외(2021)<sup>43</sup>은 대학원 과정과 전문요원 자격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대학원 커리큘럼의 가이드라인 및 심화교육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김장환, 황진현(2025)<sup>44</sup>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제시함.

## 2) 사서 제도

### ■ 제도 개요

- 1955년 「도서관법」의 제정 이래 1980년대부터 문헌정보학과 중심으로 사서 양성 체계가 꾸준히 확립되면서 사서 자격제도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연구들은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표준화, 자격기준 체계화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축적됨. 특히 「도서관법」 제6조(사서의 자격)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을 중심으로 자격 요건과 등급(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을 규정하고 있음.
- 문헌정보학 관련 학위 취득자 또는 지정 교육과정 이수자가 해당 자격을 취득하며, 등급에 따라 학력·경력 요건이 상이함. 자격은 한국도서관협회 등을 통해 인정·발급됨.

### ■ 직무 범위

- 공공적 도서관·정보센터 등의 주요 자원인 도서, 비도서, 전자자료 등을 수집·조직·보존·서비스하는 전문 인력
- 도서·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전자정보 등 각종 자료의 수집, 분류, 목록 작성, 메타데이터 구축 등 지식정보자원의 조직 및 관리하고 장기적 보존 환경을 조성함.
- 사서가 다루는 정보자원은 전통적인 도서나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최근의 비도서 매체,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등 매우 광범위하며, 이러한 자원을 표준화된 목록규칙(RDA, KCR 등)과 분류법(DDC, KDC 등)을 기반으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함.
- 장서 관리, 이용자 통계 분석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며, 전자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자도서관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스템 운영 등 정보기술 기반 업무를 총괄함.

<sup>38</sup> 이상민, 「기록관리학과 아카비스트 교육훈련제도」, 『기록보존연구』, 11호, 1998.

<sup>39</sup> 김순희, 「기록관리 전문가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권 3호, 2009.

<sup>40</sup> 정연경,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권 1호, 2010.

<sup>41</sup> 정희찬, 김수정,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국가기록원 계속교육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권 3호, 2018.

<sup>42</sup> 정숙영, 김순희, 「영미의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내 계속교육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권 1호, 2021.

<sup>43</sup> 김유승, 박지영, 박태연, 손승희, 윤은하, 이민영, 전보배, 현문수,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권 1호, 2021.

<sup>44</sup> 김장환, 황진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고찰」, 『기록학연구』, 84호, 2025.

- 이용자의 정보 요구 동향을 분석하여 정보 서비스 제공부터 정보 탐색 지원 및 정보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최근에는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특성에 따른 문화 콘텐츠 개발 업무도 강화됨.

### ■ 정책적 배경 및 관련 연구 현황

-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국립 도서관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기관은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자체의 지역/도시 발전계획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공공 서비스로 확장되는 정책 과제들이 빈번하게 제안됨.
- 사서직에 대한 전문성 논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주축으로 자격기준 같은 정책적 접근은 물론 교육기관 및 커리큘럼까지 지속적으로 발전. 최근에는 보다 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지식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디지털 정보환경 확대로 사서의 직무가 단순 자료 관리에서 데이터 관리, 디지털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허브 역할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자격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존에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였으나, 최근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계약직·시간제 사서 비중이 증가하여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sup>45</sup>

## 3) 학예사 자격제도

### ■ 제도 개요

- 정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 인력으로서, 전시, 수집, 조사, 교육, 보존 등의 업무 수행 인력
- 근거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 자격 조건: 학예사 자격증은 일정 학력 및 경력 조건을 갖춘 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정을 통해 취득. 등급은 1~3급으로 구성됨.

### ■ 직무 범위

- 유물 및 미술품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 전시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장품 관리, 기록 정리 및 보존 환경 구축 등

### ■ 특징 및 현황

- 제도 도입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공공기관 내 학예사 의무 배치해야 함.
- 정규직 중심이나, 최근에는 계약직/기간제 학예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실무 중심의 직무이면서도 연구 및 해설 업무와 연계됨.

---

<sup>45</sup> 한국도서관협회(이승민 외 5인),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pp.63-66.

####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 ■ 제도 개요

- 정의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실행, 교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 근거 법령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 및 제28조
- 도입 시기 : 2013년 자격증 발급 개시, 2016년 자격체계 개편 시행

##### ■ 직무 범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진행·평가
- 현장 중심의 예술교육 실행 :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활동
- 장르 :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디자인 등 총 10개 분야 (신규로 문학, 뉴미디어 등 추가 논의 중)

##### ■ 특징 및 현황

- 예술강사제도에서 발전된 형태로 문화예술교육 진흥정책의 핵심 제도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에 의무배치 제도 있음.
- 다만, 비정규직이 많고, 낮은 처우로 제도적 안정성은 부족하다는 비판 존재함.
- 미술관 내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적 인식 부족, 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아카이브 운영의 어려움, 직무 기준, 경력 인정 체계 미비로 인한 전문성 누락 및 고용 불안정함.

[표 10] 국내 기록 및 미술 관련 전문 인력 제도 및 법령 현황

항목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사서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근거 법령	공공기록물관리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도입 시기	2005년 본격 배치	1963년 제정, 1980년대 자격체계 정비 · 확산	1991년 이후 박미법 개정, 2000년 이후 정식 자격 제도화	2013년 자격 발급
직무 중심	행정기록 관리	도서, 간행물, 시청각자료 등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	유물/작품 중심 조사 · 보존	예술교육 기획 · 실행
주요 기관	공공기관기록관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학교, 문화시설 등
대학교육 연계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예술학 등	예술 관련 학과 (미술, 음악, 무용 등)
미술 아카이브 연계	기술 기반, 보존 중심	기술 기반	전시기록 · 작가자료 연계	콘텐츠 활용, 교육기록 연계

## 나. 아카이브 관련 협회 및 단체

### 1) 국가기록원(기록관리교육센터)<sup>46</sup>

-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의 중앙 기록관리 기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기 위해 설립됨.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로 출발하여 2004년 국가기록원으로 개편되었으며, 기록관리 정책 수립과 조정, 국가 기록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핵심 역할을 함.
- 본원(대전)을 중심으로 성남, 부산 등 지역별 기록관을 운영하며 수백만 권 이상의 기록물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기록관리체계,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구축·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 특히 산하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는 공공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및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전문 교육기관임. 2015년경 교육장이 나라기록관으로 이전되며 현 체계를 갖추었고, 국가기록원 조직 내 기록서비스 기능 아래에서 독립적 교육 기능을 수행함.
- 집합교육·사이버교육·기관 방문교육·국제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록관리 기본과정, 전문과정, 전자기록 특화 과정 등 직무 수준별·주제별 교육과정을 개설해,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제도 운영(시험·자격증 발급 등)을 담당하여 전문직 양성 체계를 뒷받침함.

### 2)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sup>47</sup>

- 2010년 발족한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관리 전문가 전문직 단체로, 공공·민간 기록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록전문가들의 전문직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기록관리 관련 학술·정책 연구 수행,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함.
- 국가·지자체 기록관, 공공기관 기록관, 박물관·미술관, 기업 기록관리 부서 등에서 활동하는 기록관리 전문가(기록연구사 등), 기록학·기록관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연구자·대학원생, 기록물 관련 기획·아카이브 구축 등 실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회원제로 국가·공공기관 기록관리 제도를 규정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체계 안의 전문직 활동과 연계하고자 함.
- 2025년 1월 진행된 제4대 대의원선거로 총 유권자 수 403명 중, 265명이 투표하여 김장환(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김진선(한국기록전문가협회), 김진성(경제 인문 사회연구회), 박효은(중앙대), 오동석(공무원연금공단), 이정연(국가기록원), 이준봉(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이철환(대통령기록관), 임광섭(화학물질안전원), 조병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채현태(가평군청), 홍덕용(부산 수영구) 총 12명이 당선됨.

<sup>46</sup>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https://edu.archives.go.kr/> (2025.12.5. 접속)

<sup>47</sup>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https://www.archivists.or.kr/> (2025.12.5. 접속)

### 3) 한국기록관리학회<sup>48</sup>

- 2000년에 창립한 기록관리학 및 기록학의 학술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설립된 국내 대표 기록관리 분야 학술단체로, 기록관리 이론·정책·실무의 발전과 디지털 기록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문적·전문적 연구를 주요 목표로 삼음.
- 공공기록물관리 제도와 기록관리 표준·기술·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학술 연구와 현장 실무를 연계하는 전문적 플랫폼 역할을 지향하면서 기록관리 관련 학술·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기록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함. 또한 이러한 실천적 시도로써 『기록관리학회지』를 발간하고 연례적으로 학술대회·워크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기록관리 연구자와 실무자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함.
-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의 주된 구성원은 기록관리학·기록학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및 연구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자, 또한 기업 및 민간기관의 아카이브 담당자나 기록관리 분야 대학원생 등으로 매우 폭넓게 수용되어 있음.
- 현재 회장은 김지현(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부회장은 윤은하(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한국기록학회와 사단법인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함께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2025년의 주제는 ‘민주주의 재건과 기록관리의 혁신’(2025. 11.1, 한신대학교)

### 4) 한국기록학회<sup>49</sup>

- 2000년에 창립한 기록학 및 아카이브 연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기록학 학술단체로, 기록의 이론·역사·철학·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 기록연구 기반을 강화하며 기록문화 확산을 목표로 함.
- 기록학의 학문적 정립과 아카이브 실천의 발전을 위해 학술·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기록학연구』 발간을 통해 이론·사례 연구를 축적하며, 정기 학술대회·심포지엄·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간의 지식 교류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함.
- 기록·아카이브 관련 학술적 담론을 생산하고 공공기록물관리 제도 및 기록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정책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며, 2007년 『기록학연구』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함.
- 현재 대표자는 이영남이며, 가장 최근 활동으로는 〈2025년 추계학술대회 ‘지속 가능한 기록생태계를 위한 작지만 큰 이야기들’〉 (2025. 11.1, 한신대학교)을 진행함.

<sup>48</sup> 한국기록관리학회 <https://ras.jams.or.kr/> (2025.12.5. 접속)

<sup>49</sup> 한국기록학회 <https://ksas.jams.or.kr/> (2025.12.5. 접속)

## 5)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sup>50</sup>

- 2013년 발족한 국내 미술·시각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아트아카이브 전문 단체로, 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연구·활용을 통해 예술기록의 가치와 공공성을 확립하고, 아트아카이브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 미술관·아카이브·연구기관 등에 축적된 예술자료의 관리·해제·기술·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전시·뮤지엄아카이브 등 분과 활동을 통해 현장과 학문을 연결하며, 강연·세미나·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트아카이브의 역할과 수집의 가치, 활용 가능성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함.
- 미술연구자·아카이브 실무자·기록학 및 예술자료 연구자·미술관·기관 아카이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회원제로 운영되며, 2015년 12월 아트아카이브의 활용에 대한 릴레이강연과 활동을 정리한 『밖으로 나선 아트아카이브』를 발간했으며, 2016년 11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도서와 기록의 박물관데이트: 사회환경 변화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됨.

## 다. 미술 아카이브 관련 지원사업

### 1)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

- 2021년부터 추진된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 공립미술관의 기록·자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미술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시·작가·운영 기록 등 미술관 고유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여 공공미술관의 기록관리 문화를 표준화하고, 미술관 아카이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됨. 워크숍·교육을 통한 아카이브 운영 지식 공유, 기록물관리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정리·분류·메타데이터 구축, 미정리 자료 정비, 디지털 전환, 전용 서고·열람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작가기록·기증자료·전시기록·행정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미술 자료가 목록화되고, 미술관별 아카이브 운영 체계가 정착되는 성과를 도출함.
- 2021년의 경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총 8곳, 2022년 광주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창원시립마산문화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총 8곳, 2023년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총 3곳, 2024년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 총 8곳을 선정하여 기록물관리전문가 파견(5~7개월) 및 아카이브 컨설팅 지원, 기록물관리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예술 실질적 아카이브 구축 작업이 수행됨.

<sup>50</sup>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SNS <https://www.facebook.com/koreanartsarchiveassociation> (2025.12.5. 접속) 공식 홈페이지 <http://karchive.net> 가 있었으나 현재는 서비스하지 않고 있음.

- 결과적으로 사업은 지역미술관의 기록관리 전문성 제고, 미술관 간 자료 표준화·유통 기반 마련, 지역미술사 연구 인프라 강화 등 중요한 성과를 남겼으며, 향후 아카이비스트 정규 인력 확충, 파견기간 확대, 아카이브 운영 매뉴얼 정립, 디지털 열람·보존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향도 제시함.

## 2) 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 예술경영지원센터(KAMS)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은 한국 시각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만 65세 이상 원로작가를 대상으로, 그 평생 화업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디지털 포맷으로 구축함으로써 한국 근현대 미술자료의 보존·활용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함.
- 사업 절차는 연구팀을 공모·선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작가 및 연구팀 간 저작권 이용·동의 절차를 거친 뒤, 작가의 작품 목록·작가노트·사진·전시이력·참고문헌·작가 연보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목록화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화·연구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순서로 진행됨.
- 지원내용으로는 연구팀 인건비·활동비, 자료 스캔·촬영·저작권료 등이 포함되며, 기초자료 목록화 지원 사업부터 이미 구축된 자료 업데이트 지원 사업 등으로 사업 유형이 구분되어 있음.
- 강요배, 김구림, 김순기, 김영원, 김창열, 김홍주, 민정기, 박대성, 박서보, 박영숙, 방혜자, 서용선, 성능경, 신학철, 심문섭, 안창홍, 육명심, 윤광조, 윤명로, 윤석남, 이강소, 이건용, 이승택, 이종상, 임충섭, 정상화, 주명덕, 주재환, 최만린, 최종태 총 30인 구축.<sup>51</sup> 2025년 선정작가: 김종학, 석난희, 이교준, 이신자, 노원희 (기구축 업데이트 지원작가: 김홍주)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 조사 연구 비평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은 원로작가 만이 아니라 중견 작가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작품 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연구·비평 출판물을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하고, 이를 통해 국내 미술계의 자료 기반을 확충하며 작가의 활동을 공적으로 기록·소개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2022년에는 총 92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심의는 서류-인터뷰-최종심의의 3단계를 거쳐 29건이 선정되었음. 강홍구, 고승현, 고영훈, 구현주, 김범, 김병종, 김순임, 김지평, 다발킴, 리슨투더시티, 박경효, 박혜수, 안병국, 연기백, 이동근, 이미래, 이연숙, 이주요, 임민욱, 임홍순, 전소정, 정재호, 정정엽, 조영주, 차재민, 최성임, 최찬숙, 하차연, 흥지윤 총 29인. 선정 작가에 대해 리플렛·브로슈어·카탈로그 등 3종의 출판물 제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공개된 자료는 아르코예술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와 홍콩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열람·활용 가능하도록 배포되었음.<sup>52</sup>

<sup>51</sup>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https://k-artmarket.kr/kada/kada\\_new/main/index.do](https://k-artmarket.kr/kada/kada_new/main/index.do) (2025.12.5. 접속)

<sup>52</su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23년 ‘작가 연구-조사-비평’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성황리 마무리”, 2024년 1월 31일 <https://www.arko.or.kr/board/view/4057?page=&cid=1807667> (2025.12.5.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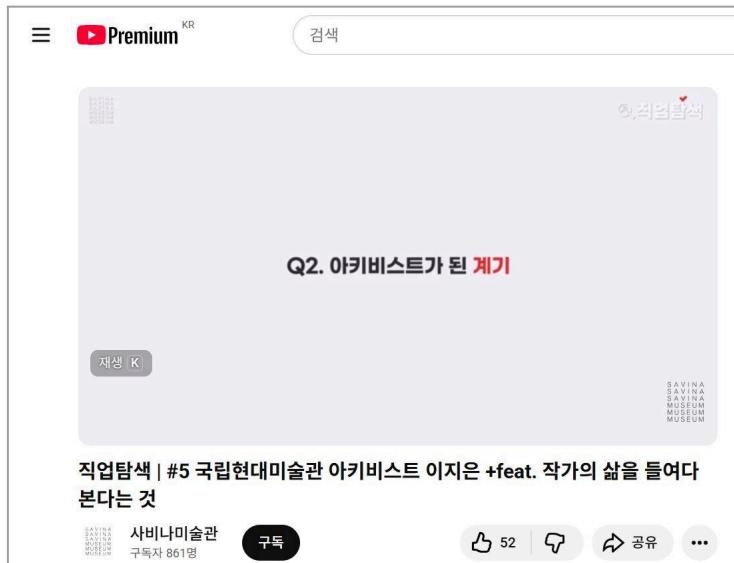
- 아카이브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조사’를 프로젝트의 주요 과정으로 채택함에 따라, 각 작가마다 기본적인 자료 정리가 선행되어야 했고, 기획팀의 구성원에서 아카이비스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이후 이 사업은 같은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후 창작산실 지원사업에서 작가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아카이브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속되고 있음.

#### 4) 한국사립미술관 인력지원 사업

-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전국 사립미술관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05년 청년인턴채용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전문해설사, 아웃리치 강사 등 미술관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16년 이후에는 학예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함.
- 2005년부터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으로 「사립미술관 청년인턴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7개월 동안 27개관을 대상으로 40명을 채용했고, 당시의 주요 수행업무는 전시기획과 진행, 소장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 큐레이터 업무의 보조로 기술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큐레이터 업무의 보조 외에 IT(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관련 업무가 추가됨.
- 2016년부터는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를 필수 자격 조건으로 제한을 두었으며 학예사 등급(준학예사시험 합격자 중 발급 대상자/ 준학예사/ 정3급/정2급/정1급)에 따라 정부지원 및 급여의 차등을 두었음.
-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미술품전문해설사 지원사업」을, 2009년에는 「미술관 아웃리치프로그램 전문강사 지원사업」을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으로 「사립미술관 에듀케이터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48개관에 추가 지원했고, 교사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를 구분하여, 정부지원금의 차등을 두었음.
- 2017년부터는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를 사립미술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9년부터는 채용기관 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등록미술관으로서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1인 이상을 자체 채용’중인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사립대학미술관이라는 요건이 제시되기 시작했음. 2020년부터는 「사립미술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이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삼음.
- 이 두 가지 사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2024년 공고 내용 중 예비학예인력의 업무 범위가 『2023 전국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조사』(2023)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시 업무 외에도 수집(소장품 목록 작성 및 관리, 저작권, 자료공개), 보존(소장품 작품 자료 수복), 연구(아카이브 자료집 발간) 등에서 아카이비스트의 업무가 기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sup>53</sup>

<sup>53</sup> 한국사립미술관협회 <https://www.artmuseums.or.kr/board/community/perSupportView?mCode=M306&bCode=perSupport>  
(2025.12.5. 접속)

[그림 10] 사비나미술관 Youtube “직업탐색 #5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비스트 이지은”<sup>54</sup>



### 3. 국외 미술 아카이비스트 관련 제도 및 활동 환경

#### 가. 주요 국가별 기록원 및 법령 현황

-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있어 국제적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각 국가별로 중앙/지역 정부의 운영 체계과 문화예술 정책 및 미술관/박물관의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혼재하여, 일차적으로 주요 국가별 기록원 및 법령 현황부터 파악하고자 함.
- 국가기록원은 상징적 지표로 상정할 뿐만 아니라 기록 전문 인력의 인증제도와 교육기관의 역할도 맡고 있기에 해당 국가의 기록 관련 전문 인력의 전문성과 발전 단계의 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앞서 제1절에서 살펴봤듯이,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음.
- 물론 조선왕조실록처럼 공공 기록의 역사는 한참 앞서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한중일만 하더라도 봉건 관료제의 역사서 편찬과 사관의 전통에서 전근대에 이르기 까지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sup>55</sup> 근대국가의 수립과 민주주의 체제 이후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가적 기록과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 전문 인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음.
- 기록관리법의 제정 시기가 가장 앞선 미국의 경우, 1950년 연방기록물법(Federal Records Act) 제정 이전에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립기록보관소법(National Archives Act)에 서명하고 NARA가 건립되었음.

<sup>54</sup> 사비나미술관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2oRxmA4I-s&t=374s> (2025.12.5. 접속)

<sup>55</sup> 곽건홍, 『동아시아의 아카이브 비교연구』, 서울:선인, 2016.

이후 연방 및 주(州) 정부의 분리 및 연동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미국 주립아카이브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박물관, 도서관 등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sup>56</sup>

- 이렇게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 SAA의 DAS 자격증 제도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기록 관련의 교육 지침을 비롯한 세계적인 표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술 분야 아카이스트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사례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미주에서는 스미소니언 미국미술관이나 게티연구소, 유럽에서는 테이트 아카이브와 프랑스 국립미술사연구소 아카이브(INHA), 아시아에서는 홍콩 아시아아트아카이브(AAA), 일본 국립아트리서치센터 등 주요 미술관 또는 미술 아카이브 기관을 통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1] 주요 국가별 기록원 및 법령 현황

국가	명칭	특징	근거 법령	제정연도
미국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연방정부 기록 총괄. 대통령기록관(Presidential Libraries) 체계 포함.	Federal Records Act, Presidential Records Act	1950
영국	The National Archives (TNA)	정부·법원·왕실·지방정부 기록 총괄. 국제적 표준 제시.	Public Records Act	1958, 1967 개정
프랑스	Archives Nationales	중앙·지방 아카이브 체계가 매우 잘 구축됨.	Code du patrimoine (문화유산법)	1979, 2008 개정
호주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연방정부 기록, 개인정보·정보공개 연계 정책 관리.	Archives Act 1983	1983
일본	国立公文書館 (국립공문서관)	중앙정부 기록 및 역사문서 관리.	公文書管理法 (공문서관리법)	2009

<sup>56</sup> 조애란, 김민경, 윤은하, 「미국 공공기록관리법(PRA)을 통한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연방과 주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권 2호, 2019.



## 나. 아카이비스트 관련 전문 인력 자격 제도

### 1) 미국

#### ■ 제도 현황

- 미국에서는 아카이비스트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 모두에서 활동함. 연방 정부의 경우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등에서 아카이비스트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며, 연방 인사규정에 따라 학력 요건(예: 기록관리학·역사학 과목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함.
- 그 외에도 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 민간 부문에서도 다수의 아카이비스트가 고용되어 기록물 수집·관리 업무를 수행함.

#### ■ 인증 체계 또는 자격 요건

- 공식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의 의무를 내걸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아카이비스트 협회(ACA) 같은 공인된 인증 제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아카이비스트는 시험을 통해 Certified Archivist 자격을 취득하기도 함.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학 등 관련 분야 석사 학위와 공공 기관에서의 기록관리 실무적인 경험의 여부가 아카이비스트 채용의 기본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 주요 민간 협회/기관

- 미국 기록관리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AA)는 1936년 설립된 미국 최대의 아카이비스트 전문 협회로 약 6,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함.<sup>57</sup>
- 47개의 아카이브 분과를 운영하는 가운데 특히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Museum Archives Section)는 다양한 규모의 미술관 아카이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함. 또한 미술관 아카이비스트 직렬을 8개 직급(Assistant, Associate Archivist, Digital Archivist, Records Manager, Processing Archivist, Archivist, Senior Archivist, Archives Director)으로 구성하고, 각 직급에 필요한 정의·역량·자격 요건·우대사항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sup>58</sup>

#### ■ 채용 공고 플랫폼 사례

- **Archives Gig**<sup>59</sup>: 2010년 Meredith Lowe에 의해 설립된 아카이브 및 기록관리 분야에서 채용 정보, 인턴십, 경력 기회를 공유하는 민간 웹사이트로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채용 공고가 주로 게재되며, 국제 아카이브 직무도 일부 포함됨. 게시물은 최신순으로 정리되며, 지역, 기관 유형, 경력 수준 등 다양한 태그가 활용되어 탐색이 쉽고, 구직자 및 고용기관 모두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음. 2024년 SAA는 연례회의에서 Archives Gig에 'Council Exemplary Service Award'를 수여하며, 아카이브·도서관·박물관 분야에서

<sup>57</sup> 미국 기록관리협회(SAA) <https://www2.archivists.org/> (2025.12.5. 접속)

<sup>58</sup> 이지은,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권 1호, 2024, pp.5-7.

<sup>59</sup> Archives Gig <https://archivesgig.com/?s=art> (2025.12.5. 접속)



구직자, 고용기관, 연구자를 위한 전문적으로 큐레이션된 리소스를 제공해 왔으며, 분야 내 경력 성장을 지원하고 직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설립자의 헌신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를 밝힘.

### [그림 11] Archives Gig 웹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Archives Gig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to Home, SAA Exemplary Service Award, 2024, About, How to Follow, and Submit a Job.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search bar with the placeholder text "art" and a magnifying glass icon. On the left side, there are three job listings with their respective dates and locations:

- NOVEMBER 7, 2025**  
New Haven, CT: Archivist, Yale University Art Gallery
- OCTOBER 27, 2025**  
Los Angeles, CA: Assistant Archivist, Mike Kelley Foundation for the Arts
- OCTOBER 22, 2025**  
Portland, ME: Cartographic Cataloging Librarian, University of Southern Maine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sidebar titled "CATEGORIES" with a list of categories and their counts:

- @Uncategorized (6)
- Career Event Announcement (31)
- Funding Opportunity (42)
- General Announcements (80)
- International (575)
  - Africa (19)
  - Asia (27)
  - Australia and NZ (11)
  - Canada (333)

## 2) 영국<sup>60</sup>

### ■ 제도 현황

- 영국의 아카이비스트들은 국립공문서관(The National Archives)이나 지방 자치단체 기록보관소 같은 공공 부문과 대학·박물관 등의 민간 부문에서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이 중 공공 부문 아카이비스트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장되며, 기록물 이관·평가·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함. 또한 지방기록관들도 지방공무원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됨.
- 민간 부문의 아카이비스트는 대학 자료실, 종교기관, 기업 등에 소속되어 해당 기관의 자료 관리와 정보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함.

### ■ 인증 체계 또는 자격 요건

- 영국에서는 아카이비스트로 일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취득이 대부분 필수 사항으로 요구됨.
- 공식 면허나 국가시험은 없으나 영국 아카이브즈 및 기록협회(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 ARA) 같은 전문 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 등록제도(Registered Member of ARA)가 있음. 전문성 개발 및 경력 관리를 위한 자발적 인증체계로서 이 제도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 성과와 역량을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며, 이후 협회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 네트워크와 새로운 학습 기회도 획득할 수 있음. 일정 경력을 증명하면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등록을 완료한 아카이비스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격

<sup>60</sup> 영국 아카이브즈 및 기록협회(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 ARA) [www.archives.org.uk](http://www.archives.org.uk) (2025.12.5. 접속)

표기(post-nominal letters)’는 고용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기술·윤리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공식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sup>61</sup>

### ■ 주요 민간 협회/기관

- 국립 아카이브 협회(National Council on Archives)는 비정부조직으로 기록의 공공 접근, 윤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대해 자문을 맡고 일반 시민 대상 기록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됐으나, 2010년 ARA(영국 아카이브즈 및 기록협회)가 출범하며 편입됨.
- ARA는 영국·아일랜드 지역 대표 전문단체로 교육과 출판, 직업 윤리 수립, 회원 대상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영국 기록관리 전문가들을 지원함.

## 3) 프랑스<sup>62</sup>

### ■ 제도 현황

- 프랑스에서는 아카이비스트(기록관리 전문가) 직군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가운데, 국립 및 지방 공공 기록관리 기관(예: 국가기록원과 주(州) 기록관 등)에는 공무원으로 아카이비스트들이 배치되어 국가와 지방정부 기록물을 수집·분류·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도 자체 기록관리 부서가 운영됨.
- 한편 기업, 박물관, 연구소 등 민간 분야에서도 사내 아카이브 관리나 역사기록 보존을 위해 아카이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음.

### ■ 인증 체계 또는 자격 요건

- 프랑스는 아카이비스트를 위한 고등교육 이수와 공채 선발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함. 공공 아카이비스트의 직책에서 최상급 중 하나인 ‘아카이브 분야 문화유산 보존관(Conseiller du patrimoine)’는 문화부 주관의 경쟁시험(concours)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소(INP)에서 전문 교육을 수료해야 함. 그 밖에 일반적인 아카이비스트 채용에는 기록관리학 또는 문헌정보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가 요구되며 현장에서의 실습 경험을 중요시 여김.

### ■ 주요 민간 협회 또는 기관

- 프랑스 아카이비스트 협회(Association des Archivistes Français, AAF)는 1904년 창립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함. 프랑스 전역의 공공·민간 부문 아카이비스트 약 3,0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직업 권익 보호는 물론, 뉴스레터 발간이나 네트워킹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sup>61</sup> 영국 아카이브즈 및 기록협회(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 ARA) <https://www.archives.org.uk/qualification-levels-benefits> (2025.12.5. 접속)

<sup>62</sup> 프랑스 아카이비스트 협회(Association des Archivistes Français, AAF) [www.archivistes.org](http://www.archivistes.org) (2025.12.5. 접속)



- 1984년부터 AAF훈련센터(le Centre de Formation de l'AAF)를 개원하여, 지금까지 약 12,0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음.<sup>63</sup>

### ■ 미술사 전문 메타데이터 플랫폼 사례

- **AGORHA**<sup>64</sup>: 정부 주도의 미술사 연구 기관 INHA(Institut National d'Histoire de l'Art)가 개발한 미술사 전문 메타데이터 플랫폼으로 공식적인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부터 시작. INHA는 2001년 프랑스 문화부와 고등교육연구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프랑스 미술 분야 아카이브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미술사 연구자, 도서관 사서, 아카이비스트, 디지털 아카이브 전문가 등이 함께 근무함. AGORHA는 INHA가 수집·목록화한 수천 건의 미술 아카이브 정보를 디지털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파트너 기관(예: CNRS, 국립도서관, 프랑스 대학 연구소)과도 자료 연계 중이며 풍피두센터 내 칸딘스키도서관의 일부 디지털 컬렉션을 열람할 수 있음. 규모와 데이터 통합 수준에서 훨씬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정부 주도의 연구기관(INHA)이 직접 구조화하고 통제한다는 점이 특징임.

[그림 12] AGORHA 웹사이트



### 4) 호주<sup>65</sup>

#### ■ 제도 현황

- 1983년 제정된 연방 기록법(Archives Act 1983)에 따라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가 국가 기록물을 관리·서비스하며, 각 주와 준주(準州)마다 별도의 공공기록법에 근거한 주립 기록보존소(State Archives)를 운영하여 지방정부 기록을 관할함.
- 이처럼 호주는 연방제에 맞게 기록관리 체계가 분권화되어 있으나, 연방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이나 전국 규모의 GLAM(Galleries, Libraries, Archives, Museums) 네트워크를 통해 기록관리 표준과 전문성이 공유되고 있음.

<sup>63</sup> 프랑스 아카이비스트 협회(Association des Archivistes Français, AAF) <https://www.archivistes.org/qui-sommes-nous/> (2025.12.5. 접속)

<sup>64</sup> AGORHA <https://agorha.inha.fr/> (2025.12.5. 접속)

<sup>65</sup> 호주 아카이비스트 협회(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ASA) [www.archivists.org.au](http://www.archivists.org.au) (2025.12.5. 접속)

## ■ 인증 체계 또는 자격 요건

- 호주는 공식적인 국가자격증 제도는 없지만, 관련 분야의 학위 취득과 경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중시됨. 일반적으로 기록관리나 정보관리 전공으로 대학원 수준의 자격을 갖춘 후 실무수습이나 초급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아카이비스트 진출 경로로 권장됨.
- 호주 아카이비스트 협회(ASA)는 대학의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인증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등급 인증 제도(ASA 준회원/인증회원 등)를 통해 일정 학력(ASA 인증 대학과정)과 경력을 갖춘 경우 전문 아카이비스트로 승인하고 있음.

## ■ 주요 민간 협회 또는 기관

- 1975년 설립된 호주 아카이비스트 협회(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ASA)는 호주 전역의 아카이비스트들의 전문 권익 신장과 정보 교류를 위한 협회로, 학술지 Archives and Manuscripts 발간과 연례 컨퍼런스 개최 등을 주관함.
- 또한 기록관리·정보관리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RIMPA(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Australasia)<sup>66</sup> 등 관련 전문단체들도 있음.

## ■ 채용 공고 사례

- **퀸빅토리아 미술관·미술갤러리 Librarian/Archivist:** 지원 자격으로 관련 석사 학위와 도서관·아카이브 운영 경력을 요구했고, 디지털 기록 관리 능력도 명시되어 있음. 이 직위는 QVMAG의 도서관 및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한 정책 수립부터 자료 관리, 전시 지원, 이용자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역할로서, 기관의 지식 자원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sup>67</sup>

[그림 13] 호주 박물관 및 갤러리 협회 (AMaGA) 웹사이트 Librarian/Archivist 채용공고

The screenshot shows a job listing for a Librarian/Archivist position at QVMAG.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About AMaGA, Support Us, Membership, Careers, and Sign in. The job title 'Librarian/Archivist' is prominently displayed in large bold letters. Below the title, there is a circular logo for 'City of Launceston'. The job description details the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for the position, mentioning 'QVMAG is looking for an experienced Librarian/Archivist to undertake a range dynamic tasks, working closely with the Leaders of Strategic Collections'. It also specifies that documentation must include a covering letter, resume, and a statement addressing specific requirements. To the right of the main content area, there is a sidebar with a calendar icon and the date '06/03/2025',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alene Bjornskov' with the email 'Malene.Bjornskov@launceston.tas.gov.au' and phone number '0439 998 461'.

<sup>66</sup> RIMPA(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Australasia) [rimpa.com.au](http://rimpa.com.au) (2025.12.5. 접속)

<sup>67</sup> 호주 박물관 및 갤러리 협회 (Australian Museums and Galleries Association, AMaGA), 퀸빅토리아 미술관·미술갤러리(QVMAG, 호주 태즈메이니아주)의 2025년 3월 “Librarian/Archivist” 정규직 채용공고

[https://amaga.org.au/Web/Shared\\_Content/Smart\\_Suite/Smart-Jobs/Public/Display-Job.aspx?JobNumber=535#:~:text=in%20libr ary%20and%20information%20studies](https://amaga.org.au/Web/Shared_Content/Smart_Suite/Smart-Jobs/Public/Display-Job.aspx?JobNumber=535#:~:text=in%20libr ary%20and%20information%20studies) (2025.12.5. 접속)

## 5) 일본<sup>68</sup>

### ■ 제도 현황

- 아카비스트가 국립공문서관과 지방 공문서관 등 공공 부문과 박물관·대학 등의 민간 부문에서 활동함. 정부 부처의 문서관리 전담인력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문서관 직원을 두고 있음.

### ■ 인증 체계 또는 자격 요건

- 2020년부터 국립공문서관 주관의 아카비스트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이 제도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및 경력 기준(예: 기록관리 분야 석사 학위+3년 실무경력 등)을 갖춘 지원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 아카비스트’ 자격을 부여함.<sup>69</sup>

### ■ 주요 민간 협회/기관

- 일본아카이브학회(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 JSAS)는 일본의 대표적인 아카비스트 학술단체로 2005년 설립되었으며, 아카비스트 등록제 운영과 연구 발표를 주관함.

### ■ 채용 공고 사례

- **오하라 미술관(오하라 예술재단)**<sup>70</sup>: 2025년 일본 오카야마의 오하라 미술관을 운영하는 오하라예술재단에서 “연구원(아카비스트)” 직위를 공개 모집함. 이 채용은 미술관 및 부속 고고학관의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정보 정리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연구와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었음. 또한 해당 직무는 채용 후 미술관 소장 문서의 체계적 보존과 열람 서비스를 전담하도록 계획되었음. 지원 자격으로 박물관법상 학예원 자격 및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박물관·기업 등에서 자료 정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우대됨.

[그림 14] 오하라 예술재단 연구원(아카비스트) 채용공고

公益財団法人大原芸術財団 研究員（司書、アーキビスト）の公募について

2025.08.10

公益財団法人大原芸術財団では、研究員（司書、アーキビスト）の採用募集を実施します。

- 採用予定人数：研究員・司書 1名、研究員・アーキビスト 1名
- 勤務先：大原美術館、倉敷考古館
- 応募締切：令和7年9月12日（金曜日）17時必着
- 採用予定期：令和7年10月1日（水曜日）※応相談
- 詳細：下記よりダウンロードしてください。

【公益財団法人大原芸術財団 研究員（司書、アーキビスト）公募要項（PDF）】

【（別紙）研究業績一覧（Word）】

なんなんDAYS2025～ミュー…

<sup>68</sup> 일본 아카이브학회 (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 JSAS) [www.jsas.info](http://www.jsas.info) (2025.12.5. 접속)

<sup>69</sup> 일본 독립행정법인국립공문서관 (National Archives of Japan) [www.archives.go.jp](http://www.archives.go.jp) (2025.12.5. 접속)

<sup>70</sup> 오하라 미술관(Ohara Museum of Art) [ohara.or.jp](http://ohara.or.jp) (2025.12.5. 접속)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가. 소결

- 국내 미술 아카이브 관련 연구는 2000년대 김기현, 정명주 등을 통해 개념 도입이 시작된 탐색기를 거쳐 201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와 백남준 아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공공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며 공공기관의 아카이브 운영 전략 및 정책 연구, 시스템 구축으로 본격화되어 옴. 공립 미술관의 아카이브 구축이 확산되면서 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나 기록학 분야에 비해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직무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위치함.
- 현재 미술 관련 기관들 가운데 일부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미술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관은 물리적인 아카이브 저장소부터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전문인력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각 기관의 현행 추진과제와 더불어 10~30년간 축적된 방대한 미술 아카이브를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통해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나, 기록을 전시·출판 등 서비스 중심으로 초점을 두어 구축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 중 물리적 공간을 갖추고 기관에 부합하는 미술 아카이브 정책을 마련하며 절차를 표준화하여 국제적인 기준과 지침에 맞게 자료를 구축·활용하는 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총 4곳뿐임을 알 수 있음.<sup>71</sup>
- 또한 국내에서 미술 전문 아카이비스트로 활동하는 인력은 약 20여 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의 미술 아카이브 경력과 미술사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까지 보유한 실무자는 약 7명 수준으로 매우 적음. 반면 기록계에서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 개정과 함께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2024년 12월 기준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대학 등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는 1,230여 명을 넘었고, 전체 대상 기관 1,634개 중 1,230개 기관에 배치되어 최근 파악된 전국의 배치율은 75.3%에 이룸(2025년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 기준). 이는 비슷한 시기 국내 미술계 현장에서 아카이비스트 활동의 발전 현황과 비교할 때 전문인력 육성의 측면에서 격차가 아주 크게 나타난 것으로,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록계와 미술계 사이의 전문인력의 법제화와 제도화 여부의 차이에서 기인함.
- 아카이브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으로 다수의 기관에서 학예 업무 내 아카이브 업무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장에서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물리적 공간이나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시적인 인력 배치에 의존하는 경우도 확인됨. 기관의 여건에 따라 아카이브의 독립적 운영의 한계가 보이며 편차도 지속적으로 관찰됨.
- 미술 아카이브 관련 전문인력의 운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논의되는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직무는 ① 자료 수집·평가·선별, ② 자료 정리·기술·DB 구축, ③ 보존·서고 관리, ④ 전시 기획 및 콘텐츠 제작·연구·활용, ⑤ 열람 서비스 및 이용자 지원, ⑥ 시스템 운영 및 기술 표준화, ⑦ 행정·사업 운영 등

<sup>71</sup> 이지은,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권 1호, 2024. p. 2

다층적인 업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직무 요소들은 기관 유형과 여건, 필요에 따라 혼합형 구조로 나타남. 그 중에도 정리 및 기술 업무는 대부분의 아카이브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며 강조되는 직무로 확인됨.

- 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 아직 자리잡지 못한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현행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도서관법」의 사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문화예술교육사 등 여러 제도적 기반을 참고하자 했음. 또한 기록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들은 아카이브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폭넓게 형성하고 있지만,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를 독립된 전문 직군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 미술 분야의 경우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가 있었으나 최근 괄목할만한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미술 현장 중심으로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음. 그러나 여러 주체가 산발적으로 시행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등 지속성 및 체계성에서 다소 아쉬움을 갖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으로부터 미술 아카이브를 공적 서비스로 인식하는 움직임은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의 역할과 필요성을 가시화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인력지원사업의 변화상을 미루어 볼 때 수집·보존·연구 등 아카이비스트 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점은, 중소 규모의 미술관은 물론 대안공간, 갤러리, 스튜디오 같은 현장에서 아카이비스트를 독립된 직무로 확장되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비교적 한국보다 앞서 기록 관련 법제가 시행된 주요 해외 국가들이나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음. 국가별 기록관련 체제(중앙/지방) 및 학제의 근본적 틀이 상이하여 깊이 있는 비교 분석은 어려웠으나, 대부분 기록 관련 법령의 시행과 국가 차원의 기록원 운영을 중심으로, 공공기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여기에 근무하는 공공 분야 아카이비스트를 위시하여 전문적 직군의 인력들은 대학원 수준의 전문 교육과 민간 협회의 인증·등록 제도가 결합된 형태로부터 배출되고 있었음. 최근 들어 도서관·아카이브·연구기관 등 전반에서 아카이비스트가 각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측면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미술 분야로 좀 더 좁혀 보면 미국의 SAA 내에 미술관 전문 분과가 운영되는 사례가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의 양성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매우 앞서나가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음. 또한 프랑스의 AGORHA 같은 미술사 아카이브 통합 플랫폼의 운영 사례는 미술 아카이브가 연구에서부터 공공 서비스까지 아우르며 지적 자원이 핵심적 기반으로 기능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미술관은 286곳으로, 이 기관 중 아카이비스트·기록연구사를 채용하거나 또는 인력구조나 업무체계에서 아카이브 업무를 명시한 기관은 10개 내외로 극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대부분의 미술관이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어, 별도의 기록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임.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공립미술관들에서 전담 인력 배치나 아카이브 조직화를 이미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공립 및 사립 미술관에서부터 소규모 기관까지 아카이비스트를 상시 배치하는 제도적 논의를 확대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 나. 시사점

- **현장을 반영한 미술 아카이스트의 직무체계 정립 필요**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나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국립미술관,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아르코예술기록원과 같은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규모나 성격, 직렬과 여건에 따라 학예(연구) 및 수집(보존), 기록관리, 사서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음. 실제로 다수의 기관에서 학예와 기록관리 업무가 함께 이뤄지며, 채용 과정에서도 미술분야 전공과 기록관리학 혹은 문헌정보학 전공을 동시에 요구하거나 우대조건으로 나타남. 반면에 해외 기관의 경우에는 미술과 기록관리의 영역이 하나의 전문 영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령 전시 기획이나 연구 과정 전반에 아카이스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디지털 인문학을 기반으로 기록 분석이나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훈련 받는 경우가 그러함. 이에 따라 국내의 미술 아카이스트에 대한 직무 역시 기존의 유사 직무 모델과는 차별점을 두고 기록관리와 전시, 연구, 교육, 정보서비스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전제로 한 직무 및 직렬 체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
- **디지털 전환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역량의 필수화**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 분야에 걸쳐 비대면 환경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특히 공공 서비스의 측면에서 미술관의 전시·교육 기능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음. 이에 따라 당연하게도 미술관 및 미술 관련 기관의 디지털 기록은 양적으로 급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임. 이에 따라 미술 아카이스트 교육과정과 기관 내부 운영 매뉴얼은 디지털 보존과 기록정보서비스를 포함하여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미술 아카이브의 운영에 있어서도 아날로그 기록을 관리하는 아카이스트뿐 아니라, 다양한 미술 매체를 수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 분야 디지털 아카이스트의 육성이 필수적임. 동시에 디지털 연구자·아카이스트·전산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 미술 아카이브 구축 체계를 마련하여 불안정한 매체를 무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민관 협력 기반의 장기적 미술 아카이브 운영 모델 구축** : 민간과 공공의 협력 기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술 아카이브 운영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은 기록물관리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목록화 및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 역시 최근 전시 업무를 넘어 아카이브 자료집 발간 및 소장품 관리 등 아카이스트의 업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협회를 통해 미술관 실무자와 연구자를 연결하고, 학술 기록의 가치와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 단체의 역할이 필요함. 프랑스의 'AGORHA' 플랫폼처럼 정부 주도 하에 여러 연구소와 민간 파트너 기관의 자료를 연계하는 모델을 참고하여, 독립 아카이브와 커뮤니티 기록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도와 표준화 기반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민간 기관에서 수집, 연구, 콘텐츠 생산에서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식은 상호보완적 협력 모델로 검토될 수 있음.
- **상시 조직·인력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설계 필요** : 미술관 또는 미술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술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기록계의 기록연구사와 같은 전문인력 현황을 참고하여 법제화 및 제도 마련을 본격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작금의 아날로그 기록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미술 아카이스트의 매체적

다양성, 다시 말해 질적 확장뿐만 아니라 제도화와 법제화를 통한 양적 증대가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제도화·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공공 기관에서부터 조금 더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키비스트 육성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음. 상시 조직·인력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인력 기준 설정하거나 표준 운영 매뉴얼의 지속적 갱신, 성과 평가 기준의 재설정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의 구축량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의 지속성과 이용 성과, 기술 품질과 같은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하는 정책적 고도화가 요구됨.

## 제3장

---

###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운영 사례

## 제1절 기관 교육 프로그램 사례

### 1. 조사 목적 및 범위

- 본 절은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를 다루는 주요 기관의 전문 아카이비스트를 위한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 기간, 교육 대상, 강의 형식, 참여 강사 수, 강의 회차 수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실무형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국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0여 년 사이 운영된 중앙정부 소속/산하 기관과 공공미술기관,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 민간(기업문화재단)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프로그램은 운영 기간, 운영 대상, 교육 강사 현황, 강의 형식, 프로그램 개요, 세부 커리큘럼, 주최 기관 등의 현황을 살피고자 하였음.  
\*단순 1일 강연 위주의 프로그램은 제외하였음.
- 국내 교육 프로그램 내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조사하였음. 이는 정규 교육과정과 달리 실제 업무 환경에서 장기간(3개월~7개월) 실무를 경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춤.
- 국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미국, 유럽(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아시아(홍콩, 대만) 총 6개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 운영 기간, 운영 대상, 교육 강사 현황, 강의 형식, 프로그램 개요, 세부 커리큘럼, 주최 기관 등의 현황을 살피고자 하였음.
- ‘아카이브’, ‘미술 아카이브’, ‘미술 아카이비스트’ ‘아트 아카이비스트’, ‘문화예술 아카이브’ 등이 사용되고 있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 2. 국내 교육 프로그램

#### 가. 중앙정부 소속/산하 기관

##### 1)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경영지원센터 산하에서 운영 중인 예술산업아카데미는 2007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예비인력부터 현장 실무자를 아우르는 예술산업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왔음.
- 아카이브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은 2023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을 중심으로 한 실무 교육으로 진행됨.

##### 예술산업아카데미 –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 워크숍〉 (2023)<sup>72</sup>

- 문화예술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 입문 과정으로, 총 5회차의 이론·사례·실습 교육으로 구성됨. 세부 커리큘럼은 기록 수집·평가, 메타데이터 구축, 전거래코드 연계 등 아카이브 구축의 핵심 절차를 실습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문화예술기록과 관련된 실습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sup>72</sup>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s://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3609](https://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3609) (2025.6.10.접속)

- 기록관리의 기본 개념부터 실습 그리고 활용과 운영 단계까지 아카이브 업무 전반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임.

**■ 운영 기간**

2023년 12월 1일~15일 \*총 5회차

**■ 운영 대상**

아카이빙을 통해 기록물 관리가 필요한 단체 또는 기관 종사자

**■ 모집 인원**

20명

**■ 수강료**

무료

**■ 교육 강사**

- 3명, 디지털 아카이브 분야 교수 및 현업 전문가
- 이호신(한성대학교 도서관정보문화트랙과 부교수), 김재승((주)이음스토리 대표), 황용구(이음스토리 기업부설 연구소 소장)

**■ 강의 형식**

오프라인 워크숍형 교육(이론+실습)

**■ 주최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모아/예술산업아카데미

[표 12] 예술산업아카데미 –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 워크숍〉 (2023)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12.1(금) 10:00-13:00	기록과 아카이브의 이해	이호신
		문화예술아카이브의 개념과 종류	
2차시	12.4(월) 10:00-13:00	문화예술기록의 수집과 선별/평가	이호신
		국내·외 아카이브 사례	
3차시	12.8(금) 10:00-13:00	문화예술기록의 관리(메타데이터의 구축)	이호신 김재승
		아카이브 실습 ① 메타데이터	
4차시	12.11(월) 10:00-13:00	문화예술기록의 지식화(전거레코드와 연계)	이호신 김재승
		아카이브 실습 ② 전거레코드	
5차시	12.15(금) 10:00-13:00	아카이브 실습 ③ 관계 및 검색	이호신 황용구
		문화예술아카이브의 활용과 운영	

## 2) 아르코예술기록원

- 2010년 당시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전신인 (재)국립예술자료원은 체계적인 예술기록 수집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준비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2012년 7월 첫 운영이 이루어짐.
- 특히 예술사 구술채록 분야의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세분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당시 공공기관 차원에서 보기 드문 시도로<sup>73</sup> 평가됨.

### (1) 실무 양성 프로그램 –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012)<sup>74</sup>

- 2012년 국립예술자료원의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 정식 기초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었음.
- 커리큘럼은 기록의 수집·관리·활용을 중심으로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분야의 아카이브 사례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 사례까지 포함하여 예술기록 전반을 폭넓게 다룬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 2012년 7월~8월 \*총 7회차

#### ■ 운영 대상

예술기록관리 관심자, 예술 또는 기록관리 전공자

#### ■ 모집 인원

30명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 7명, 기록학·문헌정보학 교수, 아카이브 담당 학예연구사 등 다수
- 서연호(고려대학교 국문과 명예교수), 홍선표(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박주석(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설문원(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아카비스트), 남성호(세종대학교 한일예능연구소 연구원), 성기숙(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 강의 형식

오프라인 강의

#### ■ 주최기관

(재)국립예술자료원 (현, 아르코예술기록원)

<sup>73</sup> 최해리, 「예술기록관리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국립예술자료원 개원 기념 세미나 〈예술자료관리의 중요성과 국립예술자료원의 역할〉(2011년 3월 25일, 예술가집 다목적홀) 발표 참고. <https://blog.naver.com/chumnuri2010/100143452126> (2025. 12. 5 접속)

<sup>74</sup> 국립예술자료원 <https://www.archivists.or.kr/429> (2025.7.23.접속)



[표 13] 실무 양성 프로그램 –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012)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기조강연	7.23(월) 10:00-12:00	예술기록문화의 현실과 중요성	김정옥
1차시	7.24(화) 10:00-12:00	예술 기록의 수집과 평가 - 공연예술	서연호
2차시	7.25(수) 10:00-12:00	예술 기록의 수집과 평가 - 시각예술	홍선표
3차시	7.26(목) 10:00-12:00	제도와 정책	박주석
4차시	7.27(금) 10:00-12:00	분류와 조직	설문원
5차시	7.30(월) 10:00-12:00	등록과 정리, 그리고 기술	박상애
6차시	7.31(화) 10:00-12:00	서비스 운영사례 소개 - 일본 와세다대 연극 박물관 사례	남성호
7차시	8.1(수) 10:00-12:00	예술 기록의 연구와 활용	성기숙

## (2)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4)<sup>75</sup>

- 아르코예술기록원 개편 이후 운영된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은 기록관리 실무 경험이 있는 현장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기획된 입문·심화 통합형 과정임.
- 문화예술기록관리의 기초 이론과 기록물 분류·관리 체계, 국내·외 아카이브 사례, 메타데이터 표준, 저작권, 디지털 보존관리 등 기록관리 전반의 핵심 주제를 포괄한다. 강의는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국내 문화예술 아카이브를 다루는 4개 기관의 탐방을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참여자의 현장 경험을 강화하였음.
- 특히 2025년부터는 실습 강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론–사례–실습’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커리큘럼 구조를 도입하여 디지털 기반 기록관리 프로세스 및 아카이스트 실무 역량 강화를 한층 심화하여 지원함.

### ■ 운영 기간

2024년 8월 1일 ~ 10월 24일 \*입문반 6회차, 심화반 4회차, 현장 탐방 4회차

### ■ 운영 대상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문화예술아카이브 분야 예비 종사자 등

### ■ 모집 인원

50명 내외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sup>75</su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artsarchive.arko.or.kr/service/notice/4417?page=1> (2025.6.10.접속)

- 10명, 기록학·문헌정보학 교수, 국립아카이브 담당 학예연구사, 영상자료원 보존 전문가 등
- 임진희(서울대학교 강사), 설문원(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노예리(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강슬기(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연구사), 김창호(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정보원(아르코예술기록원 원장), 박지영(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대진(아카이브랩 대표), 이철남(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민(한국영상자료원 보존관리팀 차장)

#### ■ 강의 형식

온라인 강의(Zoom, 입문반·심화반), 현장탐방(기관 방문)

#### ■ 주최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 ■ 협력기관

공연문화예술아카이브네트워크(K-PAAN) 소속 국공립기관

[표 14]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4, 온라인 교육 입문반)

####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8.1(목) 19:00-20:30	문화예술기록관리의 기초	임진희
2차시	8.8(목) 19:00-20:30	문화예술아카이브의 기능과 아카이비스트의 역할	설문원
3차시	8.22(목) 19:00-20:30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 국립국악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예리
4차시	8.29(목) 19:00-20:30	시각예술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슬기
5차시	9.5(목) 19:00-20:30	민속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창호
6차시	9.12(목) 19:00-20:30	구술채록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원

[표 15]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4, 온라인 교육 심화반)

####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9.24(화) 19:00-20:30	국내외 예술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표준	박지영
2차시	9.26(목) 19:00-20:30	예술기록관리시스템의 동향과 사례	안대진
3차시	10.8(화) 19:00-20:30	문화예술아카이브의 저작권 쟁점	이철남

4차시	10.10(목) 19:00-20:30	문화예술아카이브의 보존관리 방안 : 매체별 실무 관리를 중심으로	조성민
-----	----------------------	--	-----

[표 16]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4, 현장탐방)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1차시	10.15(화)	아르코예술기록원
2차시	10.17(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차시	10.22(화)	국립국악원
4차시	10.24(목)	국립민속박물관

### (3)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5)<sup>76</sup>

- 2024년 프로그램이 온라인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 기초 이론 및 사례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2025년에는 이론 학습에서 사례 분석, 실습으로 연결되는 단계형 커리큘럼으로 바뀌면서 실습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음.
- 교육 과정에는 문화예술기록관리의 개요, 메타데이터와 전자기록 관리 실습, 정보공개와 저작권, 디지털 기반 보존관리 등 핵심 실무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온라인 강의를 기본으로 하되 국립극장·국립민속박물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내 아카이브 기관 탐방을 병행하여 현장 이해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
- 2025년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으며, 입문·심화 교육과 실습·탐방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5년 7월 15일~9월 26일 \*7회차, 현장탐방 5회차

#### ■ 운영 대상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아카이브 예비 인력,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 등

#### ■ 모집 인원

50명 내외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 7명, 기록학·문헌정보학 교수, 국공립 아카이브 담당 학예연구사, 영상자료원 보존 전문가 등

<sup>76</sup> 아르코예술기록원 <https://artsarchive.arko.or.kr/service/notice/4483?page=1> (2025.7.23. 접속)

[https://www.instagram.com/p/DR0ahkjDBjm/?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NTc4MTIwNjQ2YQ==](https://www.instagram.com/p/DR0ahkjDBjm/?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NTc4MTIwNjQ2YQ==) (2025.12.05. 접속)

- 설문원(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지영(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주선영(국립극장 학예연구사), 강슬기(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연구사), 조성민(한국영상자료원 보존관리팀 차장), 정보원(아르코예술기록원장), 노예리(국립부산국악원 학예연구사)

### ■ 강의 형식

온라인 강의(Zoom, 입문반·심화반), 현장탐방(기관 방문)

### ■ 주최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 ■ 협력기관

공연문화예술아카이브네트워크(K-PAAN) 소속 국·공립기관 및 한국영상자료원

**[표 17]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5)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7.17(목) 19:00-20:30	문화예술아카이브의 기능과 아카이스트의 역할	설문원
2차시	7.24(목) 19:00-20:30	예술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활용	박지영
3차시	7.31(목) 19:00-20:30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주선영
4차시	8.7(목) 19:00-20:30	시각예술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강슬기
5차시	8.21(목) 19:00-20:30	아카이브의 보존관리	조성민
6차시	8.28(목) 19:00-20:30	구술채록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정보원
7차시	9.4.(목) 19:00-20:30	아카이브의 저작권 관리	노예리

**[표 18]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5, 현장탐방)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1차시	9.11(목)	아르코예술기록원
2차시	9.16(화)	국가유산청
3차시	9.23(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차시	9.25(목)	우리소리박물관
5차시	9.30(화)	한국영상자료원

#### (4) 전문직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오픈소스 기록시스템 워크숍〉 (2024)<sup>77</sup>

- 본 과정은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sup>78</sup>가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기록시스템인 AtoM을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시스템 설치, 메타데이터 설계, 사용자 권한 설정 등 기술 전반을 이론과 실습으로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형태임.
- 소장기록물의 컬렉션 등록, CSV import, 시스템 기능 검토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을 포함하며, 아르코예술기록원 내부의 행정·아카이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 내부 아카이브 역량 강화와 향후 AtoM 기반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4년 5월 13일~14일 \*총 2회차

##### ■ 운영 대상

예술기록원 소속 행정·아카이브 담당자

##### ■ 모집 인원

실무 담당 직원 한정 모집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2명, 아카이브 분야 기업 전문가 / 안대진(아카이브랩 대표), 이기영(아카이브랩 연구원)

##### ■ 강의 형식

워크숍형 교육(이론+실습)

##### ■ 주최기관

아르코예술기록원 × 아카이브랩

[표 19] 전문직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오픈소스 기록시스템 워크숍〉 (2024)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5.13(월) 10:00-18:00	오리엔테이션, 프로세싱 개요	안대진
		OSS 현황, AtoM 소개, 사례	
		I. 카탈로그	
		II. 시스템 설정	
		III. 파일 및 사본관리	
		팀별 컬렉션 기술하기	

<sup>77</sup> 아카이브랩, <https://www.archivelab.co.kr/d2e9e345-20ac-4e5d-82f0-2586fc6815c3> (2025.6.10.접속)

<sup>78</sup>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https://ica-atom.org/> (2025.6.10.접속)



2차시	5.14(화) 10:00-18:00	IV.실물기록관리	안대진
		V.활용	
		CSV Import	이기영
		팀별 컬렉션 기술하기	안대진
		아르코예술기록원 소장기록물관리시스템 리뷰	
		팀별 컬렉션 발표	

### (5)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 (2024)<sup>79</sup>

- 예술가의 창작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작가 스스로 관리·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실습 중심 교육임.
- 세부 커리큘럼은 강연과 집담회를 포함하여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디지털 툴 활용법, 결과 공유 간담회 등 창작기록 아카이빙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창작 자원으로 재구성 할 수 있도록 구성됨.
- 2023년 〈신진예술가를 위한 아카이빙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처음 운영을 시작되었으며, 세부 과정이 집담회와 강연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나, 2024년 〈예술가의 아카이빙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확대 개편되어 총 커리큘럼이 추가로 확장됨.

#### ■ 운영 기간

2024년 10월 28일~11월 4일 \*총 4회차

#### ■ 운영 대상

아카이빙을 준비하는 신진(예비)예술가, 아카이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

#### ■ 모집 인원

20명~40명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 8명, 아카이브 분야 교수, 작가, 연구자 등
-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오찬석(사진작가), 정일복(영상감독), 안대진(아카이브랩 대표), 최정은(기록 연구자), 유인수(극단 연우무대 대표), 최승윤(미술작가), 호경윤(아트저널리스트)

#### ■ 강의 형식

오프라인 강의, 집담회 및 토론

<sup>79</sup> 아르코예술기록원 <https://artsarchive.arko.or.kr/service/notice/4375?page=1> (2025.11.13.접속)

아르코예술기록원 <https://artsarchive.arko.or.kr/service/notice/4443?page=1> (2025.11.13.접속)

## ■ 주최기관

아르코예술기록원

[표 20]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2024)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강의, 집담회, 토론)	11월 12일(화) 13:30-14:50	예술기록물의 의미	설문원
	11월 12일(화) 15:00-17:30	예술아카이빙의 중요성	오찬석, 유인수 정일복, 최승윤, 호경윤
2차시 (강의)	11월 13일(수) 14:00-17:30	아카이빙을 위한 사진기록과 편집	오찬석
3차시 (강의)	11월 14일(목) 14:00-17:30	아카이빙을 위한 영상기록과 편집	정일복
4차시 (강의)	11월 15일(금) 14:00-17:30	디지털툴을 활용한 아카이빙	안대진

## (6)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2025)<sup>80</sup>

- 2025년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으로 재개편되어 총 8회차로 확대 운영되었음. 예술기록관리의 실질적 방법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초점을 두고 실습 프로그램 비중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메타데이터 구축, 기록 정리·편집, 디지털 기술 등 실무 중심의 실습 과정이 추가된 방식으로 개편되었음.
- 특히 8차시의 경우에는 ‘성과 공유 간담회’ 시간으로 구성하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실습한 아카이빙 결과물을 공개하고, 예술 기록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음.
- 교육 대상을 작가(예술가)로 한정하여 작품 창작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관리·보존하는 방식에서, 단순 저장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활용 가능한 창작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작가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운영 기간

2025년 10월 21일~10월 30일 \*총 8회차

## ■ 운영 대상

아카이빙을 준비하는 신진(예비)예술가, 아카이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

## ■ 모집 인원

30명

<sup>80</sup> 아르코예술기록원 <https://www.arko.or.kr/board/view/4057?page=&cid=1809989>

아르코예술기록원 SNS [https://www.instagram.com/p/DPSU3oiE4al/?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NTc4MTIwNjO2Y0==](https://www.instagram.com/p/DPSU3oiE4al/?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NTc4MTIwNjO2Y0==)  
(2025.11.13.접속)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7명, 아카이브 분야 교수, 작가, 연구자 등 / 설문원(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고정균(사진가), 전혁진(영상감독), 안대진(아카이브랩 대표), 최정은(기록 연구자), 박동우(무대예술가), 본주(연출)

## ■ 강의 형식

오프라인 강의, 집담회 및 토론

## ■ 주최기관

아르코예술기록원

[표 21]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 (2025)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강의, 집담회, 토론)	10월 21일(화) 13:30-14:50	예술기록물의 의미	설문원
	10월 21일(화) 15:00-17:30	예술아카이빙의 중요성	최정은, 고정균 박동우, 본주, 전혁진
2차시 (강의)	10월 22일(수) 14:00-17:00	아카이빙을 위한 사진기록과 편집	고정균
3차시 (강의)	10월 23일(목) 14:00-17:00		
4차시 (강의)	10월 24일(금) 14:00-17:00	아카이빙을 위한 영상기록과 편집	전혁진
5차시 (강의)	10월 27일(월) 14:00-17:00		
6차시 (강의)	10월 28일(화) 13:00-17:00	디지털툴을 활용한 아카이빙	안대진
7차시 (강의)	10월 29일(수) 13:00-17:00		
8차시 (간담회)	10월 30일(목)	아카이빙 결과물 공유 간담회	-

###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기관 내 다양한 영역의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국제적 수준의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축을 준비하기 위해 〈전당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당시 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원에서 요구되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록연구사(아키비스트)’, ‘소장품관리원(레지스트라)’, ‘문화교육가(에듀케이터)’, ‘무대기술인력’ 등 4개 분야 교육으로 진행되었음.
- 이후 2019년부터는 본 시범사업이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정규과정〉으로 개편되며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게 되었음. 정규과정은 1학기 전공 특화 이론 수업과 2학기 ACC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직군 명칭 또한 ‘아키비스트’에서 ‘디지털 아키비스트’로 변경되었음. 전시테크니션, 사운드 엔지니어 등 다른 기술 기반 직군과 함께 통합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시범사업과 차별성을 보임.

### **(1)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 〈디지털 아키비스트〉 (2021)<sup>81</sup>**

- 2021년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로 개편된 ‘디지털 아키비스트’ 과정은 문화예술 분야의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류·보존·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됨.
- 세부 커리큘럼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다양한 매체 기록의 특성, 국내·외 아카이브 사례, ACC 아카이브 운영 현황, 디지털 아카이브의 미래 기술과 전략 등을 주제로 이론 강의와 사례 기반 수업으로 구성됨.
- 매주 목요일 정기 강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총 10차시로 구성되었으나, 예비전문가 교육인 만큼 방학 기간에 맞춰 일부 회차(1·2회차)가 하루 일정으로 병합 운영되어 실제 강의는 5차시로 진행된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1년 7월 22일~8월 21일 \*총 10회차

#### **■ 운영 대상**

관련분야전공 및 이에 준하는 예비전문가

#### **■ 모집 인원**

20명 내외

#### **■ 수강료**

50,000원

#### **■ 교육 강사**

- 4명, 각 기관 아키비스트, 교수, 기업가
- 이지은(국립현대미술관 아키비스트), 조대연 (광주대학교 사진영상드론학과/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강슬기(ACC아카이브팀 아키비스트), 김선혁(레벨나인 대표)

#### **■ 강의 형식**

이론 중심 오프라인 강의

#### **■ 주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

<sup>81</sup>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acc.go.kr/main/education.do?PID=040401&action=Read&bnkey=EM\\_0000004509](https://www.acc.go.kr/main/education.do?PID=040401&action=Read&bnkey=EM_0000004509) (2025.11.18. 접속)

[표 22]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 〈디지털 아키비스트〉 (2021)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7.22(목) 13:00-16:00	(오리엔테이션) 디지털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 - 역할	이지은
2차시		디지털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 - 주요 업무 및 활동	
3차시	7.29(목) 13:00-16:00	아카이브자료 – Visual Archive의 종류, 수집 사례(국내외) I	조대연
4차시			
5차시	8.5(목) 13:00-16:00	아카이브자료 – Visual Archive의 종류, 수집 사례(국내외) II	조대연
6차시			
7차시	8.12(목) 13:00-16:00	ACC 아카이브 소개 및 현황	강슬기
8차시		ACC 라이브러리파크 (자율 관람)	
9차시	8.19(목) 13:00-16:00	아카이브의 활용과 디지털아카이브의 미래-활용사례	김선혁
10차시		아카이브의 활용과 디지털아카이브의 미래-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전략	

## (2) 여름방학 ACC 직군탐색 – 〈디지털 아키비스트〉 (2023)<sup>82</sup>

- 2023년 〈여름방학 ACC 직군탐색〉 과정으로 개편되었으며, 초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아키비스트’의 직무 기초 이론과 실무 지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여름방학 집중 교육으로 운영되었으며, 기록학·문헌정보학 전공자 또는 아카이브 관련 실무 경험 보유자를 대상으로 함.
- 세부 커리큘럼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카이브 개념 확장, 아키비스트와 큐레이터의 경계, 웹 문화와 지역문화 그리고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등의 다양한 장르의 사례를 포함함.
- 특히 ‘디지털 아카이빙 실습하기: 나의 디지털 타임라인 페이지 만들기’와 같이 아카이브 콘텐츠 생산·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실습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3년 8월 10일~ 8월 31일 \*총 8회차

### ■ 운영 대상

각 강좌 직군에 관심 있는 자

### ■ 모집 인원

<sup>82</sup>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acc.go.kr/main/education.do?PID=0402&action=Read&bnkey=EM\\_0000006402](https://www.acc.go.kr/main/education.do?PID=0402&action=Read&bnkey=EM_0000006402) (2025.7.23.접속)

20명 내외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 6명, 아카이브 분야 기업 관계자, 대학교수, 큐레이터 등
- 김선혁(레벨나인 대표), 주은정(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권태현(독립 큐레이터), 정주영(아트앤데이터 대표), 강성봉(성북문화원 국장), 이현인(레벨나인 콘텐츠 파트장)

### ■ 강의 형식

이론 중심 온라인 강의(Zoom) + 실습

### ■ 주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표 23] 여름방학 ACC 직군탐색 — 〈디지털 아카이비스트〉 (2023)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8.10(목) 14:00-16:00	디지털 아카이브의 미래와 데이터 경험	김선혁
2차시	8.11(금) 14:00-16:30	아카이비스트와 큐레이터의 경계	주은정
3차시	8.17(목) 14:00-16:30	웹 문화를 아카이빙하기: RIP Flash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권태현
4차시	8.18(금) 14:00-16:30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와 시맨틱 데이터의 가능성	정주영
5차시	8.24(목) 14:00-16:00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 성북마을 아카이브 사례 중심으로	강성봉
6차시	8.25(금) 14:00-16:00	아카이브 콘텐츠의 이해와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사례	이현인
7차시	8.31(목) 13:00-16:00	디지털 아카이빙 실습하기: 나의 디지털 타임라인 페이지 만들기	이현인 외 1인
8차시	8.31(목) 16:00-19:00	디지털 아카이빙 실습하기: 나의 디지털 타임라인 페이지 만들기	이현인 외 1인



### (3) ACC 전문인 직군탐색 장기과정 – 〈아트아카이비스트〉 (2025)<sup>83</sup>

- 2025년 〈2025 상반기 ACC 직군탐색 장기과정〉, 〈2025 상반기 ACC 직군탐색 단기과정〉, 〈2025 여름방학 직군탐색과정〉으로 세분화되었으며, 기존 ‘디지털 아카이비스트’ 과정은 ‘아트 아카이비스트’라는 명칭으로 장기과정에 포함됨.
- 아트 아카이비스트 장기과정은 Zoom 기반의 이론 교육, 미술관·아카이브 기관 탐방, 실습이 결합된 단계적 교육 구조로 운영되었음.
-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과 사례, 디지털 아카이브 이해, 현대미술 아카이브 실천 등 이론 강의와 함께 리움미술관·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방문, 개인 아카이브 실습 및 발표까지 포함한 커리큘럼이 제공되었으며, 소규모 정예 방식으로 기초 이론부터 현장 실무까지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5년 4월 3일~5월 24일 \*총 10회차

#### ■ 운영 대상

아트 아카이브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진로 탐색자

#### ■ 모집 인원

15명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 8명, 미술관·아카이브 소속 아카이비스트, 대학교수, 큐레이터 등
- 이지은(아카이비스트), 이경남(한신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강사), 김은진(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양서윤(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지가은(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구정연(리움 교육연구실장), 조은성(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기록연구사), 유예동(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 ■ 강의 형식

이론 중심 온라인 강의(Zoom) + 기관 탐방(오프라인) + 실습

#### ■ 주최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표 24] ACC 전문인 직군탐색 장기과정 – 〈아트아카이비스트〉 (2025)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4.3(목) 16:00-18:00	아카이브의 실제: 아카이브 vs 아트 아카이브	이지은

<sup>83</sup>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acc.go.kr/main/education.do?PID=0402&action=Read&bnkey=EM\\_0000008244#scheduleList02](https://www.acc.go.kr/main/education.do?PID=0402&action=Read&bnkey=EM_0000008244#scheduleList02)  
(2025.6.10.접속)

2차시	4.10(목) 16:00-18:00	아트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국내·외 사례 및 실질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이지은
3차시	4.17(목) 16:00-18:00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해와 활용	이경남
4차시	4.24(목) 16:00-18:00	미술 아카이브의 보존	김은진,이지은
5차시	5.1(목) 16:00-18:00	아카이브의 확장: 아카이브 활용 방안 중 출판 사례를 중심으로 / 아트 아카이브 실습 관련 논의	양서윤,이지은
6차시	5.8(목) 16:00-18:00	현대미술의 아카이브적 전환과 실천	지가은,이지은
7차시	5.15(목) 10:00-12:00	아트 아카이브 기관 탐방 (LEEUM)	구정연,이지은
8차시	5.15(목) 14:00-18:00	아트 아카이브 기관 탐방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조은성,유예동 이지은
9차시	5.24(목) 12:00-14:00	아트 아카이브 실습	이지은
10차시	5.24(목) 14:00-16:00	아트 아카이브 실습 최종 발표	이지은

#### 4) 국립현대미술관 (MMCA)

- 〈예비 전문인 연수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운영되었으며, 미술관 직군 전반에 대한 진로 탐색과 실무 지향 교육을 제공함. 2024년 처음으로 ‘아카이브’ 직군이 공식 편성되어, 미술관 교육, 전시 운영, 전시 디자인과 더불어 예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술관의 직무 구조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예비 전문인 연수 프로그램〉 (2024)<sup>84</sup>

- 1일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됨. 마지막 차시에는 후기 및 토론 진행 중심으로 구성됨.
- 미술관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예비 전문인을 대상으로 미술관의 실제 업무 내용을 직접 소개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며 분과별 멘토와의 후기 및 토론 시간을 통해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4년 11월 8일 \*1일 집중형

#### ■ 운영 대상

미술관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및 관련 전공자 (휴학생, 졸업생 포함)

#### ■ 모집 인원

70명

<sup>84</sup>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educations/educationsDetail.do?eduid=202410220000582> (2025.7.23.접속)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 5명, 국립현대미술관 각 직군별 학예연구사 멘토 + 외부 전문강사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분과별 멘토), 김현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

## ■ 강의 형식

오프라인 현장 연수 (강의 + 실습)

## ■ 주최기관

국립현대미술관

[표 25] <예비 전문인 연수 프로그램> (2024)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11.8(금) 10:30-15:50	<미술관 직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현경
		강연 / 미술관 교육	국립현대미술
		현장교육 / 전시운영	관 학예연구사
		현장교육 / 전시디자인	등 분과별 멘토
		현장교육 / 아카이브	
		강의 현장교육 후기 및 토론	참여자 전원

## 나. 공공미술기관 및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

### 1)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 2023년 개관 이후 컬렉션 전시 및 기획 전시와 연계한 아카이브 워크숍과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 대상에 따라 청소년(11~14세)을 위한 <오픈! 아트 아카이브>, 성인·시니어를 위한 <미술아카이브 미술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아카이브 세미나, 시니어 워크숍, 참여형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함.
- 2024년부터는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분야의 직군을 소개하고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미술아카이브의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미디어·웹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기획·설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함.
- 대학연계 프로그램은 실습형 워크숍이 결합된 강의형 과정, 참여자가 직접 전시를 기획·구현하는 프로젝트형 워크숍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특징임.

## (1) 대학연계 프로그램 — <개념부터 실습까지: 디지털 아카이브 기획 워크숍> (2024)<sup>85</sup>

-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술 아카이브 기획·운영 실무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보유한 실제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임.
- 세부 커리큘럼은 ‘기획–제작–설계–발표’의 순서로 구성되어, 개념 학습부터 사례연구, 기획 및 제작실습으로 마지막에는 개인 아카이브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4년 1월 16일~ 2월 1일 \*총 6회차

### ■ 운영 대상

미술사, 큐레이터학, 문헌정보학, 기록학, 디자인 등 아카이브 기획 및 활용 관련 전공 대학(원)생

### ■ 모집 인원

15명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 6명,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가, 독립 큐레이터, 미디어 아티스트 등
- 김선혁(레벨나인 대표), 이현인(레벨나인 콘텐츠 파트장), 김용우(레벨나인 개발자), 장보람(레벨나인 디자이너), 권태현(독립 큐레이터), 이해강(시각미술작가)

### ■ 강의 형식

오프라인 실습형 워크숍

### ■ 주최기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SeMA AA)

[표 26] 대학연계 프로그램 — <개념부터 실습까지: 디지털 아카이브 기획 워크숍> (2024)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1.16(화) 13:00-17:00	[개념 학습] 강의 / 디지털 아카이브와 정보 경험	김선혁
		[개념 학습] 실습 / <디지털 참여 프레임워크>로 아카이브 넓게 보기	
2차시	1.18(목) 13:00-17:00	[사례연구] 사례 1.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이현인
		[사례연구] 사례 2. 사라진 것과 남은 것, R.I.P 플래시와 도깨비공원	

<sup>85</sup>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https://sema.seoul.go.kr/semaaa/front/project/view.do?proSeq=102> (2025.6.10.접속)



3차시	1.23(화) 13:00-17:00	[기획실습] 강의 / 콘텐츠 기획의 첫걸음	이현인
		[기획실습] 실습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분석하기	
		[기획실습] 실습 / 〈나만의 아카이브 미디어〉 기획안 작성하기	
4차시	1.25(목) 13:00-17:00	[제작실습] 강의 / 웹아카이브의 주요 제작 과정	김용우
		[기획실습] 실습 / 〈나만의 서울시립 미술웹아카이브〉 만들기	김용우
		[기획실습] 실습 / Figma 기본 기능 살펴보기	장보람
5차시	1.30(화) 13:00-17:00	[제작실습] 강의 / 사용자경험(UI/UX) 디자인의 시작	장보람
		[기획실습] 실습 / 〈나만의 아카이브 미디어〉 스토리보드 그리기	
6차시	2.1(목) 13:00-17:00	[발표] 개인 아카이브 프로젝트 결과물 피드백	김선혁, 이현인 장보람, 김용우

## (2) 대학연계 프로그램 — 〈다시 만난 세계〉 (2024)<sup>86</sup>

- 두 대학 관련 전공학과와 협력하여 아카이브 기반의 교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2학기 정규 수업으로 운영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와 협업한 「융합캡스톤디자인아트아카이브」 수업에서는 기록학적 접근 및 개념에 초점을 두어 각자의 창작 작업을 기획·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와 협업한 「기록정보서비스」 수업에서는 기록물을 이용자와 연결하는 방식 중 ‘아카이브 전시’에 초점을 두어, 하나의 주제로 기획 및 구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 두 과정의 결과물은 1부 《다시 만난 세계: 기술 짓기》 와 2부 《다시 만난 세계: 분류 짓기》로 구현됨.

### ■ 운영 기간

2024년 9월~12월

### ■ 운영 대상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한신대학교 기록관리학과 학생

### ■ 모집 인원

19명

### ■ 수강료

<sup>86</sup>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https://sema.seoul.go.kr/semaaa/front/program/view.do?proSeq=130&proType=002&menuId=15&pageIndex=5> (2025.11.18. 접속)

무료

### ■ 교육 강사

손동현 (작가,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조민지 (한신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관계자

### ■ 강의 형식

수업 연계 오프라인 강의 및 워크숍

### ■ 세부 커리큘럼

공개되어 있지 않음.

### ■ 주최기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SeMA AA)

## (3) 대학연계 프로그램 – <오픈 아카이브 OPEN ARCHIVE><sup>87</sup>

- 대학교의 상시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맞춤형 아카이브 체험·실습 과정으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실물 기록물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1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의와 실물 자료 열람 워크숍, 그리고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됨.
- 단일 회차 내에 이론과 실습이 집약된 형태로 학생들이 실제 미술 아카이브에 대해 체험하며 주도적 아카이브 활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특징임.

### ■ 운영기간

2025년 4월 8일 ~ 7월 27일 \*1일 집중형

### ■ 운영 대상

미술사, 큐레이터학, 문헌정보학, 기록학 등 관련 전공 대학(원)생

### ■ 모집 인원

20명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2명, 내부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 ■ 강의 형식

실습형 소그룹 강의 (1회 90분)

---

<sup>87</sup>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https://sema.seoul.go.kr/semaaa/front/program/view.do?progSeq=422&progType=002&searchAction=go&menuId=10&pageIndex=1> (2025.6.10.접속)

## ■ 주최기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SeMA AA)

[표 27] 대학연계 프로그램 – <오픈 아카이브 OPEN ARCHIVE> (2025)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1차시	월-금 09:00-18:00 상시 신청	[강의] 아카이브 개념 및 유형,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컬렉션 및 기록 소개
		[탐색] 실물 자료 열람 및 디지털미술아카이브 활용
		[워크숍] 오픈! 아카이브: 나의 데이터 아카이빙하기
		[토론] 전시 소개 및 질의응답

## 2) 은평문화재단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역 주민의 일상과 기억을 직접 기록해야 할 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아카이빙 프로그램으로, 2020년 은평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뮤니티 기록을 목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 초기에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라인 비대면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2021년 이론 강의와 실습 및 멘토링 과정이 추가되었고, 2022년 그림·사진·영상·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론 강의-아트 워크숍-멘토링-최종 전시’로 이어지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개편됨.
- 2023년에는 지역 주민 개개인의 기억에서 출발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구술기록 수집 및 제작 과정이 포함되어, 팀 단위 실습 중심 프로젝트로 개편되었음.

### 〈은평 로컬기록 아카이비스트〉<sup>88</sup>

-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고, 이를 전시·출판 등 다양한 결과물로 확산시키는 참여형 로컬 아카이빙 모델로 운영된 사례임.
- 지역 기록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예술가 멘토가 참여하여 인터뷰·사진·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기록 작업을 소개하고 워크숍을 통해 실습하는 과정을 실제 전시로까지 구현한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2년 6월~11월 \*총 8회차 강의 + 6회차 실습

## ■ 운영 대상

은평구 및 서울 지역 주민 (기록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청년 등)

## ■ 모집 인원

<sup>88</sup> 여기 은평 아카이브 <https://www.eparchives.net/2313db21-ca8b-80d3-9164-ddd60612ae38> (2025.7.23.접속)

10~20명 내외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5명, 아카이브 연구자, 작가, 음악가 등 / 허나윤(페이퍼백아카이브), 이연희(작가), 김윤이(그림책 작가), 도유진(다큐멘터리 감독), 레이린(싱어송라이터)

### ■ 강의 형식

커뮤니티 기반 실습형 워크숍 + 로컬 기록 수집 프로젝트

### ■ 주최기관

은평문화재단

### ■ 협력기관

서울기록원

[표 28] <은평 로컬기록 아카이비스트> (2022)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6.8(수) 19:30-21:00	[이론강의] 기록, 아카이빙, 아카이브의 이해	허나윤
2차시	6.15(수) 19:30-21:00	[이론강의] 아카이브의 미학적 재현과 창조: 아카이브 아트와 로컬	허나윤
3차시	6.22(수) 19:30-21:00	[이론강의] 변방의 역사, 구술사에 대하여	이연희
4차시	6.29(수) 19:30-21:00	[아카이브 아트 워크숍: 미술] 공간의 기억, 그림으로 기록하기	김윤이
5차시	7.2(토) 14:00-16:30	[아카이브 아트 워크숍: 영상] 미디어 아카이브의 실천	도유진
6차시	7.6(수) 19:30-21:00	[아카이브 아트 워크숍: 음악] 일상의 재발견, 음악으로 기록하기	레이린
7차시	7.9(토) 14:00-16:30	[현장학습] 서울기록원 견학	서울기록원 담당자
8차시	7.16(토) 14:00-17:00	[멘토링 워크숍] 아카이브 계획서 멘토링	각 분야 멘토
실습과정 *총 6회차	7.23(토)~9.3(토)	[아카이빙 실습] 은평 커뮤니티 기록하기	-

## 다. 민간단체 및 지역단위

### 1)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 한국 근현대미술의 기록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미술자료박물관으로, 미술자료 및 아트아카이브 분야의 대중 대상 교육을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 프로그램인 <라키비움 프로젝트(Larchiveum Project)> 를 운영해 왔음.
- <라키비움 프로젝트> 는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미술 아카이브 교육으로, 미술 아카이브의 역사와 사례를 광범위하게 다루며, 문화예술 기관의 아카이브 구축·운영 실무를 전달하는 준전문가 또는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되었음.
- 각 회차 강연은 웹사이트와 자료집을 통해 공개되어 지식 공유의 효과를 확대하였으며, 민간 차원에서 아카이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사례로 평가됨.

#### (1) <라키비움 프로젝트> (2013)<sup>89</sup>

- '라키비움(Larchiveum)' 개념을 활용한 융합형 과정으로 기획되었으며,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현황을 주축으로 삼아 다양한 유형의 아카이브 실무자들과 접점을 형성하고자 하였음.
- 2013년 교육과정은 '아트 아카이브의 역사', '국내·외 사례 분석', '현실화 방안 모색'의 3개 주제로 구성됨.
- 교육 강사로는 아카이브 실무자, 미술사학자, 기록관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를 초청하여 다학제적인 사이트를 확장하고자 함.

#### ■ 운영 기간

2013년 5월 23일~10월 10일 \*총 6회차

#### ■ 운영 대상

미술 전공 대학(원)생, 업계 종사자, 아카이브 및 콘텐츠 수집·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 미술계 종사자

#### ■ 모집 인원

공지되어 있지 않음.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 6명, 기록학자, 미술사학자, 아카이스트, 미술관 큐레이터 등
- 박주석(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달진(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심보미(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스트), 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스트), 이호신(국립예술자료원 정보서비스 팀장), 김철효(미술사가)

#### ■ 강의 형식

---

<sup>89</sup> 서울아트가이드 <https://www.daljin.com/?BC=221bv%7C&BNO=117572&WS=12> (2025.7.23.접속)

전문가 초청 강연 시리즈 (오프라인 강의)

### ■ 주최기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표 29] 〈라키비움 프로젝트〉 (2013)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5.23(목)	시각예술의 제도적 특징과 기록의 중요성	박주석
2차시	6.27(목)	미술자료, 아카이브 현황	김달진
3차시	7.25(목)	해외 사례를 통해 조망하는 아트 아카이브의 요건들	심보미
4차시	8.22(목)	아트 아카이브의 구축: 백남준아트센터	박상애
5차시	9.12(목)	지금 왜 아트아카이브인가?	이호신
6차시	10.10(목)	예술아카이브와 구술사 프로젝트	김철효

### (2) 〈라키비움 프로젝트〉 (2018)<sup>90</sup>

- 2018년에는 작가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강연 방식으로 개편되었음.
- 국내·외 미술아카이브 운영 사례와 작가 아카이브의 구축·활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박물관·미술관·국가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아카이브 실무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준전문가 수준의 교육으로 운영됨.

### ■ 운영 기간

2018년 5월 16일~7월 11일 \*총 6회차

### ■ 운영 대상

미술 전공 대학(원)생, 업계 종사자, 아카이브 및 콘텐츠 수집·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

### ■ 모집 인원

공지되어 있지 않음.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 6명, 대학 교수, 미술관 기관 담당자, 미술사학자, 미술관 큐레이터 등
- 이인범(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김찬동(전 아르코미술관 관장), 김지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필름앤비디오 책임연구원), 송미경(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윤희(청주시립미술관 학예팀장), 정수경(치의과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sup>90</sup> 서울아트가이드 <http://daljinmuseum.com/?p=22398> (2025.6.10.접속)

## ■ 강의 형식

전문가 초청 강연 시리즈 (오프라인 강의)

## ■ 주최기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표 30] <라키비움 프로젝트> (2018)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5.16(수) 18:00-20:00	이승택 아카이브; 한국 전위미술의 선구자	이인범
2차시	5.23(수) 18:00-20:00	김구림 아카이브: 영원한 아방가르드	김찬동
3차시	5.30(수) 18:00-20:00	차학경 아카이브 - 개념미술, 소설 그리고 『딕테』	김지하
4차시	6.20(수) 18:00-20:00	대전미술아카이브-세대의 발언과 실천	송미경
5차시	7.4(수) 18:00-20:00	청주미술아카이브-내륙창작미술협회에서 아홉룡머리까지	이윤희
6차시	7.11(수) 18:00-20:00	이건용 아카이브: 다른 예술 다른 아카이브의 꿈	정수경

## 2) 임시공간

<디지털 아카이빙 툴킷 워크숍> (2020)<sup>91</sup>

-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집중적으로 다룬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
-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가 개발한 오픈소스 기록관리 시스템 ‘오메카(Omeka)’를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참여자들이 직접 설계·구축해보는 기술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음. 전문 교육 강사와 함께 소장 기록물의 선별·정리·분류·변환과 컬렉션 등록 및 기술을 습득하여 디지털 기록관리 도구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정리된 아카이브를 토대로 전시 구성 및 콘텐츠를 작성하는 단계별 실습 과제를 수행함.
- 소규모 인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위생 및 보건 이슈를 고려했던 것으로 추측됨.
- 민간 예술 기관과 민간 아카이브 전문 기업의 협업을 통해 현장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 교육을 제공했던 점에서 흔치 않은 긍정적 사례로 볼 수 있음.

## ■ 운영 기간

2020년 7월 15일 ~ 7월 24일 \*총 8회차

## ■ 운영 대상

아카이빙에 관심 있는 예술 실무자 및 전공자

## ■ 모집 인원

<sup>91</sup> 임시공간 <http://spaceimsi.com/news?vid=3> (2025.6.10.접속)

공지되어 있지 않음.

### ■ 수강료

50,000원 (과정 이수 시 10,000원 반환)

### ■ 교육 강사

2명, 아카이브 분야 기업 소속 디지털 기록 전문가

### ■ 강의 형식

소규모 워크숍(이론 + 실습 혼합)

### ■ 주최기관

임시공간, 아카이브랩,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31] <디지털 아카이빙 툴킷 워크숍> (2020) 세부 커리큘럼

구분	일시	세부내용	강사
1차시	7.15(수) 13:00-17:00	[오리엔테이션] 디지털 아카이브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개 오픈소스소프트웨어(Omeka) 설치 및 기능 안내	안대진
		[아카이브 실무] 아카이빙 계획서, 선별, 정리, 분류, 포맷 변환	
2차시	7.15(금) 13:00-17:00	[아카이브 활용] 아이템과 컬렉션 등록과 기술	전혜영
3차시	7.22(수) 13:00-17:00	[아카이브 활용] 전시(Exhibition) 구성 및 콘텐츠 작성	전혜영
4차시		[아카이브 구축] 아카이브 프로젝트 소개 페이지	안대진

## 라. 현장실습 프로그램

### 1)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2023-2025)<sup>92</sup>

- 정식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술 관련 대학과의 MOU를 기반으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참여 학생들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주요 기록물과 소장품을 실제로 다루며 기관의 실무 아카이브 운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2025년에는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같은 해 11월 3일 서울시립미술관 공식 SNS에 “본 게시물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현장 실습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실습 참여자가 제작한 결과물이 게시되어 ‘교육–실무 연계’ 성과를 보여줌.

<sup>92</sup> 서울시립미술관 SNS [https://www.instagram.com/p/DQjlnNMAXIO/?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IZA==](https://www.instagram.com/p/DQjlnNMAXIO/?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IZA==)  
(2025.11.3. 접속)

### ■ 운영 기간

3개월

### ■ 운영 대상

미술 관련 학과 대학생/대학원생

### ■ 주요 업무

- 컬렉션 기초 목록화 및 분류, 정리, 등록 등의 기록 관리 실무
- 전시 및 소장품 관련 리서치 보조 업무
- SNS 콘텐츠 및 아카이브 홍보 글 작성 등

### ■ 선발 방법

학과 교수 추천

### ■ 주최기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SeMA AA), MOU 대학교

## 2) 아르코예술기록원 (2018-2025)<sup>93</sup>

- 2017년 정식 공고를 통해 「예술기록관리 전문가양성」 실무과정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예술기록관리 기관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가운데 직무 교육이 필요한 인력과 예술 분야 또는 기록관리 전공(학사 이상)자로 경력 개발을 희망하는 이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음.
- 2025년부터는 대학 연계 사업으로 확대되어, 하계 현장실무실습에는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였음. 아르코예술기록원 공식 SNS 스토리를 통해 실습생이 작성한 ‘실습일지’가 공개되며 교육-실무 연계 성과도 대중에게 공유되고 있음.
- 현장 실습 과정은 서비스팀·디지털팀·구술채록사업팀으로 구성된 각 주요 부서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작하며,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연예술·시각예술·연극·음악·무용·문학 등 장르별 컬렉션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선별, 분류, 기초 목록화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이와 같이 실제 업무 환경을 경험하며, 다양한 예술 장르 컬렉션을 폭넓게 다뤄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7개월

### ■ 운영 대상

미술 관련 학과 대학생/대학원생

### ■ 주요 업무

- 예술기록원 소장 예술기록물의 분류·정리·등록
- 장르별 컬렉션 자료의 목록화 및 데이터 구축 지원
- 기록물 관리 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 이해

<sup>93</sup> 아르코예술기록원 [https://www.arko.or.kr/board/view/4053?bid=&cid=528330&sf\\_icon\\_category=](https://www.arko.or.kr/board/view/4053?bid=&cid=528330&sf_icon_category=) (2025.11.4.접속)



## ■ 선발 방법

모집대상 요건 충족시 서류 심사 후 면접 전형 선발

## ■ 주최기관

아르코예술기록원, MOU 대학교

### 3) 부산현대미술관 (2025)<sup>94</sup>

- 실제 미술관에서 발생하는 기록관리 업무를 경험하고,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음.
- 참가자는 사전 모집(공문 신청)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세부 과정에는 기관의 조직 및 업무 구조, 업무관리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기록관리 통합 시스템) 등 기관의 기록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실제 미술관 아카이브 관리 및 기록 과정 실무를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됨.

## ■ 운영 기간

5일간

## ■ 운영 대상

기록관리학 전공 대학원생 (석사 과정)

## ■ 주요 업무

- 미술 아카이브 실습: 용어 통제, 색인 작업, 작가 기록 기술 등 기록 기술 전반에 대한 실무 수행
- 아카이브 색인화 작업: 주요 미술 잡지 및 기관 발간 출판물의 작가 및 주제 인덱싱 실습
- 작가 기록 관리: 작가별 기록물의 분류, 기술, 파일링 체계 구축 및 관리
- 리서치 및 조사: 시간성을 기반으로 한 시각예술 작품의 기록화 사례 조사, 국내·외 아트 아카이브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분석, 아트 아카이브 관련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활용 사례 조사, 친환경 문화상품 개발 및 기록 보존 관련 사례 조사

## ■ 선발 방법

학과별 공문 신청

## ■ 주최기관

부산현대미술관, MOU 대학교

---

<sup>94</sup>부산현대미술관

[https://pap.deu.ac.kr/lis/sub08\\_02.do?mode=view&articleNo=50105&title=%EB%B6%80%EC%82%B0%ED%98%84%EB%8C%80%EB%AF%B8%EC%88%A0%EA%B4%80+2025%EB%85%84+%EC%83%81%EB%B0%98%EA%B8%B0+%EA%B8%B0%EB%A1%9D%EA%B4%80%EB%A6%AC%ED%95%99+%EC%8B%A4%EC%8A%B5+%ED%94%84%EB%A1%9C%EA%B7%B8%EB%9E%A8+%EC%9A%B4%EC%98%81+%EB%B0%8F+%EC%8B%A0%EC%B2%AD+%EC%95%88%EB%82%B4](https://pap.deu.ac.kr/lis/sub08_02.do?mode=view&articleNo=50105&title=%EB%B6%80%EC%82%B0%ED%98%84%EB%8C%80%EB%AF%B8%EC%88%A0%EA%B4%80+2025%EB%85%84+%EC%83%81%EB%B0%98%EA%B8%B0+%EA%B8%B0%EB%A1%9D%EA%B4%80%EB%A6%AC%ED%95%99+%EC%8B%A4%EC%8A%B5+%ED%94%84%EB%A1%9C%EA%B7%B8%EB%9E%A8+%EC%9A%B4%EC%98%81+%EB%B0%8F+%EC%8B%A0%EC%B2%AD+%EC%95%88%EB%82%B4) (2025.11.4.접속)

[표 32] 국내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분석

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기간	교육 대상 (인원)	강의 형식	강사 수	회차
예술산업아카데미 –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 워크숍〉 (예술경영지원센터)	2주간	문화예술 단체 실무자 (20명)	오프라인 워크숍 (이론+실습)	3명	5회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아르코예술기록원)	2.5개월	문화예술계 종사자·예비인력 (50명)	온라인 강의 +기관 현장탐방	7명	12회 (7강+5 탐방)
ACC 전문인 직군탐색 장기과정 – 〈아트아카이비스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개월	일반인·진로탐색 자 (15명)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실습·탐방	8명	10회
대학연계 프로그램 – 〈개념부터 실습까지: 디지털 아카이브 기획 워크숍〉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2주간	관련 전공 대학생 (15명)	오프라인 워크숍 (실습 중심)	6명	6회
〈은평 로컬기록 아카이비스트〉 (은평문화재단)	6개월	지역 주민·청년 (10~20명)	커뮤니티 워크숍 (강의+현장 활동)	5명	14회
〈라키비움 프로젝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개월	전공생·종사자·일 반인 (제한 없음)	오프라인 강연시리즈	6명	6회
〈디지털 아카이빙 툴킷 워크숍〉 (아카이브랩×임시공간)	2주간	예술분야 실무자·전공자 (소규모)	오프라인 워크숍 (실습 중심)	2명	8회

※ 국내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2주~6개월의 다양한 기간으로 설계됨. 소규모 인원 운영(20명 이내) 방식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온·오프라인 혼합형이 증가하는 추세임.

### 3. 국외 교육 프로그램

#### 가. 미국

##### 1) 조지 이스트먼 뮤지엄 & L. 제프리 셀즈닉 영화 보존 학교 프로그램

###### **George Eastman Museum & The L. Jeffrey Selznick School of Film Preservation<sup>95</sup>**

- 조지 이스트먼 뮤지엄(George Eastman Museum)이 1996년에 개설한 세계 최초의 영화 아카이브 전문 교육과정으로, 영화 필름을 비롯한 시각자료의 보존과 아카이빙 특화 프로그램임.
- 매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박물관·미술관 현장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이론 강의, 실습 세미나, 필드 트립 등을 포함하며, 연간 100회 이상의 강의·상영·실습과정으로 진행됨.
- 박물관·미술관·영상자료원 등 영화 매체를 다루는 큐레이터 또는 아카이비스트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박물관 기반 + 대학 협업’으로 운영되는 사례로, 참여 학생들은 실제 ‘조지 이스트먼 뮤지엄’에 수집된 영화·미디어 컬렉션의 보존, 복원, 기록관리, 접근, 전시·활용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커리큘럼은 1년 자격증(Certificate) 과정과 2년 석사(MA)과정으로 수강이 가능함. 참여 학생들은 지도교수와의 1:1 멘토링 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원어민에게는 TOEFL 등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 운영 기간

매년 9월 ~ 이듬해 6월

##### ■ 운영 대상

학사(Undergraduate) 학위 이상 소지자(전공 무관)로, 영화 보존·미디어 아카이빙, 기록관리 또는 관련 실무/학문 영역에 진로 또는 경력을 희망하는 자

##### ■ 모집 인원

10~15명

##### ■ 수강료

1년 \$12,500

##### ■ 교육 강사

과정 전체의 강사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박물관·컬렉션 운영 전문가, 필름보존/복원 전문가, 학계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 ■ 강의 형식

이론 수업 + 세미나 + 워크숍 + 현장 실습(박물관·아카이브 기관) 형태로 운영됨.

<sup>95</sup> Amia Education Committee, Carlaarton, “Getting to Know You: The L. Jeffrey Selznick School of Film Preservation”, 2015.09.30 <https://amiaeducomm.wordpress.com/2015/09/30/gettingtoknowyou-selznick/#:~:text=The%20L,a%20Masters%20of%20Arts%20Program> (2025.7.23. 접속), 조지 이스트먼 뮤지엄(George Eastman Museum) <https://www.eastman.org/l-jeffrey-selznick-school-film-preservation> (2025.11.17. 접속)

## ■ 주최 기관

조지 이스트먼 뮤지엄 (George Eastman Museum), L. 제프리 셀즈닉 영화 보존 학교(The L. Jeffrey Selznick School) ※ 석사(MA) 과정은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 와 연계 운영

[표 33] Certificate 과정/ First Year (가을 학기) 세부 커리큘럼

과목명	주요 내용
<b>Museum Practice</b> (미술관 실천)	- 박물관 컬렉션으로 영화 및 영상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 - 행정·수집·연구·카탈로그·전시·보존 등 실제 박물관 컬렉션 관리 전반
<b>Curatorial Theory and Practice</b> (큐레이토리얼 이론과 실천)	- 국제 영화 아카이브 운동의 역사 및 보존 이론 이해 - 기관 설립·수집·운영 전략, 연구·전시·보존시설 설계 등 아카이브 조직 운영의 이론 및 사례 이해
<b>Fil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b> (필름 복원 및 보존 기법)	- 영화 필름의 물리적 손상 인식, 복원 및 보존 기법 습득 - 실제 필름 포맷 분석, 손상 유형 진단, 복원 및 보존 절차 실습 등의 핸즈온 트레이닝

[표 34] Certificate 과정/ First Year (봄 학기) 세부 커리큘럼

과목명	주요 내용
<b>Moving Image Archive Management</b> (무빙 이미지 아카이브 관리)	- 영상 컬렉션 보존 및 관리의 전문지식 습득 - 수집, 접근권, 저작권, 보존전략, 인력 및 예산관리 등을 통해 아카이브 운영 전반 이해
<b>Laboratory Work</b> (실험 과정)	- 디지털 보존 기술 입문 과정 - 필름 검수·수리·평가 및 영화 복원 시설 견학 포함
<b>Personal Project</b> (개인 프로젝트)	- 조지 이스트먼 뮤지엄 'Moving Image'부서 큐레이터의 멘토링과 함께 전시 기획, 컬렉션 보존, 자료 처리, 수집 및 카탈로그 등과 관련된 개인 프로젝트 진행

## 2) 미국 기록관리협회(SAA) – 디지털 아카이브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 Digital Archives Specialist (DAS) Certificate Program<sup>96</sup>

- 미국 기록관리협회(SAA)가 주관하는 「Digital Archives Specialist(DAS)」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자기록 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전문 인증 과정. 전자기록의 선별·수집, 디지털 보존, 접근 제공 등 핵심 영역을 다루며, 디지털 아카이빙 분야 전문가들이 개발한 단계별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짐.
- 본인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 원하는 강좌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듣는 것이 가능하며, 필수 과목에 한해서는 과정 이수 후 평가 시험을 진행하고, 통과시 '디지털 아카이브 스페셜리스트 자격증'(Digital Archives Specialist Certificate)을 취득함.
- 디지털 기록의 식별·평가·수집·보존·이용 제공까지 아카이빙의 전 단계를 포괄하며, 특히 공공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 사례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룸. 주요 과목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기초 이론', '메타데이터·기술 표준', '디지털 보존 전략', '전자기록 접근 제공', '디지털 플랫폼 활용' 등이 있음.
-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DAS 자격증 취득 인원 및 명단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며<sup>97</sup>,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음.

#### ■ 운영 기간

상시 운영 (온라인/오프라인 개별과정) (※ 수강 일정은 개인별 선택에 따라 유동적)

#### ■ 운영 대상

전자 기록(born-digital records)을 관리해야 하는 기록관리 기관 종사자 및 예비 전문가.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보존·접근 분야에서 실무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아카비스트나 기록관리자

#### ■ 모집 인원

공지하고 있지 않음.

#### ■ 수강료

과목당 SAA 회원 : \$189~\$319, SAA 회원 기관 직원 : \$239~\$369, 비회원 : \$259~\$439 \*과목별 상이

#### ■ 교육 강사

과정 전체의 강사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록보존 분야 전문 강사들이 참여.

#### ■ 강의 형식

- 온라인 및 대면 혼합형 강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은 개별 강좌를 선택해 이수 가능.
- SAA 연례회의 등에 맞춰 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함. (※ SAA 회원 비회원 모두 수강 가능)

#### ■ 주최 기관

미국 기록관리협회(SAA,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sup>96</sup> 미국 기록관리협회(SAA)

<https://www2.archivists.org/prof-education/das#:~:text=collection%3F%20You%E2%80%99re%20not%20alone%21> (2025.7.23. 접속)

<sup>97</sup> 미국 기록관리협회(SAA) <https://www2.archivists.org/prof-education/das/certificate-holders> (2025.7.23. 접속)

[표 35] 디지털 아카이브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일부)

학습 단계	과목 분류	과목명	주요 내용
<b>Foundational</b> : 디지털 아카이브 실무자(Practitioner)를 위한 기본 기술 및 이론 습득 단계	<b>Preservation and Protection</b> <b>보존 및 보호</b> :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 보존과 물리·기술적 안정성 및 파일 포맷, 매체 안정성, 복구·복원 절차 등 보존 기술 중심 영역	Introduction to Email Preservation	- Email로 생산된 디지털 기록물 보존 절차와 기본 개념 입문 과정 - 디지털 데이터의 장기 보존, 포맷 변환, 접근 관리
	Digital Forensics: Fundamentals		- 디지털 포렌식 기초 개념과 절차 - 손상·삭제된 디지털 기록물 복구를 포함한 보존 기술 실습
	Digital Preservation of Audio and Video: Fundamentals		- 오디오·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기록물의 특성 이해 - 포맷별 보존 전략과 장기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초 학습
	Web Archiving Fundamentals		- 웹 콘텐츠 수집, 보존, 접근 절차 이해 - 도구(Webrecorder, Archive-It 등)의 활용법 학습
	<b>Selection, Appraisal, and Acquisition</b> <b>선별·평가 및 수집</b> : 기록물의 가치 평가, 선별 기준, 수집 전략 수립 등 아카이브 구축 초기 단계의 정책적·전략 영역	Appraisal of Digital Records	- 디지털 기록물의 평가 및 선별, 획득 절차 이해 - 기록의 지속적 가치 판단과 수집 전략 수립
	<b>General Archival Knowledge</b>	Basics of Managing Digital Records	- 디지털 기록관리의 핵심 원리와 실무 절차 이해

	<b>기록관리 일반 지식</b> : 아카이브의 기본 개념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원칙, 국제 표준과 정책 등 기초 이론 영역		- 파일 구조, 메타데이터, 저장 체계 등 기본 관리 기술 학습
		Introduction to the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OAIS) Reference Model	- OAIS 참조모델을 통해 디지털 보존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워크플로를 이해하는 입문 과정
		Standards for Digital Archives	- 디지털 아카이브 분야의 주요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 - ISO, NDSA, OAIS 등 글로벌 표준 체계 학습
		Thinking Digital	- 디지털 환경 기록관리 패러다임 성찰 및 전통적 아카이브 개념과의 차이 탐구
	<b>Arrangement and Description</b> <b>기술 및 정리</b> : 기록물의 체계적 정리, 메타데이터 기술, 분류 체계 설계 등 기록물의 조직화와 접근성 영역	Introduction to Processing Digital Records and Manuscripts	- 디지털 기록물의 정리·기술 절차 - 기록 구조 설계, 데이터 정리, 기술 표준 소개
		Metadata Overview for Archivists	- 메타데이터의 개념과 역할, 주요 표준 체계(Dublin Core, PREMIS 등) 이해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Digital Records: Parts 1 & 2	- 디지털 기록물의 기술 실습 심화 과정 - 메타데이터 설계, 기술 표준 적용, 디지털 컬렉션 해제 작성 등의 실무
<b>Tactical &amp; Strategic</b> : 조직 내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그램	<b>Selection, Appraisal, and Acquisition</b> <b>선별·평가 및 수집</b>	Accessioning and Ingest of Digital Records	- 디지털 기록의 선별 · 평가 · 수집을 위한 워크플로우 설계,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략적·실무적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	: 디지털 기록의 선별과 수집 및 평가 등 실무 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기술 영역		품질 관리 등의 실무
	<b>Outreach, Advocacy, and Promotion</b> <b>아웃리치·프로모션·확산</b> : 조직 내·외부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가치 확산 및 프로모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활동 영역	Building Advocacy and Support for Digital Archives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조직 내 설득과정, 관계자 지원 확보 전략, 예산·인력 확보 방안 학습
		Providing Access to Digital Archives	-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의 이용 정책, 이용자 중심 서비스 설계, 저작권 관리 및 접근 제한 관리
	<b>Managing Archival Programs</b> <b>아카이브 프로그램 관리</b> : 조직 내 아카이브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 기획·평가 프로세스 중심의 아카이브 프로그램 관리 영역	Developing Specifications and RFPs	- 아카이브 관련 시스템과 이용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 기관 내·외 프로젝트 관리
	<b>General Archival Knowledge</b> <b>기록관리 일반 지식</b> :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및 심화 이론 영역	Digital Records: The Next Step	- 기존 기록관리 원칙에서 확장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기적 보존, 기술 변화 대응, 미래 전략
	<b>Preservation and Protection</b> <b>보존 및 보호</b> : 디지털 기록물 장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 영역	Preserving Digital Archives	- 디지털 기록물 보존 전략, 매체 관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술적 리스크 대응 방법
	<b>Ethical and Legal Responsibilities</b> <b>윤리 및 법적 책임</b>	Copyright Issues for Digital Archives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법적·윤리적 이슈 영역		이해, 이용 및 접근 제공 방안
		Privacy and Confidentiality Issues in Digital Archives	-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프라이버시, 민감 정보 처리 등 아카이브 영역에서의 윤리적·법적 책임(사례 중심)
<b>Tools &amp; Services</b> : 구체적인 툴·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및 기술 활용을 위한 실무 단계	<b>Managing Archival Programs</b> <b>아카이브 프로그램 관리</b> : 아카이브 시스템과 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큐레이션 및 도구 운영 능력 영역	Archival Collections Management Systems	- 아카이브 컬렉션 관리 시스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학습함. 시스템 관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용자 접근 관리 등 실무 기술
		Fundamentals of Research Data Curation	-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보존, 공유 절차를 이해하고, 데이터 큐레이션 워크플로와 표준
		Tool Selection and Management	-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 툴의 특성과 활용법 비교·평가 - 기관 목적에 맞는 도구 선정 및 유지 관리 전략
	<b>Arrangement and Description</b> <b>기술 및 정리</b> : 메타데이터 간의 변환·연결을 위한 기술적 도구 활용 능력 영역	Crosswalking Metadata	- 메타데이터 스키마 간 매핑(crosswalk) 기술 실습 및 데이터 호환성 확보, 표준 간 변환 및 통합 전략
	<b>Preservation and Protection</b> <b>보존 및 보호</b> : 디지털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기술적 유지 관리에	Digital Forensics: Advanced	- 디지털 포렌식의 심화 과정 - 데이터 복구, 포렌식 툴 활용, 증거 보존 및 무결성 검증 절차 학습

	필요한 고급 보존 기술과 도구 활용 영역	Information Processing: Files, Metadata, and the Command Line	- Command Line을 이용한 파일 관리, 메타데이터 처리, 자동화 워크플로우 구축
		Introduction to PREMIS	- 디지털 보존용 메타데이터 표준인 PREMIS의 구조와 활용 방식 이해
		Preservation Formats in the Context of PDF	- PDF를 중심으로 한 보존 포맷의 특성과 변환 절차 - 장기 보존을 위한 파일 포맷 선택 및 품질 검증 기준 이해
	<b>General Archival Knowledge</b> <b>기록관리 일반 지식</b> : 디지털 환경에서의 구조적 데이터 표현 및 분석을 위한 기술 이해 영역	Introduction to XML Analysis and Manipulation	- XML 기반 데이터의 구조 분석 및 편집 방법, 메타데이터 변환 및 스키마 설계에 필요한 기본 기술
	<b>Selection, Appraisal, and Acquisition</b> <b>선별·평가 및 수집</b> : 이메일 및 전자기록 수집을 위한 전문 도구와 아카이빙 전략 학습 영역	Email Archiving: Strategies, Tools, Techniques	- 이메일 아카이빙을 위한 전략 수립, 주요 소프트웨어 도구(예: ePADD, Mailbagit 등) 활용, 메타데이터 구조 이해
		Using ePADD in Email Archiving	- 스탠퍼드대에서 개발한 ePADD 소프트웨어를 활용 - 이메일 데이터를 수집·선별·정리하는 실무 기술 실습
<b>Transformational</b> : 기관 전체의 디지털	<b>Managing Archival Programs</b>	Assessment & Certification of	- 평가 및 인증 절차 학습, 기관별 보존 체계가 국제

아카이브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급 역량을 다루는 단계	<b>아카이브 프로그램 관리</b> : 조직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관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장·통합하기 위한 고급 관리 및 평가 영역	Digital Repositories  Tool Integration: From Pre-SIP to DIP	표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및 개선 전략 수립  - 기획·예산·일정·인력 관리 - 프로젝트 관리 도구 및 평가 지표 실습
	Project Management: Fundamentals and Advanced		- 기술적 구조와 데이터 연계 방식 이해 -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및 자동화 절차 설계
	<b>Preservation and Protection</b> <b>보존 및 보호</b> : 기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큐레이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보존 및 지속 가능성 영역	Digital Curation: Fundamentals and Sustainability	- 디지털 큐레이션 이론과 실제 및 장기적 보존·활용을 위한 지속 가능성 모델 학습 - 기관 디지털 자산 수명주기 관리
	<b>General Archival Knowledge</b> <b>기록관리 일반 지식</b> : 아카이브 및 특수컬렉션(Special Collections) 관리의 통합적 운영 영역	Managing Digital Records in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 특수 컬렉션 관리, 기술 표준, 접근 정책 연계운영
	<b>Outreach, Advocacy, and Promotion</b> <b>아웃리치·프로모션·확산</b>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 및 디지털 아카이브 경험(UX) 디자인 영역	User Experience Design and Digital Archives	- 이용자 정보 탐색 경로, 접근 편의성, 시각적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한 UX 설계 학습 -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기반 전략

※ 위 과정 중 총 10개 강좌 이수 (Foundational 4개, Tactical/Strategic 3개, Tools & Services 1개, Transformational 1개) 이수 이후 과목별 종합 시험은 최대 24개월 이내에 통과해야 하며, 강좌 중 최소 2개 이상은 (실시간/오프라인)로 필수 참석하는 형태로 수강 가능함.

## 나. 이탈리아

### 조르조 치니 재단 – ARCHiVe 온라인 아카데미

### Fondazione Giorgio Cini – ARCHiVe Online Academy<sup>98</sup>

- 이탈리아 조르조 치니 재단(Fondazione Giorgio Cini) 산하 ARCHiVe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임.
- 2021년부터 문화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별 강좌와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강좌는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문화유산 디지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일부 강좌는 베네치아 현지 실습 워크숍과 온라인 Zoom 강의를 병행하는 혼합 형태로 운영되며, 고해상도 이미지 아카이브 접근법, 비접촉식 디지타이제이션 기술, 인공지능 기반 아카이브 활용, 디지털 아카이브의 법·저작권 이슈, 디지털 시대 예술과 아카이브의 관계 등 최신 동향, 현대미술 아카이브 사례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시 신청 가능

#### ■ 운영 대상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및 디지털 인문학 역량 개발을 희망하는 학생, 연구자, 현업인 등

#### ■ 모집 인원

제한 없음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재단 및 대학 관계자, 디자이너, 비디오 제작자, 변호사, 큐레이터 작가 등 각 분야 전문가

#### ■ 강의 형식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 – 대부분 주제별 강연·클래스는 Zoom으로 진행하며, 일부는 산조르조 마조레 섬의 ARCHiVe 센터에서 대면 현장 워크숍 진행. 강연, 워크숍, 토크, 실습 등 혼합 구성.

#### ■ 주최 기관

조르조 치니 재단(Fondazione Giorgio Cini) / 공동 주관: Factum Foundation

<sup>98</sup> 조르조 치니 재단(Fondazione Giorgio Cini)

<https://www.cini.it/en/events/archive-online-academy-2024-2025/#:~:text=The%20Fondazione%20Giorgio%20Cini%2C%20in,heritage%20and%20the%20Digital%20Humanities> (2025.7.23. 접속)

ARCHiVe <https://www.archive-venice.org/academy/?filter=.aoa> (2025.11.17. 접속)

[표 36] 조르조 치니 재단 – ARCHiVe 온라인 아카데미 세부 커리큘럼(일부)

회차	과목명	강사	주요 내용
2022.10.7	[강연] <b>Art as a Method of Experimental Preservation</b> (실험적 보존 방법으로서의 예술)	호르헤 오테로-파일로스 (컬럼비아 대학교 건축·계획·보존대학원 의 역사 보존학과 디렉터 & 교수)	실험적 보존 방식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접근 방식을 논하고, 상호 배려를 중심으로 기존 건축 환경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있어 예술의 중요성 소개
2022.11.9~ 2022.11.30	[강연] <b>Giacomo Verde (1956-2020). From the techno-artist's archive to book, exhibition and movie</b> (자코모 베르데(1956-2020). 테크노 아티스트의 아카이브에서 책, 전시, 영화로)	안나 마리아 몬테베르디 (Università Statale 교수), 토마소 베르데 (게임 디자이너) 플라비아 달릴라 달리코 (Università di Roma La Sapienza) 빈센조 산소네 (밀라노 국립대학교 교수), 라파엘라 리비 (비디오 제작자)	자코모 베르데(Cimtile 1956~Lucca 2020)는 40년의 예술 활동 기간 동안 거리극, 비디오 아트, 회화, 드로잉, 퍼포먼스, 넷 아트 등 다양한 아카이브를 다루는 강의
2023.11.22	[세미나] <b>Digitisation and valorisation of Venetian Music Archives</b> (베네치아 음악 기록 보관소의 디지털화 및 가치 평가)	폰다치오네 조르조 치니 비교 음악연구 문화연구소 협업	주요 음향 및 음악 아카이브의 기술, 디지털화 및 가치 평가 프로젝트의 최신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 참여 기관들이 채택한 방법과 기술, 우수 사례 및 바람직한 선택 사항을 공유하고, 각 아카이브의 특성을 조명
2024.2.22~2 024.2.23	[강연] <b>Copyright for cultural property and AI</b>	버지니아 몬타니 테세이 (변호사), 마리오 피에로니 (갤러리	현대 미술 작품의 가치, 정당성,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저작권과

	(문화재와 AI에 대한 저작권)	디렉터), 조반니 플로리디 (공증인), 프란체스코 파올코 미코치(변호사)	인공지능의 관계 조명
2024.12.10~ 2024.12.12	[강연] <b>Art and Innovation, a new idea of Archives</b> (예술과 혁신, 아카이브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렌티노 카트리칼라 (큐레이터), 도나토 피콜로(작가)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 예술가들이 재해석한 아카이브가 어떻게 기술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 탐구
2025.5.6	[강연] <b>Restoration, Active Preservation and Digitisation of Audio Documents</b> (오디오 문서의 복원, 적극적 보존 및 디지털화)	세르지오 카나차 (파도바 대학교 정보공학과 교수), 알렉산드로 루소(CSC 연구원)	오디오 문서의 복원, 활성 보존 및 디지털화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 기술 및 국제 표준 관련 사례 연구, 디지털화 기술에 대한 자세한 개요

#### 다. 프랑스

##### 1)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 FRAME 아카이브 연수 프로그램

###### FRAME Training Programme<sup>99</sup>

-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가 주관하고 유럽방송연맹(EBU) 및 국제텔레비전아카이브연맹(FIAT/IFTA)이 지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음.
- 오디오비주얼 아카이브 관리의 ‘보존, 디지털화, 기술 메타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주제로, 최신 시청각 아카이브 문서화·접근 기술과 국제적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교육 과정은 기초 과정과 고급 과정으로 구분 되어 기초 과정은 오디오비주얼 아카이빙의 전체 흐름(보존-디지털화-문서화-접근-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급 과정은 일정 수준의 기본 역량을 갖춘 아카이브 실무자를 대상으로 최신 기술 사례에 대한 심화 과정을 다룸.
- 고급 과정은 데이터 모델링, 메타데이터 관리, AI 기술 활용, 이용자 접근 전략, 저작권 등 법·정책 이슈, 콘텐츠 제작 사례 등을 다루며, 시청각 아카이브의 기술·전략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함.

<sup>99</sup> 국제텔레비전아카이브연맹(FIAT/IFTA) FRAME [fiatifta.org/frame.information.com](http://fiatifta.org/frame.information.com) (2025.7.23. 접속)

프랑스 국립시청각연구소 <https://www.ina.fr/actualites-ina/frame-0> (2025.7.23. 접속)



- 교육은 영어로 진행하며, 강연 프로그램 외에도 6개월 동안 진행하는 ‘Frame Mentoring’과 반나절 워크숍으로 구성된 ‘Frame Expert’를 통해 참가자 간 네트워킹 및 멘토링 기회를 제공함.

### ■ 운영 기간

- 온라인: 2025년 6월 16-18일, 6월 23-25일
- 오프라인: 2025년 11월 24-28일

### ■ 운영 대상

- 유럽 및 국제 오디오비주얼 아카이브 분야 종사자. 필름/영상 아카이빙 기초 지식을 보유한 중견 실무자 중심.
- Basics (기초 과정): 실무 경험이 적거나 정규 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초급자
- Advanced(고급 과정): 아카이브 기초 역량을 갖춘 중급 이상 실무자

### ■ 모집 인원

세션당 12명

### ■ 수강료

기초 세션: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고급 세션: €1,200

### ■ 교육 강사

과정 전체의 강사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단 및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

### ■ 강의 형식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기초 세션(온라인), 고급 세션(오프라인 현장 실습)

### ■ 주최 기관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공동주관: FIAT/IFTA, EBU

[표 37]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 FRAME 아카이브 연수 프로그램 Basics (기초 과정)

#### 세부 커리큘럼

과목명	주요 내용
<b>Preservation and Digitisation</b> (보존 및 디지털화)	- 필름, 비디오, 오디오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및 장기 보존 전략 - 파일 포맷 표준, 데이터 무결성, 메타데이터 연계 등 실무적 기술
<b>Documentation and Metadata Management</b> (기술(記述) 및 메타데이터 관리)	- 오디오비주얼 자료의 기술(description)과 메타데이터 구조 이해 - Dublin Core, EBUCore 등 국제 표준 기반 문서화 체계 실습
<b>Access and Reuse of Audiovisual Content</b> (오디오비주얼 콘텐츠의 접근 및 재활용)	-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의 접근 및 재활용(Reuse) 전략과 공공 접근 모델, 온라인 플랫폼 활용 사례

<b>Digital Archiving Workflows</b> (디지털 아카이빙 워크플로 설계)	- 디지털 보존 프로세스 설계 및 자동화 워크플로 구성 학습 - 수집-정리-기술-보존-접근의 전 단계 이해
<b>Legal and Ethical Frameworks for Audiovisual Archives</b> (오디오비주얼 아카이브의 법적·윤리적 기반)	-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접근 제한 등 법적·윤리적 이슈
<b>Project and Collection Management</b> (프로젝트 및 컬렉션 관리)	- 오디오비주얼 프로젝트 운영 및 조직 관리 전반 - 협력 모델(EU MEDIA, Europeana 등) 및 관리 전략 학습

[표 38]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 FRAME 아카이브 연수 프로그램 Advanced (고급 과정)  
세부 커리큘럼

과목명	주요 내용
<b>Data Modelling and Linked Open Data</b> (데이터 모델링과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	- 오디오비주얼 아카이브에서의 데이터 모델링과 LOD 적용 및 IIIF, RDF, SKOS 등 표준 모델 이해
<b>AI and Machine Learning for Archives</b> (아카이브를 위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활용)	-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태깅, 콘텐츠 분석, 자막 생성 등 디지털 아카이브 자동화 기술 사례 소개
<b>Digital Access Strategies</b> (디지털 접근 전략)	- 이용자 접근성 강화 위한 UX/UI, 검색엔진 최적화, 이용자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접근 정책 전략
<b>Legal and Policy Innovation for Access</b> (디지털 접근을 위한 법·정책 혁신)	- 오디오비주얼 자료 활용과 공유 관련 법·정책 변화 탐구, 공정 이용, 오픈 라이선스 적용 등 사례
<b>Ethics and AI in Audiovisual Preservation</b> (오디오비주얼 보존의 윤리와 책임)	- AI 활용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 데이터 편향 이슈, 책임 있는 AI 활용 원칙
<b>Open Data and Interoperability Practices</b> (오픈데이터 및 상호운용성 실무)	- 오디오비주얼 기관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전략, Europeana, INA, EBU 사례 중심 실습

## 2) 프랑스 아카이비스트 협회 (AAF) – 직무 연수 프로그램 <특수 아카이브 이해하기>

### Découvrir les archives spécifiques – Parcours de formation<sup>100</sup>

- 프랑스 아카이비스트 협회(AAF)에서 운영하는 전문 교육 과정으로, 토지·부동산·사진·건축·의료·병원·등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아카이브 관련 기술·법제·관리상의 특수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음.
- 사례 강의 및 현장 실습으로 진행하며, 기록의 생성부터 정리·기술·보존·활용까지 전체 흐름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 배양에 주안점을 둠. 분야별 실무 전문가의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됨. 추가로 특수 아카이브 소장 기관 간 네트워킹도 제공함.
- 각자의 경력과 필요에 맞게 세션을 선택 수강하는 방식으로, 초급자를 위한 아카이브 개론부터, 중급자를 위한 기술 영역을 포함하며 특정 분야 아카이브를 다루는 심화 세션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어 단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 ■ 운영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 운영 대상

각 분야 아카이브 실무자 대상

#### ■ 모집 인원

제한 없음.

#### ■ 수강료

각 분야별로 상이하나, 2일 프로그램 €720, €1,080 수준으로 구성됨.

#### ■ 교육 강사

과정 전체의 강사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분야 전문 아카이비스트 및 기관 전문가 참여

#### ■ 강의 형식

온+오프라인 혼합형, 현장 기반 워크숍 운영, 일부 온라인 단기 교육 세션 운영

#### ■ 주최 기관

프랑스 아카이비스트 협회 AAF(Association des archivistes français)

[표 39] 프랑스 아카이비스트 협회 (AAF) – 직무 연수 프로그램 <특수 아카이브 이해하기>

#### 세부 커리큘럼(일부)

과목명	주요 내용
Gérer un fonds photographique numérique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 관리)	- 디지털 사진 컬렉션의 보존을 위한 표준 및 규칙, 디지털화 기술 구현, 지적 재산권법

<sup>100</sup>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https://www.archivistes.org/parcours/dcouvrir-les-archives-specifiques/> (2025.11.17. 접속)

<b>Prendre en charge un fonds d'archives d'architecte</b> (건축가의 기록 아카이브 컬렉션 담당)	- 건축 아카이브 컬렉션에 적용되는 보존 준 및 규칙, 컬렉션 분류 및 설명, 지적 재산권법
<b>Maîtriser les fonds photographiques : conservation, traitement et valorisation</b> (사진 컬렉션 제어 : 보존, 처리, 가치)	- 사진 아카이브 컬렉션을 위한 디지털화 기술, 규범 및 표준, 디지털화 기술 구현, 컬렉션의 보존, 홍보

## 라. 독일

유럽 문화 센터(ECC) — 〈퍼포먼스 아트 아카이브와 기록 과정〉

European Cultural Centre — Performance Art Archives and Documentation<sup>101</sup>

- 유럽문화센터(ECC) 산하 예술교육 플랫폼 ‘ECC Performance Art’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간·장소 특정적 특징을 가지는 ‘퍼포먼스 아트’의 창작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공연예술기록과 아카이빙을 다루며, ‘퍼포먼스 아트’의 시간성·현장성과 사라짐과 같은 특수성에 주목하여 이를 물리적 기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 가능한 보존 방식을 주제로 다루고 있음.
- 교육 대상을 아티스트(작가)·큐레이터·연구자로 설계한 것이 특징임. 세부 커리큘럼에는 영상·사진·오브제·구술 등 다양한 퍼포먼스 기록 매체, 아카이브 개념의 철학적 이해, 아카이브를 활용한 창작 및 전시 방법,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기록 전략의 변화 등 전통적인 기록화 방식부터 최신 디지털 기술까지 폭넓은 아카이브 이론과 사례를 포함하며, 실제 퍼포먼스 자료를 활용한 창작 및 전시 사례를 소개하며 아카이브가 예술과 역사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4년 11월 4일 ~ 11월 25일

### ■ 운영 대상

퍼포먼스 아트 작가, 퍼포먼스 아트 기록/아카이브에 관심 있는 학자 및 큐레이터

현대 퍼포먼스 아트의 아카이빙 이론과 실무에 관심있는 실천가와 연구자

### ■ 모집 인원

공지되어 있지 않음.

### ■ 수강료

€175

### ■ 교육 강사

안야 띠르슈너 (유럽 현대퍼포먼스아트 예술 교육 네트워크 대표, 독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안스 뮌헨대 박사)

<sup>101</sup> 유럽 문화 센터(ECC) [ecc-performanceart.eu, https://ecc-performanceart.eu/performanceworks](https://ecc-performanceart.eu/performanceworks) (2025.7.23. 접속)

## ■ 강의 형식

온라인 실시간 강의 (Zoom 활용), 주 1회 정규수업 외에 실습 과제와 소규모 수강 인원으로 발표 및 토론이 병행됨.

## ■ 주최 기관

ECC Performance Art (유럽 현대퍼포먼스아트 예술 교육 네트워크)

[표 40] 유럽 문화 센터(ECC) — 〈퍼포먼스 아트 아카이브와 기록 과정〉(2024) 세부 커리큘럼

회차	과목명	과목 분류	주요 내용
1주차	<b>The Past and Present of Performance Archives</b> (아카이브의 과거와 현재)	이론 중심 : 퍼포먼스 아카이브의 역사·개념·매체 변환 탐구	- 퍼포먼스 아트의 ‘기록 불가능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사례를 통해 퍼포먼스 아트 아카이브의 개념·발전 과정 추적 - 주요 아티스트 아카이브(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등)와 미술관·기관의 보존 방식 비교
2주차	<b>Transformation and Translation</b> (변환과 전환)	이론 중심 : 퍼포먼스 아카이브의 역사·개념·매체 변환 탐구	- 퍼포먼스 행위가 사진, 비디오, 텍스트, 오브제, 디지털 데이터 등 다양한 매체로 변환되는 과정 탐구 - 기록의 선택과 배제, 재매개(remediation), 아티스트의 개입과 공동저작 문제 논의
3주차	<b>Performing the Archive</b> (아카이브를 실행하다)	실습 중심 : 아카이브의 재현, 전시, 큐레이션	- 퍼포먼스 아카이브를 단순히 보존물로 보지 않고 전시, 퍼포먼스 재현, 큐레이션의 행위 논의 - 아카이브를 “살아 있는 장(場)”으로 재해석하는 접근을 실습·토론
4주차	<b>Final Project Presentations</b> (프로젝트 발표 및 비평)	발표 중심 : 개별 연구 및 기록 기획 공유	- 참가자가 자신이 진행 중인 퍼포먼스 아트 프로젝트나 기록 기획안을 발표, 강사 및 동료들과 피드백·비평 세션 진행 -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맞는 아카이브 전략, 전시 방식, 기술적 접근 방식을 공유

## 마. 영국

### 더 포토그래퍼스 갤러리(The Photographers' Gallery) —〈Starting an Archive〉<sup>102</sup>

- 런던의 더 포토그래퍼스 갤러리(The Photographers' Gallery)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6주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인 또는 기관이 보유한 시각 자료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브화하고자 할 때 필요한 ‘관리, 보존, 디지털화, 이용 및 활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음.
- 각 세션은 90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강연, 전문가 발표, 토론’으로 구성됨. 강의 종료 후에는 참고 슬라이드 및 학습 자료가 제공되며, 참여자는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실습해보는 형태로 과제를 수행함. 이후 과정 리더와 함께 참여자가 직접 기획한 아카이브 구축 계획을 심층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추가로 선택형 1:1 개별 멘토링 세션을 신청할 수 있음. 이러한 개별 멘토링 세션으로 단순 교육을 넘어 개인 아카이브 구축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후속 지원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5년 9월 23일(화) ~ 10월 28일(화)

#### ■ 운영 대상

자료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진작가 또는 아카이브를 새로 시작하거나 정비하려는 사람들. 특히 사진작가 및 시각자료 보유자

#### ■ 모집 인원

정확한 인원이 공지되어 있지 않으나 웹사이트 내 정원 마감 공지 존재

#### ■ 수강료

£200(일반 참가자) / £180(회원 및 할인대상)

#### ■ 교육 강사

과정 리더 - 캐서린 터러비(The Photographers' Gallery 아카이비스트) 외 미술비평가, 작가, 큐레이터, 예술 보존가 등 참여

#### ■ 강의 형식

온라인 강의(Zoom)주 1회 정규수업 외에 실습 과제와 발표 및 토론이 병행됨. 소규모 수강 인원으로 토론 중심 진행으로 진행됨.

#### ■ 주최 기관

더 포토그래퍼스 갤러리 (The Photographers' Gallery)

<sup>102</sup> 더 포토그래퍼스 갤러리(The Photographers' Gallery)

[https://thephototheaphersgallery.org.uk/whats-on/online-course-starting-archive-2025?fbclid=PARIRTSAM3RwZleHRuA2FlbOlxMOABp4Kd8NPhKC8xnMVR1DdMAgwZmTvhYMG6o4gfCoc8qHdROV8tsEJZIXWzkKg\\_aem\\_KZsz4J\\_a1yKZ0C0e6KZZ7g](https://thephototheaphersgallery.org.uk/whats-on/online-course-starting-archive-2025?fbclid=PARIRTSAM3RwZleHRuA2FlbOlxMOABp4Kd8NPhKC8xnMVR1DdMAgwZmTvhYMG6o4gfCoc8qHdROV8tsEJZIXWzkKg_aem_KZsz4J_a1yKZ0C0e6KZZ7g) (2025.11.12. 접속)

[표 41] 더 포토그래퍼스 갤러리 – 〈Starting an Archive〉 (2025) 세부 커리큘럼

회차	과목명	강사	주요 내용
1주차	<b>Introduction</b>	베로니카 코빌린스카 (아트 히스토리언·아키비스트, Film School in Łódź 교수 + Archaeology of Photography Foundation 대표)	- 아카이브의 역사와 변화 양상 소개
2주차	<b>Legacy</b>	칼 오히리 / 리카 카시넨 (아티스트 팀 “Lagos Studio Archives” 공동창립자)	-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가를 논의하며 저작권 및 미래 맥락
3주차	<b>Access</b>	-	-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아카이브 접근성 및 커뮤니티 참여 전략
4주차	<b>Physical Preservation and Storage</b>	마리샤 레반도프스카 (영국 기반 아티스트)	- 디지털 및 물리 자료의 보존·저장 솔루션
5주차	<b>Digitisation and Born Digital</b>	리디아 힐리 (The Bodleian Libraries 사진큐레이터)	-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할지 여부와 적합한 플랫폼 및 디지털 자산 저장 전략 등의 실무 가이드 제공
6주차	<b>Cataloguing and Metadata</b>	조피아 아우구스틴스카- 마르티냑 (예술 보존가, ‘Zofia Rydet Foundation’ 부회장)	- 기록물 카탈로그 및 메타데이터 설계과정
Post-course (추가 세션)	<b>one-to-one sessions</b> (1:1 개별 상담 세션)	캐서린 터러비 (The Photographers' Gallery 아키비스트)	- 참여자의 개인 아카이브 또는 컬렉션 구축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무 조언 • 대면: The Photographers' Gallery (런던) • 온라인: Zoom 또는 기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 선택 가능 *강의 종료 후 추가 개별 예약 진행

## 바. 호주

호주 아카이브 협회 (ASA) — 〈아카이브 기초 온라인 학습 시리즈〉

Keeping Archives Online Learning Series<sup>103</sup>

- 호주 아카이브협회(ASA)에서 2016년 개설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협회에서 발행한 대표 출판물 『Keeping Archives』를 기반으로 개발된 자기주도형 이-러닝(E-learning) 시리즈로 진행됨. 공식 학위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교육과 현장 실무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록관리 관련 입문 강의부터 전문 역량 개발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참여자는 전용 웹 플랫폼을 통해 강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전 과정 이수시 디지털 수료증을 발급함.
- 세부 커리큘럼은 기록관리의 개념과 원리, 기록 선별 및 평가, 분류와 기술, 보존 및 관리, 이용 및 접근(Access) 등 각 주제를 독립된 코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개인에게 필요한 분야를 선택적하여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최신 디지털 관련된 웹 기술과 소셜미디어(SNS) 환경에서의 아카이빙 최신 이슈들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16년 첫 출시, 현재까지 온라인 프로그램 상시 제공

### ■ 운영 대상

- 아카이브 분야에 입문하거나 기초 지식이 필요한 사람
- 학생으로서 기록관리 관련 역량을 보강하고 싶은 이들
- 경력이 있는 전문 아카이비스트 중 새로운 기록관리 기법·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리프레셔가 필요한 이들
-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 ■ 모집 인원

공지되어 있지 않음.

### ■ 수강료

표준 코스당 AU\$ 200(회원), AU\$ 800 (비회원 기준)

### ■ 교육 강사

과정 전체의 강사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관리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

### ■ 강의 형식

온라인 자율 학습 형식 (각 코스 90분 분량) – 사전 제작된 강의 영상과 인터랙티브 퀴즈로 구성

### ■ 주최 기관

호주 아카이브 협회 (ASA,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

<sup>103</sup> 호주 아카이비스트 협회(ASA) [archivists.org.au](http://archivists.org.au) [archivists.org.auarchivists.org.au](http://archivists.org.auarchivists.org.au) (2025.7.23. 접속)

[표 42] 호주 아카이브 협회 – 〈아카이브 기초 온라인 학습 시리즈〉 세부 커리큘럼

과목명	주요 내용
<b>Introduction to Records and Archives</b> (기록 및 아카이브 입문)	- 기록관리의 기초 개념과 원리를 소개 - ‘기록(Records)’과 ‘아카이브(Archives)’의 차이 - 생산 → 관리 → 보존 → 활용에 이르는 기록의 전체 수명주기(lifecycle) 이해
<b>Appraisal</b> (기록물 평가 및 선별)	- 기록물의 가치 판단과 평가(Appraisal) 절차 - 행정적·법적·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보존 및 폐기 결정 기준
<b>Context Control and Documentation</b> (맥락 통제 및 문서화)	- 기록의 맥락(Context)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기록화 및 기술(description) 방법 - 기록 생산자, 조직 구조, 업무 흐름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기술 체계
<b>Physical Management and Preservation</b> (물리적 관리 및 보존)	- 물리적 자료(종이 기록, 사진, 시청각 매체 등)의 관리 및 보존 환경 조성 방법 - 온·습도 조절, 보존용품, 기록 안정성 유지 전략
<b>Access</b> (이용 및 접근 관리)	- 기록 공개 및 이용자 접근 정책을 설정 과정 -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이슈 등을 포함하여 아카이브의 공공 접근성과 책임 균형 모색
<b>Digital Records and Archives</b> (디지털 기록 및 아카이브 관리)	-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기초 - 전자기록 수집·보존 프로세스, 메타데이터 표준, 디지털 보존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한 기초 실무

#### 사. 홍콩

#####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AA) – 예비교사 및 교사 대상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 〈Teaching Labs: Creative Enquiry Through The HA Bik Chuen Archive〉 (2021)<sup>104</sup>

-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AA, 홍콩)에서 진행하는 연례 전문 교육 프로그램 〈Teaching Labs〉는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에서 수집한 아시아 현대미술 자료를 교육적 맥락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설계된

<sup>104</sup>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AA, 홍콩)

<https://aaa.org.hk/en/programmes/programmes/creative-enquiry-through-the-ha-bik-chuen-archive> (2025.11.13. 접속)

프로그램으로, 교육자가 직접 기관의 소장 아카이브 리소스를 수업·프로젝트·커리큘럼 설계에 활용하여 참여 교육생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단순히 자료 열람 방식을 넘어, 아카이브를 교육 도구로 전환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며, 교육자들이 각자 창의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례로 홍콩의 작가이자 아카이비스트인 하 빅 추엔(Ha Bik Chuen)의 방대한 개인 아카이브(사진, 콜라주북, 전시기록 등)를 들 수 있음. 이처럼 아트 아카이브를 단순 저장소가 아닌 ‘창의적 탐구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가자들은 실제로 전시 탐방 및 자료 실습 등을 통해 미술 아카이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 운영 기간

2021년 5월 22일, 6월 5일

### ■ 운영 대상

학교 교사 및 예비 교사(Educators & Pre-Service Teachers)

### ■ 모집 인원

공지되어 있지 않음.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아카이브 전문가, 시각예술 교육자, 자료 활용 워크숍 리더 등이 포함

### ■ 강의 형식

토크 + 워크숍 + 전시 탐방

### ■ 주최 기관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AA, 홍콩)

[표 43]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AA) – 예비교사 및 교사 대상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

과목명	강사	주요 내용
<b>Teachers' Morning: Engaging Students in Contemporary Art Exhibitions</b>	제프 렁 친 펑 (독립 큐레이터 & 미술 비평가)	- 교육자 대상 현대미술 전시를 학생들과 어떻게 의미있게 탐색·참여하게 할지에 대한 강연 및 토론 세션과 전시 리터러시, 참여형 학습 설계
<b>Workshop: Collective Collage – Imagination and Interpretation</b>	람 윙쓰즈 (아티스트)	- 하 빅 추엔 아카이브의 콜라주북·사진·잡지 자료 등을 활용해 참여자가 직접 콜라주 제작과 집단 협업을 통해 자료 해석 및 재구성
<b>Exhibition Tour &amp; Archive</b>	-	- 워크숍 참가자 전시 현장 탐방 및

<b>Activation</b>		전시·활성화되는 과정 체험 - 아카이브를 단순 수집소가 아닌 ‘활성화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실습
<b>Project Design: Using the Ha Bik Chuen Archive in Classroom/Workshop Settings</b>	-	- 참여 교육자들이 자신만의 교육 수업이나 워크숍 설계안을 개발 - 하 빅 추엔 아카이브를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탐구, 최종 설계안 발표 및 피드백

## 아. 대만

### C-Lab —〈Independent Art Spaces of Taiwan (IAST)〉<sup>105</sup>

- 대만의 C-Lab과 홍콩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A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공개 교육 프로그램으로, 1980년대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대만의 독립 미술공간이 남긴 기록물을 수집·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술공간의 역사, 아카이브 구축 과정, 디지털 시대의 미술 아카이브 실천을 다각적으로 탐구하는 프로젝트임.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워크숍, 토크, 심포지엄 형태가 병행되었으며, 아시아 미술공간 운영자·아카이브 전문가·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타이베이 C-Lab 내 공동 작업 공간과 i-Center 등에서 진행되며, 일부 세션은 사전 온라인 등록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참여가 가능함.

#### ■ 운영 기간

2022년 8월 14일~2025년 4월 11일

#### ■ 운영 대상

대만 및 아시아 지역의 독립 미술공간(Independent Art Spaces) 운영자, 미술가, 자료/아카이브 연구자, 큐레이터, 미술 공간 관계자 등

#### ■ 모집 인원

공지되어 있지 않음

#### ■ 수강료

무료

#### ■ 교육 강사

강사 전체 명단 및 직함은 각 회차별로 상이

#### ■ 강의 형식

토크 세션, 워크숍, 심포지엄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

<sup>105</sup>C-Lab <https://clab.org.tw/en/project/iast/> (2025.11.13. 접속)

## ■주최 기관

C-Lab (Taiwan Contemporary Culture Lab) / 공동 주관: Asia Art Archive(AAA, 홍콩)

[표 44] C-Lab – 〈Independent Art Spaces of Taiwan (IAST)〉 세부 커리큘럼

회차	강의명	강사	주요 내용
1 2022.08.14 (일)	<b>Space as Response: Taiwan Perspectives After the 1980s</b> (1990년대 이후 대만 독립예술공간의 형성과 반응)	존 테인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연구총괄), 우 마리 (예술가), 청 메이야 (미술사 연구자), 에이미 청 (큐레이터·더큐브 프로젝트 스페이스 공동설립자)	1980년대 이후 대만 독립 예술공간의 형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2 2022.10.23 (일)	<b>The Fringe Land of Milk and Honey in the South – Reviewing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Art Spaces in the 90s</b> (풍요의 경계: 1990년대 남부 대만 독립공간 발전사 재검토)	천 춘승 (예술가) 쉬 웨인다 (예술가·아카이브 협력 연구자)	1990년대 대만 남부 지역의 독립 공간 발전사와 지역 미술생태 변화 검토
3 2022.11.26 (토)	<b>“ET@T” in the 90s and Its Dispositif of Images</b> (1990년대 ET@T와 이미지 장치(Dispositif) 연구)	예 싱조우 (연구자·저술가)	1990년대 미디어/이미지 실험 단체 ET@T의 활동과 이미지 아카이브 구조 탐구
4 2023.02.10 (금)	<b>Modes and Methods: Digitising Mrinalini Mukherjee’s Archive</b> (아카이브 디지털화 사례: 미날리니 무케르지(M. Mukherjee) 자료 디지털화 방법론)	누프르 데사이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연구자) 사미라 보세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연구자)	인도 조각가 Mrinalini Mukherjee의 아카이브 디지털화 사례와 방법론 분석

5 2023.05.20 (토)	<b>Transmuting and Expanding: Re-exploring the Art Archives of Yeh Shih-Chiang</b> (변환과 확장: 예수창(Yeh Shih-Chiang) 아카이브 재탐색)	예 웨이리 (예술가·아카이브 이니시에이터). 존슨 창 (큐레이터·Hanart TZ 설립자)	예술가 Yeh Shih-Chiang의 작업·아카이브 재구성 사례 연구
6 2023.09.02 (토)	<b>The Difficulties of Archives: Archive Fever in Contemporary Art</b> (아카이브의 어려움: 현대미술의 아카이브 열병(Archive Fever))	리 리춘 (예술가·큐레이터)	현대미술에서의 '아카이브 열풍(archive fever)'과 예술가 아카이빙 실천의 문제점 논의
7 2023.10.14 (토)	<b>The Archivist and the Artist as Archivist</b> (아카이비스트와 아카이비스트로서의 예술가)	천 후이차오 (예술가·IT Park 설립자) 야오 쥐총 (예술가) 앤서니 융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수석연구원)	예술가-아카이비스트의 경계, 독립 공간·예술가 아카이브 구축의 실천 공유
8 2023.10.28 (토)	<b>Institutional Self-Archiving: The Establishment and Challenges of TFAM Archives</b> (기관 아카이브 구축과 도전: TFAM 아카이브 사례)	이팅 레이 (타이베이시립미술관 아카이비스트). 샤틀린 유 (아카이비스트)	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과정과 조직 내 아카이빙 제도의 도전과제 분석
9 2023.10.28 (토)	<b>Open the Binders: A Micro Workshop on Organizing Archival Materials</b> (바인더 열기: 아카이브 자료 정리 마이크로 워크숍)	니콜라 왕(아카이비스트) 쿄 셰(아카이비스트)	아카이브 자료 정리·기술 실습 중심 워크숍 (문서·이미지·출판물 등)
10 2024.01.20 (토)	<b>Introducing the Up Art Gallery Archive and Sin Pin Pier Archive</b> (Up Art Gallery 아카이브 & Sin Pin Pier 아카이브 소개)	니콜라 왕(아카이비스트) 쉬 위안다(예술가)	대만 지역 독립 예술공간 아카이브 소개 및 운영 구조 공유

11 2024.06.30 (일)	<b>Introducing the Shin Leh Yuan Art Space Archive</b> (Shin Leh Yuan 공간 아카이브 소개)	니콜라 왕(아카이스트) 창 야핑 (예술가·공간 설립자), 위 웨이 (큐레이터)	아카이브 구조·운영 방식·역사적 의의 발표
12 2024.07.20 (토)	<b>Imprinting Memories: A Hands-On Workshop for Digitizing Family Archives</b> (가족 아카이브 디지털화 실습 워크숍)	타미 호 (디지털 아카이스트)	개인·가족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환 실습 (사진 스캔·메타데이터· 기초 보존법)
13 2024.10.13 (일)	<b>Introducing the Space II Archive — and How It Became a Movement</b> (Space II 아카이브 소개 — 운동으로 확장된 과정)	니콜라 왕(아카이스트) 황 하이밍(예술가)	예술공간의 아카이브 구축 과정과 이후 지역 운동으로 확장된 과정 분석
14 2025.04.11–13 (금-일)	<b>Symposium: The Histories and Archives of Independent Art Spaces of Asia</b> (아시아 독립예술공간의 역사와 아카이브 국제 심포지엄)	국제 연구자·큐레이터 다수 참여	아시아 독립 미술공간의 역사·아카이브 구조·디지털 시대의 기록화 전략을 다루는 3일간 국제 심포지엄

[표 45] 국외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분석

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기간	교육 대상 (인원)	강의 형식	회차	수강료
[미국] 조지 이스트먼 뮤지엄 & L. 제프리 셀즈닉 영화 보존 학교 프로그램	10개월	영화·미디어 아카이브 분야 지망자 (10~15명)	이론 강의 +세미나 +워크숍 +현장실습	다수	\$12,500/년
[이탈리아] 조르조 치니 재단 — ARCHiVe 온라인 아카데미	상시 (2021년~)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관심 학생·연구자·실 무자 등 (제한 없음)	온라인+오프 라인 혼합 (강연+워크 숍)	다수	무료
[프랑스]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 FRAME 아카이브 연수 프로그램	온라인 6일 + 오프라인 5일 (연 2회)	오디오비주얼 아카이브 분야 실무자 (초급/고급) 세션당 12명	온라인+오프 라인 (기초:온라인 고급: 현장)	6회(온라 인)+5회 (오프라 인)	고급 €1,200
[독일] 유럽 문화 센터(ECC) — <퍼포먼스 아트 아카이브와 기록 과정>	4주간	퍼포먼스 아트 작가·연구자·큐 레이터 등 (소규모)	온라인 강의 (토론 및 과제 병행)	4회	€175
[영국] 더 포토그래퍼스 갤러리 — <Starting an Archive>	6주간	사진작가 등 시각자료 컬렉션 보유자 (소규모)	온라인 강의 (강연+게스 트 토크 +토론)	6회	£200(일반)/ £180(회원)

※ 국외 프로그램은 강좌별 수강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2주~6개월의 다양한 기간으로 설계됨.

소규모 인원 운영(15명 이내) 방식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온라인 진행 강의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제2절 대학 교육과정 사례

### 1. 조사 목적 및 범위

- 본 절은 미술 아카이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국외 대학에서의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 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술과 기록학 전공의 국내·외 대학에서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에게 요구되는 전문역량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특히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미술 아카이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록학 분야의 대학 교육이 제공하는 기록의 수집·평가·정리·보존 등의 관리 역량과 미술 분야 대학 교육이 제공하는 해석·비평·기획 등의 역량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소재 대학원의 기록학과 미술 이론 전공 분야의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이후 국외 기록관리와 미술관 분야에서 제시하는 전문직 표준을 분석하여 미술 아카이비스트 역량 교육의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 대학 교육과정 :** 국내 기록학과 미술이론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합분석하여 미술 아카이비스트에게 요구되는 전문역량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공되고 있는지를 검토함. 해외 기록관리, 미술관, 큐레이션 분야의 전문직 기준 및 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확인하고 국내 교육체계와 비교. 국내·외 교육과정과 전문직 표준 간의 정합성을 검토함.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현재 국내 교육이 제공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과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도출함.
  - **국외 대학 교육과정 :** 국외 기록학과 미술이론 대학원 교육과정 중 미술 아카이브를 독립된 전문교육 분야로 다루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검토함. 전문직 표준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연계, 다학제 협력시스템, 전문 트랙 등을 운영하는 국외 사례를 통해 기록학 분야와 미술 분야의 대학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점을 맺으며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 국내의 미술 아카이비스트를 위한 교육 체계 구성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함.

### 2. 국내 대학 교육과정

#### 가. 기록학 분야 대학

##### 1) 교육 운영·설치 현황

- 국내 기록관리학 교육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된 1999년에 목포대학교에 최초로 기록물관리학과가 최초로 개설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2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와 과정 등을 설립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해 왔음.
- 1999년 목포대학교, 원광대학교, 충남대학교에 기록학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이후 2000년부터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여 2008년에 20개 대학에서 기록학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이후 신설과 폐지를 거쳐 현재(2020년 1월 기준), 전국 25개 대학의 26개 대학원과 3개 교육원에서 기록전문직을 양성하고 있음.<sup>106</sup>

<sup>106</sup> 김유승, 「기록전문직 교육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권 1호, 2020, p.163

- 기록학 대학원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으로 구분됨. 전문대학원으로는 명지대학 기록정보과학대학원이, 특수대학원으로는 중부대학교 휴먼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가 있음. 일반대학원은 다시 학과 내 세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와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개설된 경우로 나뉘며, 학과 내 세부전공은 문헌정보학과, 사학과 등에 개설되었으며, 학과 간 협동과정은 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영화영상학, 통계학 등의 학과가 참여하여 개설되었음.<sup>107</sup>

[표 46] 국내 기록학 분야 대학 교육 과정 현황<sup>108</sup>

번호	구분	대학교명	대학원 유형	개설학과	설치년도	이수과정
1	국립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사학, 법학, 전자공학, 행정학	2015	석사
2	사립	경남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인문과학	2000	석사
3	국립	경북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문헌정보학, 사학	2005	석사/박사
4	사립	대구카톨릭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도서관학, 행정학	2014	석사
5	사립	동아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사학과	2015	석사/박사
6	사립	동의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문헌정보학과	2014	석사/박사
7	사립	명지대	전문대학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00	석사/박사
8	국립	목포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사학, 행정학	1999	석사
9	국립	부산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문헌정보학과	2000	석사/박사
10	국립	서울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사학, 법학, 행정학	2001	석사/박사
11	사립	서울여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문헌정보학과	2012	석사
12	사립	숙명여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문헌정보학과	2006	석사
13	국립	신라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문헌정보학, 사학	2006	석사/박사
14	사립	연세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문헌정보학과	2008	석사
15	사립	원광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사학과	1999	석사/박사
16	사립	이화여대	특수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2002	석사
16-1	사립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문헌정보학과	2015	석사/박사

<sup>107</sup> 김유승, *ibid*, p.164

<sup>108</sup> [표 46]은 2020년 1월 현황을 작성한 '<표 1> 우리나라 기록전문직 교육 현황'(김유승, 「기록전문직 교육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권 1호, 2020, p.164.)를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일부 수정하였음.

17	국립	전남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문현정보학, 사학, 행정학	2010	석사/박사
18	국립	전북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기록관리학, 문현정보학, 사학, 영화영상학, 통계학	2010	석사/박사
19	사립	중부대	전문대학원	휴먼텍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	2006	석사
20	국립	중앙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문현정보학과	2006	석사/박사
21	사립	충남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문현정보, 사학, 행정학	2000	석사/박사
22	사립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정보기록학과	2000	석사/박사
23	사립	한남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기록관리학, 문현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2000	석사
24	사립	한성대	일반대학원 학과내세부전공	문현정보학과	2007	석사
25	사립	한신대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	기록학, 법학, 사학, 컴퓨터학	2007	석사

## 2) 교육과정 분석

- 기록관리학 교과목은 기초영역, 전문영역, 보조영역, 실습영역, 연구영역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전문영역은 다시 8개의 교과영역으로 구분함.

[표 47] 국내 기록학 영역별 교과목<sup>109</sup>

공통 교과 영역	정의	세부 교과목	
기초영역	- 기록의 유형, 매체, 출처에 관계없이 기록의 기능(기록 이론), 기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방법론), 실제 상황에서 이론과 방법의 실현(실무)을 포함하여 기록의 본질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관리학개론/ 입문 -정부조직론/행정조직론 -정부체계/행정체계 -행정론/행정사 -기록관리 제도/체계 -기록관리 관련 법	
전문 영역	기록물 선별, 평가, 수집	- 기록 생산자와 기관, 연구자, 그리고 사회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정보자원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획득하고, 그러한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게 하는 이론, 방법론, 정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평가 -기록수집
	기록물 정리, 기술, 조직	-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원이 기록의 원리와 기관의 고려사항에 따라 지적이고 물리적으로 조직되기 위한 이론, 방법론, 정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컬렉션으로의 접근 및 통제를 제공하는 기술적인(descriptive) 도구와 시스템의 발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정리 -기록기술 -기록조직

<sup>109</sup> [표 47]은 기록관리학 공통 교과 영역 및 세부 교과목 비교를 작성한 ‘<표 2>와 기록관리학 공통 교과 영역의 정의 <표 3>(강주연, 김태영, 배성종, 이승채, 오효정, 「국내 기록관리학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권 2호, 2019. pp.30-31.)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기록물 정보공개, 열람서비스, 접근 제한, 홍보	- 기관의 권한과 이용자층, 기록정보자원의 본질, 관련된 법과 윤리적인 고려사항, 이용자의 요구, 적절한 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정책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이용자층과 그들의 요구를 식별하며 활용의 증가와 기록정보자원, 방법론, 자원, 가시성, 지원 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과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봉사/열람서비스 -기록공개/접근제한 -홍보
기록물 보존, 보호	- 디지털화나 마그레이션 등과 같이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행위 즉,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원을 물리적이고 지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이론, 방법론, 정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보존 -기록복구 -기록보호
기록물 전자적 관리	- 모든 유형의 기록의 생산, 관리, 활용, 보존을 위한 복잡한 정보 기술과 파일 포맷, 미디어 유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기록 업무 전반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기술적인 솔루션을 식별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전자기록관리 -기록시스템
기록관 운영	- 리파지토리, 작은 부서,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조직의 자원,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한 주의 깊은 계획 설계와 행정 등 전반적인 기록관리 업무의 모든 측면을 용이하게 하는 원리와 실무에 관한 교과	-기록관 조직과 행정 -기록관 운영 -기록관 업무분석
기록관리 역사	- 다양한 아카이브의 발전과 기록 생산 및 기록관리 시스템의 발전, 기록문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	-기록학/기록관리역사 -기록사료연구 -기록문화
기록관리 전문직 윤리가치	- 기록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과 그들의 업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관리 윤리
보조영역	- 문헌정보학, 컴퓨터공학, 박물관학, 구술사 등 기록된 정보의 식별과 보호, 분배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포함하는 교과	-컴퓨터공학 -문헌정보학 -향토사/동서양문화사 -경영학/재무회계 -구술사연구 -기타 관련 학문영역
실습영역	- 인턴십 등을 통한 일정 기간의 현장경험	-기록관리 실습/현장 실습
연구영역	-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연구의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모습을 조합하여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학습자의 연구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식에 관한 교과	-논문연구 -논문지도 -기록관리세미나 -연구설계 -기록관리학연구방법론

## ■ 10개 대학원 교과목의 분석

-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기록학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총 25개의 대학원 중 설치 유형, 설치년도, 배출한 졸업생 수, 지역, 정보접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중부대 휴먼택대학원기록물관리학과,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전공, 한남대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전북대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충남대 협동과정 기록학과, 서울대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총 10개의 대학원 개설교과목 283개를 대상으로 삼음.

- 2025년 11월 현재,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교과목으로, 현재 같은 수업이 지속적으로 개설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음. 특히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홈페이지의 교과목 페이지에는 기록관리전공, 문화자원기록전공, AI정보과학전공, 스포츠기록분석 전공으로 되어 있으나, 2023학년도 후기부터 문화자원기록전공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기록관리전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총 10개의 대학원 개설교과목 283개를 강주연 외(2019)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추가로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음.

### ① 기초영역

- 기록의 이론·방법론·실무를 포함하여, 기록의 본질·개념·역사·법제 등 모든 기록 분야에 공통되는 기초적 지식을 제공. 기록학의 학문적 정의, 역사, 학문 범위, 기록관리 제도·법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과.
- 「기록관리학개론/기록학개론/기록관리학총론」(중부대, 부산대, 한남대, 전북대, 중앙대 등), 「현대 기록정보학의 이해」(명지대), 「기록관리법령연구」(서울대) 등.
- **미술 아카이비스트 연계 :** 기록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카이비스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지만, 미술 아카이브에 특화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음.

### ② 전문영역

- 기록의 수집·평가·정리·기술·보존·서비스·전자적 관리·기관 운영 등 아카이비스트의 핵심 실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방법론·정책·절차를 다루는 교과임.
- **기록물 선별·평가·수집 :** 「기록평가이론」(부산대), 「기록의 평가와 수집」(한남대), 「기록정보평가론」(충남대), 「기록물 분류, 평가」(중부대), 「평가선별과 서사형 아카이브 수집론」(명지대) 등
- **기록물 정리·기술·조직 :** 「기록의 정리와 기술」(충남대), 「정리와 기술」(서울대), 「기록정보조직론», 기록정보조직특강, 기록물조직론」(부산대, 한남대, 전북대, 충남대), 「분류, 기술방법론 연구」(중앙대) 등
- **기록물 정보공개·열람서비스·접근 제한·홍보 :**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특강,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물서비스론」(명지대, 부산대, 한남대, 한성대, 전북대, 서울대), 「기록정보서비스와 아웃리치」(명지대), 「기록물정보특론」(중부대), 「기록물공개세미나」(한성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한국외대) 등
- **기록물 보존·보호 :** 「기록보존론, 기록보존학, 기록보존세미나, 보존화학」(중부대, 부산대, 충남대, 한성대), 「기록의 보존」(한남대, 한국외대), 「보존처리론」(서울대) 등
- **기록물 전자적 관리 :** 「전자기록물관리, 전자기록관리론, 전자기록물관리 이론 및 실습, 전자기록관리 세미나, 전자기록물의 관리, 전자기록물관리특강」(중부대, 부산대, 중앙대, 충남대, 전북대, 한성대, 서울대), 「디지털 기록정보 관리의 원리와 기술」(명지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디지털아카이빙연구, 디지털아카이빙특론, 전자기록장기보존론」(한국외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등

- **기록관 운영**: 「기록관운영론, 기록관운영론 특강」(부산대, 중앙대), 「기록관경영론, 기록관경영특강」(한남대, 한성대), 「기록물정보관리체계특론」(중부대), 「기록관리 정책과 기록물관리기관 경영」(충남대), 「기록물경영전략」(전북대) 등
- **기록관리 역사**: 「기록관리의 역사, 한국기록관리의 역사, 국외 기록관리의 역사」(부산대, 서울대), 「한국의기록관리역사, 외국의기록관리역사」(한남대), 「한국기록문화사특강, 기록문화사특강」(중앙대, 한성대) 등
- **기록관리 전문직 윤리가치**: 「기록관리 윤리」(한성대), 「윤리와 저작권」(충남대), 「기록물저작권세미나」(한성대) 등
- **미술 아카비스트 연계**: 실무 역량 강화에 직접 기여하지만, 공공기록 중심으로 교육함.

### ③ 보조영역

- 기록관리 실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인접 학문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교과. 역사·문화사, 행정학, 법학, 컴퓨터공학·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과의 연계된 내용이 교과에 포함됨.
- 「한국근현대사연구/한국근현대사자료론/지방사연구」(한남대), 「한국사연구」(중부대), 「역사자료론/서양사 사료강독/서양문화사론/한국법제사」(충남대), 「세계의 한국관련 기록물과 문화유산」(한국외대), 「한국전통문화자원론」(명지대) 등
- **미술 아카비스트 연계**: 미술사, 전시 이론, 박물관학 등의 교과목이 미포함

### ④ 실습영역

- 기록관·기관·현장에서 기록의 생산·수집·평가·정리·보존·서비스 등 전 과정의 업무를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
- 「기록관리실습/기록물관리실무/기록관리현장실습/기록학실습」(중부대, 부산대, 한남대, 한성대, 서울대 등), 「일상 아카이브 실습」(명지대), 「전자기록물실무」(중부대)
- **미술 아카비스트 연계**: 실무 능력 강화에 유효하나 미술관 실습은 많지 않음(부산대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한신대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등에서 일부 운영중)

### ⑤ 연구영역

- 기록학 연구의 설계·방법론·자료 분석·논문 작성·세미나 등을 통해 학문적 연구 역량을 함양하고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을 개발하는 교과
- 「기록학연구방법론/기록관리연구방법론/기록관리학연습」(중앙대, 전북대, 한성대, 충남대, 서울대, 한남대), 「논문연구/석사논문연구/석사논문지도」(부산대, 중부대), 「기록학 세미나/기록관리학 세미나/기록관리세미나/기록학논선특강」 등
- **미술 아카비스트 연계**: 대학원 과정의 공통 특성으로 이론적 탐구에 유용함.

## ■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 관련 교과목

- 위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을 추출하였음.
-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과목은 ‘직접 관련’ 교과목은 교과명과 강의 내용에서 예술·시각문화·작가·전시·예술기록 등의 주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어, 미술 아카이브 실무에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목을 의미함. ‘간접 관련’ 교과목은 미술 아카이브 실무에 필요한 배경지식·기술·방법론·특수기록물 관리·콘텐츠 해석·디지털 기술 등을 제공하지만, 미술 분야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과목을 의미함.
- **직접 관련 교과목** : 명지대에만 개설되어있으며, 기록관리전공에 포함된 문화자원기록전공 수업도 함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음.
- 예술기록관리세미나(1~4), 사진영상기록관리론, 시각예술기록관리론, 근대시각문화와 기록(명지대 문화자원기록전공), 아트아카이브즈연구(명지대 기록관리전공)
- **간접 관련 교과목** : 문화예술 기록에 관한 과목과 미술 아카이비스트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매체와 유형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이론, 방법론, 실무적 역량을 제공하는 과목임.
- **문화예술 기록** : 예술·대중문화 아카이브, 기록관리와 문화산업, 세계의 한국관련 기록물과 문화유산 (1~4), 방송아카이브와 사회적 활용(한국외대), 공연예술기록관리론, 한국전통문화자원론, 한국문화자원고급세미나(1~4), 문화자원정보관리연구, 한국공간문화자원연구, 한국유형문화자원연구(명지대)
- **매체 기록** : 특수기록물관리특강(한성대학교), 오디오 및 비쥬얼 아카이브 자료 관리(중앙대학교), 종이기록물특론(중부대), 뉴미디어연구(전북대)
- **작가 구술기록, 전시 맥락 기록, 지역 미술사와의 연계 가능한 구술·문화·지역 기반 기록** : 구술사와 질적 연구(명지대), 구술기록과 생활사연구(부산대), 구술아카이빙과 사회기억(한국외대), 민간기록류특강(서울대), 공동체아카이브론(부산대) 등
- **디지털 아카이빙 및 기술·시스템 관련** : 소셜미디어와 아카이브(명지대), 디지털 기록정보관리의 원리와 기술(명지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한국외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 (부산대·충남대), 기록물 메타데이터 (서울대), 기록정보데이터베이스 (충남대), 기록시스템 프로토타이핑 (명지대), 기록정보 링크드 데이터(한성대), 디지털기록큐레이션(전북대)
- **이용자서비스와 전시 관련** : 기록관리와 라키비움의 전시업무 (한국외대), 기록정보서비스와 아웃리치 (명지대), 기록물저작권세미나(한성대) 등

## 나. 미술 분야 대학원

### 1) 교육 운영·설치 현황

-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신설되기 시작했던 기록학과 달리, 미술 이론 분야는 1973년 홍익대학교에서 미학미술사학과가 설치되는 등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대학원 과정뿐만 아니라 학부에도 설치된 경우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직접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실기 중심의 학과를 제외하고 미학, 미술사학, 큐레이터학, 미술이론, 미술/예술/문화예술 경영 및 정책에 관련된 미술이론 학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설치 유형, 설치년도, 배출한 졸업생 수, 지역, 정보 접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7개 대학에 설치된 미술이론 관련 18개 전공의 교과목을 분석하였음.
-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대학원은 동덕여대 일반대학원 큐레이터학과, 명지대 특수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미술사학과, 서울대 일반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학과 전공, 서울대 일반대학원 미학과, 서울대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서울대 일반대학원 디자인역사문화전공,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정책대학원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전공/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숙명여대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문화예술교육학(박사),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이화여대 일반대학 조형예술학부 예술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예술전문사), 흥익대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흥익대 일반대학원 미학과, 흥익대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흥익대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흥익대 특수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흥익대 특수대학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야간), 흥익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박사)로, 홈페이지에 소개된 교과목이 없을 경우 각 학기에 개설된 것으로 조회된 교과목을 조회하여 중복을 제외하고 교과목에 포함하여 총 766개의 교과목을 분석하였음.

[표 48] 국내 미술 분야 대학 교육 과정 현황<sup>110</sup>

번호	유형	대학교명	대학원 유형	개설학과	설치년도	이수과정
1	사립	동덕여대	일반대학원	예술대학 큐레이터학과	1999	석사/박사
2	사립	명지대	일반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미술사학과 (미술사학전공, 문화유산관리전공, 미술기획전공)	2000	석사
3	국립	서울대	일반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학과 전공	1981	석사/박사
4	국립	서울대	일반대학원	미학과	1981	석사/박사
5	국립	서울대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2005	석사/박사

<sup>110</sup> [표 48]은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동덕여자대학교 <https://grad.dongduk.ac.kr/grad/contents/art05.do>, <https://gsca.mju.ac.kr/gsca/3182/subview.do>,  
서울대학교

<https://meehak.snu.ac.kr/%ea%b5%90%ea%b3%bc%eb%aa%a9-%ec%95%88%eb%82%b4-%eb%8c%80%ed%95%99%ec%9b%90/>, <https://archaeology-arhistory.or.kr:6043/?c=user&mcd=sac0002>,

숙명여자대학교 <https://policy.sookmyung.ac.kr/policy/11409/subview.do>, <https://cultureartsedu.sookmyu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s://my.ewha.ac.kr/ewhavag/>, <https://arhistory.ewha.ac.kr/arhistory/graduate/curriculum.do>

한국예술종합학교 [https://www.karts.ac.kr/usr/dpt/BBSCTG\\_002005000000/program.do](https://www.karts.ac.kr/usr/dpt/BBSCTG_002005000000/program.do),

흥익대학교 [https://hongikaesthetics.org/include/main\\_new.html](https://hongikaesthetics.org/include/main_new.html), <https://arhistory.hongik.ac.kr/arhistory/index.do>,

<https://hicam.hongik.ac.kr/hicam/index.do>, <https://artsmba.hongik.ac.kr/artsmba/0202.do>,

<https://cn.hongik.ac.kr/grad/ex/timetable.jsp> (2025.11.18.접속)

6	국립	서울대	일반대학원	미술대학 디자인역사문화전공	2014	석사
7	사립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정책대학원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전공,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1994	석사
8	사립	숙명여대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문화예술교육학	2019	박사
9	사립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부 예술학	2001	석사/박사
10	사립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1980	석사/박사
11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한국 및 동양미술 계열 서양미술 계열 미술경영 및 비평 계열)	2015	예술전문사 석사학위에 준함
12	사립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학과	1973	석사/박사
13	사립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1973	석사/박사
14	사립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1990	석사과정 (박사는 미술학 산하)
15	사립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1990	박사과정
16	사립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2008	석사/박사
17	사립	홍익대학교	특수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2008	석사MBA
18	사립	홍익대학교	특수대학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1997	석사

## 2) 교육과정 분석

- 7개 대학, 18개 전공에서 수집한 총 766개의 미술이론·전시·경영 관련 교과목을 하나의 집합으로 통합하여 내용 기반으로 범주화하였음. 기존 연구(윤민희 2007; 2020 재인용)에서 제시한 미술이론과목 분류체계를 참고하되, 본 연구의 대규모 교과목 집합에서 나타난 실제 분포를 반영하여 다음의 일곱 개 영역으로 재구성함.
- 이 분류는 미술사·미학 중심의 전통적인 미술이론 교육과, 시각문화·매체·전시·예술경영 등 현대적 확장 영역을 모두 포괄함.

[표 49] 국내 미술 이론 분야 영역별 교과목<sup>111</sup>

구분	정의	세부 교과목	
기초 이론 영역	미술사·예술사	- 지역·시기·사조·장르별 미술의 전개와 역사적 맥락을 연구하는 영역. 미술이론 교육의 기초 기반을 형성하는 교과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현대미술사, 서양근현대미술사, 한국근현대미술론, 사진사, 영상사
	미학·예술철학	-예술의 본질, 미적 경험, 철학적 해석, 예술과 진리·언어·정동의 관계 등 예술철학적 논의를 다루는 영역을 포괄하는 교과	-현대미학, 예술철학, 미적 경험, 예술과 철학
	비평·예술이론	- 작품·이미지·전시를 해석·비판하기 위한 이론·담론·방법론을 다루는 영역. 텍스트 분석과 예술학적 글쓰기 등을 포함하는 교과	- 미술비평, 작품분석 및 비평, 현대예술론, 담론분석
전문 영역	시각문화·영상·매체· 미디어	사진·영화·비디오·뉴미디어·디지털 이미지 등 확장된 시각성·매체 환경을 연구하는 영역을 포함하는 교과	시각문화연구, 사진이론, 영상문화와 예술, 미디어아트론, 뉴미디어와 예술
	전시·큐레이션·뮤지엄	전시기획, 큐레이터 실무, 전시담론, 미술관 제도 등을 다루는 실무·이론 결합 영역.	전시기획이론 및 실습, 큐레이터학, 전시사 연구, 전시담론연구, 미술관학
	예술경영·문화정책·행 정	예술기관 운영, 정책, 재정, 마케팅, 미술시장 등 미술계 제도·정책·산업을 다루는 영역.	미술경영론, 문화예술정책, 문화재정, 아트마케팅, 미술시장연구, 문화예술행정
	융합·확장	예술과 사회·도시·기술·지역·교육·문화유산·산업 등을 연결하는 융합적 이론 기반 영역. 현대미술학의 확장된 방향을 반영.	예술사회학, 도시와 예술, 문화예술교육, 문화유산과 인문콘텐츠, 문화산업과 디지털, 사회참여예술
실습영역	- 인턴십 등을 통한 일정 기간의 현장경험	-인턴십, 전시기획 실습, 큐레이터 실무, 문화예술교육 현장 실습	
연구영역	- 연구설계·세미나·텍스트 분석·학위논문 작성 등 학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영역.	-논문연구 -미학방법론, 예술학연구방법론론 -현대예술, 미학, 미술사 세미나	

### ■ 7개 대학원, 18개 전공의 교과목의 분석

- [표 5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 미술 분야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766개 교과목은 기초 이론 영역, 전문 영역, 실습 영역, 연구 영역, 그리고 특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범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미술이론 교과목 유형을 참고하되, 실제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교과의 구성과 기록학의 영역 분류를 참고하여 재정비한 것임.

<sup>111</sup> 윤민희(2007), 예술·디자인영역 이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3(4), p.256. 국내 미술 이론 분야 영역별 교과목을 작성한 <표 6>(윤민희, 「예술·디자인영역 이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3권 4호, 2007. p.256.)를 기반으로 분류하였음.

### ① 기초이론영역

- **미술사·예술사 영역** : 지역·시기·사조·장르별 시각예술의 전개를 파악하는 교육의 기초축을 이룸.  
서양·동양·한국 미술사뿐 아니라 근·현대미술, 장르사(사진사·영상사 등)를 통해 작품·이미지가 속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구성함.
- **미학·예술철학 영역** : 예술의 본질, 미적 경험, 감각·언어·진리·정동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다루며, 미술학의 개념적·이론적 기초를 제공. 「현대미학」 「예술철학」 등은 작품 해석의 심화된 사유틀을 제공하는 핵심 교과임.
- **비평·예술이론 영역** : 작품·이미지·전시·담론의 해석·분석·비판을 중심으로 구성. 「미술비평」 「작품분석 및 비평」 「담론분석」 등은 현대 예술을 해석하는 언어적·이론적 역량의 기반을 형성함.
- **미술 아카이비스트 연계** : 미술사적 이해는 작품·작가·전시기록을 맥락화하는데 필수적 배경지식을 제공 가능.  
미학·예술철학 영역은 작품 해석과 기록의 의미화 과정에 기여 가능. 비평·예술이론 영역은 작가, 전시, 아카이브 기록을 해석하고 새로운 맥락을 구성하는데 기여 가능함.

### ② 전문영역

- **시각문화·영상·매체·미디어 영역** : 시각문화·매체 영역은 사진, 영상, 영화, 디지털 이미지, 뉴미디어 등 현대의 시각 환경을 다룸. 이미지의 사회적·기술적 조건을 분석하는 교육을 포함함.
- **전시·큐레이션·뮤지엄 영역** : 전시기획, 큐레이터 실무, 전시사, 전시담론, 박물관학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영역으로, 현장 중심의 기획·운영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 「전시기획이론 및 실습」 , 「큐레이터학」 , 「박물관학」 등
- **예술경영·문화정책·행정 영역** : 예술기관 운영, 재정·마케팅, 예술행정, 문화예술정책 등 예술계의 제도적·행정적 구조를 이해하는 영역임
- **융합·확장 영역**: 예술과 사회·도시·기술·교육·산업·문화유산을 결합하여 현대 예술이 위치하는 다양한 맥락을 해석함.
- **미술 아카이비스트 연계** : 아카이브가 사회적 기억·문화유산·디지털 기술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개념적 연계 가능성. 시각문화·영상·매체·미디어 영역은 다양한 매체기록을 다루는 미술 아카이브에서 업무 역량에 기여 가능. 그러나 매체별 보존 기술 등에 관한 실무 역량 교육은 부족함. 전시·큐레이션·뮤지엄 영역은 전시 기록, 소장품 기록에 관한 이해와 전시기획 능력에 기여 가능. 예술경영·문화행정 교과목은 기관 운영 이해로, 또한 기록관리 정책·절차와 간접적으로 연결 가능함. 융합·확장 영역은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기록 실무보다 전시 기획 관련 실습이 대부분임.

### ③ 실습영역

- 현장 실습, 인턴십, 전시기획 실습 등 실제 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 체험을 중심으로 함.

- **미술 아카이비스트 연계** :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기록 실무보다 전시 기획 관련 실습이 대부분임.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인턴십 운영)

#### ④ 연구영역

- 연구 설계, 논문 연구, 심화 세미나 등 연구자 양성을 위한 과목

### ■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 관련 교과목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술 분야 교과목 분류 체계(기초 이론-전문-실습-연구-특수)를 바탕으로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직접 관련과 간접 관련으로 구분하여 추출할 수 있음.

- **직접 관련 교과목** : 교과명과 강의 내용을 통해 ‘아카이브’를 명시한 과목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의 「미술아카이빙과 작가관리」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문화예술아카이브와 정보디자인」 단 두 과목임. 미술아카이빙을 통해 미술 작가를 관리하는 방법론, 디지털 아카이브 이해·활용·기획·UX 정보설계까지 아우르는 고도화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의 잠재적 방향성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교육은 766개 교과목 중 극히 소수임.
- **간접 관련 교과목** : 교과명과 강의 내용을 통해 작품·작가·전시·예술기록·미술관 기록 등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그 자체를 다뤄 미술 아카이브 구축·기술·정리·활용에 필요한 해석적·맥락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과목은 미술사·예술사, 미학·예술철학, 비평·예술이론, 전시·큐레이션, 시각문화·매체이론 등 다수 존재함.  
- 미술 아카이브의 맥락적·제도적·기술적 이해를 확장하는데 유용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과목들로, 문화예술정책과 경영, 박물관학, 예술과 기술 등 융합·확장 영역 해당하며 이러한 과목들은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 기관 운영 구조, 디지털 환경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돋는다는 점에서 간접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 이와 같은 직접·간접 관련 교과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미술 아카이브 실무—특히 기록 수집·평가·정리·기술·보존·메타데이터 구축·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실무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교과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술 분야 대학 교육은 미술 아카이비스트에게 필수적인 해석 역량은 풍부하게 제공하지만, 기록관리 기술 역량은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 3. 국외 대학 교육과정

### 가. 전문직 표준 기반 제도 연계 교육

- 미국 공인 아카이비스트 교육원(The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 ACA)은 북미 기록학 분야에서 공인 아카이비스트 인증(Certified Archivist)을 부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며, 아카이비스트 핵심 역량을 표준화하고 아카이비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

- ACA는 아카이비스트의 업무범위와 필수 지식·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자 직무명세서(Role Delineation Statement, 이하 RDS)를 개발하였으며, RDS는 공인 아카이비스트 인증을 위한 시험의 구조와 대학 교육과정 설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RDS는 미국 전역 아카이비스트 대상 직무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직무범위와 변화하는 실무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됨. 전문 아카이비스트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정의하고, 아카이비스트가 실무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을 포괄하며, 서로 다른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유연한 적용 가능성 제공함.

### ■ 미국 공인 아카이비스트 교육원(ACA)의 직무명세서(RDS) 영역 및 일반지식

- RDS는 아카이비스트 직무를 8개의 영역(domain)으로 나누어 정의하였고, 12개의 일반지식(General Knowledge, G KS)을 정의하였음. 각 영역은 지식 진술문(Knowledge Statements)와 섹션별 업무(Tasks)로 구성됨.
- 미술 아카이비스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기록기술·보존·정보서비스 등 핵심 기능을 체계화한 표준은 미술 아카이브 실무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표 50] ACA 직무명세서 영역 및 일반지식<sup>112</sup>

구분		영역 / 일반지식 항목명	상세내용
영역	영역1 D1	선별과 평가 (Selection and Appraisal)	기록물의 선정, 평가, 수집, 획득 및 재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
	영역2 D2	정리와 기술 (Arrangement and Description)	기록물의 정리, 기술, 메타데이터 작성, 원본 질서와 출처 보존 등
	영역3 D3	정보서비스와 접근. (Reference and Access)	이용자 서비스, 접근권 보장, 법적·윤리적 기준 준수, 정보 서비스 제공
	영역4 D4	보존과 보호 (Preservation and Protection)	기록물의 물리적·디지털 보존, 보호 전략, 보안 관리, 재해 대응
	영역5 D5	아웃리치, 옹호, 마케팅 Outreach, Advocacy, and Marketing	기록물의 교육·홍보·활용·대중 접근 증진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영역6 D6	기록 관리, 운영 Managing Archival Programs	기록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략 수립, 평가, 예산·인력·시설 관리

<sup>112</sup> 미국 공인 아카이비스트 교육원(ACA), Role Delineation Statement for Professional Archivists

<https://www.certifiedarchivists.org/25-Role-Delineation-Statement> (2025.11.10.접속)

	영역7 D7	직업윤리, 법적 책임 Professional, Ethical, and Legal Responsibilities	아키비스트의 윤리적 · 법적 책임, 사회적 역할, 정책 준수
	영역8 D8	문화적 역량 Cultural Competency	문화적 다양성 존중, 민감성 인식, 커뮤니티 협업과 포용적 아카이빙 실천
일반지식	일반지식 1 G KS1	Socia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factors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요인이 기록물과 기록관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
	일반지식 2 G KS2	Archival concepts and history	기록학 개념, 용어, 원칙, 방법론, 기록기관의 역사와 발전
	일반지식 3 G KS3	Institutional vs. personal archives	기관 기록, 개인 문서, 필사본 컬렉션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해
	일반지식 4 G KS4	Characteristics of archival materials	기록물의 물리적 · 기술적 특성과 이들이 관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
	일반지식 5 G KS5	Multi-media archival practice	모든 매체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이론, 방법론, 실천 지식
	일반지식 6 G KS6	Professional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기록전문직 관련 표준과 모범 사례, 그 이론적 근거와 적용
	일반지식 7 G KS7	Records lifecycle and continuum	기록물 생애주기 및 기록연속체 개념의 이해와 적용
	일반지식 8 G KS8	Core archival functions integration	기록관리 핵심 기능(선별 · 평가 · 수집, 정리 · 기술, 접근 · 보존, 아웃리치 등)의 통합적 이해
	일반지식 9 G KS9	Types and functions of archival entities	다양한 유형의 기록기관과 그 고유한 기능 이해
	일반지식 10 G KS10	Relations to allied professions	기록관리와 연계 분야(도서관학, 정보학 등)와의 관계 이해
	일반지식 11 G KS11	Digital information and records	디지털 정보와 기록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이론 · 방법론 · 실천
	일반지식 12 G KS12	Cultural awareness and interpersonal skills	다양한 배경의 개인 · 커뮤니티와 협업할 때 필요한 문화적 민감성과 상호작용 역량

## ■ ACA 사전 승인 프로그램의 대학 및 교과목 사례<sup>113</sup>

- ACA는 또한 공인 아카이비스트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 사전 승인 프로그램(Graduate Course Preapproval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대학원 과정 사전 승인 위원회(GCPAC, Graduate Course Preapproval Committee)를 설립하여, 해당 대학원 과정의 강의계획서를 평가하여 해당 수업이 AC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RDS 영역 중 1개 이상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강의계획서는 5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현재 14개 학교의 99개 교과를 ACA 사전 승인하였음.
- 기록학, 정보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중 박물관학, 공공역사 등의 인접학문을 다루고 있어도, RDS의 핵심 역량을 충족하는 과목을 인정하고 승인하였음. 이는 기록전문직 교육이 전통적인 기록학 교과로만 국한되지 않고, 미술 아카이비스트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인접학문과도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즉, 박물관학 등 미술 이론 분야 교과를 통해 기록학 핵심역량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충족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제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록학 교육과 도메인 기반 교육 간의 교육적 호환 가능성을 보여줌.

### ① 애크런 대학교 University of Akron - INSTITUTE FOR HUMAN SCIENCE AND CULTURE (IHSC)<sup>114</sup>

- IHSC 501/502 Advanced Topics in Museums and Archives I/II: 박물관과 아카이브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급 주제를 다루며 실무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함.
- IHSC 525 Capstone in Public Humanities: 공공 인문학 분야에서 문제 중심 · 실천 중심 프로젝트 수행을 목표로 하며, 박물관학, 인류학 등과 공통 목표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설계함.

### ② 베일러 대학교 Baylor University - College of Arts & Sciences, Museum Studies 전공<sup>115</sup>

- MST 5324 Archiv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아카이브 정리와 기술): 다양한 매체와 포맷의 기록물에 대한 지적 · 물리적 조직(organization)의 원리를 다루는 과목. 아카이브 정리와 기술 절차를 결정하는 핵심 원칙과 표준에 관해 학습하고, 여러 유형의 아카이브 컬렉션에 적용하는 방법 모색. 실제 기록의 처리(processing)를 통해 아카이브 이론을 실무에 직접 적용해보는 실습 경험 제공.
- MST 5326 Archival Technology and Digital Collections Management(아카이브 기술 및 디지털 컬렉션 관리):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 아카이브 등의 기관에서 기술(Technology)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툴과 기능들을 다룸. 유물 카탈로그, 전시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문화유산 기관이 기술을 어떻게

<sup>113</sup> 미국 공인 아카이비스트 교육원(ACA), <https://www.certifiedarchivists.org/approved-courses> (2025.07.10.접속)

<sup>114</sup> 애크런 대학교(University of Akron) <https://bulletin.uakron.edu/course-search> (2025.07.10.접속)

<sup>115</sup> 베일러 대학교 Baylor University

<https://museumstudies.artsandsciences.baylor.edu/students/graduate-program/graduate-course-descriptions> (2025.11.10.접속)

활용하는지를 탐구하며, 특히 아카이브 디지털 오브젝트(Archival Digital Objects) 생성, 온라인 디지털 컬렉션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

#### 나. 다학제 간 협력 시스템

- 국외 일부 대학에서는 기록학-미술 분야 간의 지식·기술·실무를 학제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다학제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기록의 정리 및 기술(description), 아카이브 전시 기획, 작가 연구, 매체별 특성에 따른 보존, 기술(technology) 활용 지식 등 미술 아카비스트의 핵심 역량은 단일 학과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다학제 간 협력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 학습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대표 사례로 Pratt Institute,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UAL), New York University(NYU)의 Moving Image Archiving and Preservation(MIAP)를 위주로 검토하여, 국외 대학의 기록학-미술 분야의 교육을 연계·제도화하는 방식을 분석함.

##### 1)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Pratt Institute 정보학+미술사·디자인사 복수학위(Dual Degree)

###### 프로그램<sup>116</sup>

###### ① 프로그램 개요

- Pratt Institute는 정보학(School of Information)과 미술사·디자인사학(Department of History of Art and Design)을 함께 보유한 학교로, 두 분야를 구조적으로 결합한 복수학위(MSLIS/M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MSLIS(Master of Scien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는 1890년 설립된 북미 최초의 정보학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로부터 장기 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 이 복수학위는 정보관리·아카이브 역량(정리·기술·디지털 큐레이션·메타데이터·보존) + 예술·디자인사 기반의 도메인 지식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 ② 운영

- 총 60학점(정보학 30 + 미술사·디자인사 30) 이수
- 평균 3년 소요, 한 학기 3-4과목 병행
- 정보학 수업은 맨해튼 캠퍼스, 미술사·디자인사 수업은 브루클린 캠퍼스에서 진행

---

<sup>116</sup>프랫 인스티튜트 Pratt Institute

<https://www.pratt.edu/liberal-arts-and-sciences/history-of-art-and-design/history-of-art-and-design-library-and-information-science-ma-ms/> (2025.11.23.접속)

### ③ 교육 내용 및 목표

- 미술·디자인 분야의 역사적·미학적 이해
- 디지털 아카이브·메타데이터·기록기술·보존·정보조직 실무
- 예술·디자인 아카이브 및 스페셜 컬렉션 관리
- 디지털 전시·온라인 컬렉션 구축·큐레이션
- **현장 연계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MoMA, Frick Art Reference Library,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Public Library 등 예술기관 중심의 인턴십·펠로우십 제공

## 2)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 Critical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Studies(CCARMS)<sup>117</sup>

### ① 프로그램 개요

- UCL MA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전통적 기록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Centre for Critical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Studies(CCARMS)를 통해 예술·시각문화·창작 실천과 긴밀히 연결된 비판적 아카이빙 접근을 제공함.
- UCL의 MA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과정은 영국 내 가장 오래된 기록관리 교육 중 하나이며, 2005년 국제 아카이브와 기록 관리 연구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search, ICARUS)를 설치하였음. 여기에 비판적 요소를 강조하고, 아카이브 및 기록 관리 연구와 실천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에 비판적 기록 관리 연구 센터(The Centre for Critical Recordkeeping Studies)를 출범함.
- CCARMS의 소장이 UCL MA Archives & Records Management의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UCL MA 학생들은 센터의 활동, 연구, 세미나에 참여함.

### ② 운영

- “Advancing the Archival Turn: Archivists, Artists and Critical Archival Practice” 세미나 시리즈  
**Reconsidering the Artist’s Archive: Relational Dynamics and Affective Practices in Archiving Contemporary Artists** (작가 아카이브 재고: 관계적 역동성과 감정적 실천) : 작가 아카이브를 작가, 아카이비스트, 커뮤니티의 협업으로 규정. 기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애정, 모순)을 인정하고 '급진적 공감(radical empathy)'과 '돌봄(care)'을 적용하는 감정적 기록 관행을 모색함.
- **Working through an art school archive: reflections on the impact of critical archival perspectives** (미술 학교 아카이브 작업: 비판적 아카이브 관점의 영향) :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기록물의

<sup>117</sup>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UCL)

<https://www.ucl.ac.uk/arts-humanities/information-studies/research/centre-critical-archives-records-management-studies>  
(2025.11.23.접속)

물질성(materiality) 렌즈를 적용하여 미술 학교 아카이브를 재방문. 기록 활동을 전지구적 미술사와 연결하고, 전통적인 아카이브 접근 방식에 도전함.

- **Under the tip of the iceberg: Informal recordkeeping practices of supporting workers in contemporary art** (빙산의 일각 아래: 현대 미술 지원 인력의 비공식 기록 관행) : 주요 인물이 아닌 현대 미술 현장의 지원 인력들이 남긴 사적인 비공식 기록(물리적/디지털/구술 기록)의 중요성을 조명. 이는 현대 전시 제작의 문제점과 문화적 회복(cultural recovery)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The Archival Turn in Socially Engaged Art** (사회 참여 예술의 아카이브적 전환) : 사회 참여 예술에서 아카이브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와 지식 공유를 위한 도구로 내장되는 방식 탐구. 미술관이 이러한 유형의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

### ③ 교육 내용 및 목표

- **전통적 영역 탈피**: 기록 관리, 보존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맥락을 탐구하는 비판적 실천의 방향으로 전환
- **융합형 실천**: 예술·시각문화·창작 실천과 연결된 비판적 아카이빙 및 창의적 기록 행위를 다루며, 비판적 관점으로 아카이브를 재구성, 재해석, 도전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

## 3) 영국 런던 예술대학교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UAL) – MA Curating and Collections<sup>118</sup>

### ① 프로그램 개요

- Chelsea College of Arts의 15개월 과정으로, 큐레이션과 컬렉션(아카이브 포함)을 함께 다루는 실무·이론 융합형 교육임.
- 아카이브·컬렉션 기반 실습(Object-based Learning, OBL)이 핵심

### ② 운영

- Stanley Kubrick Archive, Ballets Russes Archive, Her Noise Archive, Artists' books collection, 1920s German film posters, 텍스타일, 회화, 사진 컬렉션 등 UAL이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 및 특수컬렉션을 직접 다루며 기록관리 실무의 기록관리의 모든 단계를 경험.
- 전시기획·큐레이터얼 방법론, 컬렉션 관리·보존, 디지털·물리 전시 디자인, 탈식민·포용적 큐레이션, 박물관·아카이브 협업 실무 등

---

<sup>118</sup>영국 런던 예술대학교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UAL)

[\(2025.11.23.접속\)](https://www.arts.ac.uk/subjects/curation-and-culture/postgraduate/ma-curating-and-collections-chelsea#fees-and-funding)

### ③ 교육 내용 및 목표

- 교내 전시장(Chelsea Space에서 실무 기반 프로젝트 수행, 외부 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및 현장 수업
- 아카이브 자료를 '날것의 데이터(raw data)'로 활용하는 Object-Based Learning (OBL)을 통해 예술적 맥락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접근과 '창의적 실천과 협업' 역량을 강화함.

## 4) 미국 뉴욕대학교 New York University(NYU) – Moving Image Archiving and Preservation(MIAP)<sup>119</sup>

### ① 프로그램 개요

- NYU Tisch School of the Arts의 Kanbar Institute of Film & Television 소속 Cinema Studies Department 내에 위치한 2년 과정의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석사 프로그램
- 영화학, 아카이빙, 보존학, 도서관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과 실무 통합하여 필름·비디오·디지털·인터랙티브·멀티채널 설치작품의 보존·복원·기술 분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사례

### ② 운영

- **Introduction to Moving Image Archiving and Preservation :** 영상 아카이브의 기술·역사·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기초 과목
-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Principles :** 보존·복원 원칙, 원본/대리본 판단, 보존 계획 수립
- **Moving Image and Sound: Basic Issues and Training :** 필름·비디오·오디오의 물리·화학적 구조 분석, 손상 평가, 처리 실습
- **Metadata for Moving Image Collections :** 영상 아카이브 특화 메타데이터 표준 및 기술
- **Collection Management :** 평가·선별·프로젝트 기획·저장·예산 수립 등 컬렉션 운영 전 과정
- **Digital Preservation :** 디지털 리포지토리·저장 인프라·정책·기술 요건 등 고급 기술 교육
- **Video Preservation I & II :** 아날로그 비디오의 리포맷팅·품질관리·워크플로우 설계·현장 장비 실습
- **Handling Complex Media :** 멀티채널·인터랙티브·웹·게임·기술의존형 설치 예술 작품의 보존 전략
- **Curating Moving Images :** 영화·비디오·디지털매체의 프로그래밍·전시·큐레이션 실무

### ③ 교육 내용 및 목표

-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총 3회의 필수 인턴십(봄학기·여름·가을학기)을 포함하며 최소 600시간 이상의 전문 현장 경험을 요구함.
- Museum of Modern Art(MoMA), Anthology Film Archives, Electronic Arts Intermix(EAI), The Kitchen, Bay Area Video Coalition Film Study Center 등 다양한 미디어 아카이브·미술기관에서 경험할

---

<sup>119</sup> 뉴욕대학교 New York University(NYU) <https://tisch.nyu.edu/cinema-studies/miap> (2025.11.23.접속)

수 있으며, 학생은 실습 과정에서 컬렉션 평가·메타데이터 작성·보존 계획 수립·리포맷팅·기술 분석 등 실제 미술관·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

- 기술 기반 보존 역량, 매체 특수성 이해(필름·비디오·디지털·인터랙티브), 실제 프로젝트 기반 실습, 대형 기관과의 협력, 보존-활용-큐레이션 역량의 통합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갖춘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의 주요 사례가 될 수 있음.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가. 소결

- 국내 미술 아카이브 및 아키비스트 교육은 지난 10여 년간 중앙정부 산하 기관, 공공 미술기관, 민간 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노력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으나, 단기 프로그램 중심의 구조적 한계와 학제 간 통합 부재로 인해 전문 인력으로서 미술 아키비스트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1) 국내 현장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및 구조적 한계

##### ■ 운영 주체별 상이한 특징

-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아르코예술기록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실습을 통합한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구축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며 국내 교육을 선도하고 있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등은 소규모 정예 방식으로 실무 중심의 단기 교육을 운영.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아르코예술기록원, 부산현대미술관 등 소수 기관에서는 MOU 연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3~7개월 간의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실무 훈련의 장으로 기능함.
- 민간 영역은 자발적 지식 공유와 기술 전문성 중심의 교육이 진행. 아카이브랩 등은 오픈소스 시스템 실습 중심의 전문성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라키비움 프로젝트〉은 담론 형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으나 재정적 한계로 중단된 사례임.

##### ■ 교육 방식 및 디지털 전환

- 2024년 이후 온·오프라인 혼합형(Hybrid) 운영이 대중화되었으며, 강사 구성은 학예사, 기록학/문헌정보학 교수, 현장 아키비스트, 디지털 기술 전문가가 협력하는 다학제적 구조를 특징으로 함. 디지털 아카이빙 역량 강화 경향이 뚜렷하며, 메타데이터 구축, 디지털 보존 및 관리, 프로젝트 발표를 포함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증가함.

##### ■ 구조적 한계

- 국내 프로그램은 1일~3개월 단기 과정 중심으로 무료 교육을 통한 수료증 발급을 결과물로 하지만, 국외 프로그램은 6주~1년에 이르는 중·장기 과정과 공식 자격증(Certificate) 제도(SAA DAS)를 갖추고 있으며 유료 교육을 운영함. 국외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국내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 증빙, 경력 경로 확보가 어렵고, 지속 가능한 교육 재원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2) 대학 교육 체계의 학제 간 통합 부재

### ■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 역량의 불충분한 제공

- 국내 대학 교육 체계는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을 위한 유관 분야인 기록학과 미술 분야에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복합적 역량은 현 체계 내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기록학 분야 교육:** 선별, 정리, 보존 등 핵심 기능은 교육하나, 대상이 공공기록에 한정되어 작가 아카이브, 시각예술 기록 등 미술 분야의 도메인 특수성을 다루지 못함.
- **미술 분야 교육:** 미술사, 미학, 기획 등 해석·비평 중심의 구조는 풍부하나, 시각예술 기록에 대한 정리·기술·보존 등 실무 역량 교육은 거의 부재함.

### ■ 학제 간 연계 구조 부재

- Pratt의 복수학위 과정, UCL의 통합 과정 등과 같은 국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는 기록학-미술이론 간의 학제적 연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미술 아카이브를 다루고 있는 교과목은 대학원 교과목 중 1% 미만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러한 구조적 분리가 국내 미술 아키비스트 전문 역량 형성의 제약으로 확인됨.

### ■ 실물 기록물을 다루는 현장 교육 부족

- 국외 대학의 교육은 박물관·미술관이 소장 중인 기록 컬렉션을 직접 다루는 인턴십·펠로우십 등의 현장 실습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국내 대학의 교육은 실물 미술 기록을 대상으로 수집·생산·정리·기술·활용 등의 기록 관리 실무를 경험하는 실습 과정이 소수 미술 기관과 학교 간 MOU 등으로만 진행되어, 현장 실습의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

## 나. 시사점

-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의 실험적 성과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외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인증 체계와 제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학제 간 융합 방식으로 인한 복합형,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함.

### 1) 하이브리드 직무 모델 및 교육 목표 설정

- **하이브리드 직무 모델 설정:** 학예연구와 기록연구라는 혼합형의 현장 실무 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록 또는 미술 중심의 단일 분야 중심의 모델이 아닌, 미술사·미술이론·미술 기획/행정/경영 등의 역량과 기록관리·디지털 역량을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직무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 목표 확장:** 미술 아카이비스트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양성하는 것을 넘어, 미술 아카이브를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가치를 창출하고 예술적·인문적·사회적 맥락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획자이자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 확장된 교육 목표와 이를 바탕에 둔 교육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미술 아카이브의 생태계 구축과 전문적인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에 기여할 것임.
- **교육 대상 확대:**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설계하되, 현재 여러 기관에서 이미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등 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미 미술 아카이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모듈형 심화교육을 추후 개발하는 것 또한 필요함.

### 2)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 체계 구축 및 인증 제도 도입

- **표준 커리큘럼 개발 및 단계화:** 교육의 질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이론과 실무 교육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관, 갤러리, 미술 아카이브, 교육기관, 대학 등 미술 아카이브 관련 단체 및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점교류제 등 상호 인증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면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의 양적·질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임.
- **공식 인증 제도 도입 검토:** DAS(Digital Archives Specialist)와 같은 국외 모델을 선행사례로 하여,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 인증/재교육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 협력 또는 대학 내 학제 간 연계 모색:** 대학원 수준에서 기록(관리)학/정보학 석사 학위 또는 미술사/미술이론/예술학/미술경영/문화예술행정 석사 학위의 지정 교과목 이수를 지정하거나, 학과 간 협동과정 또는 연계 전공 등을 통해 별도의 전문 인증 트랙을 도입하여 분리된 교육 구조를 해소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제도화할 수 있음.

### 3) 현장 연계 강화

- **기록 생산-활용 전 과정 실습 강화:** 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무 기반 프로젝트(PBL: Project Based Learning)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 미술기록을 직접 다루며 활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사립미술관, 작가 스튜디오, 대안공간 등 소규모 민간 영역까지 실습현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때 미술 아카이브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현장 실습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미술관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상호 배움의 과정이라는 의미”로 운영하며 “관련 전공·학과와 협업하여 아카이브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의 결과를

공유하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폴리오 스튜디오〉<sup>120</sup>를 사례로, 여러 형태의 현장 실습 교육을 개발, 발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 역량 및 법제 역량 교육의 지속화 :** 기술과 법제 관련 역량은 다변화하는 환경의 실무 현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역량이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분야임. 디지털 매체 관리 방안, AI 활용 방안 등의 기술 관련 교육과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편성하여 미술 아카이스트의 법적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sup>120</sup> 2025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대학연계프로그램 〈폴리오 스튜디오〉

<https://sema.seoul.go.kr/semaaa/front/program/view.do?proSeq=162&proType=002&menuId=15&pageIndex=1s> (2025.12.13.접속)



## **제4장**

---

### **전문가 의견 조사**

## 제1절. 자문회의

### 1. 조사 목적 및 범위

- 본 조사는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의 사전 연구 단계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본 프로그램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주요 논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함.
  - 미술 및 기록학 분야의 현장 실무와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회의단으로 구성하여, 미술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역할,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방식과 커리큘럼 구성 방향을 도출하고자 했고,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는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의 필요성과 제도화 ·자격화 연계 가능성 및 정책 가능성에 관한 의견 또한 청취하였음.
  -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강의자료 개발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확보하고, 최종 자문회의 결과는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에 목적이 있음.
  - 전문가의 인식, 태도, 판단, 경험 등을 폭넓고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1:1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하여 응답에 따라 표현이나 질문을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 방식을 적용하였음.
  - 질문지는 인터뷰의 목적, 주제, 참여자의 직무·소속·연구이력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 공통 문항과 인터뷰 대상자의 전문성과 직무 경험을 반영한 개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터뷰 말미에는 제언 시간을 두어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유도하였음.
  - 인터뷰 일정, 장소, 진행자 역할 분담, 시간 배분 등을 사전 기획하여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는 각 자문회의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공유하였음.
  - 주요 시사점 도출을 위해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위주로 요약해 본 절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회의록 요약본과 전문, 녹취 기록은 별첨자료로 구분하였음.
- 
- **자문위원단 구성:** 본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관리 교육, 학교 연계, 미술사, 제도/정책, 교육학, 저작권, 보존/복원 등 각 분야에서 ‘미술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 관련한 연구 진행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의 개별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반의 반향을 검토함.

#### ■ 운영 기간

2025년 6월 18일(수)~2025년 9월 17일(수)

#### ■ 운영 방식

인터뷰는 1인당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진행을 위주로 하되 자문위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비대면 Zoom) 방식을 병행함.

[표 51] 자문회의 참여자 명단

이름	직책	자문범위	진행 일시 및 장소
자문위원 A	○○대학교 기록관리전공 연구교수	기록관리학(미술 아카이브), 대학 교육 연계	일시: 2025.6.18.(수) 14:00-16:00 장소: 투썸플레이스 커뮤니티룸
자문위원 B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문헌정보·기록 관리학 교육, 기록관리 실무, 대학 교육 연계	일시: 2025.6.19.(목) 10:00-12:00 장소: 예술경영지원센터 3층 심의실
자문위원 C	○○○○○전문가협회 전시분과장	디지털 아카이브, 일반인 대상 교육, 기록 전시	일시: 2025.6.19.(목) 16:00-18:00 장소: 예술경영지원센터 3층 심의실
자문위원 D	○○○○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미술사, 교육학 제도·정책	일시: 2025.6.23.(월) 13:00-15:00 장소: 예술경영지원센터 3층 심의실
자문위원 E	○○○○대학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미술사, 구술사, 기록관리, 전시	일시: 2025.6.23.(월) 16:00-18:00 장소: 예술경영지원센터 3층 심의실
자문위원 F	○○○○ ○○○○○대학원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	기록관리 교육, 인증제도·정책	일시: 2025.7. 22.(화) 14:00-16:00 장소: 투썸플레이스 커뮤니티룸
자문위원 G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아카이브 저작권	일시: 2025.8.5.(화) 14:00-16:00 장소: 온라인 Zoom
자문위원 H	○○대학교 입체미술전공 겸임교수	미술 분야 교육, 대학 교육 연계	일시: 2025.8.7.(목) 14:00-16:00 장소: 서호빌딩
자문위원 I	○○기록원 복원관리과장	기록 보존, 복원	일시: 2025.8.11.(월) 14:00-16:00 장소: 예술경영지원센터 3층 심의실
자문위원 J	○○○○○○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조교수	박물관·미술관 아카이브 제도·정책	일시: 2025.8.21.(목) 15:00-17:00 장소: 온라인 Zoom
자문위원 K	○○○○미술관 기록연구사	미술관 아카이브 실무, 기관연계	일시: 2025.9.17.(수) 14:00-16:00 장소: ○○○○미술관

## 2. 주요 논의 내용

[표 52] 전문적인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자문위원	상세내용
A	- 아카이브 활용 전시의 활성화로 인해 미술 아카이브 부재 시 전시 기획 자체가 어려운 상황
B	- 미술기관 내 미술 전문 아카이비스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립이 중요
C	- 미술·기록의 복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서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필요성 - 단발성 아카이브 사업, 담당자의 잦은 이직/고용 불안정으로 아카이브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제도, 전문인력 확보 중요
E	- 미술 아카이브의 특수성, 미래 확장성을 염두에 둔 전문 인력 필요
F	- 직책보다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미술 아카이비스트 제도 접근 필요

[표 53]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핵심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견

자문위원	상세내용
B	- 기록의 맥락 정보를 파악, 기록과 연결하는 기술 능력, 미술 아카이브 특성에 맞는 기록관리 표준 변용 및 적용,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 법적 이슈 관리 역할 요구
C	- 기록 관련 중요 정보 관리 필요 '찾을 수 있는(Findable), 접근 가능한(Accessible), 상호 운용성이 확보된(Interoperable), 재사용 가능한(Reusable) 원칙을 준용하는 아카이브 구축
D	- 미술 전문성을 바탕에 둔 가치 판단, 자료 선별, 정보 파악 필요
E	- 학예사-아카이비스트 간 긴밀한 협업 필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 실무 경험을 갖춘 숙련된 경력자 필요
J	- 기록보다 미술이 중심이 되어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필요
K	- 지침·기준 연구, 정보·데이터 조직 기술 필요

[표 54]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프로그램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자문위원	상세내용
A	- 기록학 기초 과목을 통해 기본 규범, 가이드 이수 후 기관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작가, 작품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미술 기록의 특수성 이해 -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 이슈 대처 방안 학습 - 다양한 사례 기반 실습 병행 필요
B	- 기록 관리 기본 원칙, 프로세스 학습이 필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표준을 이해, 적용가능한 전문 교육 필요</li> <li>- 디지털 아카이브 시대에 맞는 정보공개, 저작권 이슈 중요</li> <li>- 메타데이터 설계 및 작성 실습</li> <li>- 다양한 미술 아카이브 사례 소개 교육 필요</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필요</li> <li>- 미술 아카이브와 관련된 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 필요</li> <li>- 데이터베이스 구조화에 대한 이해 필요</li> <li>- 가상의 작가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실습(자료 수집, 인터뷰, 분류 등 전 과정 수행) 중요</li> <li>- 콘텐츠를 외부와 공유하는 과정 등에서의 협업 방안 도출</li> <li>- 입문자/실무자를 위한 단계적 커리큘럼 설계 필요</li> <li>- 팀티칭 보다 1-2인의 강사 주도 운영 필요, 20명 내외 교육생, 조교 제도 운영 추천</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으로 학예사/큐레이터 대상 미술 아카이브 관련 재교육, 심화교육 우선</li> <li>- 범용적 기록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이를 위한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분석 선행 필요</li> <li>- 실무를 다루는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중요</li> <li>- 협동과정, 연계전공과 같은 융합형 학제 운영 검토 필요</li> </ul>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기록의 두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교육과정 이원화 필요</li> <li>- 미술 아카이브의 특수성, 실무 현장의 구체적 조건에 맞춘 강의 필요</li> <li>-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 경험 축적할 방안 마련 필요</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 교육(CPD) 중요</li> <li>- 스페셜리스트 체계적 양성 필요</li> <li>- 기록의 내용을 깊이 이해, 해석 역량 중요</li> </ul>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할 ‘대장’ 필요</li> <li>- 무료 교육 특성상 중도이탈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출결과 수료조건에 연결하여 독려 필요</li> </ul>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기관이라도 안전한 보관을 위해 기초적인 보존복원 교육 필요</li> <li>- 보존시설 환경 관리, 기록물 출납관리, 보안 및 정수점검, 재난 및 응급복구 계획 수립 등이 필요</li> </ul>
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아카이브 교육은 미술 작품을 소장한 곳과 긴밀한 연계 필요</li> </ul>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베이스 지식,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중요</li> <li>- 실무적 기록관리도 중요하지만, 표준화된 관리를 위한 기준, 지침 마련할 역량 중요</li> </ul>

[표 55] 미술 아카이비스트 제도화·자격화 연계 가능성 및 정책 제언

자문위원	상세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필수 업무인 기록의 폐기가 미술 아카이브에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li> <li>- 미술 분야 별도 인증은 어렵고, 자격 기준, 자격 수여 주체가 현재는 불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 커리큘럼을 통해 최소한의 제도 마련 가능</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술 아카이스트 채용을 법제화하면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장 가능</li> <li>-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행안부 주관, 이를 미술관에서 환영할지 미지수, 미술관과 정책적 조정, 제도적 협의 가능한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방안 권장</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사례 참고, 직군 세분화를 통해 조직 내 역할 분리 가능</li> <li>-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조건과 조직 내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필수</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주도 자격증이 필요하나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할 미술기관이 부족한 실정</li> <li>-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기존 자격증 내 특화 과정, 재교육, 심화교육 등으로 운영 가능성 검토</li> <li>- 국공립 미술관에서 인턴십 제도화, 교육 기회 제공 필요</li> <li>- 국립박물관 지원사업인 레지스트라(Registrar) 양성 사업 참고 가능</li> </ul>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 아카이스트 채용 제도화 필요</li> <li>- 공공미술관에서 미술 아카이스트를 필수인력으로 지정하는 의무 조항 도입 필요</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대학원 과정을 활용하는 방안 가능</li> <li>- 협동과정, 민간기관이 대학과 연계한 실습·위탁 과정을 운영, 여러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 모델 등 발전 가능</li> <li>- 미술관과 같은 전문 분야 기관에서 아카이브를 운영하며 국가기록원과 협약을 맺어 전문 분야 아카이브 설립 추진 가능, 법 개정, 문체부 협의를 통해 미술 분야의 국가기록원을 만들고 그 안에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방안 제안</li> </ul>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강의는 당시에는 인기였지만, 결국 고학력 스펙만 만들고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 없었음</li> </ul>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카이스트는 지속성이 중요해 자리, 직업 안정성 필수</li> <li>- 현재 미술 아카이스트는 극소수이고, 배경이 다양하지만 전문인협회를 구성하고 계속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li> </ul>

[표 56]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관련 평가 및 제언

자문위원	상세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카이브 전체에 대한 기획마인드와 활용 중심의 사고를 배양하는 교육을 설계 원칙으로 수립</li> <li>- 뉴미디어, 디지털 작품, 기록에 대한 고민 반영 필요</li> <li>- 소규모 대안공간, 작가 스튜디오 등 미술 현장의 아카이브 수요 반영한 교육 추후 포함 제안</li> <li>- 표준, 지침, 메타데이터 커스터마이징 실습 필요</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아카이스트에게 특화된 프로비너스(Provenance)에 관한 교육 필요, 게티 프로비너스</li> </ul>

	<p>인덱스(Getty Provenance Index®) 등을 실제 맥락 적용 방안 학습        - 국내 기관의 소장정보 비공개 관행으로 인한 학습 어려움 극복 필요</p>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실무자를 위한 교 설계를 위해 기관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 설계, 적용 훈련과 지침을 내부 조직에 어떻게 전파, 정착시킬지에 관한 고민 등 기획과 조정 능력 배양 필요</li> <li>- 정책과 실무를 연결할 능력 배양할 수 있는 교육</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교육 병행으로 지역 격차 해소</li> <li>- 인턴십, 펠로우십 등 실습 기회 제도화 병행 필요, 적정 보수와 체계적 관리 전제</li> </ul>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에 구술채록 포함 시 인문학적 이해를 포함한 복합적 지식과 역량 교육 필요</li> <li>- 구술자료의 생산,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li> </ul>
J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아카이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는지 검토</li> </ul>

## 제2절. FGI

### 1. 조사 목적 및 범위

- 본 조사는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의 사전 연구 단계로,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 집단 심층 좌담회)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설계 및 세부 커리큘럼 개발에 필요한 현장 기반 실무 경험과 전문 영역별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실시함.
  - 미술 및 기록학 현장에서의 현장 실무와 교육 경험, 국내 '미술 아카이브', '아카이비스트 양성'과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세 가지 유형의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 내·그룹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논점을 심화하고, 교육과정을 구체화함.
  - 국내 유관 기관의 운영 조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이후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 참고하고자 함.
  - 질문자는 각 FGI의 주제, 참여자의 직무·소속·연구이력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 공통 문항과 각 그룹의 전문성과 직무 경험을 반영한 개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뷰 말미에는 제언 시간을 두어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유도하였음.
  - 질문자는 미리 준비하여 각 자문위원회 시작일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먼저 전달하였으며, 인터뷰 일정, 장소, 진행자 역할 분담, 시간 배분 등을 사전 기획하여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음.
  - 주요 논의 내용은 시사점 도출을 위해 주요 내용 위주로 요약되었으며, 관련한 회의록 요약본과 전문, 녹취 기록은 별첨자료로 구분하였음.
- 
- **FGI 그룹 구성:** A, B, C 그룹 각 3명으로 인원을 구성하였으며 각기 다른 아카이브 수행 환경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함.
  - **A그룹:**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지원 사업에서 개별 작가 중심의 아카이브 구축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자료 수집과 구술채록, 메타데이터 작성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매체적 특성과 작업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운영 구조, 역할 배분, 제도적·기술적 한계 등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B그룹:** 국내에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기획하거나 여러 기관과 협업하며 민간 영역에서 아카이브 콘텐츠의 활용 혹은 플랫폼 운영을 경험해 온 실무자들로 구성함. 미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술적 환경, 디지털 보존, 메타데이터 운영 방식, 외부 기관과의 협력 구조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카이비스트 교육에 필요한 기술·플랫폼 환경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C그룹:**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 기반으로 지역 공공미술관의 아카이브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기관 담당자들로 구성함. 기관 내 아카이브 업무와 협업 구조, 업무 분장 방식, 파견 인력 운영의 한계 및 장점, 정책 기반의 제언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내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지속가능한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해 중점을 두었음.

## ■ 운영 기간

2025년 6월 26일(목)~2025년 7월 3일(목)

## ■ 운영 방식

인터뷰 시간은 그룹당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지역 아카이브의 경우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비대면 Zoom)로 진행하였음.

[표 57] FGI 참여자 명단

이름	직책	그룹	진행 일시 및 장소
FGI 참여자 A그룹-a	○○○○○○○○○ 선임	A그룹: 작가 및 작품 특화 아카이브 실무자 그룹 (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지원 사업 참여자)	일시: 2025.7.3.(목) 14:00-16:00 장소: 예술경영지원센터 3층 심의실
FGI 참여자 A그룹-b	○○○○ ○○○○ ○ 학예연구사		
FGI 참여자 A그룹-c	○○○○○ 연구소 연구원		
FGI 참여자 B그룹-a	○○○○ 대표	B그룹: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및 협력기관 그룹	일시: 2025.6.26(목) 16:00-18:00 장소: 아트프로젝트 리양
FGI 참여자 B그룹-b	○○○○○○○○○ 부대표		
FGI 참여자 B그룹-c	○○○○○○○○○ 대표		
FGI 참여자 C그룹-a	○○시립미술관 기록연구사	C그룹: 공공미술관 및 지역 지역 아카이브 담당자 그룹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 수행 기관)	일시: 2025.6.26(목) 19:00-21:00 장소: 온라인 Zoom
FGI 참여자 C그룹-b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FGI 참여자 C그룹-c	○○문화재단 팀장		

## 2. 주요 논의 내용

[표 58] 전문적인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포커스 그룹	상세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 절실, 수요가 있음에도 채용할 인력 부족한 상황</li> <l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활성화가 필요</li> <li>- 전문성이 미진한 상태에서 아카이브 사업 무분별 진행에 위기 의식</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카이브 투자 지속을 위해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의사결정자 설득 필요</li> <li>- 아카이브는 필수적이나,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li> <li>- 아카이브 활용, 가치 창출할 전문인력 필요</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의 방대한 기증 자료 정리할 인력 부족</li> <li>- 임기제 운영으로 인력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끊기는 문제</li> </ul>

[표 59]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핵심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견

포커스 그룹	상세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li> <li>- 저작권 관련 기본 지식</li> <li>- 디지털 기술 이해</li> <li>- 미술사, 기록학적 지식 필수이며, 한 전공만으로는 부족</li> <li>- 지속적인 연구 능력</li> <li>- 개발자와 소통하는 능력</li> <li>- 시스템 기본 지식</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정보-맥락의 이해, 통제, 연결</li> <li>- AI 리터러시</li> <li>- 아카이브 방향 설정, 결과물의 품질 관리 역량</li> <li>- 학예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출판·기획에 효과적인 기록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맥락 파악 및 제안 능력</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사와 의견 조율, 설명 등 소통 역량</li> <li>- 미술자료의 특수성 이해</li> <li>- 미술 전문가로서 미술사에 대한 인식</li> <li>- 자료의 활용, 활용 촉진, 확장 역량</li> </ul>

[표 60]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프로그램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포커스 그룹	상세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문자 교육에 기관 업무 협약을 통해 실습 과정 포함</li> <li>- 재교육은 저작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와 보완 교육 병행 필요</li> <li>-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교육 필요</li> <li>-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10주 단위의 단기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음</li> <li>- 저작권 교육, 아카이브 아트 등 주요 개념 및 용어에 대한 기본 교육 병행</li> <li>- 실무 중심의 지침, 사례 기반 교육 필요</li> <li>- 사례집 제작 및 공유만으로도 실무자 간 정보 교류에 유익</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터러시 제고 필요, 아카이브를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인드셋 중요</li> <li>- 정보디자인 역량, 문화예술데이터 분석, 연결, 콘텐츠 창출, 메타데이터 구조화, 데이터 시각화를 판단, 설계할 능력</li> <li>- 아카이브 자료의 시각적 구조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li> <li>- 아카이브 자료를 재가공, 아카이빙 맥락 이해, 실질적 콘텐츠 생성 역량 필요</li> <li>- 기록을 실제 시스템에 등록하고 결과 발표하는 실습 필요</li> <li>- 기관과 연구자 연결하여 현실 대응 능력</li> <li>- AI 활용 역량, 데이터 마이닝, 자동화 기술 등 새로운 기술환경에 대한 교육 필요</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온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방식 필요</li> <li>- 이론과 실습 병행 필요</li> <li>- 업무 단계별 특성과 나이도에 따라 교육내용 세분화 필요</li> <li>- 기본반, 심화반 형태의 선택형 교육과정, 강사진의 전문적 컨설팅 병행 시 실무 연계성 제고 가능</li> <li>-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해 지역 기관에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 중요</li> <li>- 교육프로그램의 네트워킹 효과 창출 필요</li> <li>- 지역은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내부 실무자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 절실</li> <li>- 교육 수료 후 실습 연계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실습 기회 제도화 가능</li> <li>- 단순 견학이나 답사보다 직접 실습 가능한 형태로 설계</li> <li>- 국공립 기관의 시스템만을 구성할 경우 고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아카이브 운영 환경을 반영한 커리큘럼 설계 필요</li> </ul>

[표 61] 미술 아카이비스트 제도화·자격화 연계 가능성 및 정책 제언

포커스 그룹	상세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현장의 인력 부족 심각하므로, 대학 연계 실습 의무화, 미술관 인턴 제도 운영으로 최대한 인력을 현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li> <li>- 미술 아카이비스트 전문 일자리가 없으므로, 교육을 통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 제고, 인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li> <li>- 새로운 자료 추가보다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존,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만드는 것이 필요</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성을 위해 제도나 정책 차원에서 단기/장기적 전략이 필요. 아카이브를 넓게 보는 매칭 사업 필요</li> <li>- 인프라, 데이터 품질, 마인드셋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필요</li> <li>- 기록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유지보수 제도 필요</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 아카이비스트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 보험 미적용, 경력 인정이나 세금 처리 등 어려움 많았음</li> <li>- 아카이비스트뿐만 아니라 기록 보존 물품비 구입 지원도 함께 지원되는 제도가 필요함</li> </ul>

[표 62]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제언

포커스 그룹	상세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플랜 필요, 적극적 활용 중심</li> <li>- 그동안 쌓아온 미술 아카이브 사업 결과물을 검수, 업로드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li> <li>- 기존 미술 기록 활용에 대한 지침, 목표 필요</li> <li>- 디지털 자료의 마이그레이션, 보존 메타데이터 생성 관련 교육 필요</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과 연계할 교육, 데이터 마이닝-분류, 시소러스 구축 등과 연계 가능성 탐색</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기록, 미술 아카이브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필요</li> <li>- 미술 기록의 건(item)에 대한 정의 등 교육 필요</li> <li>- 노션, 엑셀 등 상용화된 프로그램 활용해 기초 데이터를 정리 및 축적하는 실습 선행, 이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 시스템/DB 구축 교육의 실효성 확보</li> <li>- 재교육 시 라운드테이블 등을 운영해 사례 공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실무에 유용할 것임</li> <li>-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므로 실습 제도화와 관련하여 급여, 법적 책임의 주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li> </ul>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가. 소결

- 미술 및 기록학 현장에서의 실무와 교육 경험, 국내 ‘미술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양성’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경험한 전문 자문위원 11인과, 3개의 포커스그룹 9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음.
- 전문가들은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 보조 인력 또는 기술 숙련에 의한 실무 인력이 아닌 미술-기록-기술을 융합한 복합 전문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동시에 직무의 불안정성, 교육 체계의 부재 등 현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였음.

#### 1)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의 전문성과 독자성 강조

- 미술 아키비스트는 기록 또는 미술 분야의 하위 영역이 아닌, 미술관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별도의 전문 인력으로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 자료의 가치 판단과 해석을 위해서는 미술 이론적 전문성이,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해서는 기록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며, 한 분야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함.
-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기술직이 아니라, 미술사적 맥락 이해, 기록학적 기술 적용, 데이터 조직, 저작권 관리 등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을 해석하고 맥락을 연결할 수 있는 복합 전문 인력으로 정의.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학예연구사 등 기존 직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더 나아가 미술기관 내에서도 정식 직군으로서 제도화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임.

#### 2) 미술 아카이브의 지속성 결여

- 단기 계약 또는 임기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인해 아카이브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 인력의 장기적 경력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력 양성 교육과 함께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함.
- 기존의 표준, 지침, 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지식은 현장의 실제 업무 및 기술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미술 아카이브 업무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론과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 현행 지침과 시스템이 기록학적 언어 또는 개발자 중심이어서 미술 현장의 다양한 매체와 실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

#### 3)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습 교육 방식 필요

- 기초적인 이론 학습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저작권, 디지털 장기보존, 메타데이터 설계 및 작성 실습 등의 영역을 심화 모듈로 구성한다면 이상적일 것임.
- 교육의 일관성과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책임 강사의 지정을 통해 강의 간 내용 중복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명확한 출결 및 수료 기준 설정을 통한 교육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제안되었음.

## 나. 시사점

### 1) 미술 아카이비스트 자격의 정책 및 제도 수립 병행

- **인력 배치 법적 근거 확보:** 교육의 성과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미술기관 내 미술 아카이비스트 배치 또는 관련 기록 관리 인력 충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현실적인 인증 경로 모색:** 국가 주도의 자격증 신설 등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기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도 내 특화 과정을 도입하거나, 대학-기관 연계형 전문 이수증 발급 등의 현실성 있는 체계를 통해 교육 이수자의 전문성을 공신력 있게 증명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2) 기초 지식 확립 및 도메인 특수성 이해

- **미술-기록학 기초 지식 교육:** 미술 아카이브 업무의 토대가 될 기초 지식 교육이 필수적임. 기록관리에 관한 기초 지식, 각종 원칙, 절차에 관한 실무적 지식(수집, 정리, 분류, 기술, 보존, 활용 등), 미술사적 맥락과 자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기초 교육을 필수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이를 통해 학예사 등 기관内外 유관 직군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할 것임.
- **메타데이터 기본 및 표준 이해:** 실질적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의 핵심인 메타데이터에 관한 개념, 구조, 관련 국내·외 표준(MARC, EAD, ISAD(G), RiC 등)을 이해하고, 기관의 특성 및 미술 기록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함.

### 3) 융합적 역량과 실무적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마련

- **기술 및 법적 심화 모듈 강화:** 디지털 시대의 기록 활용을 제약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 이슈와 디지털 장기보존, AI 활용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심화 모듈로 편성. 특히 저작권 이슈는 계약서나 수집 시 메타데이터 축적 방안 등 실무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함.
- **미술 아카이브 특화 개념 전문 학습:** 미술 기록의 신뢰성과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프로비너스(Provenance)와 같은 미술 기록, 미술 아카이브에 특화된 개념을 다루고, 이를 수집 이력 추적, 진품보증서 검증 등 실무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제공함.
- **기획 및 조정 역량 배양:** 확장된 시야에서 아카이브를 정의하고, 아카이브 관련 전체 업무의 흐름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또한, 내부 구성원과 공유하여 기관 전체의 업무에 기록관리가 포함되어 미술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기관 내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능력이 배양되어야 함.
-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배양:** 학예사, IT 개발자, 외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과정을 배양하여, 추후 기관에 배치될 미술 아카이비스트 인력이 기관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4) 지속 가능한 현장 연계 및 교육 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함

- **인턴십/펠로우십 제도화:** 양성된 인력이 실제 업무 경험을 쌓고, 이후 실제 유입될 수 있도록 국공립 미술관과 협력형 인턴십/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적정 보수 지급과 업무 관리를 통해 전문 인력으로서 미술 아카이비스트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제도를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연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커뮤니티 기반의 전문성 유지:** 단술 아카이비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수자 네트워킹을 기획,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누적하고, 현업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커뮤니티 기반형 역량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제5장**

---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제1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 프로그램 설계

#### ■ 사전 연구 수행

- 국내 미술 아카이비스트 활동 현황 및 수요, 진입 경로 조사
- 국내·외 미술 아카이빙 교육 기관 및 교육과정, 선행연구 분석

#### ■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및 주요 이슈 도출

- 기록학 및 미술 현장에 포진하여 미술 아카이브 관련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는 다양한 자문위원 구성 및 섭외
- 자문위원회(10회 이상) 운영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을 위한 주요 이슈 도출

#### ■ FGI 운영 및 주제별 심화 연구

- 미술 아카이브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주제로 설정, FGI(3회 이상)를 구성해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을 위한 주요 이슈 도출, 논점 고도화
- 각 전문 분야를 반영 및 각 아카이브 전문 기관/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무 지식을 종합 분석하여 교재 커리큘럼 및 연구 결과보고서에 일부 반영

#### ■ 워킹그룹 협업을 통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 설계

- 파트별 책임 강사로 참여하는 워킹그룹의 과거 다른 기관에서의 수업 경험을 비교하는 사전 회의를 통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공동 설계
- 연보 및 구술채록,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등 교육생들이 실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슈를 반영한 수업 목표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 피드백 반영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 가이드북 제작

-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조사(자문회의 및 FGI)를 통한 사전 연구 단계에서 생산된 주요 연구자료를 가이드북 내용에 활용
- 각 회차별 주요 강의록, 참고자료 수록(강의용 PPT 자료 별도 공유)
- 미술 아카이브 실무 관련 주요 용어사전, 템플릿, 참고 자료, 각종 매뉴얼 포함
- 가로형 전자책(PDF) 포맷으로 제작하여 교육생 활용성 편의 고려

## 2. 프로그램 추진 방향

### ■ 미술 아카이브 이론과 실습의 균형

- 미술 아카이브의 본질적 특수성과 학술적 이해를 토대로, 현장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구조 마련
- 미술 아카이비스트가 수행해야 할 전체 직무를 포괄하는 체계적 내용을 '이론-사례-실습'의 단계적 흐름으로 설계
- 기록관리학의 보편적 원칙을 기반으로, 미술 분야의 특수성을 포함한 실무 사례 활용
- 별도로 현장 견학 강의를 편성하여 실무 현장과의 접점 강화

### ■ 온·오프라인 혼합 운영을 통한 접근성 확대

- 비수도권/수도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생의 지역·재직 여건을 고려한 참여 기회 확대
- 실시간 강의 진행과 녹화 영상 제공으로 시공간적 제약 완화
- 실습 강의, 기관 견학, 멘토링 등 대면이 꼭 필요한 항목은 오프라인으로 설계하여 효율적 운영 진행

### ■ 지속 가능한 배움과 학습 내용 간 연결성 강화

- 미술관, 갤러리 등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기록관리 전 과정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목표
- 일회성 강연·특강 중심의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 내용 간 흐름과 연결성 강화
- 책임 강사 주도로 '이론-사례-실습'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성을 확보

### ■ 교육생 개별 아카이브 실습 프로젝트 지원

- 실습 과정을 교육생 각 개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도록 지원
-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템플릿과 시스템 도구를 실습을 통해 직접 다루며, 성취감과 동기 부여
-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하여 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

## 3. 프로그램 운영 목표

### ■ 학예사(큐레이터)의 업무와 구별되는 아카이비스트의 전문성 강화

- 학예 중심의 미술관 인력 구조 및 업무 추진 방향 속에서 협업의 수월성과 다른 팀 또는 외부 협력 업체의 소통 능력 중요함.  
⇒ 공공 기록물을 다루는 기록물전문요원과는 차별화된 미술 아카이비스트만의 정체성 확립 및 미술 아카이브의 (재)정의

### ■ 아카이브 운영에 미술사적 맥락과 기록관리 기술 역량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전문가 육성

- 전시와 작가를 기반으로 한 미술사 및 미술이론 맥락을 기록관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장기적 교육 및 현장 맞춤형 실습 방식의 필요

⇒ 기록학 및 미술이론 전공자에 따른 수준별 과정 등을 고려한 각 파트별(4개) 책임 강사제로 연속성 있는 강의 확보

### ■ 기록물의 단순한 보존·수집이 아닌, 향후 문화예술 콘텐츠 및 공공 서비스로 연구·활용·가치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포지셔닝

-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미술기관 및 전시에 적합한 실습과 경험 중심의 교육 방식을 중심으로 최근 사례연구 커리큘럼 적극 반영

⇒ 최신형 오픈 소스 시스템 및 현장 실무자(미술 아카이브) 중심의 강사 섭외 및 사례 구성

### ■ 미술 관련 기록물을 다루는 새로운 교육 모델

- 미술 아카이브가 작가, 큐레이터, 미술사가, 갤러리스트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적 연구가 가능하려면 미술 작품은 물론 미술 자료에 관한 저작권 및 초상권 이슈 발생에 대한 대응 필요.

⇒ 저작권/보존 관련 강의를 대신하여 주요 내용 및 사례를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에 포함

### ■ 공공기관 일자리의 한계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

- 현행의 국공립 미술관 내 기록연구사의 한정된 채용 규모로는 미술 전문 아카이비스트의 수요를 단시간에 충족할 수 없음.

⇒ 사립 미술관, 갤러리, 대안공간, 작가 스튜디오 등 민간 영역에서 보다 폭넓은 미술 기록 전문 요원으로 확대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화를 위한 인식을 확장하는 시각 제시

## 4. 커리큘럼 개발

### 가. 교육 대상 설정

- 본 프로그램은 예비 미술 아카이비스트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설정함. 미술사·예술학·기록학 전공자 뿐만 아니라 미술 아카이브 실무에 진입하고자하거나 타 분야에서 전공 및 활동을 진행했더라도, 미술 또는 아카이브 기관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이들까지 폭넓게 수용하고자 함.
- 아카이비스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실무 진입을 위한 체계적 교육 체계가 없다는 점에 착안함. 교육 대상의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 평가도 본 시범 운영의 분석 기준으로 설정함.
-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사·예술경영 실무 이해와 기록관리학, 디지털 기술 등 융합 역량이 필수임. 따라서 미술 이론 또는 기록학 지식은 있으나 현장 적용 경험이 없는 예비 인력층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함.

#### 나. 교육 기간 및 회차 설정

- 주어진 일정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이론적 이해', '사례 중심 학습', '실습', '현장 견학'을 고르게 다루기 위해 10회차로 설계함. 각 회차는 아카이브의 전체 과정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함.
- 아트워크 및 추석연휴로 인해 9월 12일부터 시작, 2개월 간 교육 참여자의 몰입도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 2회 시행했으며, 교육생의 근무 또는 재학 등의 환경적 여건을 배려하여 금요일과 토요일 위주로 배정함.
- **1~4회차:** 아카이브 일반 개론 및 미술 중심의 국내·외 사례 소개를 통한 이론적 지식 확보
- **5~8회차:** 미술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자료 목록화 및 분류, 작가 구술채록 및 연보 작성, DB 시스템 구축 및 입력 등 자기 주도형 실습 중심으로 실무 역량 강화
- **9회차:** 기관(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현장 견학을 통한 미술 아카이브 체험 기회 \*비공개 보존서고 방문
- **10회차:** 미술 아카이브로부터 확장될 수 있는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 아카이브 미술 전문 기관의 실무 현장 사례 공유

#### 다. 교육 방식 설정

- 기본적으로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실습 및 네트워킹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혼합 운영 방식으로 진행. 일부 교육생의 거주 지역 또는 재직 유무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혼합형 방식을 채택함.
- 보다 많은 신청자를 수용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함. 온라인 강의는 이론 강의 및 사례 소개 회차를 중심으로 설계, 오프라인 수업은 DB구축 실습·멘토링·현장 견학 등 물리적 경험이 필요한 경우로 구성하여 효율성 높임.

## 제2절.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 1. 교육 프로그램 개요

-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범 운영됨.
- 교육생 모집은 웹사이트 및 SNS를 통해 홍보하여 2025년 8월 19일(화)부터 9월 2일(화)까지 온라인(구글폼) 신청으로 진행되었음.
- 신청자들이 제출한 내용을 통해 워킹그룹(실습 파트)의 심사를 거쳐 미술·예술학·기록정보학·문화정보학 등 관련 전공자 및 미술 아카이브 실무에 관심을 가진 예비 인력 중 총 25명을 선정하였음. 심사 기준은 '미술 및 아카이빙에 대한 기초 이해도', '교육 후 실무 적용 가능성(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참여 가능 일정 등)'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종 교육생 명단은 9월 5일(금) 유선 및 문자 연락으로 공지함.
- 교육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12일(금)~10월 25일(토), 주 2회(금·토) 회차당 2~3시간씩 10주간 진행됨.
- 각 차시는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 세 형태로 구분되며, 강의 성격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Zoom) 강의와 오프라인(서울예술인지원센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강의를 결합한 혼합 방식을 택함. 실습 및 기관 방문 등 대면이 필수인 차시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배치하고, 온라인 강의에서는 실시간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결석 인원 개인 요청 시 녹화 강의를 제공함.
- 참여 교육생에게는 프로그램 전용 실무 가이드북과 미술 아카이브 관련 템플릿 등을 제공함. 교육 기간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병행하였으며, 교육생과 운영진 간 꾸준한 소통 및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함.
- 프로그램 종료 후 강의를 80% 이상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전달함.

#### 가. 모집 요강

##### ■ 신청 기간

8월 19일(화)~9월 2일(화)

##### ■ 신청 대상

미술·예술학·기록정보학·문화정보학 등 관련 전공자, 미술 아카이비스트 예비 전문인력

##### ■ 선정 인원

25명

##### ■ 선정 기준

- 기본적인 미술 및 아카이빙 이해도 보유 (전공)
- 교육 후 실무 적용 가능성 (지원 동기 및 직무 기대)
- 연구 사업 과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 (일정 참여 여부)

## ■ 신청 방법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교육생 발표

9월 5일(금)

## ■ 교육 일정

9월 12일(금)~10월 25일(토), 16:00-18:00, 10주차 강의

## ■ 교육 장소

[오프라인]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온라인] Zoom

## ■ 교육생 특전

- 예술경영지원센터 수료증 발급 (강의 80% 이상 수료시)
- 실무 가이드북 제공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밀착 멘토링

## 나. 강사 소개

### ■ 안대진(아카이브랩 대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겸임교수)

기록정보학 전공.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정리와 기술 등 강의. 자원봉사, 성소수자, 환경,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왔으며, 민간과 공공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천적 아카이비스트이자 오픈소스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음.

### ■ 유예동(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담당)

고대 이집트 미술·고고학, 미술사 전공. 삼성미술관 플라토와 코리아나미술관 인턴,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국제교류담당 근무. 2016년부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조성 과정 초기에 예술 기록 수집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전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음.

### ■ 이지은(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비스트, 독립 아카이비스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예술학, 기록관리학 전공. 2009-2022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비스트로 근무, 2015-2017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디지털아카이빙 박서보연구팀 책임연구, 2020년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 광주비엔날레, 국립디자인박물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외 다수 기관에서 아카이브 부문 컨설팅 및 심사위원을 역임. 202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옥션 등에서 강의를 진행 중.

### ■ 황진현(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사)

문헌정보학, 기록정보학 전공.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명지대학교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소에서 근무.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중앙부처 다수의 기록관리 정책연구 수행. 현재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에서 이사로 활동 중이아카이비스트라운지의

공동편집장을 맡고 있음.

## 2. 교육프로그램 구성

[표 63]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차시별 교육프로그램 구성

차시	일정	시간	주제	강사	구분	장소
1	9월 12일(금)	16:00-18:00	아카이브(기록학) 개론	황진현	이론/ 사례연구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세미나룸
2	9월 13일(토)	16:00-18:00	All About Art Archives: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현황 및 아카이브 프로세스	이지은	이론/ 사례연구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렉처룸
3	9월 19일(금)	14:00-16:00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국내외 사례	안대진	이론/ 사례연구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세미나룸
4	9월 20일(토)	16:00-18:00	작가 기록관리, 아트 아카이빙 기초	황진현	이론/ 사례연구	온라인 Zoom
4	9월 26일(금)	16:00-18:00	작가 아카이브 구축 실습 I : 기술(Description)의 이해와 적용	이지은	실습/발표	온라인 Zoom
5	9월 27일(토)	16:00-18:00	작가 아카이브 구축 실습 II : 연보 작성과 구술채록	이지은	실습/발표	온라인 Zoom
7	10월 17일(금)	16:00-18:00	디지털 아카이브 DB 설계 및 구축 실습 I	안대진	실습/발표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세미나룸
8	10월 18일(토)	16:00-18:00	디지털 아카이브 DB 설계 및 구축 실습 II	안대진	실습/발표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세미나룸
9	10월 24일(금)	16:00-18:00	미술 아카이브 자료 사례와 활용	유예동	현장 견학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3층 리서치랩
10	10월 25일(토)	16:00-18:00	미술 아카이브 컬렉션 수집 및 구축	유예동	실무사례연구	서울예술인 지원센터 세미나룸

### 3. 교육생 모집

[표 64]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개요

구분	내용
신청 기간	8월 19일(화)~9월 2일(화)
신청대상	미술·예술학·기록정보학·문헌정보학 등 관련 전공자, 미술 아키비스트 예비 전문인력.
신청 방법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내용	<p>1. 성함을 입력해주세요.</p> <p>2.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p> <p>3.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p> <p>4.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p> <p>5. 현재 소속을 선택해주세요.</p> <p>6. 본인의 전공 및 학위 과정을 선택해주세요.</p> <p>7. 자기소개와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해주세요.</p> <p>8.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직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p> <p>9. 전체 교육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하신가요?</p> <p>10.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내용, 희망하는 교육 방식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p>
사전 공지내용	<p>본 교육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의 일환으로, 교육생의 피드백은 향후 정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p> <p>교육생으로 선정되신 경우, 전공확인을 위한 각종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p>프로그램 중 총 4회의 실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월 17일(금), 18일(토) 실습에는 개인 노트북 지참이 필수입니다.</p> <p><b>[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b></p> <p>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해 개별 응답 내용 및 참여 과정이 분석 및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b>[개인정보 활용 동의]</b></p> <p>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프로그램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프로그램 연구 종료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p> <p>▷ 수집항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 생년월일: 교육생 본인 확인</li> <li>- 연락처, 이메일 : 교육생 출석 관리 및 공지사항 안내</li> </ul>

	<p>- 전공확인을 위한 각종증명서: 교육생 설문 응답 전공 일치 여부 확인</p> <p><b>[초상권 활용 동의]</b></p> <p>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사진·영상 촬영 및 해당 자료의 활용(결과보고, 홍보 등)에 동의하는 분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p>																				
선정 방법	<p>심사위원 3인이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총합 순으로 상위권자 25명 선정.</p> <p><b>- 총점 동점자 발생 시</b></p> <p>1순위: 전체 일정 참여 가능 여부</p> <p>2순위: 아카이빙 관련 전공 또는 실무 경험 유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인원: 20명 (예비인원 5명)</li> <li>■ <b>선정 기준:</b> 기본적인 미술 및 아카이빙 이해도 보유 (전공), 교육 후 실무 적용 가능성 (지원 동기 및 직무 기대), 연구 사업 과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 (일정 참여 여부)</li> <li>■ 심사위원: 호경윤 (비파운데이션 대표), 이지은(독립 아키비스트), 안대진(아카이브랩 대표)</li> </ul>																				
심사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 기준</th><th>배점</th><th>연관 설문</th></tr> </thead> <tbody> <tr> <td>① 기본적인 미술 및 아카이빙 이해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전공 여부</li> <li>- 관련 활동 또는 유사 교육 이수 경험</li> </ul> </td><td>30점</td><td> <p><b>5. 현재 소속을 선택해주세요.</b></p> <p><b>6. 본인의 전공 및 학위 과정을 선택해주세요.</b></p> </td></tr> <tr> <td>② 교육 후 실무 작용 가능성</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동기의 구체성 및 진정성</li> <li>- 실무 진출 의지 및 계획</li> <li>- 직무 이해도 및 활용 가능성</li> </ul> </td><td>30점</td><td> <p><b>8.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직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b></p> <p><b>7. 자기소개와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해주세요.</b></p> </td></tr> <tr> <td>③ 프로그램 참여 의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일정 충실성</li> <li>- 프로그램 목적 이해 및 기여 의지</li> </ul> </td><td>30점</td><td> <p><b>9. 전체 교육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하신가요?</b></p> <p>(10회차 강의 참여 필수. 부득이하게도 참여가 불가능한 날짜가 있다면 아래 기타란에 작성해주세요.)</p> </td></tr> <tr> <td>④ 후속 활동 기대감 및 기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료 후 후속 활동 의지</li> <li>- 자기 표현력과 서술 성의도</li> </ul> </td><td>10점</td><td> <p><b>10.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내용, 희망하는 교육 방식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b></p> <p>(10줄 이내)</p> </td></tr> </tbody> </table>	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연관 설문	① 기본적인 미술 및 아카이빙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전공 여부</li> <li>- 관련 활동 또는 유사 교육 이수 경험</li> </ul>	30점	<p><b>5. 현재 소속을 선택해주세요.</b></p> <p><b>6. 본인의 전공 및 학위 과정을 선택해주세요.</b></p>	② 교육 후 실무 작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동기의 구체성 및 진정성</li> <li>- 실무 진출 의지 및 계획</li> <li>- 직무 이해도 및 활용 가능성</li> </ul>	30점	<p><b>8.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직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b></p> <p><b>7. 자기소개와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해주세요.</b></p>	③ 프로그램 참여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일정 충실성</li> <li>- 프로그램 목적 이해 및 기여 의지</li> </ul>	30점	<p><b>9. 전체 교육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하신가요?</b></p> <p>(10회차 강의 참여 필수. 부득이하게도 참여가 불가능한 날짜가 있다면 아래 기타란에 작성해주세요.)</p>	④ 후속 활동 기대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료 후 후속 활동 의지</li> <li>- 자기 표현력과 서술 성의도</li> </ul>	10점	<p><b>10.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내용, 희망하는 교육 방식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b></p> <p>(10줄 이내)</p>
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연관 설문																		
① 기본적인 미술 및 아카이빙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전공 여부</li> <li>- 관련 활동 또는 유사 교육 이수 경험</li> </ul>	30점	<p><b>5. 현재 소속을 선택해주세요.</b></p> <p><b>6. 본인의 전공 및 학위 과정을 선택해주세요.</b></p>																		
② 교육 후 실무 작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동기의 구체성 및 진정성</li> <li>- 실무 진출 의지 및 계획</li> <li>- 직무 이해도 및 활용 가능성</li> </ul>	30점	<p><b>8.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직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b></p> <p><b>7. 자기소개와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해주세요.</b></p>																		
③ 프로그램 참여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일정 충실성</li> <li>- 프로그램 목적 이해 및 기여 의지</li> </ul>	30점	<p><b>9. 전체 교육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하신가요?</b></p> <p>(10회차 강의 참여 필수. 부득이하게도 참여가 불가능한 날짜가 있다면 아래 기타란에 작성해주세요.)</p>																		
④ 후속 활동 기대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료 후 후속 활동 의지</li> <li>- 자기 표현력과 서술 성의도</li> </ul>	10점	<p><b>10.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내용, 희망하는 교육 방식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b></p> <p>(10줄 이내)</p>																		
교육생 발표	9월 5일 (합격자 유선 연락, 불합격자 메일 연락)																				

## 4. 지원자 정보 분석

### ■ 현재 소속

[표 65]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 소속 분포

구분	인원(명)	비율(%)
미술/기록 관련 실무자 (기관·단체·프리랜서 포함)	32명	27.5%
대학원생 (재학·휴학 포함)	25명	21.5%
기타 응답	16명	13.7%
대학생 (재학·휴학 포함)	14명	12%
미술 아카이브 전문 실무자 (전담·아카이브 부서 경험자)	5명	4.3%

- 전체 86명의 지원자들은 다양한 소속 배경을 가지고 지원하였으며, 특히 미술 또는 기록 관련 분야의 현업 종사자와 대학(원)생 비중이 높았음. 지원자의 과반수 이상이 미술사·기록관리 등 전공 지식을 보유한 전문 인력(현업인 또는 전공자)이었으며, 이와 함께 상당수의 학생 지원자들이 전문 교육을 통해 향후 해당 분야로 진출하고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됨.
- 일부는 다른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으로 지원하여, 지원자 풀의 다양성이 부각됨.
- **미술/기록 관련 실무자 (기관·단체 직원 및 프리랜서 포함) 미술 아카이브 전문 실무자 (전담·아카이브 부서 경험자) – 약 32% (37명):**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근무하거나 아카이브/기록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많았으며, 이 중 일부(5명)는 미술 아카이브 전문 실무자로서 이미 미술아카이브 전담 부서에서 일한 경력 보유함.
-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약 34% (39명)**  
: 14명이 학부 과정 학생이었으며, 25명이 석사 과정 학생으로 지원했음. 이 중 13명은 단독으로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지원자였으며, 추가로 6명은 대학원 재학 중이면서 동시에 미술/기록 분야에서 재직 이력 보유함.  
(예: 대학원생이자 미술 관련 기관 근무)
- **기타:** 그 외에 소수의 지원자들은 예술가, 예술기관 행정가, 프리랜서 작가, 교수 등 특수한 배경 보유.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미술작가의 부모, 문화예술 공공기관, 조경설계사무소, 미술 월간지, 문화재단에 근무 중인 독특한 이력의 지원자도 일부 있었음. 이들은 공통적으로 뚜렷한 소속은 없지만 미술 아카이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 전공 및 학위과정

[표 66]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 전공 및 학위 분포

구분	인원(명)
석사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큐레이터학 등)	32명
학사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큐레이터학 등)	26명
기타 응답	16명
석사 (문헌정보학, 기록학, 기록관리학 등)	15명
학사 (문헌정보학, 기록학, 기록관리학 등)	9명
박사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큐레이터학 등)	5명
박사 (문헌정보학, 기록학, 기록관리학 등)	1명

- 복수 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러 학위 및 전공을 소지한 경우도 있음. 지원자 86명의 전공 및 학위과정은 미술사/예술학 관련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기록학/아카이브 관련 분야도 다수 지원.
- 지원자 대부분은 석사 학위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존의 습득했던 지식을 심화하거나 실제 실무에 적용할 교육 기회를 찾는 지원자가 많았음.
- 일부는 타 분야 전공자로 ‘기타’ 응답을 선택한 경우, 미술 아카이브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분석됨.
- **미술사·미술이론·예술학·큐레이터학 등 미술 분야 전공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석사 학위 소지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음. 학사 학위 기준으로도 26명이 미술사·예술학 등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남(복수 전공 포함). 또한 5명은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보유.
- **문헌정보학·기록학·기록관리학 등 아카이브 관련 전공자:** 기록학/아카이브학 석사 학위 소지자가 15명으로 파악되며, 학사 학위 기준으로 9명이 지원하였음. 또한 1명은 관련 분야 박사 학위 보유.
- **복수 학위 및 융합 배경:** 여러 지원자들이 미술 분야와 기록관리 분야 두 영역을 모두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미술사 전공 학사 후 기록관리 전공 석사를 취득한 경우나, 반대로 기록관리 학사 후 미술 관련 석사를 소지한 경우가 각각 확인됨. 약 10여 명은 학사와 석사 학위를 모두 미술 관련 전공으로 이수하였고, 일부는 미술 분야 이중 전공 또는 문화유산, 디자인 등 인접 분야 석사를 병행한 사례도 존재.

- **기타 전공 배경:** 대다수가 예술/기록계열 전공이었지만, 다른 전공도 보유. 예를 들어 미술 실기, 서양화, 예술 경영, 디자인 등 인접 분야의 전공도 존재하였으며 자연과학, 정치외교학, 건축역사 등 비(非)예술 전공자도 있었으며, 이들은 대개 이후에 미술이론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아카이브 분야로 진로를 바꾸기 위한 관심으로 지원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사서 자격 보유자, 문화재보존학과, 교육학과(미술치료) 재학자 등 특수한 이력도 찾을 수 있음.

### ■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 요약

-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와 함께 본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였는데, 여러 공통된 주제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미술 아카이브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 인식이 동기로 제시되면서, 지원자들 자체로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체감으로 요약됨. 자신의 경력 발전은 물론, 미술계 기록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열망이 돋보이며, 이러한 동기가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들을 한데 모이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미술 아카이빙에 대한 열의와 진로 희망:** 다수의 지원자들은 자신이 미술 아카이비스트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밝히며, “국내에 드문 전문 교육 기회라 꼭 배우고 싶다”, “향후 미술 아카이브 분야를 진로로 삼고자 한다” 등의 포부를 나타냄. 기존에는 체계적으로 배우기 어려웠던 분야이기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자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기존 경력/전공과의 연계:** 지원자 중 상당수는 현재 미술계 또는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카이브 지식을 접목하려는 동기를 보임. 예를 들어, 미술 전시 기획이나 예술 행정 경험이 있는 이들은 “예술 현장에서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체계적인 기록 관리 방법을 배우고자 함. 반대로 기록관리 전공자는 “미술 분야에 기록학 지식을 적용해보고 싶다”며 두 분야를 연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임.
- **현업 문제의식 및 프로젝트 필요:** 일부 지원자는 구체적인 현업 또는 개인 프로젝트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자녀의 작품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개인적 필요 때문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원로 작가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발전시키고 싶다”며 현재 수행 중인 아카이브 관련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했다고 밝힘. 이처럼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자료 정리 방법, 시스템 부재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법을 찾고자 함을 알 수 있음.
- **예술 자료 보존에 대한 사명감:** 여러 지원 동기에서 공통적으로 예술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 지원자들은 “국내 미술 자료가 흩어져 사장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예술계의 지속 발전을

위해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등의 언급을 하며, 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가치에 공감하고 그 일원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냄.

### ■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표 67]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한 이해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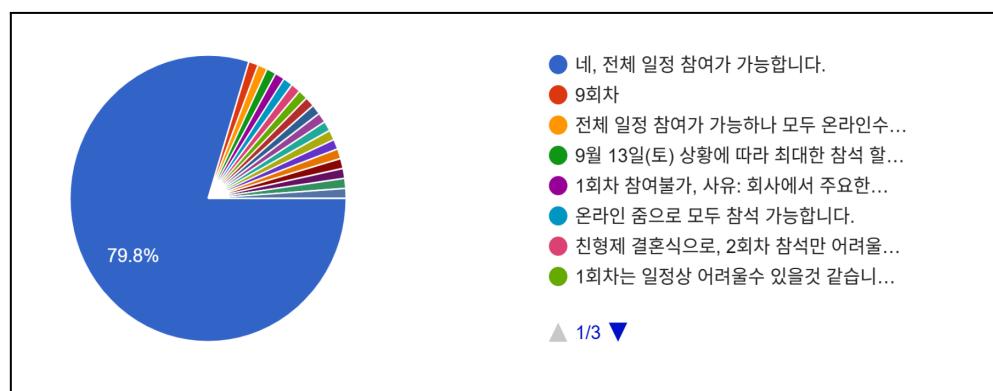
구분	인원(명)	비율(%)
아카이브 실무 경험은 없지만,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0명	47%
아카이브 실무 경험이 있지만,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24명	28%
잘 모르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다.	20명	23%
아카이브 실무 경험이 있으며,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2명	2%

- ‘미술 아카이비스트’라는 직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지원자들 대부분은 충분한 경험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음.
  - 종합하면, 약 절반 이상의 지원자가 “개념은 알고 있으나 실무 경험이 부족”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약 4분의 1은 이미 실무를 접해본 입장에서 더 발전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음. 완전히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자도 일부 있었지만 (약 5분의 1), 이들 역시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전반적으로 지원자 대부분이 자신의 이해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를 희망함.
- 
- “아카이브 실무 경험은 없지만,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약 47% (40명): 가장 많은 지원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실무 경험은 없으나 이론적으로나마 미술 아카이브 직무를 들어보거나 개념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음. “아카이브 실무 경험은 없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의 응답으로, 관련 전공 지식이나 독학을 통해 개념은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해본 적은 없는 지원자 층이라 할 수 있음.
  - “아카이브 실무 경험이 있지만,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 약 28% (24명): 상당 수의 지원자는 어느 정도 아카이브 관련 실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나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 답했음. “실무 경험이 있긴 하지만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해 더 알고 싶다”의 응답으로, 기본적인 이해와 경험은 있지만 전문 교육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고 있음.

- “잘 모르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다.” – 약 23% (20명): 이들은 미술 아카이비스트라는 역할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음. 이러한 지원자들은 “아직 ‘아카이비스트’라는 개념이 생소하지만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다”는 취지로, 초심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기대를 표현함.
- “아카이브 실무 경험이 있으며,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 약 2% (2명): 극소수이긴 하나, 이미 미술 아카이브 실무를 직접 경험하여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지원자도 있었음. 이러한 응답을 한 이들은 앞서 소속에서 언급된 미술 아카이브 전문 실무 경력자 등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 경우라 볼 수 있음.

### ■ 교육 일정 참여 가능 여부

[그림 15] 교육 일정 참여 가능 여부 교육생 응답 분포



-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교육 일정에 문제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답변(전체 86명 중 68명(약 79%)) 나머지 지원자들(18명, 21%)은 특정 날짜에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전 양해를 구함.
- 전반적으로 지원자들의 참여 의지는 매우 높은 편이며, 일부 지원자는 일정 충돌 우려에도 가능하면 조율해서 참석하겠다는 응답으로 전 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았음.
- **직장 일정 충돌:** 몇몇 지원자는 “회사 업무로 금요일 강의는 참석이 어렵다”, “직장에서 빠질 수 없는 일정과 겹친다”등으로 평일(금요일) 교육 참석에 어려움을 표시함. 특히 1회차나 2회차 금요일 수업에 대해 연차 사용 등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음. 일부는 “금요일은 불가하지만 토요일 강의는 참여 가능”이라고 하여 주말 수업만 혹은 줌 수업에 대한 참석 희망을 드러냄.
- **개인 행사:** “가족 결혼식으로 2회차 참석이 어렵다”, “9월 19일은 참석 불가”등 개인적인 중요한 행사로 특정 회차에 불참할 수 있음을 알린 응답도 있었음. 이러한 경우 해당 회차를 제외하면 나머지 일정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역/거리 문제 및 기타:** 한 지원자는 “통영 거주로 모든 금요일에 참석은 어려우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여 원거리 거주로 인한 제한을 언급했고, 또 다른 지원자는 “온라인(Zoom)으로 모두 참석 가능”이라고 답변하여 비대면 참여 희망을 표하기도 했음. 또한 “전체 일정 참여가 가능하나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어, 교육 방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주길 바라는 경우도 일부 존재함.

##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내용 및 희망 교육방식

- 지원자들의 실무 중심의 교육과 구체적 사례 학습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짐.
- “이론보다는 실제 미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 공통된 바람으로, 사례 중심 학습,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 현장 실습 기회 등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 했음.
-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일방적 강의보다 참여와 체험을 중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 추후 교육 과정 설계 시 커리큘럼에 반영 사항으로 참고하였음.
- **아카이빙 실습 및 현장 경험:** 많은 지원자들이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실습 기회를 기대했음. “실제로 소규모 아카이브를 구축해보고 싶다”, “아카이빙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활용을 직접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와 같이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언급한 응답이 약 36% 정도 있었음. 또한 “현장 견학 또는 실무 투입 기회”를 바라며, 이미 구축된 아카이브 운영 현장(미술관 자료실 등)을 방문하거나 실제 자료를 다뤄보는 경험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다수 확인됨.
- **우수 사례 및 전문 지식 학습:** 가장 다수가 언급한 부분은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사례 연구’로, 응답자의 약 절반 가량이 “다른 미술 분야 아카이브의 사례를 알고 싶다”, “성공적인 아카이브는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는지 배우고 싶다” 등을 적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과 노하우를 얻고자 함이 엿보임. 특히 시각예술 외 타 예술분야 아카이브 사례, 개인 예술가 기록 관리 사례 등 다양한 범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드러남. 이와 함께 “미술 아카이비스트 선배들의 경험담”, “현업 전문가의 강의” 등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기대도 확인됨.
- **디지털 아카이빙 및 시스템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기술적 교육을 바라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음. 약 20여 명은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방법”, “데이터베이스/메타데이터 표준” 등의 전문지식 교육을 요청하기도 하였음. 예를 들어 “예술가 개인기록의 메타데이터 작성법”, “사진·영상·음성 등 다양한 매체별로 기록을 체계화하는 방식” 같은 구체적 관심사를 언급하기도 했음. 이는 현대 미술 아카이브에서도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관리 기술에 대한 학습 요구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론과 실무의 균형:** 일부 지원자는 “아카이브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음. 즉, 기록학 이론과 더불어 아카이브의 개념적 내용을 짚어주면서, 그것이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함께 다루어 주길 바란 것으로 추정됨. “어떤 아카이브가 좋은 아카이브인지 본질적으로 알고 싶다”와 같은 표현에서,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아카이브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기대를 확인할 수 있음.

- **교육 방식에 대한 선호:** 대체로 참여형·소통형 교육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확인됨. 몇몇은 “일방적 강의보다는 토론이나 워크숍 형태”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질의응답이 자유로운 분위기”, “동료 참가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배우고 싶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함. 비록 비중은 크지 않지만, 교육생 간 네트워킹이나 협업 과제를 기대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함. 또한 자료 제공 측면에서 “교육 자료(PPT 등)를 충분히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보여, 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했음.

## 5. 교육생 가이드북 개발

- 교육생들이 프로그램 참여 전, 미술 아카이스트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전반적 내용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수강생은 각 회차별 강의자료 및 참고 매뉴얼의 링크가 포함된 학습형 자료집 성격으로 PDF와 E-Pub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가이드북을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함.
- 프로그램의 목적·운영안내·강의자료·주요 매뉴얼·용어집·참고자료 등을 한데 묶어, 이론·실습·현장 연계형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 학습 자료로 기능하도록 설계됨.

\*본 연구보고서의 별첨자료로 가이드북 전체 원본파일을 첨부하였음.

### ■ 구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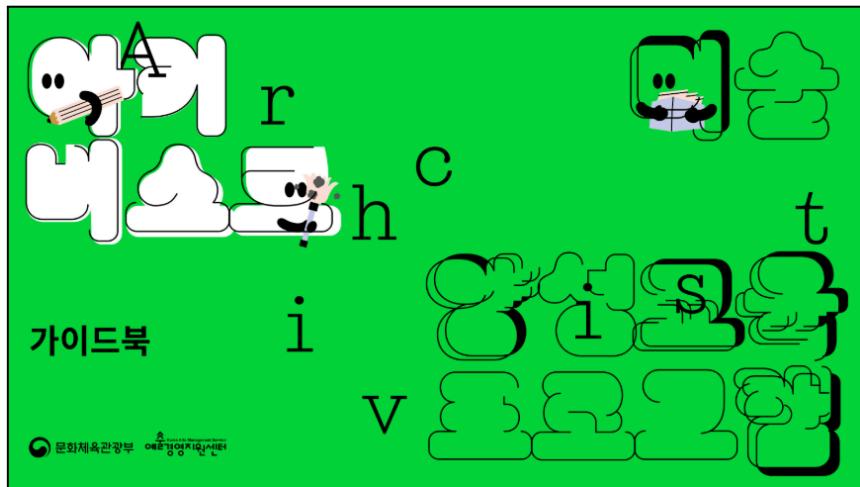
- ① **시작하며** – 프로그램의 취지, 환경 인사, 교육 목적, 사전 질문 제시를 통해 교육생에게 학습동기 부여
- ② **프로그램 개요 및 운영 안내** – 10회차 교육 일정 안내, 회차별 강의 주제, 참여 강사진, 온라인·오프라인 운영 장소 및 링크 공유, 수료 기준 및 준수 사항을 명시
- ③ **강의자료** – ‘기록학 개론’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습’, ‘현장 견학’, ‘컬렉션 수집 및 활용’까지 단계별 학습 흐름을 제시하며, 사전 예습 자료로 가능
- ④ **주요 매뉴얼** – 국내·외 아카이브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 등 국내·외 기록관리 및 미술관 지침을 참고 자료로 수록
- ⑤ **용어 모음집(Glossary)** – 미술 아카이브를 다룸에 있어 전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용어 모음집 제공. 기록학 및 미술이론에서 혼용되는 개념들을 정리하여 별도 수록
- ⑥ **더 알아보기(참고자료)** – 국내·외 아카이브 주요 미술 아카이브 기관, 웹 리소스, 실무 팁 소개를 통한 실무적 지식 전달 및 교육 이후의 자기주도적 탐구 유도

### ■ 제작 의의

- 가이드북은 단순히 수업 안내서를 넘어, ‘미술 아카이스트’라는 새로운 전문 직군의 역할을 소개하고,

기록학과 미술 현장의 교차점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안내함. 각 강의 회차별 PPT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미리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여 참여 교육생이 사전 예습 및 실습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함.

[그림 16]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표지



[그림 17]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1. 시작하며] 질문들

[질문들]	
왜 '미술' 아카비스트가 필요한가?	아트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아트는 무엇이 다른걸까?
미술 아카이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술 아카이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아카이브가 그냥 모아두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미술 현장 또는 미술 작품에서 아카이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	미술 아카이스트는 누구일까?
아카이브의 디지털화가 갖는 의미와 확장 가능성은?	미술 아카이브를 다루는 기관들은 어디가 있을까?
미술 아카이브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미술 아카이스트가 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미술기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미술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미술 아카이브가 되려면 어떠한 능력과 가지고 있어야 할까?
미술 아카이브가 가지는에서 메타데이터의 차별성은?	미술 아카이브로 일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힘껏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사진, 필름, 문서, 디지털 파일까지… 저장매체 또는 기록매체 또는 작업매체의 복잡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미술사와 미술 아카이보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림 18]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2. 프로그램 개요] 운영개요 / 교육생 안내사항

● 장소	● 교육생 안내사항
오프라인 서울예술인지원센터 2층 세미나룸/액자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22 오프라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3층 리서치랩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당문하로 101 온라인 ZOOM 4회차 <a href="https://us06web.zoom.us/j/94072289667">https://us06web.zoom.us/j/94072289667</a> 온라인 ZOOM 6회차 <a href="https://us06web.zoom.us/j/81165290729">https://us06web.zoom.us/j/81165290729</a> 온라인 ZOOM 5회차 <a href="https://us06web.zoom.us/j/185179886996">https://us06web.zoom.us/j/185179886996</a>	● 수료 기준 • 출석 총 10회 강의 중 8회 이상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 과제 및 프로젝트: 강의별 과제와 최종 실습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야 최종 수료가 인정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할 경우 반드시 사전 연락해주세요.
● 준비물	● 준수 사항
④/⑤/⑥ 온라인 ZOOM 접속 / 화면 공유를 통한 발표가 가능한 환경 (설명, 비디오 접속 ON 필수) ⑦/⑧ 오프라인 실습을 위한 노트북, 구비	• 교육 중 수집 제공되는 모든 강의 자료 및 실습 자료는 교육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외부에 무단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 오프라인 강의 참석 시에는 공지된 준비물을 지참하고 강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 주세요. • 온라인 강의 시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접속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해 카메라는 ON, 마이크는 필요 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강의 녹음 / 녹화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 녹화는 금지됩니다. • 온라인 실습 시에는 실제 기관의 민감한 기록들이 아닌 가명 처리된 데이터 및 오픈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9

## [그림 19]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3. 강의자료] 회차별 강의자료

**2강**

**All About Art Archives:**  
국내외 현황과 아카이브 프로세스

**이자운 아카비스트**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여 위탁되어 기획되었다.  
아카이브와 미술 아카이브 개념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점과 적용 범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 국내외 주요 미술 아카이브의 현황을 소개하며, 미국 미술 아카이브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SAA)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Museum Archives Section)에서 제시한 저널 청의 및 검색, 자료요건 등 국제적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아카이브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기록의 수집·기술·보존·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될 실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深化할 예정이다.

**강의 목표**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현황을 비교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이해한다.

**키워드**  
미술 아카이브, SAA 기준, 직무 정의, 프로세스

**체크 포인트**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한다.  
 미술 아카비스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안다.  
 미술 아카이브의 특징과 구축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핵심 내용**  
 - 아카이브와 미술 아카이브의 개념 비교  
 - 기록 수집·기술·보존·활용 프로세스

---

☞ [강의자료] 미술 아카이브, 그 구축의 중요성

☞ [강의자료] [2강] All About Art Archives\_가이드북용.pdf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13

## [그림 20]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4. 주요 매뉴얼] 기관 지침

**기관 지침**

**2000 ICA -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국제기록보존협회(ICA)가 2000년에 발간한 국제 기록 기술 표준으로, 전 세계 기록관리 기관들이 기록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 표준 지침입니다. 기록물의 맥락과 구조, 내용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국제적인 기록 정보 교환과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 참고자료입니다.

**2019 SAA - 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  
미국기록학회(SAA)가 2019년에 발간한 기록 기술 내용 표준으로, ISAD(G)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북미 지역의 기록관리 실무에 특화된 기술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록물의 맥락과 내용, 구조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무 사례를 담고 있어, 현대적 기록 기술 업무의 국제적 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기본정보 기술지침**  
국립현대미술관이 2023년 발간한 소장품 정보 기록 지침서로, 미술관이 소장품 정보를 분류·기록하는 방식을 안내하는 기본 지침서입니다.

**2018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출판 지침**  
국립현대미술관이 2018년 발간한 미술관 출판을 제작 전반에 대한 지침과 지침을 담은 책으로, 저작권 및 출판 계약에 관한 이해, 편집 지침 등을 포함합니다.

**2022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 AA\_M2\_분류·기술 매뉴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개관 준비 단계에서 수립한 예술자료 분류 및 기술 매뉴얼입니다. 이외에도 전거 케로드 작성 매뉴얼, 시소리스 작성 매뉴얼, 예술자료 수집 매뉴얼, 정리 매뉴얼 등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세부 매뉴얼 일체를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 둘록메타데이터 작성 매뉴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둘록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서로, 소장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법과 표준을 제시합니다.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지침**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미술자료 기록관리 지침으로, 미술자료 기술 체계와 기록 관리 표준을 정리한 지침서입니다.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23

## [그림 21]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5. 용어 모음집] 기본 개념

**기본 개념**

**기록 (Record(s))**  
기록학에서 기록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의 처리행위 중에 증거와 자산으로 생산, 접수 및 유지하는 정보”로 정의한다(KS x ISO 15489-1: 2016).  
기록은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다. 기록의 내용은 기록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자 데이터, 기호, 숫자 이미지, 소리, 그림, 기타 다른 정보이다. 기록의 구조는 내용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식이다. 기록의 맥락은 기록의 생산·증거·보존·활용 등에 대한 맥락이다. 기록은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다. 기록의 내용은 기록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자 데이터, 기호, 숫자 이미지, 소리, 그림, 기타 다른 정보이다. 기록의 구조는 내용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식이다. 기록의 맥락은 기록의 생산·증거·보존·활용 등에 대한 맥락이다.

**기록기록 (Archives)**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존재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생산·입수한 기록으로서, 생산·입수된 직접적인 목적 이상으로 지속적 가치가 있거나 생산자의 기능이나 책임을 입증해주는 데 있어 의미를 지닌 보존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출처, 원질서를 존중하고 집합적 통제에 입각하여 유지되며, 기록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유기적 특성이 추가된다(기록학용어플랫폼).

**매뉴스크립트 (Manuscripts)**  
(1) 손으로 쓰였으며, 역사적이거나 문학적

가치를 지닌 기록 정보. 타자기로 작성된 것도 보통 매뉴스크립트라고 불리나, 엄밀히 말하면 ‘타자본(typescript)’이다. (2) 미출간 문헌 (3) 저자가 단행본이나 논문, 기타 저작물 출판을 위해 제출한 원고. (4) 어떤 기준이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모은 인쇄적인 기록 집합체. 생산 출처별로 이관되거나 입수되는 ‘보존 기록(archives)’과 대비되는 개념이다(기록학용어플랫폼).

**기록 관리 (Records Management)**  
기록의 생산, 접수, 유지, 이용, 처분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능력으로서 기록물 관리와 처리행위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의 형태로 획득, 유지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KS x ISO 15489-1: 2016).

**기록시스템 (Records System)**

미술 아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29

## [그림 22]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6. 더 알아보기] 국내·외 주요 미술 아카이브 기관

 **국내외 주요 미술 아카이브 기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의 전문 아카이브 기관으로, 한국 및 아시아 현대미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연구합니다. 연구자 열람실과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내 미술 기록 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미술 아카이브로, 소장품 관련 아카이브 자료와 현대미술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합니다. 전시 아카이브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료 검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예술기록 아카이브입니다. 연극·무용·미술 등 문화예술 전반의 자료를 아우르며, 특히 공연예술 아카이브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방대한 예술 문헌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광주에 위치한 아시아문화전당(ACC) 산하의 아카이브로, 국내외 다양한 공연예술·시각예술 기록을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예술 행사 자료, 구술 아카이브 등을 보관하고 있고, 일부 콘텐츠는 ACC 아카이브 포털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세계와 활동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아카이브입니다. 백남준 관련 사진, 영상, 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제공하며, 일부 자료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뉴욕현대미술관 아카이브(Museum of Modern Art Archives)**

뉴욕현대미술관의 약 90년간의 기록과 MoMA PS1 기록, 작가·갤러리·비평가 등의 개인 아카이브를 수집·보존·공개하는 국제적 연구 기관입니다. 사진 아카이브와 구술자 프로그램 등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학자와 예술 현장 종사자들에게 필수적 연구 자료로 기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디지털화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惠特尼 미술관 아카이브(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Archives)**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42

## [그림 23]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6. 더 알아보기] 실무 팁 모음

 **실무 팁 모음**

**자료 수량 단위 및 기호 통일**

전시명®, 작품명®, 도서명®, 저작자명®과 같이 유통에 맞는 기호를 사용하고 같은 파일 내에서 통일하도록 합니다. 수량 단위(즉, 장, 개, 점)에 대한 표기도 자료 유형에 따라 일관되게 사용하여 전문성과 가독성을 높입니다. 특히 미술 작품은 '점', 도서는 '권', 서류는 '건'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관된 파일명 규칙**

파일 및 폴더 이름에 일관된 명명 규칙을 적용해 권리합니다. 예를 들어 "YYYYMMDD\_프로젝트명\_버전" 형식으로 규칙을 정하면 자료를 sist별하고 찾아보기 쉬워지며, 협업 시에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일명에는 특수문자(., ?, <, >, |, .)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과 영문을 혼용할 때는 인더바(--)로 구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메타데이터 작성의 원칙**

메타데이터는 미래의 검색과 활용을 위한 핵심 정보이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작성자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소장처 등 기본 정보는 빠짐없이

기록하고, 불명확한 정보는 '추정,' '미상' 등으로 명시합니다. 검색 키워드를 고려하여 동의어나 관련 용어도 함께 입력하면 이후 자료 발굴에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및 윤리 준수**

아카이빙한 자료를 활용할 때는 관련 저작권 법규와 개인정보 보호 윤리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별개 저작료도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민감 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당사자 등의 일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직기나 유족의 소장권, 작품의 저작권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 백업 및 보안 관리**

디지털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이중으로 보관하여 혹시 모를 데이터 손실에 대비합니다 (예: 외장 하드+클라우드 등지 백업, 주 1회 자동 백업 스케줄링) 중요한 원본 자료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디지털 파일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합니다.

**구술채록 인터뷰**

구술채록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개방형 질문을 준비하되,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인터뷰 대상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45

## [그림 24]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6. 더 알아보기] 강사진 소개

 **강사진 소개**

**안대진 아카이브 대표**



기록정보학을 전공했다.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정리와 기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자원봉사, 성소수자·환경·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왔으며, 민간과 공공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천적 아카이스트이자 오픈소스 예술플랫폼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예동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고대 이집트 미술·고고학, 미술사를 전공했다. 삼성미술관 플라토와 코리아나미술관 인턴,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국제교류담당을 거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조성 과정 초기에 예술 기록 수집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연구 및 전시를 담당, 기획하고 있다.



**이지은 아카이스트**



예술학과 기록관리학을 전공했다. 2009-2022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로 근무하였으며 2015-2017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디지털아카이브 박서보연구팀 책임연구를 맡았고 2020년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하였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옥션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스 광주비엔날레, 국립디자인박물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수 기관에서 아카이브 부문 컨설팅 및 심사위원을 역임 중이다.

**황진현 청주대학교 문현정보학과 조교수**



문화정보학과 기록정보학을 전공했다.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명지대학교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방영방법부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에서 이사로 활동 중이며, 아카이스트운영자인 공동편집장을 맡고 있다.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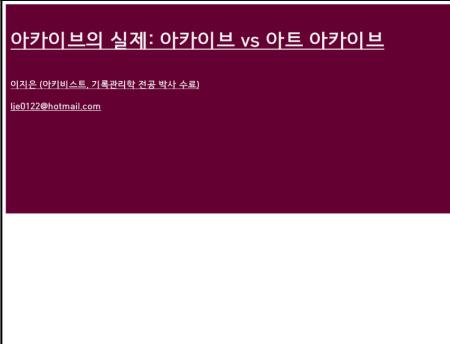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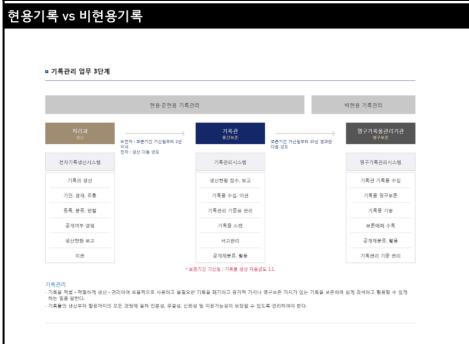
## 6. 교육 프로그램 실행

## 가. 강의 프로그램<sup>1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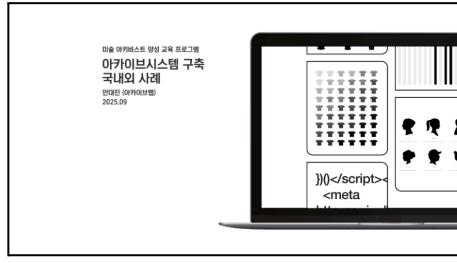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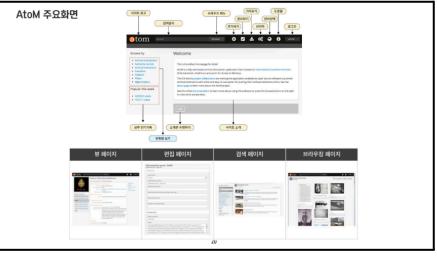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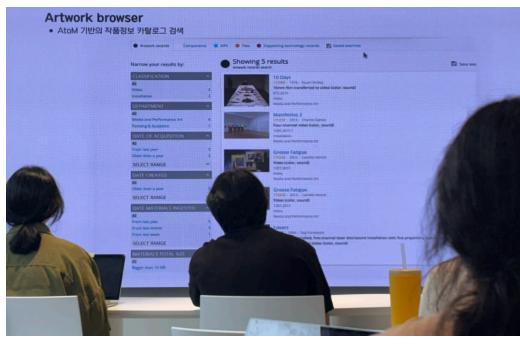
## ■ 1강 | 아카이브(기록학) 개론

<sup>121</sup> 가이드북 내 수록한 각 강의 프로그램 별 회차별 강의자료 및 진행사진과 실습결과물을 정리하였음.

## ■ 2강 | All About Art Archives: 국내·외 현황과 아카이브 프로세스

강의 분야	이론/사례연구	
강사 소개	이지은(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비스트, 독립 아카이비스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장소 및 일시	[오프라인] 서울예술인지원센터 렉처룸	2025년 9월 13일 (토) 16:00-18:00
강의 내용	<p>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며, 아카이브와 미술 아카이브 개념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점과 적용 범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 국내외 주요 미술 아카이브의 현황을 소개하며, 미국 아카이비스트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SAA) 미술관 아카이브 분과(Museum Archives Section)에서 제시한 직렬 정의 및 역량, 자격요건 등 국제적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아카이브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기록의 수집·기술·보존·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실습 과제 안내, 과제 제출 기한 9월 22일(월))</p>	
강의 자료	<p><b>아카이브의 실제: 아카이브 vs 아트 아카이브</b></p> <p>이지은 (아카이비스트, 기록관리학 전공 박사 수료) lie0122@hotmail.com</p>  <p><b>현용기록 vs 비현용기록</b></p> 	
진행 사진		

## ■ 3강 |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국내외 사례

강의 분야	이론/사례연구	
강사 소개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겸임교수)	
장소 및 일시	[오프라인]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세미나룸	2025년 9월 19일 (금) 16:00-18:00
강의 내용	<p>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개념과 주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의 아카이브 구축 현황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기록정보의 검색과 기술에 있어 기존 시스템이 지닌 한계를 살펴보고, AtoM, ArchivesSpace, CollectiveAccess, Omeka S 등 주요 아카이브 소프트웨어의 구조, 활용 맥락, 커뮤니티 기반 확장성을 분석한다. 이어 국내 미술관, 기록원, 아카이브 등 기관별 시스템 도입 사례를 살펴보며, 각기 다른 기록유형과 조직 규모에 따른 아카이브 전략의 차이를 고찰한다.</p>	
강의 자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b>트렌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구독 서비스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servica, Arkivum, Archive-it와 같은 글 간수드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li> </ul> </li> <li>3) 특화 솔루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시스템이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단기 솔루션에서 각 기능별 특화된 솔루션(예: 미술관용 Archivematica, 국립중앙도서관용 Atom)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li> </ul> </li> <li>4) 워크플로우 기반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는 데이터 입수, 모병화된 등 차주 수령 되는 아카이브 업무를 시스템 내 워크플로우로 정의하여 자동화하고 있다.</li> <li>• AI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성능과 분류 등록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li> </ul> </li> </ul> </div>	
진행 사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b>AtoM 주요화면</b></p>  </div>	
	 	

## ■ 4강 | 작가 기록관리, 아트 아카이빙 기초

강의 분야	이론/사례연구	
강사 소개	황진현(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사)	
장소 및 일시	[온라인] Zoom	2025년 9월 20일 (토) 16:00-18:00
강의 내용	미술 아카이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기록중 하나인 ‘작가’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의 방법과 아카이빙 기초를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 작가 기록의 유형과 특징, 수집과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과 방안을 상세히 다룬다.	
강의 자료	<p>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Chapter 4. 작가 기록관리, 아트 아카이빙의 기초 황 진 현 (청주대학교) jinhyun@naver.com archivist.co.kr</p>	<p>Chapter 4. 작가 기록관리, 아트 아카이빙의 기초 <b>미술 아카이브의 주요 기록</b></p>
진행 사진	<p>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Chapter 4. 작가 기록관리, 아트 아카이빙의 기초 황 진 현 (청주대학교) jinhyun@naver.com archivist.co.kr</p>	<p>Chapter 4. 작가 기록관리, 아트 아카이빙의 기초 <b>작가기록의 '보존'</b></p> <p>비전자기록의 물리적 보존 - 아날로그 형태의 기록을 경, 청, 향, 향, 향 등 서열화 및 정리화 시키면서 서체화된 보존 - 책은 서정화하여 보존 처리 수준</p> <p>디지털자료의 관리 및 장치보존 - 디지털 형태의 기록(전자기록, 이미지, 영상, SNS, 그룹 채팅 SW 등의 관리 및 보존 방안 모색(연구))</p> <p>디지털자료의 재인가능성 고민 - 수집처에 보존 중인 디지털자료의 재현(View) 가능 방안을 모색(연구)</p>

## ■ 5강 | 작가 아카이브 구축 실습 ①: 기술(Description)의 이해와 적용

강의 분야	실습/발표				
강사 소개	이지은(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비스트, 독립 아카이비스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장소 및 일시	[온라인] Zoom	2025년 9월 26일 (금) 16:00-18:00			
강의 내용	<p>작가 아카이브 구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술(description)’의 개념과 실무 적용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관리학에서 ‘기술’은 비현용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현용 및 준현용 기록에서 활용되는 메타데이터 작성과 구분되는 개념임을 먼저 명확히 한다.</p> <p>강의에서는 이러한 용어 구분과 적용 원칙을 설명한 후, 실제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기술이 수행되는 단계와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더불어 실습을 통하여 기술 작성의 실제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작가 아카이브 구축에 요구되는 데이터 구조와 기술 표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한다. (*교육생 11인 실습 결과물 발표 진행)</p>				
강의 자료	<p><b>5강 실습(기술)</b></p> <p><b>3. 국립현대미술관 수집기록의 기술</b></p>				
진행 사진	<p><b>기술 예시_아이템.ex 사진, 솔라이드</b></p> <p><b>국립현대미술관 수집기록의 기술</b></p>				

## 실습 결과물

SNS 포스팅: 김아영 아카이브   김아영 학생 DB   KAY_웹기록																																																																																																		
제작자: 김아영   제작일: 2023-05-15   파일명: KAY_웹기록																																																																																																		
<b>KAY_웹기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NS 포스팅: 민족학자 김아영 아카이브 및 허가</li> <li>언론 기사: 스티븐 토마스(영문) 리뷰</li> <li>행사 프로그램: 아카이브 미디어 축제</li> <li>행사 프로그램: 아카이브 미디어 축제</li> <li>행사 프로그램: 아카이브 미디어 축제</li> </ul>																																																																																																		
<p>제작자: 김아영   제작일: 2023-05-15   파일명: KAY_웹기록</p>																																																																																																		
<table border="1"> <thead> <tr> <th>제작자</th> <th>제작일</th> <th>제작 내용</th> <th>제작자</th> <th>제작일</th> <th>제작 내용</th> <th>제작자</th> <th>제작일</th> <th>제작 내용</th> <th>제작자</th> <th>제작일</th> </tr> </thead> <tbody> <tr> <td>W001</td> <td>2023-05-15</td> <td>“[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td> <td>김정한</td> <td>2025</td> <td>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td> <td>김정한</td> <td>2025</td> <td>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td> <td>news1.kr/...-690576</td> <td></td> </tr> <tr> <td>W002</td> <td>2023-05-15</td> <td>“[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td> <td>백현주</td> <td>2025</td> <td>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td> <td>백현주</td> <td>2025</td> <td>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td> <td>news1.com/vie...-082512</td> <td></td> </tr> <tr> <td>W003</td> <td>2023-05-15</td> <td>“[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td> <td>백아름</td> <td>2025</td> <td>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td> <td>백아름</td> <td>2025</td> <td>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td> <td>news1.co.kr/...-997289</td> <td></td> </tr> <tr> <td>W004</td> <td>2023-05-15</td> <td>“[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td> <td>김정한</td> <td>2024</td> <td>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td> <td>김정한</td> <td>2024</td> <td>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td> <td>mdlibo.com/vie...-733857</td> <td></td> </tr> <tr> <td>W005</td> <td>2023-05-15</td> <td>“[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td> <td>김경일</td> <td>2024</td> <td>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td> <td>김경일</td> <td>2024</td> <td>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td> <td>koilibo.co.kr/news...-997289</td> <td></td> </tr> <tr> <td>W006</td> <td>2023-05-15</td> <td>“[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td> <td>백현주</td> <td>2024</td> <td>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td> <td>백현주</td> <td>2024</td> <td>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td> <td>munhwa.com/art...-453446</td> <td></td> </tr> <tr> <td>W007</td> <td>2023-05-15</td> <td>“[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td> <td>김경일</td> <td>2025</td> <td>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td> <td>김경일</td> <td>2025</td> <td>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td> <td>munhwa.com/art...-504766</td> <td></td> </tr> </tbody> </table>											제작자	제작일	제작 내용	제작자	제작일	제작 내용	제작자	제작일	제작 내용	제작자	제작일	W001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김정한	2025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김정한	2025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news1.kr/...-690576		W002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백현주	2025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백현주	2025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news1.com/vie...-082512		W003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백아름	2025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백아름	2025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news1.co.kr/...-997289		W004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김정한	2024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김정한	2024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mdlibo.com/vie...-733857		W005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김경일	2024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김경일	2024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koilibo.co.kr/news...-997289		W006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백현주	2024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백현주	2024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munhwa.com/art...-453446		W007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김경일	2025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김경일	2025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munhwa.com/art...-504766	
제작자	제작일	제작 내용	제작자	제작일	제작 내용	제작자	제작일	제작 내용	제작자	제작일																																																																																								
W001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김정한	2025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김정한	2025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news1.kr/...-690576																																																																																									
W002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백현주	2025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백현주	2025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news1.com/vie...-082512																																																																																									
W003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백아름	2025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백아름	2025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news1.co.kr/...-997289																																																																																									
W004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김정한	2024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김정한	2024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mdlibo.com/vie...-733857																																																																																									
W005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김경일	2024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김경일	2024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koilibo.co.kr/news...-997289																																																																																									
W006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백현주	2024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백현주	2024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munhwa.com/art...-453446																																																																																									
W007	2023-05-15	“[김아영] 언론 서비스 리뷰”	김경일	2025	부산문화예술관 전시 ‘2023. 05. 15. 이은 수강 재료’	김경일	2025	디자인일기(pdf) 하이버박	munhwa.com/art...-504766																																																																																									

## 교육생 A [기술] 실습 (Notion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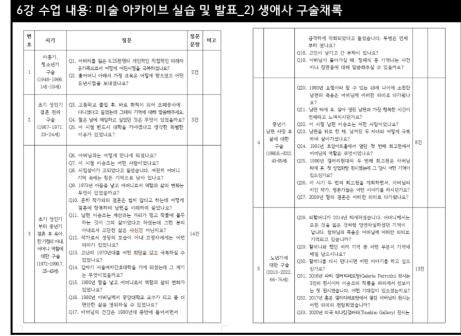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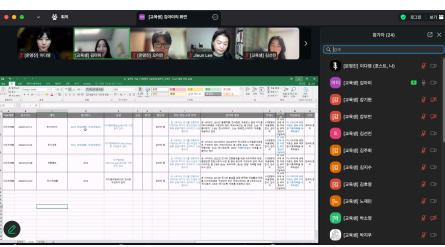
아이템 라벨											
기술내용	참조코드	제목	생산연도	유형	수령	위치	대표 이미지	생산자	수집정보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	도로잉	2016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2	도로잉	2016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3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4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5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6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7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8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9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0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1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2	도로잉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3	도로잉	2018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D_CCM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4	도로잉	2018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	페인팅	2016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2	페인팅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3	페인팅	2018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4	페인팅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5	페인팅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6	페인팅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7	페인팅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8	페인팅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9	페인팅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0	페인팅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1	페인팅	2017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2	페인팅	2018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아이템 라벨	KSU1988_P_ADK1 Color Chart for After DeKooning No 13	페인팅	2018	1 개인 소장자의 저작	김서울	김서울 제공					

## 교육생 B [기술] 실습 (실습용 엑셀 템플릿 활용 사례)

기술내용	필드	제목	생산년도	유형	수령	제작자	제작 내용	카드	언어
아이템 라벨	(아가온 대백화·외부 유통본 (상)) 도록	2025	전시시네마홀도록	272쪽	국립현대미술관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사용 시장에서 개인인 후수의 「아가온 대백화·외부 유통본」의 전시 기획본	추수, 국립현대미술관, 박덕선, 김민아, 연기미, 2025	한국어, 영어	
아이템 라벨	(아가온 인류비데이터 2 설계) 도로잉	2023	서울시티로드인	1회	주수	(이전 2. 2023) 2023년 2월 20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서울시티로드인 사용 시장에서 개인인 후수의 「아가온 인류비데이터 2 설계」	추수, 아가온, 2025	한국어	
아이템 라벨	(아가온 대백화·외부 유통본) 피리티 (디자인)	2025	전시인쇄물디자인	8쪽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아가온 대백화·외부 유통본」의 전시 기획본	추수, 아가온, 국립현대미술관, 2025	한국어, 영어	
아이템 라벨	『BLOOD CHILD』에는 어린 시대의 연인을 미리 예상했다는 드라마, 2025. p. 118. 주수, 디자인	2025	간행물/설지	6쪽	이경진, 주수, 디자인	2025년 2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BLOOD CHILD」에는 어린 시대의 연인을 미리 예상했다는 드라마, 2025. p. 118. 주수, 디자인	추수, 아가온, 이경진, 헤스드원강, 2025	한국어	
아이템 라벨	『한글로 낭만은 디자인 세계의 화이트』, 『아가온 대백화·외부 유통본』, 2025. p. 118. 주수, 디자인	2025	간행물/설지	1회	박우주, 디자인하우스	2025년 2월 19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한글로 낭만은 디자인 세계의 화이트」, 『아가온 대백화·외부 유통본』, 2025. p. 118. 주수, 디자인	추수, 이경진, 박우주, 2025	한국어	
아이템 라벨	(대 제작 과정) 관련 이미지	2025	디자인파일(이미지)	1회	박우주	(설계 과정) 관련 이미지이다. 모든 소스 파일은 디자인파일(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다. 디자인파일(이미지)은 「설계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추수, 설계 과정, 박우주, 2025	영어	
아이템 라벨	(아가온 과정 도로잉) 도로잉	2025	서울시티로드인	1회	주수	(설계 과정) 관련 이미지이다. 모든 소스 파일은 디자인파일(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다. 디자인파일(이미지)은 「설계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추수, 아가온, 2025	한국어	
아이템 라벨	『Skin-crawling eroticism of TZUOO's art』, The Korea Times, 주수, 민티류 (디자인)	2025	간행물/설지	1회	박한율, 주수, The Korea Times	2025년 2월 2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Skin-crawling eroticism of TZUOO's art」, The Korea Times, 주수, 민티류 (디자인)	추수, 박한율, 주수, 민티류, 2025	한국어	

## 교육생 C [기술] 실습 (실습용 엑셀 템플릿 활용 사례)

## ■ 6강 | 작가 아카이브 구축 실습 ②: 연보 작성과 구술채록

강의 분야	실습/발표				
강사 소개	이지은(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비스트, 독립 아카비스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장소 및 일시	[온라인] Zoom	2025년 9월 27일 (토) 16:00-18:00			
강의 내용	<p>작가 아카이브의 심화적 구성 요소로서 연보 작성과 구술채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보는 작가의 생애와 창작 활동을 연대기적 맥락에서 정리하는 핵심 자료로, 본 강의에서는 연보의 구성 원칙과 작성 절차를 상세히 다룬다. 또한 구술채록은 작가의 구술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여 자료화하는 과정으로, 작품 해석의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 <p>강의에서는 구술채록의 의의와 윤리적 고려사항, 인터뷰 설계, 질문 구성, 채록 및 편집의 실무 과정을 제시하며, 실습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p>마지막으로 연보와 구술채록 자료를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 전략을 고찰함으로써, 작가 아카이브 구축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한다.</p>				
강의 자료	<p><b>6강 실습(구술채록, 연보)</b></p>  <p><b>6강 수업 내용: 미술 아카이브 실습 및 발표_2) 생애나 구술채록</b></p> 				
<p><b>6강 수업 내용: 미술 아카이브 실습 및 발표_3) 작가연보</b></p> 		<p><b>Related Images</b></p> 			
진행 사진	 				

## 실습 결과물

<p><b>최만린(Choi Man Lin, 1935-2020) 구술 채록문</b></p> <p>최종수정일자: 2025. 09. 22. (월)</p> <p><b>일러두기</b></p> <p>이 구술 채록문은 원로 조각가 최만린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구술사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작성자는 「미술아카비스트 양성과정」 교육생으로서 실습 과제의 일환으로 공개된 전시 자료, 혹은 디지털 아카이브 영상을 바탕으로 면접을 구성하였다. 최만린의 생활을 연대기 중심으로 하여, 작성자는 구술 내용은 실제 작가의 언행을 최대한 존중하고, 문학적 기록에 근거하여 편집하였다.</p> <p><b>본문의 부호 및 약호</b></p> <p>( ): 영문 병기 표기, 구술자 행동 기록, 문장 안 ( )의 경우, 문장의 이해를 돋고자 작성      ↗: 언론, 단행본, 신문, 잡지 등의 제목      ↮: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등      &lt; &gt;: 작품명      &lt; &gt;: 전시명</p> <p><b>아동기와 청년기(1935~1960)</b></p> <p><b>Q1. 어린 시절과 조각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나?</b></p> <p>A1.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전쟁의 상흔을 직접 겪었다. 조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시절 윤사 박성구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홀로 인체를 빚는 수업에서 조각을 권유하였고, 그 영향으로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중학생 신분으로 입선하게 되었다. 박성구는 「조각에서 흙은 흙이 아니라 살이다」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이는 평생의 창작 태도의 표지가 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조소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조각가의 길을 걸었다. 1974~75년 미국 프로토 인스티튜트 연수는 조형 언어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특히 정학적 지침으로 국제적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p> <p><b>Q2. 전쟁 경험에 조각가로서의 길을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b></p> <p>A2. 전쟁의 상흔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계기가 되었다. 파괴된 삶에서도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절함이 있었고, 조각은 그 질문을 불리는 가장 솔직한 언어였다. 전쟁의 경험은 끊임없이 &lt;인류&gt; 시리즈로 이루어졌으며, 잘려 나간 시지와 거친 표면은 전쟁의 상흔이자 동시에 생존의 의지를 드러냈다.</p> <p><b>전쟁기와 탐험 (1960~1970년대)</b></p> <p><b>Q3. 1960년대 이후, 인체에서 주상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b></p> <p>A3. 단순한 제현만으로는 생각과 담을 수 없었다. 서구 모더니즘을 모방하기보다 한국인의 사유와 동양적 형이상학을 담고자 했다. &lt;천(天)&gt;, &lt;지(地)&gt;, &lt;인(人)&gt;, &lt;행(形)&gt;과 같은 작업은 자연의 질서와 원리를 조형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였다.</p> <p><b>Q4. 이 시기 대표작은 무엇인가?</b></p> <p>A4. 1970년대 이후 &lt;월월&gt;, &lt;천진&gt;은 악작이다. 우주의 음양, 대립과 조화의 원리를 조각으로 풀어내려 했으며, 추상적 형상 속에 한국적 정체성과 생명철학을 담고자 했다.</p> <p><b>원시기와 전성기 (1980~1990년대)</b></p> <p><b>Q5. &lt;태&gt;는 생명의 시작과 생성의 원리를, &lt;액(液)&gt;은 에너지의 흐름과 대지의 맥박을 표현한다. 물질과 생명, 개방과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조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이 시기의 작업의 전성기였다.</b></p> <p><b>Q6. 생명·美·순수 같은 개념을 조각으로 형상화할 때 가장 중시한 요소는 무엇인가?</b></p> <p>A6. 물질을 미술로 만드는 데에 있어 물질을 더 이상 살아 움직이며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p> <p><b>Q7. 1990년대부터는 &lt;O&gt; 시리즈가 중심을 이룬다. 그 상징은 무엇인가?</b></p> <p>A7. 원(圓)은 비움과 충만, 시작과 끝을 동시에 상징한다. 삼승형, 성성형, 결정체형 등으로 변화되며, 우주적 에너지와 생명 순환의 균율을 형상화하였다. 이는 동양</p>
---

## 교육생 A [구술채록] 실습

작가연보							
번호	구분	날짜	이미지	이미지 출판	내용	장소	출처
1	출생	1929-09-30 1933		4-5세 경 가족과 함께 (사진 가운데 옆에 앉아 있음)	김정열은 1929년 원로님도 윤산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시에 조예가 깊은 할아버지에게 글씨를 배우면서 윤산군 시에서 태어난 김정열은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다.	평안남도 영광군 저동면 증금리	제주도립 김정열 미술관 <a href="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a>
2	학력	1945		1945년 윤산군 고등학교 4학년 때 김정열은 <학년별로>에 당첨되었고, 윤산군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다.	1945년 윤산군 고등학교 4학년 때 김정열은 <학년별로>에 당첨되었고, 윤산군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다.	(김정합-나의 그림, 나의 삶) 김정열 그리던 그림, 일기 2008, pp. 20-22	
3	학력	1947~1950		1947~1950 (사진 가운데 옆에 앉아 있음)	1947년 윤산군 고등학교 4학년 때 김정열은 <학년별로>에 당첨되었고, 윤산군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다.	서울시 양천구 저동면 증금리	제주도립 김정열 미술관 <a href="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a>
4	학력	1949~1950		1949~1950	1949년 윤산군 고등학교 4학년 때 김정열은 <학년별로>에 당첨되었고, 윤산군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다.	서울시 양천구 저동면 증금리	(김정합-나의 그림, 나의 삶) 김정열 그리던 그림, 일기 2008, pp. 35-38
5	작업활동	1953		(사진 옆에 앉아 있는 김정열)	1953년 윤산군 고등학교 4학년 때 김정열은 <학년별로>에 당첨되었고, 윤산군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다.	제주시	제주도립 김정열 미술관 <a href="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a>
6	경력(사회활동)	1957		1957	1957년 윤산군 고등학교 4학년 때 김정열은 <학년별로>에 당첨되었고, 윤산군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글씨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닌다.	제주도립 김정열 미술관 <a href="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a>	
7	작업활동	1965		미국 시찰 김정열과 김정기, 1965	미국 시찰 김정열과 김정기, 1965	뉴욕	제주도립 김정열 미술관 <a href="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https://kimjungyeul.jeju.cnt/cmtnManager/view.do</a>

## 교육생 B [작가연보] 실습 (실습용 엑셀 템플릿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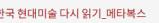
작가연보							
번호	구분	날짜	내용	이미지	이미지 출판	장소	출처
1	출생	1982	영지에는 1982년 충성하여 현재 서울에 거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영지의 대표 표로될 사진		영화티브
2	학력	2008	글드미스 대학교, 교수미술 석사, 우수졸업 센트럴 아트리스 대학교, 음수미술 석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석사와		영지, 영수 민정, 영수 서울, 대한민국		영지에 공식 홈페이지 영지에 공식 홈페이지 영지에 공식 홈페이지
3	개인전	2014-12-15 ~ 2014-12-29 2021-04-21 ~ 2021-05-22 2018-09-04 ~ 2018-12-25 2015-07-14 ~ 2015-08-02 2014-07-09 ~ 2014-07-29	(영지·영·모든 관점 블랙스) (Artist's Take-Over) (영지·영·모든 관점 블랙스) (모든 영에는 보이지 않는 행운이 있다) (영·모든)	    	(영지·영·모든 관점 블랙스) 포스터 (Artist's Take-Over) 포스터 (영지·영·모든 관점 블랙스) 포스터 (모든 영에는 보이지 않는 행운이 있다) 포스터 (영·모든) 포스터	금천예술공장, 서울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대구미술관, 대구 아트인사이트 프로젝트스페이스, 서울 미디어극장 아이콤, 서울	금천예술공장 송은 대구미술관 아트인사이트 미디어극장 아이콤

## 교육생 C [작가연보] 실습 (실습용 엑셀 템플릿 활용 사례)

## ■ 7강 | 디지털 아카이브 DB 설계 및 구축 실습

## 실습 결과물

**ITEMS 한국 현대미술 다시 읽기-메타복스**

Metadata		Linked resources	Tags	Edit item	
Title	한국 현대미술 다시 읽기-메타복스				
Description	한국 현대미술 다시 읽기, 오상길 역음, 청음사, 2000. 메타복스 파트 스캔본				
Alternative Title	Book scan 扫描版书				
Creator	 강부민  위키피디아 문의점 				
Date	[2025-10-16]				
Type	문서				
Format	PDF				
Extent	39.7MB				
Rights	CC BY				
Rights Holder	 강부민 				
Subject	한국 현대미술 메타복스 1980년대 미술				
Identifier	BM-001				
 <b>ID</b> 99 <b>Visibility</b> Public <b>Created</b> Oct 17, 2025 <b>Owner</b> 강부민 <b>Media (1)</b> 					

## 교육생 A [Omeka S] 아이템 등록 실습

**ITEMS 김환기와 결혼식을 치루는 김향안(1944)**

Metadata		Linked resources	Tags	Edit item	
Class	Image				
Title	김환기와 결혼식을 치루는 김향안(1944)				
Description	고희동의 주제, 정치용과 김진섭의 사회로 김환기와 김향은 결혼식을 올렸다. 성복동 274-1, 근원 선교에 지은 노사산방을 물려받아 보금자리를 꾸미고, 김환기의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기좌 도(현재 안좌면 읍동리 955)에서 그의 흙어머니와 딸 아이 생을 데려왔다. 김향안은 결혼과 동시에 본명 '변동립'에서 '김향안'으로 개명한다. 김환기의 성을 따라 김 씨로 바꾸었으며, 김환기의 이모였던 '향안(鄕安)'을 가져다 냈다.				
Alternative Title	Kim Hyang-an having a wedding with Kim Whanki				
Creator	 김경현  위키피디아 김향안 				
Date	[2025-10-16]				
Type	Image				
Format	Image				
Extent	362*550				
Rights	CC BY				
Subject	생애사 결혼식 김환기				
Reference	한기미술관				
Identifier	HY-001				
 <b>ID</b> 103 <b>Visibility</b> Public <b>Sites</b> Living Heritage In Pop Culture  Andy Warhol  1시 방향의 저글링때  강민지  <b>Created</b> Oct 17, 2025 <b>Owner</b> 김경현 <b>Media (1)</b> 					

## 교육생 B [Omeka S] 아이템 등록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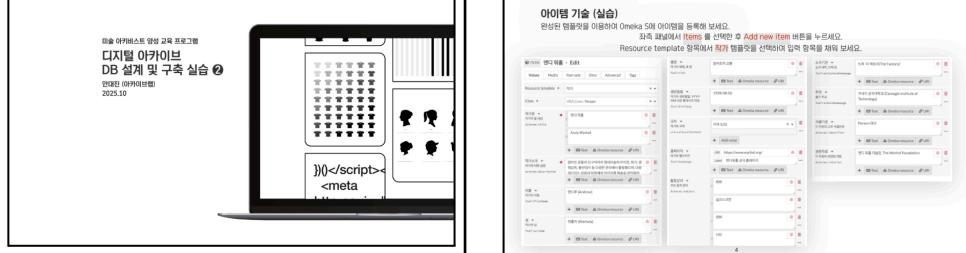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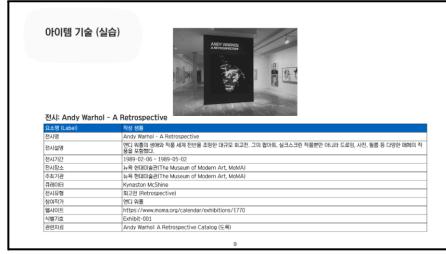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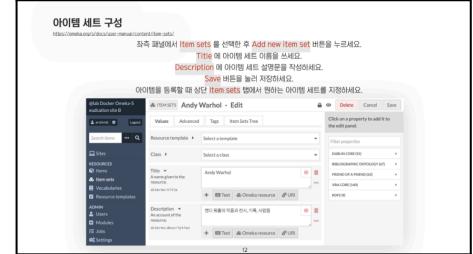
**ITEMS 서울기록원 시리즈 기술 정보**

Metadata		Linked resources	Tags	Edit item	
Class	Document				
Title	서울기록원 시리즈 기술 정보				
Description	서울기록원 시리즈 '공동주택 건설 기록' 중 '목동지구, 1983-01-01 ~ 1992-12-31' 시리즈 기술 정보				
Alternative Title	공동주택 건설 기록: 목동지구, 1983-01-01 ~ 1992-12-31 Records of Apartment Complex Construction: Mokdong District, January 1, 1983 ~ December 31, 1992				
Creator	 김선진  유튜브 				
Date	[2025-10-17]				
Type	문서				
Format	PDF				
Extent	71KB				
Language	한국어				
Rights	CC BY				
Rights Holder	 김선진 				
Is Replaced By	아카이브 주소 				
Subject	아카이브 시리즈 기록물 계층 서울기록원				
Reference	서울기록원				
Identifier	SO01				
 <b>ID</b> 113 <b>Visibility</b> Public <b>Created</b> Oct 17, 2025 <b>Owner</b> 김선진 <b>Media (1)</b> 					

## 교육생 C [Omeka S] 아이템 등록 실습



## ■ 8강 | 디지털 아카이브 DB 설계 및 구축 실습 ②

강의 분야	실습/발표	
강사 소개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겸임교수)	
장소 및 일시	[오프라인]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세미나룸	2025년 10월 18일 (토) 16:00-18:00
강의 내용	<p>지난 시간에 설계한 아카이브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보자원 등록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을 중심으로 실습을 확장한다. 수강생은 Omeka S를 활용하여 디지털 객체(문서, 이미지, 영상 등)의 등록, 외부자원 연결 등의 기능을 실습하며,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기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등록 과정에서 누락된 메타데이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보완하여 데이터 모델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작가나 큐레이터, 미술관, 박물관 컬렉션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추가하거나 태깅, 분류체계 설정 등을 통해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로서 이용자에게 풍부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방법을 심화 학습한다.</p>	
강의 자료	  	
진행 사진	 	

## 실습 결과물

<input type="checkbox"/> 한국관 『용적률 게임』 웹초대장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2016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용적률 게임』 귀국전 『The FAR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 전 설치물 <모니터 관람용 의자>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2016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용적률 게임』 귀국전 방명록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2016년 4월 7일 Winy Maas의 인터뷰 녹음파일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한국관 『용적률 게임』의 주요 대상 건물유형 다이어그램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한국관 『용적률 게임』 방문자들의 모습(한국관 『용적률 게임』 방문자들의 모습 사진)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1955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의 전체 고용자 중 영업부 비율(1955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의 전체 고용자 중 자 영업자 비율 조사 자료)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한국관 『용적률 게임』 전시장 조명 설치과정 사진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한국관 『용적률 게임』 OCA의 한유그룹사옥 건축모형 테이블부착 다이어그램 디자인 파일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한국관 『용적률 게임』 전시설계안 3D 시뮬레이션 사진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2016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용적률 게임』 귀국전 김성홍 『아트인컬쳐』 기고문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한국관 『용적률 게임』 3번 섹션 패널원고 관련 Richard Enos 코멘 트에 대한 김성홍 답변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정립건축문화재단 건축신문 인터뷰 녹취록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예술감독 선정 프리젠테이션 자료	<a href="#">+ ↎</a>	김선진	Oct 18, 2025

4 of 9 < > 76-100 of 210

## 교육생 A [Omeka S] 아이템 Import 실습

ITEMS "Skin-crawling eroticism of TZUSOO's art", ...		<a href="#">Edit item</a>		
	Metadata	Linked resources	Tags	
Title	"Skin-crawling eroticism of TZUSOO's art", The Korea Times, 추수 인터뷰(디지털)			
Description	2025년 8월 21일 발행된 웹 기사 "Skin-crawling eroticism of TZUSOO's art"이다.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박스에서 개최된 추수의 개인전 『아가문 대백과·외부 유출본』과 관련된 추수의 인터뷰를 실었으며 발행처는 더 코리안 타임즈(The Korean Times), 필자는 박한솔이다. 『아가문』 시리즈를 에로티시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내용과 함께 『아가문 5』, 추수의 사진, 『아가문 대백과·외부 유출본』의 전시 전경 사진을싣고 있다.			
Identifier	TZU2025.01/I_a/0008			
Date	2025			
Type	간행물/잡지			
Extent	945KB			
Creator	박한솔, 추수, 더 코리안 타임즈(The Korean Times)			
Language	영어			
ID	225			
Visibility	Public			
Sites	Living Heritage in Pop Culture	<a href="#">↗</a>		
Andy Warhol		<a href="#">↗</a>		
1시 방향의 저글링떼		<a href="#">↗</a>		
강민지		<a href="#">↗</a>		
Created	Oct 18, 2025			
Owner	박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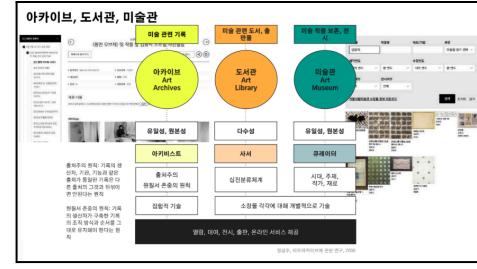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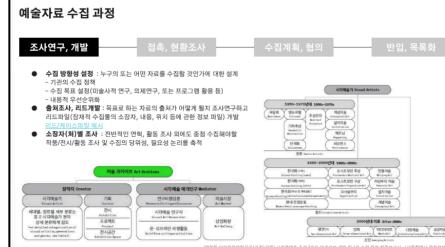
## 교육생 B [Omeka S] 아이템 Import 실습

강부민 어휘집	<a href="#">... boomin</a>	0	3
김경현 어휘집	<a href="#">... kyeonghyeon</a>	0	3
김선진 어휘집	<a href="#">... seonjin</a>	0	2
김주희 어휘집	<a href="#">... juhee</a>	0	3
김지수 어휘집	<a href="#">... jisoo</a>	0	3
김호영 어휘집	<a href="#">... hoyeong</a>	0	3
안대진 어휘집	<a href="#">... daejin</a>	3	2
오어진 어휘집	<a href="#">... eojin</a>	0	3
이가은 어휘집	<a href="#">... gaeun</a>	0	3
이가현 어휘집	<a href="#">... gahyun</a>	0	2
이도영 어휘집	<a href="#">... doyoung</a>	0	3
이채영 어휘집	<a href="#">... chaeyoung</a>	0	3
전시정보(박수정)	<a href="#">... soojung</a>	0	4
정충연 어휘집	<a href="#">... chungyeon</a>	0	3
최윤정 어휘집	<a href="#">... yunjeong</a>	0	2
한지현 어휘집	<a href="#">... jihyeon</a>	0	3
호경윤 어휘집	<a href="#">... sayho</a>	0	2

## 교육생 C [Omeka S] Vocabularies 실습



## ■ 9강 | 미술아카이브 예술정보자원 및 컬렉션 수집

강의 분야	현장견학	
강사 소개	유예동(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장소 및 일시	[오프라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2025년 10월 24일 (금) 16:00-18:00
강의 내용	<p>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공간을 소개하고, 미술아카이브가 수집, 보존하는 예술정보자원과 예술자료 수집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본다. 리드파일의 개발과 소장자 접촉, 소장현황 조사, 목록화, DB 구축 및 등록, 해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컬렉션이 개인의 영역에서 공동의 영역으로 이행되는 전반의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단계별로 주요하게 고려하여 계획, 실행해야하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수집 과정들이 어떻게 기록이 공개, 서비스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디지털미술아카이브로 같이 열람해보며 분석하고 실물자료를 열람해본다. 이를 통해 현대-동시대 미술 기록 수집이 다른 영역의 수집실천과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컬렉션 수집기획 역량을 심화한다.</p>	
강의 자료	<p>9강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미술아카이브 예술정보자원 및 컬렉션 수집</p>   	
진행 사진	 	

**실물 자료  
열람**



**보존 서고  
열람**



**라이브러리  
열람**



## ■ 10강 | 미술아카이브 매개로 한 기획

강의 분야	이론/사례연구	
강사 소개	유예동(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장소 및 일시	[오프라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2025년 10월 24일 (금) 16:00-18:00
강의 내용	<p>아카이브에 특화된 기관을 상상했던 것처럼, 미술아카이브를 매개로 한 기획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상상해본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전시, 연구, 디지털콘텐츠 기획과 구현과정을 살펴보며, 기록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결을 만들고 지식과 담론을 생산해왔는지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또는 미술계, 기록계의 협업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는지 회고하며, 기록과 학예를 아우르는 새로운 직능으로서 미술아카이비스트의상을 같이 그려본다.</p>	
강의 자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10강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교육 프로그램 <b>미술아카이브를 매개로 한 기획</b></p> </div> <div style="width: 45%;"> <p><b>미술 아카이브를 매개로 한 기획</b> <b>증거이면서 지식·정보, 예술실천</b></p> <p><b>미술 아카이브</b> 새로운 역사의 발굴 - 작품과 함께 아카이브가 분석과 해석의 대상, 정보와 맥락의 확장, 새로운 지식 생산</p> <p><b>미술에 제한되지 않는 연경</b> - 미술아카이브는 미술의 창작과 공연 전반에 다양한 정보,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치적, 문화적 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 미술아카이브의 기록 역시 미술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른 사회문화 현상을 맡는 기획이 될 수 있음</p> <p><b>작업으로서의 특성</b> - 작업에서 파생되는 기록인 만큼 박물적 성격과 예술작업의 한 부분으로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OO의 아카이브 <b>기록의 표면이 아닌 이면, 기저에 대한 담론 아카이빙을 주동하는 것은 무엇인가</b></p> </div> <div style="width: 45%;"> <p><b>영역의 경계는 없다</b> <b>아카이비스트 역시 기획자</b></p> <p><b>기획 협업</b> 정부의 상체, 시민 및 개인 아카이브 활용 콘텐츠 개발 <b>기획과 의도</b> 제작과 실행 <b>평가와 피드</b></p> </div> </div>	
진행 사진		

## 나. 멘토링 프로그램

### 1) 온라인 플랫폼

-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이 수강 중 겪는 궁금증 해소와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미술 아카이브’에 대해 교육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진행하였음.

[그림 25]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오픈채팅방 커버 및 특게시판 공지 예시



### ■ 운영 방식

- **플랫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운영 주체:** 비(B)파운데이션 담당자
- **운영 기간:** 교육 시작 전 최종 인원 선발 공지와 함께 개설되어, 프로그램 종료 시점까지 상시 운영
- **참여 인원:** 교육생 전원 참여
- **주요 기능:**

- ① **공지 전달** — 일정 변경, 강의 링크, 실습 자료 업로드 등 주요 공지를 실시간으로 안내

- ② **학습 Q&A** – 강의 내용, 실습 과제 관련 기술적 질문에 대한 피드백 제공
- ③ **자료 공유** – 강의자료 외 참고 문헌, 시청각 자료, 작가 아카이브 구축 사례 공유 등 추가 학습 자료 전달
- ④ **소통 및 피드백** – 참여 교육생-운영진 간 과제 진행 상황 공유 및 상호 피드백 유도

## 2) 클로징 토크 (Closing Talk)

- 참여 교육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느꼈던 자신의 소감과 미술 아카이브 관련 질문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오프라인 네트워킹 시간으로 마련되었음.
- 교육생들이 본 과정을 통해 형성한 미술 아카이브 직무 관련 문제의식과 개인적 진로 방향을 스스로 정리하고, 동료 교육생들과 함께 확장된 질문을 나누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함.

### ■ 진행 방식

- 온라인 설문(익명 질문지) + 오프라인 대화형 세션 병행
- 10회차 강의 종료 이후 1시간 (10월 25일 토요일 18:00-19:00)

### ■ 주요 질문 영역

- ① **미술 아카이브 실무** – 이론 및 사례 강의/실습 및 발표 강의 중 가장 도움이 된 부분,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 ② **커리어/직무 역량** – 기존 미술 아카이브 실무 경험 및 연구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국내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에 대한 전망, 미래 역량, 커리어 확장 가능성 탐진
- ③ **진로 고민** – 미술 아카이브 전문기관 정규직 취업을 위한 준비 사항(전공, 인턴, 프로젝트 등)은 물론 미술 분야의 특징을 살린 독립 프로젝트 활동 가능성 논의
- ④ **나만의 아카이브 공부법** – 관련 전공 여부를 떠나 아카이브 관련 웹사이트 추천, 커뮤니티 소개, 학습 루틴 및 네트워킹 제안
- ⑤ **프로그램 피드백** – 이번 프로그램의 진행 상 장단점, 특히 교육과정 진행 시기에 대한 교육생 입장의 일정 고료 요구, 다음 프로그램에 꼭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 주제(해외 관련 사례, 디지털·AI 연계, 팀 프로젝트 제작 등)의 다양한 의견 교환

[그림 26] 클로징 토크 진행 현장 사진



## 제3절.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평가 및 분석

### 1. 참여 교육생

- 10회차의 시범 운영 종료 후 교육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했던 교육생 25명(수료 인원 18명)을 대상으로 평가 설문을 진행했으며, 세부 평가 항목의 답변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및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음.
- 평가는 온라인(구글 폼 설문)을 통해 2025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취합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범 프로그램이 교육생의 전문 역량 강화와 학습 경험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후 개선점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평가 방식은 '정량 평가(만족도 조사-5점 리커트 척도)'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정성 평가(의견 수렴-서술형 응답)'를 병행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교육생의 의견을 균형 있게 측정 및 수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 평가 지표 구성 근거

- 평가 항목은 전체 교육과정 구조의 타당성 검증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다음의 주요한 영역으로 나누어 설계되었음.
- **직무 기반성:**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과 난이도의 적절성, 수료 후 활용 가능성 평가는 물론, 미술 아카비스트 직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역량 향상에 대한 개별차 정도의 확인,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스스로의 메타인지지를 엿보고자 함.
- **교육 과정 구성의 적절성:**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 세 가지 구성 요소의 균형과 만족도 파악을 진행하여, 각 회차별 주제 선정 및 순서 배치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회차별 참여자 이해도 청취를 통한 교육 내용 적정성 분석하고자 함.
- **참여자 경험:** '온·오프라인 교육 환경(장소/접근성)', '강의 진행 시간(2시간)' 및 '참여인원(20명 내외)'와 함께 사전 제공된 실무 가이드북의 활용도와 함께, 사전 공지 및 자료 제공 등 운영진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함. 추가로 강사의 강의 전달 능력과 수업 난이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주제/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 평가 분석 설계 원칙

- 평가 항목에 대한 설문 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음.
- 참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정량/정성) 결과 분석에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였음.
- **객관성과 주관성의 균형:** 5점 리커트 척도로 정량 평가를 실시하고, 서술형 응답으로 정성 평가를 함께 병행하여, 교육생의 실제 체감도와 구체적인 피드백을 다각도로 확보함.
- **구성요소별 세부 평가:**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 세 요소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구분하고, 별도로 운영 및 멘토링, 교재(가이드북)과 강사진 구성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음.

- **학습 효과 중심 평가:** 실제로 자신의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지, 학습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체감하였는지, 직무 이해도가 증진되었는지 등 교육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함.

### 가. 정량평가

- 참여 교육생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측정하고자 하였음.
-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와 더불어 멘토링, 교재(가이드북) 등이 서로 연결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통합적 학습 경험’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둠.
- 5점 리커트 척도로 교육생 응답 수집 하였으며, 4점 이상 응답 비율 중심으로 프로그램 품질 및 교육 만족도 종합 분석에 활용함.
- 평가 결과를 통해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강점과 개선 필요 사항 구체화하여, 향후 커리큘럼 설계, 실습 구성, 교육 환경, 진행 방식 등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하고자 함.

### ■ 평가 항목

-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 직무이해도, 실무 역량 향상도, 현장 적용 가능성, 교육과정 구성의 합리성, 강의 난이도,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
- **이론·사례 강의에 대한 평가:** 강의 주제의 타당성과 회차 구성의 적절성 확인
- **실습·발표 중심 강의에 대한 평가:** 실습 주제의 타당성과, 구성의 적절성 확인 및 실무 능력 향상 효과 등 검토
- **현장 견학의 효과성:** 기관 현장 견학을 통해 미술 아카이브 관련 지식 함양에 실제적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
- **가이드 북 제공 및 운영 측면:** 교육 환경(시간, 장소, 인원)과 더불어 자료 제공 및 운영 측면이 적절하였는지 평가
-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역량 인식 변화:** 교육 전후로 인식된 핵심 역량을 추출하고, 복수응답을 기반으로 이론·실습·견학이 미친 영향을 분석

### ■ 종합 분석

- 정량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핵심 장점으로는 가이드북 제공의 품질과 안정적인 운영 체계, 실습·현장 견학 기반 실무 연계 과목 구성, 소규모 집중형 수업 구성, 강사의 전문성 및 커리큘럼 구성력으로 분석됨.
- 개선해야 할 요소로는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진행하다보니 오프라인의 경우 지방 거주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부분이 존재하며, 매끄러운 실습을 위해 회차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등이 있음.

## ■ 5점 리커트 척도

[표 68] 참여 교육생 정량평가 만족도 분석

항목	5점(매우 만족) 비율	4점(만족) 비율	3점(보통) 이하
전문 역량 향상 도움 여부	60%	35%	5%
실습의 현장 적용성	60%	30%	10%
커리큘럼 구성 적절성	50%	35%	15%
강사의 전달력	55%	30%	15%
구성과 난이도	45%	40%	15%
교육 환경	60%	25%	15%
가이드북·교재 만족도	80%	15%	5%
공지 및 자료 제공	80%	20%	-
강의 시간 (2시간) 적절성	55%	35%	10%
참여인원 (20명) 적절성	75%	15%	10%
[이론/사례] 회차 구성	65%	20%	15%
[이론/사례] 강의 주제	70%	20%	10%
[실습/발표] 회차 구성	55%	30%	15%
[실습/발표] 실무 연계성	55%	35%	10%
[현장 견학] 유익성	80%	20%	-

### ① 전문 역량 향상도: 4점 이상 95%

전체적으로 참여 교육생들은 이번 과정이 미술 아카이브 실무 역량 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특히 아카이브 구조를 이해하는 실습 및 사례 강의와 자료 분류·기술·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습을 진행하며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핵심 역량에서 향상을 체감한 것으로 분석됨.

### ② 실습의 현장 적용성: 4점 이상 90%

실습 수업을 통해 함양한 지식이 실제 기관·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율 또한 매우 높게 평가됨. 이는 4회차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한 실습 과정을 현장 실무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됨.

### ③ 커리큘럼 구성 적절성: 4점 이상 85%

참여 교육생 다수는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 ④ 구성 및 난이도: 4점 이상 85%

참여자의 배경 수준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대다수. 일부 실습 회차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미술 아카이스트의 직무 특성상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자연스러운 범주로 분석함.

### ⑤ 강사의 전달력: 4점 이상 85%

강사의 전문성과 강의 콘텐츠 구성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회차에서 ‘강의 진행 속도·정보량’과 관련된 의견 차이 존재. 이는 차기 운영에서 교육생 배경 수준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 방식의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⑥ 이론/사례 회차 구성: 4점 이상 85%

### ⑦ 이론/사례 강의 주제: 4점 이상 90%

교육생 대부분은 [이론/사례] 강의 회차 구성과 강의 주제가 실제 미술 아카이브 직무 이해를 넓히는데 적합했다고 평가. 기록학 개론과 미술관·기관 사례, 예술가 아카이브 구축 및 국내·외 제도 등을 다룬 주제의 유용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 ⑧ 실습/발표 회차 구성: 4점 이상 85%

### ⑨ 실습-실무 연계성: 4점 이상 90%

교육생 대부분은 [실습/발표] 강의 회차 구성과 실무 연계성이 적합했다고 평가. 실습 파트는 참여자들이 가장 뚜렷하게 ‘실무 연계성’을 경험한 부분으로, 자료 목록화 및 분류 및 기술, 작가 연보 작성, 구술 채록, 메타데이터 구축 관련한 실습들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함.

### ⑩ 교육 환경: 4점 이상 85%

교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일부 회차에서 음향·화면 품질 또는 오프라인 강의가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관련된 물리적 제약 관련 피드백 존재. 이는 정규 프로그램 구성시 오프라인 강의 또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⑪ 가이드북·교재 만족도: 4점 이상 95%

전체적으로 참여 교육생에게 가이드북(PDF/E-Pub)의 품질과 구성, 학습 편의성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특히 아카이브 실무 매뉴얼, 용어집, 지침 등 실무 기반 자료의 활용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함.

**(12) 공지 및 자료 제공: 4점 이상 100% (최고치)**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항목 중 하나로, 운영진의 공지, 링크 제공, 자료 공유 등 운영체계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13) 강의 시간(2시간) 적절성: 4점 이상 90%**

교육생 대부분은 강의 시간(2시간) 구성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각 회차별 집중도가 유지되었음.

**(14) 참여 인원(20명) 적절성: 4점 이상 90%**

교육생 대부분은 참여 인원(20명 내외)의 소규모 집중형 수업 형태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수료 인원(18명)의 결과치로 보았을 때도 20명 내외의 인원의 적절성 시사됨.

**(15) 현장 견학(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유익성: 4점 이상 100% (최고치)**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항목 중 하나로, 실제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기록물의 보존 환경과 아카이브 열람 등의 과정의 경험이 유익하다는 평가됨.

## 나. 정성평가

- 참여 교육생의 주관적 학습 경험과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 수업별 실제 체감 나이도, 학습 몰입도, 전문성 인식 변화 종합 분석하고자 함.
- 문장식 응답 내용에서 중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특정 회차 및 주제별 몰입도, 나이도, 활용도 비교를 통한 프로그램 구성 우선순위 및 개선점 도출하고자 함.

### ■ 평가 항목

- **학습 이해도 및 확장성:** 새롭게 경험한 아카이빙 기술과 지식, 미술 아카이브 직무에 대한 인식 변화, 실무 개념이 구체화 정도를 파악함.
- **실제적 도움 및 향후 활용도:** 교육생 소속 기관이나 미래에 계획 중인 연구·기획 활동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경험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기대치를 파악하고, 직무 역량 향상을 바탕으로 재직기관 내 프로그램 제안, 개인 프로젝트 구상 등에 대한 실행 가능성 여부를 파악함.
- **특히 인상 깊었던 학습 경험:**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 각 구성 요소 중 교육생이 가장 몰입하거나 성취감을 느낀 회차를 분석하여 실제 경험 기반의 학습이 교육 효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이해가 어려웠던 내용 및 나이도 조정 필요성:**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의 각 구성 요소 중 교육생이 가장 나이도가 높다고 느꼈던 회차나 개념, 기술 요소 등을 중심으로, 향후 커리큘럼 조정 방향성과 지원 방식(예: 보조자료, 사전설명 등)에 대한 논의를 수용함.
- **보완이 필요한 주제 및 학습 요구:** 교육생들이 제안한 추가 학습 내용 또는 심화 주제를 취합하여, 후속 교육 과정의 주제 다양성과 교육 나이도 조정 근거로 삼고자 하였음.

- **수료 후 아카이브 관련 활동 계획:** 교육 종료후 실제로 미술 아카이브 업무에 참여할 의지와 방식(직무 내 적용, 기관 제안, 독립 프로젝트 추진 등)을 조사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향후 미술 아카이비스트로서의 전문 역량 실천으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지니는지 확인함.
- **프로그램 추천 의향 및 종합 만족도:** 본 교육을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를 통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전문성, 실용성, 참여 경험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 종합 분석

- 정성평가는 총 8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생이 경험한 학습 효과, 참여 동기, 실무 연계성, 인상 깊은 회차, 보완점, 향후 실천 의지 등에 대한 서술형 답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다수의 교육생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모호했던 '미술 아카이브' 개념이 구체화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다음 영역에서 반복적인 응답이 나타나 해당 내용의 학습 전환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교육생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실습'과 '현장 견학'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음. 특히 다음 영역에서 교육생들의 몰입과 학습 성과에 영향을 준 이유로 언급됨.
- 일부 교육생은 미술 아카이브의 건별 기술 항목, 디지털 아카이빙과 같은 정보기술 기반 개념, 혹은 전문 용어에서 난이도를 느낀 것으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은 보완 요청사항을 제시함.
- 교육생 약 90% 이상이 본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향후 아카이브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반복해서 언급된 키워드와 응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였음.

#### ① 교육 효과: 이해도 향상 및 실무 적용 가능성

- **아카이브의 구조 이해:** “단순 수집이 아닌 기술, 분류, 메타데이터 기반의 체계 구성이라는 점을 처음 인지했다”는 응답이 다수 존재함.
- **실무 적용 가능성:** 작가 연보 작성, 목록화 실습, 구술채록 실습 등을 통해 “단기간에 실제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현장 견학을 통해 실제 기관 운영과 공간 구조를 이해한 것도 실효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비전공자/초심자 수강생도 만족:** 관련 분야 경험이 없던 수강생도 “실제 사례 중심 설명, 용어집 제공, 가이드북 덕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② 인상 깊은 회차 선정과 학습 몰입도

- **현장 견학(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교육생 전원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실제 미술 아카이브를 열람하며 기록물 보존 공간과 열람 시스템 등을 직접 체험한 경험이 매우 인상 깊었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 **작가 구술 채록 실습:** 실제 인터뷰 준비와 녹취 분석 과정을 체험하면서 “아카이브가 단순 보관이 아닌 ‘관계와 해석’의 과정임을 체감했다”고 응답함.
- **작가 연보 작성과 분류 실습:**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목록의 설계가 결국 아카이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례가 다수였음.

## ③ 이해가 어려웠던 주제와 개선 제안

- **초심자 대상 사전 안내자료 제공 요청:** “수업 전 용어 개념 정리, 추천 자료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다수. 이에 해당하는 ‘용어 개념집’과 ‘참고자료’ 등이 가이드북에서 사전 배포되었지만 각 회차별 예습 가이드 혹은 Q&A에 대한 공지가 추가로 필요했음을 시사함.
- **기술 주제 보완:** 메타데이터, 디지털 전환,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기본 설명이나 실습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연계 활동 설계:** “한 기수 교육 후 실무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과정 또는 네트워킹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일부 존재함.

## ④ 수료 후 방향성 및 기대 전망

- **재직 기관내 기록 관리 개선안 제안**
- **작가 아카이브 기획 및 프로젝트 공모 준비**
- **미술 아카이브 연구/기록 기반 연구 활동 기대**
- **본인이 생산하는 작업기록 정리 시작**

⑤ 추천 의향 및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평가: 프로그램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며, ‘전문성과 실용성의 균형’, ‘실습 기반의 체계적 학습’, ‘우수한 강사진’, ‘운영진의 꼼꼼한 진행’ 등이 구체적인 이유로 제시되었으며, 교육생 대다수가 추후 프로그램 진행 시 적극적인 추천 의사를 밝힘.

## 2. 워킹그룹

- 본 시범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한 워킹그룹(강사진)을 대상으로 운영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였음.
- 강의 현장에서 직접 교육생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조적 타당성, 교육생 참여도, 강의 방식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층적 관점에서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평가는 2025년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구글 품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기반의 정량 평가와 서술형 응답을 통한 정성 평가를 병행하였음.
- 강사진의 실무 경험에 기반한 피드백은 향후 프로그램 고도화 전략 수립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 평가 지표 구성 근거

- 평가 항목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음.
- 전체 교육과정 구조의 타당성 검증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① **운영 방식 및 참여도:**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도, 일정 조율 원활성, 교육생 수업 참여도 및 태도 평가
  - ② **교육 과정 구성의 적절성:**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 세 요소의 균형성, 각 커리큘럼의 주제 선정 및 순서 구성의 합리성, 강의 내용과 참여 교육생 수준과 부합했는지에 대한 평가
  - ③ **강의자의 경험:** 온·오프라인 교육 환경(장소/접근성) 만족도, 실무 가이드북의 활용성 점검, 공지 및 자료 제공 등 운영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 평가
  - ④ **강의 진행의 적절성:** 강의 구성(10회차), 강의 시간(2시간) 및 참여인원(20명 내외)의 적절성, 추후 보강되면 좋을 주제/콘텐츠에 대한 평가

### ■ 평가 분석 설계 원칙

- 평가 항목에 대한 설문 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음.
- 워킹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정량/정성) 결과 분석에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였음.
  - ① **객관성과 주관성의 균형:**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한 정량적 측정과 서술형 응답을 통한 정성적 의견에 대한 병행 분석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강사진의 실제 체감도와 세부 피드백을 확보함.
  - ② **구성요소별 세분화 평가:** 프로그램이 [이론/사례], [실습/발표]가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설계함.
  - ③ **학습 효과 및 제언:** 현장 강의에서 느낀 피드백(교육생들의 이해도, 실습 접근 방식, 과제 수행 과정 등)을 파악하고, 향후 미술 아카이브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및 방식(국내 사례 중심 구성, 보다 다양한 직군과의 협업, 멘토링 기반 세션 등)과 보완점을 제언으로 요청하여 개선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함.

## 가. 정량평가

- 참여 강사진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측정하고자 하였음.
- [이론/사례]와 [실습/발표] 각 강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평가 항목 구성하여, 회차별 진행 시간의 적정성, 교육생들의 참여도, 교육 주제 선정 적합성, 온·오프라인 진행 방식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둠.
- 5점 리커트 척도로 교육생 응답 수집 하였으며, 4점 이상 응답 비율 중심으로 프로그램 품질 및 만족도 종합 분석에 활용함.
- 평가 결과를 통해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강점과 개선 필요 사항 구체화하여, 향후 커리큘럼 설계, 실습 구성, 교육 환경, 진행 방식 등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하고자 함.

### ■ 평가 항목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 교육 운영 방식의 원활성, 커리큘럼 구성과 회차별 주제의 적절성, 운영진과의 협업 만족도 등을 측정
- **교육생 반응에 대한 평가:** 참여 교육생들의 학습 태도, 수업 몰입도, 강의 수용도 등 교육생의 참여 양상 및 학습 이해 수준에 대해 분석
- **강의 방식 및 운영 구조에 대한 평가:** [이론/사례], [실습/발표] 강의로 구분하여 적정 강의 시간, 운영 방식(온·오프라인),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 교육 환경(시간, 장소, 인원)과 더불어 운영 측면이 적절하였는지 평가
- **강사의 자기 평가 및 향후 참여 의사:** 본인의 강의 내용과 전체 프로그램 목적의 부합 여부, 추후 재참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제언을 별도로 요청

### ■ 종합 분석

- 정량평가는 총 8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은 5점(매우만족)-4점(만족)-3점-(보통)-2점(불만족)-1점(매우 불만족) 척도로 평가되었음. 시범 운영임에도 전체 응답이 만족도 부분에서 5점·4점으로 수렴되어,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전반에 대한 강사진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줌.
- 특히 운영진과의 협업, 교육생의 수업 태도, 강의 운영 적절성 등에서 두드러진 긍정 응답이 확인됨. 추가로 [이론/사례] 강의와 [실습/발표] 강의에 대한 객관식 응답을 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각 강의 진행 방식의 적절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하였음.

## ■ 5점 리커트 척도

[표 69] 워킹그룹 정량평가 만족도 분석

항목 요약	5점 비율	4점 비율	3점 이하
운영 방식 및 일정의 원활성	100%	-	-
커리큘럼(주제·순서)의 구성 타당성	75%	25%	-
교육생의 수업 태도 및 몰입도	-	100%	-
강의 내용과 교육생 수준의 적합성	25%	75%	-
교육 환경(장소/접근성/기술 등) 만족도	75%	25%	-
강의 내용과 전체 커리큘럼 목적의 부합 여부	25%	75%	-
운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사전 조율·피드백 등)	100%	-	-
유사 프로그램 재참여 의향	75%	25%	-

### ① 운영 구조의 안정성: 5점 이상 100% (최고치)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항목 중 하나로, 운영진의 공지, 협의 과정이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 ② 커리큘럼 구성 타당성: 4점 이상 100%

75%가 ‘5점(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여, 10회차 구성이 주제 간 연계성을 적절히 다루고 있음을 확인함.

### ③ 교육생 수업 태도: 4점 이상 100%

모든 응답이 ‘4점(만족)’ 이상으로, 강사진 전원이 교육생들의 태도와 몰입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음.

### ④ 강의 내용과 교육생 수준의 적합성: 4점 이상 100%

모든 응답이 ‘4점(만족)’ 이상으로, 참여 교육생들의 배경 지식 차이를 고려할 때 강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절했다는 평가였으나, 일부 강사진은 ‘다소 다양한 학습자의 이해도 격차’에 따른 설명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⑤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 4점 이상 100%

모든 응답이 ‘4점(만족)’ 이상으로, 음향, 화면, 접근성 등 공간·기술적 요소에 대체로 만족함.

#### ⑥ 강의 내용의 일관성: 4점 이상 100%

모든 응답이 ‘4점(만족)’ 이상으로, 강사진은 자신의 강의 내용이 전체 커리큘럼의 목적 및 흐름과 부합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설계 초기에 세부 협의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로 해석됨.

#### ⑦ 운영진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5점 이상 100% (최고치)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항목 중 하나로, 운영진과의 사전 일정 협의, 수업 피드백, 자료 전달 등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함.

#### ⑧ 재참여 의향: 4점 이상 100%

모든 응답이 ‘4점(만족)’ 이상으로,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추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확인됨.

### ■ 객관식 응답

[표 70] 워킹그룹 정량평가 만족도 분석

항목 요약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이론/사례] 강의의 적정 진행 방식	25%	25%	50%
[실습/발표] 강의의 적정 진행 방식	50%	50%	-
항목 요약	1시간~2시간 내외	2시간~3시간 내외	3시간~4시간 내외
[이론/사례] 강의의 적정 진행 시간	100%	-	-
[실습/발표] 강의의 적정 진행 시간	-	50%	50%

① [이론/사례] 강의의 적정 진행 방식: ‘온+오프라인 혼합’형의 응답이 50%로, 강의 주제에 맞게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확인함.

② [실습/발표] 강의의 적정 진행 방식: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은 비율로 채택되어, 각 실습 강의의 성격에 따라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③ [이론/사례] 강의의 적정 진행 시간: 모든 응답이 ‘1시간~2시간 내외’로 제출되었으며, 시범 운영 프로그램에서 구성한 강의 시간(2시간 이내)이 적절하였음.

④ [실습/발표] 강의의 적정 진행 시간: ‘2시간~3시간 내외’와 ‘3시간~4시간 내외’ 응답이 같은 비율로 채택되어, 마찬가지로 각 실습 강의의 성격에 따라서 적정 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나. 정성평가

- 참여 강사진 관점에서 경험한 프로그램의 주관적 의견을 수집·분석하고자 하였음.
- 정량 설문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강사진의 구체적인 경험과 판단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 되었음.
- 특히, 시범운영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점검하고 후속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각 개별 응답을 통해 시범운영 프로그램의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다음 단계의 ‘심화·확장’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 평가 항목

-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 프로그램 전체 구조(회차 구성, 흐름, 시간 배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강의 주제와 참여 교육생 참여도를 검토하고자 하였음.
- **교육생 반응과 참여 분위기 평가:** 전체 강사진이 상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업 중 참여 교육생의 태도, 집중도, 질문, 피드백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 **향후 이론 수업에서 다뤄질 주제 및 방식 제안:** [이론/사례] 강의를 진행한 전체 강사진이 상세 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이론·실무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실습/발표 강의에 대한 운영 및 난이도 평가:** [실습/발표] 강의를 진행한 각 강사진이 상세 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워크숍, 결과 발표, 소프트웨어 실습에서 나타난 교육생의 이해도와 접근 방식을 평가. 선행 강의·과제와 실습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실습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Omeka 등)의 난이도와 시간 배분의 적절성을 검토함.
-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점 제언:** 지속 가능한 미술 아키비스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강의 주제, 교육생 구성, 강의 흐름, 시간 배분, 실습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점에 대한 제언을 요청하였음.

### ■ 종합 분석

- 정성평가는 총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워킹그룹(강사진) 4인의 자유 서술형 문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전체에 관련된 제언과 각 [이론/사례], [실습/발표] 강의에 대한 교육생 반응과 참여 분위기 평가, 수업의 운영과 난이도 평가, 향후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방식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반복해서 언급된 키워드와 응답은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였음.

#### ①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

- **세분화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의 필요성:** 참여 교육생 다수가 미술 분야 전공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구성은 기록 관리 전공자에게는 다소 익숙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미술 분야 종사자에게 학습 효과가 더 높게 설계됨.

따라서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생의 폭을 오히려 ‘미술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록 관리 이론과 실습 내용을 현행보다 더 심화하여 구성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미술 아키비스트 실무를 다루는 기록의 수집과 도큐멘테이션, 정리와 기술, 보존, 시스템 구축, 이용자 서비스, 저작권 등 실제 업무 단위별 세분화 된 강의가 양성 교육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소규모·팀 기반 실습 구조의 필요성:** [실습/발표] 강의 진행 2시간 내 정해진 인원(20명 규모)의 발표·피드백을 심도있게 다루기엔 시간·인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 이를 위해 실습 전 브레인스토밍과 자료 준비를 위한 사전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개인 프로젝트 방식보다 팀 협업 프로젝트 실행 등의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입문·기초 과정으로서의 의의와 심화 과정 단계의 필요성:** 본 프로그램은 미술 아키비스트에게 필수적인 다양한 역량을 고르게 다루며, 입문·기초 실습 과정으로서 의미 있게 구성되었다고 평가됨. 향후에는 분야별 심화 과정 등 단계별 구조화가 필요함. ‘미술 아키비스트’ 분야는 인지도와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생 간 전공, 실무 경험, 이해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명확한 타겟층을 정하고 수준별 맞춤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일반 과정에서는 아카이브 전반 개념과 보편적 관리 방안을 다루고, 심화 과정에서는 미술 특화 영역(회화, 설치미술, 퍼포먼스 아트 등)의 실습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제안됨.
- **직무 확장성을 반영한 ‘역량 정의’와 장기 성과 관리:** 최근에는 미술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기록관리를 넘어 디지털 환경, 정보산업, 문화기획, 예술창작 등과 연계된 협업 모델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 아래 프로젝트 단위 아카이빙, 작가 협업 등 동시대 실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역량 정의’ 연구가 필요함. 또한 참여 교육생들의 후속 진로, 현장 참여, 재이수 여부 등의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교육 시간의 배분 및 조정:** 이론 강의와 실습 시간은 각 2시간 이내로 배정되었으나 이론 수업을 2시간 동안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이론 수업 배정 시간은 90분 내외로 압축하되 실습 강의는 과정의 성격에 맞춰 현재보다 시간 배분을 ‘2시간~3시간’ 내외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② 세션 구조 및 운영방식의 전략적 활용

- **실습 및 현장 견학 파트 강화:** 참여 교육생은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수업에 적극 참여했으며, 특히 실습과 현장 견학 회차에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실습, 현장 견학은 단순히 흥미를 끄는 요소가 아니라 교육 설계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방식의 전략적 활용:**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높은 집중력이 유지되고, 온라인 환경에서는 채팅 기반 질문이 활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각 매체의 교육적 특성을 골라 적용하고, 나이도가 높은 회차에는 실시간 Q&A 세션을 늘리고 소규모 분반 운영 등의 혼합 방식으로 질의·토론 기회를 넓혀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③ 실습 난이도 조정 및 사례 교육 방법론의 재설계

- **전문 주제에 대한 심화 교육의 필요성:** 정리·기술, 디지털 보존, 아카이브 서비스 설계, AI 기반 실무 도구 활용, 멘토링 기반 세션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기획 역량과 협업 능력을 전문 주제별로 집중해서 익히는 심화 강좌를 구성이 필요함.
- **개괄식에서 맥락 탐구로의 전환:** 하나의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따라가며 '기획-기록-운영-활용'의 연결 고리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방식을 제안함. 이론과 사례를 개괄하는 방식을 '사례 재현과 응용' 중심 학습 경험으로 전환하여 교육생이 직접 기획안을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실무적 사고력과 기획 판단력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선행-후속 강의간 연계성 강화:** [실습/발표] 강의 회차의 경우, 선행-후속 강의가 보다 긴밀하게 연결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미술 아카이브의 '분류 및 기술' 회차에서 생산된 실습 자료는 'Omeka' 보다는 'AtoM'이나 'Archive Space'와 같은 전통적인 카탈로그 시스템 도구가 적합했을 수도 있음. 향후 실습 과정에 있어 선행-후속 강의 간의 구체적 목표의 설정과 면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사들이 사전에 과제 설계 단계부터 도구 특성과 데이터 구조를 함께 기획하여 긴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방식을 추천함.
- **난이도 및 분량 조정:** 소프트웨어 실습 과정에 대해 대다수 수강생은 매우 만족한 반면, 일부 수강생은 기술적으로 따라오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었음. 짧은 시간 내 전문적인 개념과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전달함에 있어 교육생들 입장에서 난이도와 정보량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됨. 이를 위해 실습 과제를 축소하거나 또는 실습 시간을 교육생 입장에서 충분하게 늘리는 융통적인 방식을 고려하고, 실습 회차를 주제와 도구 특성에 따라 난이도와 '단계(입문-중급-심화)'별로 과정을 세분화하여 변별력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가. 소결

#### ■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 교육생 및 워킹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 본 시범 프로그램은 참여했던 인원마다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표하였음. 특히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구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 교육을 마친 수료생 대부분이 높게 평가하였음.
-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로 참여했던 인원들이 다양한 항목에 걸쳐 평가한 분석 결과는 미술 아키비스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식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시 보완해야 할 세부 요소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교육생들의 운영 구조 및 커리큘럼에 높은 만족도

-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의 측면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생들로부터 가장 높은 만족도를 차지했으며, 과반수 이상이 커리큘럼 및 회차 구성,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답하였음.
- 특히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으로 단계별 연계된 흐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교육생들은 이를 “짧은 기간에 핵심을 두루 익히게 해주는 알찬 프로그램”이라고 호평함.

#### ■ 강사진들의 학업 성취도 및 경험의 질적 향상에 호평

- 강사진 평가에서 참여 교육생들의 수업 태도와 몰입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학습 요소들이 결합되어 경험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냈음을 시사함.
- 20명 내외로 진행된 수강인원, 회차별 2시간 이내로 진행된 강의 시간 역시 적정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강의 시간 및 규모 면에서 적절하게 집중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 커리큘럼 구성 및 나이도의 적절성

- [이론/사례], [실습/발표], [현장 견학]이 10회차에 걸쳐 배치한 이번 시범 운영은 구성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는 평이 대다수였으며, 다양한 배경의 교육생들이 참여했음에도 대부분은 나이도가 적절했다고 응답함.
- [실습/발표] 회차의 이해도면에서의 나이도적인 부분은 추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예비 인력들이 참여하기에 무리 없는 나이도로 설계된 것으로 분석됨.

## ■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역량 함양 모델 제시

- 미술 아카이비스트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는 교육 모델로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음.
- 만족도 4점 이상 95%으로 참여 교육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미술 아카이브 실무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
- 아카이브 구조 이해 실습, 자료 분류·기술,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핵심 실무과정을 거치면서 미술 아카이비스트로서의 핵심 역량 향상을 체감한 것으로 분석됨.

## ■ 운영 및 성과 관리 체계

-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과 성과 관리 체계 역시 참여 교육생과 강사진으로부터 매우 만족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됨. 교육생은 사전 공지, 자료 제공 등 운영 측면에 대해 전원이 만족을 표했으며, 사전에 제공된 가이드북을 비롯한 학습 자료의 품질과 구성도 95%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음. 운영진과의 일정 조율, 교육생 대상 수업 피드백과 참고자료 공유 등의 소통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됨.
-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뿐 아니라 강사진까지 추후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재참여 의사를 밝힐 만큼 전체적으로 운영 만족도가 높았음.

## 나. 시사점

-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정규화의 타당성:**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이론과 실무 지식을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음. 약 90%에 이르는 교육생들이 수료 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재직 기관 기록 관리 개선 제안, 작가 아카이브 기획, 미술 아카이브 연구, 개인 기록 정리 등 미술 아카이브 관련 활동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이런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일방적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다루고 교육생의 자발적 동기까지 끌어낸 실질적 효과가 큰 교육이었음을 보여줌.
- **현실적인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직무 능력 파악:** 프로그램 수료 후 교육생들은 미술 아카이비스트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으로 ‘분석력’, ‘해석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장 많이 선택했음. 기록물을 분석·해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카이브를 직접 기획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등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주도적인 직무 역량을 교육생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현실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교육으로 꼽은 세부 항목들로는 ‘작가 연보 작성’, ‘구술채록’, ‘자료 목록화부터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었음. 이것들은 모두 실습 수업에서 교육생마다 직접 해보았던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단기간일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장 답사 경험 및 미술 아카이브 기관의 확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기관 방문에 대해 교육생 전원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함. 미술 아카이브 관련하여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견학 수업만의 경험적 학습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남. 방문 당시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전에 강의에서 선행된 심도 있는 학습 요소들이 결합되어 경험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냈음을 시사함. 향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같은 미술관부터 민간 아카이브까지 보다 다양한 형태의 미술 아카이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집- 전시- 연구’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의 개발이 권장됨.

-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실습 진행 필요:** 전반적으로 실습 및 실무 중심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좋았지만, 수업 현장에서 실제 교육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음. 일부는 “스스로 기록을 정리하고 시스템에 입력해보니 이해가 빨랐다”,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해볼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힌 반면, 일부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어려워 조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실습 및 실무 중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교육생마다 다른 기록관리 및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한 리터러시를 고려한 수준별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함.
- **폭넓은 수요층을 겨냥한 수업 편의성 제고:** 실제로 관련 경험이 없던 초심자 교육생들의 “용어집 제공, 가이드북 덕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다”는 평가를 통해 충실한 가이드북의 필요성 및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그 밖에도 종합 분석에서 안정적인 운영 체계, 소규모 집중형 수업, 전문성 높은 강사진 등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강점으로 뽑혔던 것처럼,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일지라도 운영진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업 품질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교육생과 강사진을 대상으로 정성·정량 평가를 실시했지만, 이후 정규화되더라도 매 기수마다 참여자의 피드백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됨.

## 제6장

---

### 결론 및 제언

## 제1절.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커리큘럼 제안

-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아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설계 원칙 및 구조와 세부 운영안을 제안하고자 함.

### 1.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칙

#### ① 지속 가능한 상설 운영 교육 체계 구축

- 사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순환형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음.
- 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학습 자료 축적, 현장 실습 연계 등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단발성 행사가 아닌 상·하반기 정기 반복 운영이 가능한 상설화된 교육 운영 체계로 설계하여 안정적 전문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② 실무 중심 현장 특화 커리큘럼

- 사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기록관리 교육과 차별화된 미술 아카이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음.
- 이를 위해 사례 기반 실습 및 현장 견학 확대를 통해 실무 감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록학·미술사·디지털 기술·큐레이터리얼 실천 등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 예술 전문지식, 기록관리 기술, 디지털 정보관리, 자료 활용 및 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 미술 아카이브 관련 핵심 직무 영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며,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획 능력 함양이 가능한 통합형 미술 아카이비스트 육성을 목표로 함.

#### ③ 혼합형·단계별 교육 설계

- 사전 연구와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문·심화 과정으로 설계하였음.
- 입문 과정은 현장 견학과 개인 프로젝트로 워크숍을 통해 기초 역량을 다지고, 심화 과정은 팀 협업과 주제별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스스로 아카이브를 기획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 설계하였음.
- 사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해, 이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프라인 강의로 실습·토론·현장 견학을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학습 효과를 확보하고자 함.
-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규모 정예로 운영하며, 강사진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시 수료증 발급 기준을 마련하였음.

## 2. 교육프로그램 구조

### 가. 입문 과정

#### 1) 교육 목표

-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복합적인 직무 이해:** 단순한 기록관리 직무를 넘어 매체 분석, 보존 처리, 큐레이터얼 실천, 데이터 거버넌스, 전시·연구 협업 등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다층적인 직무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강화
- **현장 연계형 실무 교육:** 미술 아카이브 기관 방문과 실무자 특강을 중심으로 이론과 현장 사이 간극을 해소하고, 실무 감각 강화
- **프로젝트 실습 기반 기획 역량 개발:** 아카이브 기획안 작성 워크숍을 통해 개인별 이론 실무 전환 능력 강화
-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진입 경로 확보:** 예비 미술 아카이비스트 인력의 현장 진입을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경로 토대 마련

#### 2) 운영 방식

##### ① 현장 견학 중심 구조

- 3개 아카이브 기관을 방문해 장르별·매체별 아카이브를 직접 체험함. 각 기관 탐방 뒤 해당 기관 컬렉션을 다루는 심화 이론/사례 강의(2-3차시, 4-5차시, 6-7차시)를 이어서 진행해, 현장 경험과 이론 학습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이론적 학습과 실무 적용을 매개하는 핵심 경로로서 현장 견학 비중을 확대함(전체 12회차 중 3회).

##### ② 실무 적용 가능 주제 편성

- 시범 운영 대비 강의 회차를 확대하고, (10회→12회), 현장 견학을 증편(3회)하여 AI 기술 활용 및 저작권·법률 강의 신설하여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범위 확장함.
- 미술 아카이브 직무에서 해결 난이도가 높은 영역(저작권·초상권·윤리 이슈,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 AI 디지털 기술 활용)을 독립 강좌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전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 법률 전문가,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가 등 다학제적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함.

##### ③ 프로젝트 기반 학습 도입

- 11-12차시 아카이브 기획안 작성 워크숍을 통해 개인 관심 주제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구성하고, 실습 및 발표 세션을 통해 학습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업 경험을 제공함.
- 10회차의 이론·사례·견학 경험을 종합하여 실천적 기획 역량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어 심화된 기획 역량 함양에 목표를 둠.

#### ④ 오프라인 집중형 운영

- 전 과정 오프라인 진행을 통한 교육생 간 대면 소통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소규모 정예(20명 이내) 운영으로 개별 학습자 밀착 지도 실현
- 부득이한 불참자 대상 당일 녹화 강의 제공으로 학습 연속성 보장
- 주 1회 운영으로 직장인·재학생 참여 접근성 제고

### 3) 세부 운영안

- 미술 아카이브의 특성상 예술 장르 및 세부 분야별 전문성 차이를 고려하여, 전공 제한을 최소화하고, 공통 핵심 기록관리 내용을 충실히 다루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음.
- 미술 아카이브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다양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3개 기관 견학 및 실습을 위주로 구성함.
- 미술 아키비스트는 단순 기록관리자를 넘어 매체 분석자, 보존가, 큐레이터, 데이터 관리자, 전시·연구 협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무이기에 이러한 하이브리드 직무 모델을 전제로 한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함.

#### ① 교육 대상 및 규모

- **대상:**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에 관심 있는 예비 전문인력 / 미술관·갤러리·작가스튜디오·문화재단 등 현장 실무 입문자  
- **규모:** 20명 이내

- 교육 대상은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에 관심 있는 예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함.
- 입문 과정 특성상 별도의 전공 제한을 두지 않으나, 미술 관련 현장 실무 입문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춘 자를 우대함.
- 실습 프로젝트 및 교육생 간 피드백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소규모 정예 방식으로 20명 이내로 운영함.

#### ② 선정 기준

[전공 및 기초 역량] 관련 전공, 유사 교육 이수 경험, 현장 실무 경험  
[지원 동기 및 직무 이해도] 지원 동기의 구체성,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 이해도, 실무 적용 계획  
[프로그램 참여 의지] 전 일정 참여 여부, 피드백 참여 활성화 등 실습 참여 의지  
[기타] 교육 후 후속 활동 계획, 서술 성의도

-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에 대한 관심도는 관련 전공 또는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확인하며, 교육 이수 후 실무 적용 가능성은 지원 동기를 통해 검토함. 통합형 교육과정의 특성상 전 일정 참여 여부와 피드백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를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음.

### ③ 운영 방식

- 상반기 12주 과정, 회차당 2시간
- 오프라인 중심 운영

- 상반기 12주 과정(3개월)로 기간을 설정하며, 회차당 2시간으로 진행
-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되, 미참석자 대상 온라인 보완 학습 제공 (당일 녹화본 등)

### ④ 커리큘럼 구성

[표 71] 미술 아카이스트 교육 프로그램 입문과정 커리큘럼(안)

차시	주제	강사 구성	구분	운영 방식
1	오리엔테이션 미술아카이브의 이해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이론/사례	오프라인
2	미술 아카이브 기관 탐방 I: 국공립 미술 아카이브 기관	국공립 미술 아카이브 기관 담당자	현장 견학	오프라인
3	작가 기록관리의 이해와 실제 (기관 주요 소장 컬렉션을 중심으로)	국공립 미술 아카이브 기관 담당자	이론/사례	오프라인
4	미술 아카이브 기관 탐방 II: 국공립 미술 아카이브 기관	국공립 미술 아카이브 기관 담당자	현장 견학	오프라인
5	컬렉션 수집 및 구축 (기관 주요 소장 컬렉션을 중심으로)	국공립 미술 아카이브 기관 담당자	이론/사례	오프라인
6	미술 아카이브 기관 탐방 III: 국공립 미술 아카이브 기관	국공립 미술 아카이브 기관 담당자	현장 견학	오프라인
7	매체별 아카이빙 기술 (기관 주요 소장 컬렉션을 중심으로)	국공립 미술 아카이브 기관 담당자	이론/사례	오프라인
8	미술 아카이브 관련 메타데이터의 국제 표준 사례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기록학 전문가	이론/사례	오프라인
9	미술 아카이브 관련 저작권·초상권·윤리 이슈 사례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법률 전문가	이론/사례	오프라인
10	미술 아카이브 관련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가	이론/사례	오프라인



11	아카이브 기획안 작성 워크숍 I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실습/발표	오프라인
12	아카이브 기획안 작성 워크숍 II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	실습/발표	오프라인

- 1차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는 전체 강의(12회차)에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전문가로 섭외함.
- 2, 4, 6차시는 기관 탐방을 통해 미술 아카이브 현장을 견학하고 실무자의 운영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함. 이와 함께 각 기관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론/사례 강의를 3, 5, 7차시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층 심화된 이론/사례의 이해를 도모함.
- 8, 9, 10차시는 미술 아카이브 직무에서 중요한 메타데이터 기획/구축 국제 표준 사례와 활용 및 이용에 해당하는 저작권/초상권/윤리 이슈 사례를 살피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AI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무적인 이론/사례 강의를 구성함.
- 1~10차시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아카이브 기획안 작성 워크숍 진행 후 발표 및 동료 피드백을 통한 사례 공유 및 피드백 시간을 수행함.

#### ⑤ 평가 및 수료

- **수료기준:** 아래 두 기준 충족시 수료증 발급

[출석] 80% 이상 참여 필수

[과제] 실습/발표 참여 및 과제물 제출 (1회)

- **우수 수료자 특전:** 심화 과정 우선 선발 · 현장 견학 기관 실습 및 인턴십 연계 지원

- 출석 및 과제 제출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함.
- 예비 인력 양성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수료자 대상 심화 과정 지원시 우선 선발 기회 부여 및 현장 견학 기관 실습생·인턴십 지원 기회 제공

#### 나. 심화 과정

##### 1) 교육 목표

- **전공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체계 구축:** A트랙(기록학), B트랙(미술) 이원 운영으로 전공 배경에 따른 역량 격차 해소 및 직무 완성도 향상
-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모델 확립:** 학예·기록관리의 이원 구조를 탈피하고, 미술 아카이브 맥락 해석 및 창의적 활용 기획 가능한 융합형 인재 육성
-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개발:** 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적용하는 기획 능력 강화
- **국제 표준 기반 전문성 확보:** OAIS, PREMIS 등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을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과 상호운용성 확보

## 2) 운영 방식

### ① A/B 이원화 트랙 시스템

- **A트랙(기록학 전공자 대상):** 한국 현대미술사, 큐레이터얼 실천, 작가 인터뷰 방법론, 퍼포먼스·설치·뉴미디어 아트 기록 등 미술사적 맥락에 집중함.
- **B트랙(미술 전공자 대상):** 기록학 이론, 선별·평가·분류·기술 체계, 메타데이터 표준, 오픈소스 시스템(AtoM, Omeka), 디지털 보존 전략(OAIS, PREMIS), AI 활용 DB 설계 등 기록관리 체계에 집중함.
- 각 트랙 6회차 이론/사례 강의를 모듈별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운영하여,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음.
- 희망 시 양 트랙 모두 수강 가능하여 통합적 역량 배양을 지원함(\*총 18회차 수강 가능).

### ② 팀 협업 프로젝트 중심 실습

- A/B트랙 교육생이 함께하는 통합형 실습(6회차)으로 미술 아카이스트의 협업적 직무 특성 반영
- **1-2차시:** 비정형 작업의 메타데이터 정의 및 기록 전략 구축 실습을 통해 장르별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비정형 작업의 체계적 기록화 전략을 수립함.
- **3-4차시:** AI 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브 실무 효율화 실습을 통해 디지털 보존 환경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기술 역량 강화함.
- **5-6차시:** 팀 주제 프로젝트 수행 및 전문가 멘토링·동료 피드백 세션으로 구성하여 미술 아카이브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멘토링 및 동료 피드백을 통한 심층적 논의를 전개함.
- 3명 × 4팀 구성(총 12명)으로 소규모 집중 협업 환경 조성함.

### ③ 모듈형 선택 수강 체계

- 이론/사례 강의를 모듈별로 세분화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과 필요에 따라 선택 수강이 가능함.
- 단과 학원 형태처럼 필요한 이론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하고, 실습 과정을 추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경로로 설계함.
- 교육 참여자의 배경 지식 편차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함.
- 저작권, 보존, 디지털 최신 기술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 학습 가능함.

### ④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

- **이론/사례 강의:**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시·공간적 제약 완화 및 지역 교육 격차 해소하고자 함.
- **실습/발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팀 협업 및 대면 피드백의 질적 수준 확보하고자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오프라인 참여 불가 시 Zoom 실시간 참여를 허용함.

-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혼합형 운영 방식을 적용함.

#### **⑤ 실무자 대상 전문 교육**

- 미술·예술학·기록정보학·문헌정보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미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함.
- 미술관·갤러리·작가스튜디오·문화재단 등 현장 실무자의 재교육 및 역량 고도화 지원하고자 함.
-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화 논의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소규모 정예(12명) 운영으로 개별 멘토링 및 밀착 지도 체계 구축하고자 함.

#### **⑥ 국제 표준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 OAIS, PREMIS, EBUCore, Dublin Core 등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 교육 과정을 필수로 포함함.
- 오픈소스 아카이브 시스템(AtoM, Omeka) 실습을 통한 실무 적용 능력 배양함.
- AI 활용 최신 디지털 기술 및 시스템 구축 교육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함.
- 메타데이터 구축, 전거 레코드 관리, 디지털 보존관리 등 필수 영역에 집중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함.

### **3) 세부 운영안**

- 본 연구 및 시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미술 아카이스트 심화 과정 커리큘럼 제안하고자 함.
- 미술 아카이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록학·큐레이션 단일 관점의 한계 인식, 학예·기록관리 이원 구조를 탈피하여 두 영역을 융합하는 A트랙(기록학 전공자), B트랙(미술 전공자) 구분 이론 수업 운영방식으로 설계하였음.
- 국제 표준 모델 활용 실습 프로젝트 통한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미술사·큐레이터얼 역량 + 기록관리·디지털 기술 융합 하이브리드 직무 모델을 위한 단순 기록물 정리를 넘어 맥락 해석 및 창의적 활용 기획 가능한 프로젝트 완성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함.

#### **① 교육 대상 및 규모**

**- 대상:** 미술·예술학·기록정보학·문헌정보학 등 관련 전공(석사 이상), 미술 아카이브 관련 프로젝트 수행 1회 이상 / 미술관·갤러리·작가스튜디오·문화재단 등 현장 실무자  
**- 규모:** 12명 이내

- 교육 대상은 미술 아카이스트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함.
- 미술·예술학·기록정보학·문헌정보학 등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술 아카이브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갖춘 자를 우선 선발함.
- 팀 기반 프로젝트 및 교육생 간 심층 피드백을 위해 소규모 정예 방식으로 12명 이내로 운영함. (팀 프로젝트: 3명 × 4팀 구성)

## ② 선정 기준

[전공 및 기초 역량] 관련 전공, 유사 교육 이수 경험, 현장 실무 경험  
[직무 이해도 및 프로젝트 수행 경험] 지원 동기의 구체성,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이해도, 실무 적용 계획  
[프로그램 참여 의지] 전 일정 참여 여부, 팀 프로젝트 및 피드백 참여 의지  
[기타] 교육 후 후속 활동 계획, 서술 성의도

-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전공 및 기초 역량을 확인하면서, 미술 아카이비스트에 대한 직무 이해도와 실무 적용 계획을 확인하고 통합형 교육과정인만큼 전 일정에 대한 참여 여부와 팀 프로젝트 및 피드백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의지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음.

## ③ 운영 방식

-**기간:** 하반기 12주 과정, 회차당 2시간  
-**시간:** 회차당 2시간 진행  
-**방식:** 온·오프라인 혼합형 (이론/사례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실습/발표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이론/사례 강의는 모듈식 선택 과정으로 운영

- 하반기 12주 과정(3개월)로 기간을 설정하며, 회차당 2시간으로 진행하며 이론 6회차와 실습 6회차로 구성함.
-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운영하되, 미참석자 대상 온라인 보완 학습 제공 (당일 녹화본, 실시간 Zoom 참여 등)
- 이론/사례 강의는 A/B트랙으로 구분하여 모듈별 선택 수강 방식으로 운영하며, 희망 시 두 트랙 모두 수강 가능하며, 이 경우 이론 회차는 총 12회차 수강이 가능함.

## ④ 커리큘럼 구성

[표 72]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심화과정

[A트랙 (기록학 전공자 대상): 미술 맥락 강화] 커리큘럼(안)

차시	주제	강사 구성	구분	운영 방식
A-1	한국 현대미술사: 시대별·장르별 특성	미술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A-2	미술 시장과 작품 생태계의 이해	미술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A-3	큐レ토리얼 실천과 전시 기획 기초	미술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A-4	작가 인터뷰 및 구술채록 방안	미술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A-5	퍼포먼스·설치·뉴미디어 아트 기록	미술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A-6	미술 아카이브 관련 저작권 이슈	미술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 A트랙은 미술사, 큐레이터얼 실천 등 다학제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A-1~A-6차시를 통해 기록학 전공자가 미술 아카이브의 맥락 및 역사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교육과정의 기본 축은 국내 미술 분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주제(시각예술 장르별 기록의 특성, 작가 아카이브, 전시 아카이브, 퍼포먼스·설치 작품 기록 등)를 중심으로 구성함.
- 시범 운영 대비 모듈별 선택 수강 방식을 도입하여 각 전공 배경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함.

[표 73] 미술 아카이스트 교육 프로그램 심화과정

[B트랙 (미술 전공자 대상): 기록관리 체계 강화] 커리큘럼(안)

차시	주제	강사 구성	구분	운영 방식
B-1	기록학 이론과 미술 아카이브 특성	기록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B-2	기록물의 선별 및 평가, 분류 및 기술 특성	기록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B-3	메타데이터 표준 및 전거 레코드 관리	기록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B-4	오픈소스 아카이브 시스템 활용 (AtoM, Omeka 등)	기록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B-5	디지털 보존 전략과 OAIS, PREMIS 표준	기록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B-6	AI 활용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시스템 구축	기록 현장 실무자	이론/사례	온라인

- B트랙은 기록학, 디지털 최신 기술 전문가 등 다학제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B-1~B-6차시를 통해 미술 전공자들이 기록관리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교육과정의 기본 축은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주제(아카이브 이론과 원리, 선별 및 평가, 분류 및 기술, 메타데이터 구축, 디지털 보존, 저작권 및 윤리, 접근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함.
- 시범 운영 대비 모듈별 선택 수강 방식을 도입하여 각 전공 배경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함.

[표 74] 미술 아카이스트 교육 프로그램 심화과정 [A/B트랙 실습(통합형)] 커리큘럼(안)

차시	주제	강사 구성	구분	운영 방식
1	팀 협업 프로젝트:	미술 현장 실무자	실습/발표	온라인

	비정형 작업의 메타데이터 정의 및 기록 전략 구축 실습 I	기록 현장 실무자		
2	팀 협업 프로젝트: 비정형 작업의 메타데이터 정의 및 기록 전략 구축 실습 II	미술 현장 실무자 기록 현장 실무자	실습/발표	온라인
3	팀 협업 프로젝트: AI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브 실무 효율화 실습 I	미술 현장 실무자 기록 현장 실무자	실습/발표	온라인
4	팀 협업 프로젝트: AI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브 실무 효율화 실습 II	미술 현장 실무자 기록 현장 실무자	실습/발표	온라인
5	팀 주제 프로젝트 I: 멘토링 세션 및 피드백	미술 현장 실무자 기록 현장 실무자	실습/발표	온라인
6	팀 주제 프로젝트 II: 멘토링 세션 및 동료 피드백	미술 현장 실무자 기록 현장 실무자	실습/발표	온라인

- 팀 협업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하여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협업 중심 직무 특성을 반영함.
- 1~2차시 비정형 작업의 메타데이터 정의 및 기록 전략 구축 실습을 통해 퍼포먼스 아트의 영상·사진·텍스트 통합 기록, 설치 작품의 공간 정보 및 구성 요소 기술, 뉴미디어 아트의 기술적 의존성 문서화 등의 요소들을 다루고 기록 전략을 구축함.
- 3~4차시 AI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브 실무 효율화 실습을 통해 이미지 자동 태깅 및 분류, 구술 자료 자동 전사 및 텍스트 마이닝,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및 검증, AI 활용 시 저작권·윤리 이슈 대응 등의 요소들을 다루고 디지털 보존 환경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기술 역량을 강화함.
- 1~4차시 ‘팀 협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5~6차시에서 각 팀별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팀 주제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만의 특성을 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동료 피드백으로 내용을 보다 심층적 논의로 발전시킴.

### ■ 평가 및 수료 기준

- **수료기준:** 아래 두 기준 충족시 수료증 발급

[출석] 80%이상 참여 필수

[과제] 실습/발표 참여 및 과제물 제출 (1회)

- 출석 및 과제 제출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함.

## 다. 입문·심화 과정 단계별 운영의 의의

### ■ 단계별 교육 체계 확립

- 입문 과정 → 심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연속 학습 경로 제공
- 입문 과정 우수 수료자가 심화 과정 지원시, 우선 선발 기회 부여를 통해 학습 동기 강화
- 단계별 체계로 장기적인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입문-중급-심화’ 3단계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 하이브리드 직무 모델 실현

- 입문 과정에서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의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심화 과정에서 전공별 특화 역량을 키우는 단계적 개발과 통합 실습으로 기록학·미술 영역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실현
- 미술사·큐레이터역 역량과 기록관리·디지털 기술을 역량을 겸비한 통합형 전문인력 양성
- 단순 기록물 정리 기능을 넘어 미술 아카이브의 맥락 해석 및 창의적 활용 기획 능력 배양

### ■ 실무 사례 강의와 실습 프로젝트 중심 학습

- 입문 과정에서 실제 미술 아카이브 3개 주요 기관 현장 견학과 실무자 강의, 기획 워크숍을 통해 현장 감각을 익히며, 심화 과정에서 팀 협업 프로젝트를 주제별로 수행하며 기획 및 활용 역량 강화
- 저작권, 메타데이터, AI 기술 등 현장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한 실전형 교육 제공

### ■ 유연한 학습 경로 설계

- 입문 과정은 오프라인 집중형 운영을 통해 대면 교류를 활성화하고, 심화 과정은 온·오프라인 혼합 + 모듈별 선택 수강 방식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제공
-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육 접근성 해소를 위한 온라인 학습 환경 마련
- 소규모 정예(입문 20명, 심화 12명) 운영으로 밀착 지도 및 피드백 체계 마련

### ■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

- 장기적 상·하반기 정례 운영 통한 상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체계로의 제도화 가능성 확보
- 입문 과정 우수 수료자 현장 실습·인턴십 연계로 실무 진입 경로 확보
- 심화 과정 수료자 네트워크 형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지속적 역량 개발 지원

## 제2절. 향후 과제 및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점

- 본 연구를 통해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원칙과 기본 구조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구현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적 지원, 국제 교류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향후 이러한 과제들이 단계적으로 해결될 때 미술 아카이브 생태계 전반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향후 과제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함.

### 1. 향후 과제

#### 가.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제도화 및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독립적 직무 모델 확립 및 법제화

-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미술 아카이비스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나, 핵심 과제는 "제도적 위치 설정 및 정식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있음.
- 현재 미술 아카이비스트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도서관법」의 사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학예사 등 기존 법제도 내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미술 아카이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해외에서는 아카이비스트 직무가 독립적 전문 영역으로 정립되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기록학의 하위 범주가 아닌 미술관 및 미술 기관의 실제 업무 체계에 부합하는 독립적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모델 정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법제화·예산 지원)-지자체(공립기관 인력 배치)-교육기관(전문인력 양성)-현장 기관(직무 수행)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요구됨.

##### ■ 인력 배치 및 고용 구조 개선

- 국내 상당수 기관이 아카이브 실무를 계약직·기간제·파견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을 보유한 기관은 소수에 그침. 장기적 경력 개발 및 승급 구조 미비로 개인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기관 전문성으로 안정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2024년 기준 국내 미술 전문 아카이비스트는 약 20여 명에 불과하며, 10년 이상 경력 보유자는 7명 수준임. 반면 기록계는 1999년 법 제정 이후 기록연구사 의무 배치 제도화로 2024년 12월 기준 1,230명(배치율 75.3%)을 달성했음. 2023년 기준 전국 286개 미술관 중 아카이비스트·기록연구사 채용 또는 아카이브 업무를 명시한 기관은 10개 내외에 불과하며, 학예·연구 조직 내 기록 업무 겸임 구조가 다수를 차지함.
- 인력 운용 정책 개선은 미술 아카이브 생태계 전반 수준 제고의 핵심 요소이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첫째, 단기적으로는 공공 기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프로젝트 단위 고용에서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 유도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미술진흥기본계획」 및 '미술전문인력연구'에서 '미술 아카이스트' 직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학위·교육과정·실무경력 연계 제도를 마련해야 함. 미술 아카이브 업무의 복합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록관리사·학예사 등 기존 직위와 구별되는 독립적 전문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기관(박물관·미술관)의 실제 개편 및 직무기술서 정비, 채용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셋째, 국공립 미술기관에 미술 아카이스트 정규 인력 확충 및 안정적 배치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문화기관에 아카이브 전담인력 배치를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넷째, 2021년 시작된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공립미술관의 기록·자료 관리 역량을 높이고 미술관 간 협력 토대를 구축하여, 미술 아카이스트 전담 인력을 조직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장기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음.

### ■ 독자적 인증 시스템 마련

- 국내 미술 아카이브 교육은 대부분 수료증 발급 수준에 머무르지만, 해외 주요 국가는 아카이스트 협회가 주도해서 교육을 개발하고 실습 이수 기반의 공식 자격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는 DAS(Digital Archives Specialist) 인증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성을 공식 인증함.
- 표준화된 교육·인증 체계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과 지속적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국내에도 장기적 도입을 검토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미술 아카이스트 자격증 제도 도입 연구를 하고,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역량을 공식 인증하고 관리하는 독자적 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함.
- SAA의 DAS 등 선행 모델을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적절한 교육 이수 시간 및 실습 기준 설정
  - 미술 아카이스트 직무 특성을 반영한 필기·실기 평가 체계 마련
  - 재인증 주기 및 재교육 체계 구축
  - 학회, 협회, 공공기관 등 인증 발급 운영 및 관리 주체 마련
- 독자적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미술진흥기본계획」,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과 연결하고, 미술 아카이스트 핵심 직무를 밝히며, 학위·교육과정·실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이어주는 제도를 갖춰야 함.

## 나.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토대 마련 및 현장 연결 생태계 조성

### ■ 학제적 연계 구조 확보

- 국내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기록학과 미술 분야가 구조적으로 나뉘어 있어, 미술 아카이브의 복합적인 실무 역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음.
- 기록학 교육과정은 공공기록·문서 기반 중심으로 구성되어 미술 분야 주요 기록 (작가 아카이브, 전시 기록, 뉴미디어·퍼포먼스 등) 관련 교육이 부재하며, 미술이론 교육과정은 작품 해석·비평·기획 중심으로 정리·기술·보존·메타데이터 구축 등 실무 역량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미술 아카이브 관련 교과목은 기록학·미술이론 분야 전체 교과목 중 1% 미만에 불과함.
-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협동과정,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을 활용하여 기록학과 미술이론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록관리학 석사 과정 내 미술 아카이스트 전문 트랙 신설:** 기록학 기초 이수 후 미술사학·예술학 지정 교과목 추가 이수 시 전문 과정 수료 인정
  - **학부 교직 이수 제도 유사 방식 도입:** 기록학 석사 학위 취득 후 미술사학·예술학 협동과정 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부여
  - **미술대학 내 아카이브 관련 교과목 확대:** 미술이론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 실무 역량 교육 강화

### ■ 상설 교육 체계와 재원 확보

- 국내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해외 사례에서는 정규 수강료를 받아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인증 기능도 갖추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단기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공공 지원 기반 교육을 이어가되,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수강료 책정:** 안정적인 운영 확보
  - **기업 후원:** 문화예술 분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과 연계 진행
  - **정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문화재단 등 공공 지원 사업 확대
  - **국제 교류 프로그램 연계:** 해외 기관과의 MOU를 통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 국내 대학·연구소와 협력해 학위과정이나 전문연수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아카이브 소장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컬렉션 활용 실습 기회를 공유하거나 강사 풀을 나누는 등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 현장과 연결된 생태계 조성

- 전문 인력 양상을 위한 미술 아카이브 교육의 실효성이기 위해 주요 미술 아카이브 기관과 학회 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 현장 전문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현장 기관의 사례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 학회 주도의 정기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 지원
  - 현직 종사자 대상 사례 공유 및 최신 기술·트렌드 업데이트 워크숍 개최 및 자료 공유
- 또한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2013년 발족)과 같은 민간 단체 등 다양한 논의 채널을 활발하게 열어두어 미술 아카이브 분야 담론 형성과 자율적인 실천 전략 개발을 구축해야 함.
- 국·공립 기관 외에도 소규모 사립미술관, 갤러리, 작가 스튜디오 등에서 아카이빙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에, 미술계 전반에 아카이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소규모 기관 대상 미술 아카이브 관련 컨설팅 지원
  - 간편 아카이빙 시스템/도구 및 가이드라인 보급
  - 기관 간 자료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수 사례 발굴 및 배포

## 다. 표준화 시스템 정비 및 국제 교류 확대

### ■ 시스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 FGI와 협력 연구진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국내 아카이브 지침·시스템은 개발자 중심 구조로 치우쳐 있어 미술 현장 실무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술 아카이브는 장르·매체·작업 방식만의 고유성 때문에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로 담아내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전문가, 미술사 연구자, IT 엔지니어, 현장 아카이비스트가 함께 참여하는 다분야 협력 기반 통합 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장르 및 매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술 체계 확립:** 회화, 조각,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의 특성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 **미술 아카이브 운영 기준 마련:** 수집, 정리, 보존, 서비스 등 전 과정의 표준 절차와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현장 핵심 과제 논의 및 공유:** 저작권, 디지털 보존, 메타데이터 관리, 장르별 기술 방식 등을 독립 교육 모듈로 마련하여 배포하거나, 공개 논의 채널 구축

- 또한 기관 간 자료 공유와 통합 검색을 위해 시스템 상호운용성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함. 이를 위해 국내 미술 아카이브 기관에서 활용하는 메타데이터 설계 구축 절차를 공유하고 표준에 맞는 공통 모델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법·제도 정비 및 가이드라인 마련

- FGI 결과, 저작권, 개인정보, 공개 제한 등은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영역이나, 현재 명확한 규정 없이 기관이나 사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임. 이 때문에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적 위험을 걱정해서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제시되었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미술 아카이브 저작권법 개정:** 미술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복제·공유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학술 연구, 교육, 전시 기획 등 공익적 목적의 아카이브 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문화예술 기록물 공개 범위 표준 정책 수립:** 공개, 제한적 공개, 비공개 등급 기준 및 심의 절차를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알 권리 간 균형점 모색
  -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저작권·초상권 체크리스트, 표준 동의서 양식, 분쟁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현장 중심의 실용적 가이드라인 제공
  - **법률 자문 지원 체계 구축:** 소규모 기관이 전문적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 ■ 국제 표준 반영 및 교류 확대

- 국제 표준을 미술 분야에 맞게 적용하고, 기관 간 자료 공유와 검색 연계를 위한 상호운용성 지침을 작성하여 표준화와 유연성의 균형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아카이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미술 아카이브를 위한 국제 표준 메타데이터 체계를 연구 및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제 교류를 통한 지식 공유 및 협력 강화가 필요하기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지식 교환 프로그램:** 해외 기관과의 인력 교류, 공동 워크숍 개최, 온라인 세미나 등을 통한 모범 사례 학습
  - **국제 워크숍 및 컨퍼런스 공동 개최:** 미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적 교류의 장 마련
  - **다국어 교육 자료 개발:** 한국의 미술 아카이브 사례를 영문 등 다국어로 제작하여 국제적 공유 및 해외 전문가와의 협력 기반 조성

## 2. 시사점과 한계점

### 가. 시사점

#### ■ 미술 아카이스트 직무 구체화

- 국내 최초로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전문인력 양성 방안과 제도 구축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사전 연구를 통해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진행하여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 확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 지금까지 막연했던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의 직무를 구체화하고 예비 인력이 갖춰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음.
- 미술 아카이비스트 직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확인함.

### ■ 핵심 역량 영역 구체화

- 미술 아카이비스트에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확인함(기록관리 이론 및 기술 실무, 디지털 정보관리, 예술사 및 큐레이션, 법률 지식, 프로젝트 기획·관리 능력).
- 따라서 미술 및 기록학 영역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커리큘럼 설계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복합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는 통합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 교육 모델의 실효성 입증

- [이론/사례] + [실습/발표] + [현장 견학]를 결합한 다층적 학습의 역량 향상 효과 실증적으로 확인함.
- 참여 교육생 응답 분석시 프로그램 참여 후 직무 이해도·실무 역량 증가, 현장 자신감 획득, 커리큘럼 타당성·실효성을 입증함.
- 시범 운영 성과 분석, 현황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기반 실증적 데이터 기반 커리큘럼 제안, 향후 커리큘럼 설계 준거를 제공함.

### ■ 향후 교육 개선 방향 도출

- 참여 교육생 및 워킹그룹 피드백 분석을 통해 향후 교육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함.
- 실습 확대, 현장 견학 다변화, 저작권·보존 과목 추가, 전공별 차별화 교육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함.
- 도출된 개선 방향은 향후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정책 개선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음.

## 나. 한계점

### ■ 교육 수준 세분화 부족

- 예비 인력 대상 '입문·기초 과정'으로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다 보니 개별 주제에 충분한 심층 학습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존재했음.
- 워킹그룹 평가에서 기초 교육 과정으로는 의의가 있으나, 전문 분야인만큼 심화 단계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미술사 전공자, 기록학 전공자, 실무 경력자 등 다양한 배경의 교육생이 함께 참여하여 이론 및 실습 난이도 설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향후 과제:** 교육 대상을 '입문·심화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난이도 조정 및 보충자료 제공 등 학습자 특성에 맞춘 운영에 대한 마련이 필요함.

### ■ 기술 영역 난이도 조정 필요성

- 디지털 아카이브 소프트웨어(Omeeka) 실습 등 기술 중심 세션의 경우, 짧은 시간에 전문 개념과 시스템 사용법을 습득하는 것이 초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각 강의별 난이도 편차가 존재함.
- **향후 과제:** 강의 주제나 시스템 특성에 맞게 '입문-중급-심화' 단계로 구분하여 실습 진행 등 난이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 ■ 표본 규모 및 장기적 영향력 평가의 한계

- 미술 아카이스트 직군의 표본 규모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무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존재함.
- 제한된 예산과 기간으로 인해 사전 연구,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범 운영 및 결과 분석에 집중하였으며, 장기적 영향력 평가는 실시하지 못함.
-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참여자들의 현장 성과, 진로 영향 등을 추적하는 후속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함.
- 워킹그룹은 참여 교육생의 후속 진로, 현장 참여 여부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성과 평가와 환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향후 과제:** 추후 다양한 현장 사례 및 전문 인력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 보완, 수료생 대상 추적 조사 및 성과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 제도적·정책적 과제의 실행 한계

-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한 제도적·정책적 과제(직무 제도화, 학제 간 통합 교육체계, 인증제도 등)가 존재함.
- 본 연구는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을 위한 입문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에 집중하였으며, 제도적·정책적 과제 및 실행 방안은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상세히 다루지 않고 있음.
- **향후 과제:** 미술 아카이브 인력 관련 제도·정책을 단일 학문 차원이 아닌 미술계 구조적 수요 대응 중장기 인프라 구축 과제로 접근 필요함. 또한 전문인력 양성은 단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성되기 어려운 만큼, 온라인 콘텐츠 축적, 정규 교육과정 운영, 현장 실습 연계 등 지속적·다층적 노력 요구.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미술 아카이브 생태계 전반의 제도화·표준화·전문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의 위상 재설정 필요함.



## **부록**

---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기관 운영 현황

자문회의 및 FGI 사전 질문지

정량·정성평가 개별 응답 분석

## 부록 1 국내·외 미술 아카이브 기관 운영 현황

### 1. 국내 미술 아카이브 기관 운영 현황

#### 가. 공공 아카이브 기관

##### 1)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Art Archives Seoul Museum of Art, SeMA AA)

설립주체	서울시립미술관 (SeMA)
설립연도	2023년 4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웹사이트	<a href="https://semaaa.seoul.go.kr">https://semaaa.seoul.go.kr</a>



© 노기훈

#### ■ 개요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서울시립미술관 산하의 아카이브 전문 분관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기록과 자료를 수집·보존·연구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며 아카이브와 연구 기능을 전담함.
- 공간은 ‘모음동’, ‘배움동’, ‘나눔동’으로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음. ‘모음동’은 아카이브 라운지를 갖춘 중심 공간이며, 자료의 열람·연구·전시가 이루어짐. ‘배움동’은 세미나실과 강의실을 갖춘 교육 공간으로, 아카이브를 매개로 한 교육과 협업 프로그램이 진행됨. ‘나눔동’은 다목적홀과 휴게 공간을 갖추었으며, 교류와 공공 프로그램 운영의 장으로 기능함.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1950년대 이후의 한국 현대미술과 시각예술의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시각예술 전반의 창작, 기획, 매개 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있음.
- 예술자료, 기관자료, 도서로 구성된 세 가지 범주의 아카이브 체계를 운영함.
- 2023년 기준으로 22개 컬렉션 소장, 5만 7천여 건의 아카이브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 중 정리·기술, 디지털화가 완료된 약 3천여 건을 우선 선별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 중임.<sup>122</sup>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SeMA AA 웹 아카이브 포털을 통해 컬렉션별 검색, 시각화 도구, 타임라인, 지도 기반 탐색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함.
- 기록 간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RiC(Records in Contexts) 기반의 관계 중심 탐색 기능 제공을 최근 시도하고 있음.

<sup>122</sup> 문화시설추진단-박물관과, “온라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오픈… 한국현대미술 중요자료 3000여건 공개”, 2021년 12월 22일,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4881> (2025. 12. 5 접속)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소장 자료와 컬렉션을 바탕으로 한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전시와 더불어 워크숍, 아카이브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과 수준에 맞춘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카이브 기록의 사회적 활용과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연구, 전시기획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주제연구포럼을 진행하여 미술 아카이브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와 논의를 진행하며, 국내·외 예술기록 기관과 다양한 연구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

### 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MMCA Art Research Center)

설립주체	국립현대미술관 (MMCA)	© 국립현대미술관
설립연도	2013년 10월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내	
웹사이트	<a href="https://www.mmca.go.kr/bookArchive">https://www.mmca.go.kr/bookArchive</a>	



### ■ 개요

-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미술의 이해와 연구’를 목표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 아카이브 전반을 아우르고 미술관을 대표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2013년 개소함.
-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과 서울관에 각각 미술도서관과 미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과천관은 근현대미술 전문도서관과 미술연구센터를 통해 미술자료 열람 서비스와 한국 근현대미술 기록의 보존·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서울관은 동시대 현대미술 중심의 미술도서관과 미술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디지털·현대미술 자료 제공과 기록 아카이브 열람 기능을 담당함. 청주관의 경우 라키비움을 통해 소장품 기반의 미술정보 제공과 미술자료의 수집·보존·열람, 아카이브 프로젝트 등 기록 기반 사업을 수행함.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미술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된 작가의 자료, 한국 및 아시아 근·현대미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함.
- 서울관 미술연구센터는 소장 아카이브를 ‘미술관기록’과 ‘수집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수집기록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7만 8천여 점을 축적하고 있음.
- 과천관 미술연구센터 역시 소장 아카이브를 ‘미술관기록’과 ‘수집기록’으로 구분하여 미술관기록은 1969년부터 2023년까지 축적된 약 13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고, 작가·이론가·미술단체 등이 생산한 수집기록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4만여 점이 축적되어 있음.<sup>123</sup>

<sup>123</sup> 『2024 미술관 연보』, 국립현대미술관, 2025.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네 가지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AMS) : 2014년에 설계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메타데이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웹사이트의 Archive 검색 메뉴와 직접 연동됨.
- 미술관기록 수집 검색 시스템(IAMS) : 2021-2022년 구축된 내부용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미술관 내부에서 생산되는 미술관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어 미술관 업무 지원에 목적을 둠.
- 단채널비디오 뷰어 시스템(Single Channel Video Viewer System) : 서울관 미술연구센터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소장 단채널 비디오 작품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울, 과천, 청주관에서 이용 가능함.
- 이중섭·박수근 전작도록 열람 시스템(Catalogue Raisonné Viewer System) : 2019년 서울관 미술연구센터에 설치된 이중섭과 박수근 관련 연구자료를 전용 뷰어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증을 통한 카탈로그레조네를 기반으로 구축됨.<sup>124</sup>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전시 기획 및 도록 발간, 외부 연구자·작가와 공동 프로젝트 진행함.
- 아카이브 북 시리즈 발간,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를 확대함.
- 2019년부터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미술관과의 협력사업 진행하고(시범운영 포함), 국내·외 미술기관과 연계하여 아카이브 공유 및 공동 연구 추진함.

###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ACC Archive & Research)

설립주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연도	2015년 11월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웹사이트	<a href="http://archive.acc.go.kr/">http://archive.acc.go.kr/</a>	

## ■ 개요

- 아시아 최대 규모로 2015년 11월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예술 전문 아카이브로서 '문화정보원'이란 이름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함.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sup>124</sup> 이지희, “Review of the Archival System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6(2), 221 - 235, 2023.

- 아시아 문화예술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수집 대상 범주를 스토리, 조형상징·예술, 의례·공연예술, 의·식·주, 이주·정착의 5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원천자료를 수집함.<sup>125</sup>
- 아시아 48개국에 이르는 전통 음악, 무용, 연회, 건축, 공연, 사진 및 예술품 등의 컬렉션을 수집해 보존·관리함. 아시아 문화 관련 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등 5만 여건의 자료를 생산·수집함.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아시아문화아카이브 누리집 : 아시아의 문화예술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접근성을 제공함.
- 라이브러리파크(Library Park) :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이 결합된 라키비움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작가, 기획자, 활동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아카이브 전문주제 컬렉션을 활용한 연구모임을 지원함.
- 문화콘텐츠 분야의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아시아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진행함.
- 아카이브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운영함.
- 아시아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앨범 제작 및 연계 상품 개발을 진행함.

## 4)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Nam June Paik Archive)

설립주체	경기문화재단
설립연도	2008년 10월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웹사이트	<a href="https://njp.ggcf.kr/pages/archive">https://njp.ggcf.kr/pages/archive</a>



© 백남준아트센터

### ■ 개요

-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는 백남준의 예술 세계와 아트센터에 관련된 역사적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연구 기반으로 설립됨.
- 2024년 기관 비전에서 백남준 예술유산의 재가치화와 공유 기반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백남준 작품 및 아카이브 소장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 기반 협력 순회전을 개최하는 등 아카이브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자 함.<sup>126</sup>

<sup>125</sup> 이명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권 제1호, 2015. p.319-340.

<sup>126</sup> 경기문화재단·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 2024년 전시와 주요 계획”, 2024년 1월 22일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백남준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전반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작품 관련 문서, 드로잉, 서신, 사진, 슬라이드, 영상, 출판물, 소장품 관련 기록 등이 있음.
- 수집기록(백남준 아카이브, 비디오 아카이브, 스튜디오 아카이브), 기관기록 아카이브로 구분하여 관리함.
- 비디오 아카이브는 백남준의 대표 비디오 작품과 작업 소스, 다큐멘터리 등 2,285점의 아날로그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튜디오 아카이브는 뉴욕 브루 스트리트 작업실과 그랜드 스트리트 작업실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백남준아트센터 데이터베이스(db.njpartcenter.kr)를 통해 컬렉션과 아이템 검색 가능함.
- 기술 목록 및 기록 계층 구조를 제시하는 검색도구(Finding Aid)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기록의 맥락·구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소장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학술 연구, 전시 기획,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백남준 예술의 확장적 해석과 동시대적 재맥락화를 추진함.
- 랜덤 액세스(Random Access) 프로젝트는 백남준의 실험정신을 계승하며 동시대 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조망하는 주요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능함.

## 5) 아르코예술기록원 (ARKO Arts Archive)

설립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설립연도	2010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2-3층 (본원)	
웹사이트	<a href="https://artsarchive.arko.or.kr/">https://artsarchive.arko.or.kr/</a>	

### ■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아르코예술기록원은 1979년 5월, 현 아르코미술관(당시 미술회관) 내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여 도서자료실과 시청각자료실로 구성된 전문도서관 형태로 운영되었음.
- 1992년 예술의전당 예술자료관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료관을 통합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술의전당 예술자료관으로 이전함.
- 2010년 ‘국립예술자료원(Korean National Archives of the Arts)’으로 재출범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예술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향함.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침 변경으로

국립예술자료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다시 흡수 통합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부 조직도 축소 개편되었음.<sup>127</sup>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시각예술 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음악, 공연예술 등 국내·외 예술 관련 기록물을 폭넓게 수집하되, 한국 근현대 예술사 연구와 기초예술의 보존·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록물을 우선 수집 대상으로 삼음.
- 기록물의 생성 경로와 활용 목적에 따라 수집기록, 생산기록(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공연영상화사업), 도서자료의 세 범주로 구분함.
- 2024년 기준으로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약 12개 컬렉션 소장, 5만여 건의 아카이브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 중 정리·기술 완료된 약 1만여 건을 우선 선별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 중임.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기록물관리시스템 : 소장기록물의 목록 검색, 원본 열람 예약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원문 서비스는 불가능함.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 예술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소로, 디지털기록물 및 구술채록 사업 결과물을 온라인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함.
- 미술작가 500인<sup>128</sup> : 국내 작가 약 500인의 작가 및 작품 정보를 제공함.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2011년부터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및 구술채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함.<sup>129</sup>
- 소장 기록물을 매개로 한 학술 연구와 창작 활용을 위해 소규모 아카이브 전시를 운영함.
-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K-PAAN<sup>130</sup>)에 참여하여 국립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중앙극장 등과 협력하여 공연예술 자료의 통합검색 및 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나. 민간 아카이브 기관

### 1) 한국미술정보센터 (Korea Art Archives)

설립주체	김달진미술연구소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설립연도	2010년	
소재지	서울 종로구 흥지문1길 4,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층	
웹사이트	<a href="http://www.artarchives.kr/">http://www.artarchives.kr/</a>	

<sup>127</sup> 「예술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pp.18-19.

<sup>128</sup>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https://www.daarts.or.kr/visual/artist> (2025. 12. 5 접속)

<sup>129</sup>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국립예술자료원, 2010.

<sup>130</sup>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K-PAAN) 누리집, 2018. <https://www.ihah.go.kr/k-paan/> (2025. 12. 5 접속)

## ■ 개요

- 2002년부터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발행하고 2008년에는 수집 자료를 전시·공유하기 위해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했음.
- 2010년 12월에는 이를 확대·전환하여 ‘한국미술정보센터(Korea Art Archives)’를 설립함.<sup>131</sup>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한국 근현대 미술 관련 자료 약 10만여 점이 소장되어 있음.
- 미술 전시도록·카탈로그, 미술전문 단행본·화집, 학술지·학회지·평론·연구논문, 미술 교과서·교재, 예술잡지·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포함하고, 전시 초대장·포스터·팸플릿·브로슈어, 작가·미술단체 파일, 희귀 사진집 등 시각자료도 다수 소장하고 있음.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소장 자료 목록은 달진닷컴(김달진미술연구소)과 한국미술정보센터(artarchives.kr) 두 개의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함.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소장품은 별도 웹사이트(daljinmuseum.com)에서 검색할 수 있음.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발간하여 국내 미술계 동향과 전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함.
- 소장도서 외에도 기사·칼럼, 논문·연구자료, 예술아카이브 관련 기사, 연관 사이트 등을 구축하여 한국 미술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자료는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실로 이관되어 공개될 예정이어서, 센터 자료가 공공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되는 기반을 마련함.
-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 「김달진TV」를 운영하며 동영상 콘텐츠로 미술현장을 기록하여 공유하고 있음.

## 2) 리움미술관 아카이브 (Leeum Museum of Art Archive)

설립주체	삼성문화재단	 © Leeum Museum of Art
설립연도	1998년	
소재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웹사이트	<a href="https://www.leeumhoam.org/leeum/edu/archive">https://www.leeumhoam.org/leeum/edu/archive</a>	

<sup>131</sup>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개관 및 한국미술정보센터 2010-2014”, 2015년 6월 18일

<https://daljin.com/?WS=33&BC=cv&CNO=361&DNO=12753> (2025. 12. 5 접속)

## ■ 개요

- 1998년 이구열 기증 자료를 기반으로 1999년 삼성문화재단이 개소한 국내 최초 미술 전문 아카이브임. 이후 리움미술관 부설 아카이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전시·자료 기록과 한국 근현대 미술가들의 개인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미술사 연구를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함.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1999년 삼성문화재단이 설립한 국내 최초 미술 전문 아카이브 '한국미술기록보존소'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작가와 지인 및 유족들이 기증한 약 8만 5천여 건의 자료를 '미술기록'으로,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해 온 리움/호암미술관, 호암갤러리, 로댕갤러리, 플라토 등 미술 공간의 자료를 전시 아카이브로서 '미술관기록'으로 구분해 관리함.
- 미술기록은 1세대 미술기자이자 평론가인 이구열(1932-2020)이 기증한 한국근현대미술 관련 자료 4만여 건, 근현대 작가들의 기증 자료 약 4만 5천여 건 등 한국미술기록보존소의 수집 및 연구자료로 이루어져 있음.
- 미술관기록은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호암미술관의 1982년 개관전부터 현재 전시에 이르기까지 미술관의 역대 전시, 프로그램, 행사 포스터와 사진 등 미술관과 관련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음.<sup>132</sup>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2023년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분류·정리한 리움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장자료 목록을 온라인 통합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온라인 아카이브 포털을 통해 소장자료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매주 금요일 리움미술관 자료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 향후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연구 포럼 개최 및 학술연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2. 국외 미술 아카이브 기관 운영 현황

### 가. 미주

#### 1)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아카이브 (The Museum of Modern Art Archives, Library, and Research Collections)

설립주체	뉴욕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설립연도	1989년
소재지	6F The Lewis B. and Dorothy Cullman Education and Research Building, 4 W 54th St, New York, NY 10019

<sup>132</sup> 리움미술관, "한국근현대미술의 연구 토대를 확장하는 '리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오픈", 2024년 10월 22일

### ■ 개요

- 뉴욕현대미술관은 예술품 전시뿐 아니라 방대한 연구 및 자료 보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MoMA 아카이브(Archives), 도서관(Library), 스터디 센터(Study Centers), 디지털 컬렉션(Digital Collections)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20~21세기 현대미술 자료의 수집·보존과 연구 지원을 담당함.
- MoMA 아카이브는 설립 아래 박물관의 모든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음.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약 90년간의 MoMA 기관 기록과 40년간의 MoMA PS1 기록을 포함하여, 20~21세기 미술 및 문화사 관련 1차 자료들을 망라함.
- 소장 자료에는 MoMA의 이사회 회의록, 전시기록, 부서 문서, 사진, 영상/음성 자료 등 기관 기록물 전반과, 저명한 예술가·갤러리·비평가 등의 개인 아카이브와 문서도 포함함.
- 사진 아카이브와 MoMA 구술사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인터뷰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대미술 연구의 1차 자료 역할을 함.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표준화된 기술 작업과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컬렉션별 검색 도구(Finding Aid)를 작성하여 공개, 각 검색 도구에는 해당 컬렉션의 배경, 생산자, 내용 구성, 자료 목록 등이 기술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MoMA Archives Image Database, MAID)를 구축하여 사진 아카이브 등 소장 자료의 디지털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MoMA 웹사이트를 통해 과거 전시 이력 데이터베이스와 보도자료 아카이브 등을 공개함.
- 일부 핵심 컬렉션 자료는 스미소니언 미국미술 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와 협력하여 마이크로필름화되어 국제 연구자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함.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내·외부 연구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현대미술 연구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됨.
- 정기적으로 아카이브 소장품 전시를 개최하여 일반 대중과 연구자에게 소장 자료를 선보임.
- MoMA 레지던시 및 펠로우십 프로그램(MoMA Scholars in Residence)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부 연구자들이 아카이브와 컬렉션을 심층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세계 학자·예술가·큐레이터·예술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연구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의 현대미술 연구·교육·교류를 수행하고 있음.

## 2) 미국 스미소니언 미국미술 아카이브(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설립주체	Smithsonian Institution
설립연도	1954년
소재지	750 9th Street NW, Victor Building, Suite 2200, Washington, D.C.
웹사이트	<a href="https://www.aaa.si.edu">https://www.aaa.si.edu</a>

### ■ 개요

- 스미소니언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미술가, 미술관, 갤러리, 컬렉터 등 미술계 전반의 기록물을 확보하여 미국 미술문화 전반을 조망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 미국 미술사의 사료를 수집·보존하고 연구 접근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 아카이브 기관임.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미국 전역과 전 시대에 걸친 시각예술 분야의 1차 자료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소장 자료 수는 약 2천만 점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함.
- 현재 약 6,000개의 컬렉션에 걸쳐 편지, 일기, 스크랩북 등 개인 문서와 비평 원고, 갤러리 및 미술관 기록, 재정 서류, 사진, 드로잉과 스케치, 희귀 간행물, 오디오/비디오 자료 등을 포함함.
- 2,300여 건 이상의 구술채록 기록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인정됨.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설립 초기인 1950년대부터 자료 마이크로필름화로 전국적인 열람체계를 구축했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디지털 아카이빙 선도 기관으로서 컬렉션 전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디지털 자료는 원본 문서의 박스·폴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 기반 메타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으며, 전자 검색 도구와 연동됨으로써 이용자는 컬렉션의 계층적 맥락을 유지한 폴더 단위 열람이 가능함.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1958년부터 구술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구자들에게 사료를 제공해왔고, 1960년대 후반 뉴딜 미술사업(the New Deal art programs) 관련 대규모 구술채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미술사의 구술사료 구축의 기반을 마련함.
- 1960년에 Bulletin (Archives of American Art)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판되었고, 1970년 이후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 2회 학술지 「Archives of American Art Journal」을 발행하여 소장품 기반의 연구 논문과 컬렉션 에세이를 출판하고 있음.
-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스미소니언 미국미술관 건물 내 로렌스 A. 플라이슈만 갤러리(Lawrence A. Fleischman Gallery)에서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함.

- 교육·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원생 대상 인턴십(Internship Projects), 전문연구자 대상 펠로우십(Fellowships)을 운영하고 있고, 소장품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소장품의 문서 전사 및 필사, 번역 지원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함.

### 3) 미국 게티 연구소(Getty Research Institute)

설립주체	장 폴 게티 신탁(J. Paul Getty Trust)
설립연도	1983년
소재지	1200 Getty Center Drive, Los Angeles, CA
웹사이트	<a href="https://www.getty.edu/research-institute/">https://www.getty.edu/research-institute/</a>

#### ■ 개요

- 설립자는 J. 폴 게티(1892–1976)로, 게티 미술관을 모태로 미술 연구와 보존, 장학 사업을 펼치기 위해 설립된 게티 신탁이 연구소를 창설함.
- 1983년 출범 당시 명칭은 게티 미술사·인문학 연구센터(Getty Center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 이름인 게티 연구소(Getty Research Institute)로 불림.
- 100만원 이상 규모의 장서와 특별 컬렉션(Special Collections),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미술사 지식의 생산·보존·공유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함.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미술사, 건축, 고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자료를 폭넓게 수집함. 선사시대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다루며, 전통적으로 서유럽 및 북미 미술사 자료에 강점을 두며, 최근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특별 컬렉션은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약 5만 점의 고서 및 희귀본, 2만7천여 점의 드로잉·판화 작품, 800여 개의 사진 컬렉션, 12,000 피트 분량의 원고 및 아카이브 자료, 각종 광학기기, 아티스트 북, 비디오 아트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음.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소장 자료는 온라인 통합목록(Online Public Access Catalog, OPAC)으로 제공되며, 현재 Getty Library Catalog를 통해 장서 및 소장 아카이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미술분야 표준 어휘 데이터베이스 게티 연표사전(Getty Vocabularies), 미술 및 건축 용어 사전(Art & Architecture Thesaurus, AAT), 지명 사전(Getty Thesaurus of Geographic Names, TGN), 인명 사전(Union List of Artist Names, ULAN), 문화재·예술작품 전거(Cultural Objects Name Authority, CONA)를 직접 구축·운영함. 미술작품이나 아카이브 메타데이터의 전세계 공용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술사 서지DB인 미술사학 서지 및 국제미술문헌색인 (Bibliography of the History of Art(BHA) and Répertoire international de la littérature de l'art (RILA)), 게티 미술품 소장 경로와 경매 정보 DB(Provenance Index) 등을 제공함.
- 2012년에는 전세계 미술사 서적의 디지털 컬렉션을 모은 게티 연구 포털(Getty Research Portal)을 통해 게티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공개된 미술사 자료 원문을 한곳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전문 연구자를 위한 학술 지원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러 분야의 연구자를 선정하여 3~9개월 동안 연구소에 초청하는 게티 연구자 프로그램(Getty Scholars Program)을 운영한다. 선발된 게티 연구원 및 펠로우들은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숙소와 급여 지원을 받으며, 매년 정한 공동 주제에 따라 각자 연구를 수행하고 교류함.
- 학술 출판 및 교류 측면에서도 게티 연구소는 적극적인데, 소장품 연구를 바탕으로 한 도록, 자료집 등을 간행하고 있으며, 연 1회 국제 학술지 『Getty Research Journal』을 발행하여 게티 소장품과 연구 프로젝트 관련 연구 성과를 심사를 거쳐 출판함.
- 이 외에도 학술 강연, 심포지엄, 워크숍 등 공개 프로그램을 수시로 열어 미술사 담론을 확산시키며, 국제 공동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함.

## 나. 유럽

### 1) 영국 테이트 아카이브 (Tate Archive)

설립주체	Tate
설립연도	1970
소재지	Tate Britain, Millbank, London SW1P 4RG
웹사이트	<a href="https://www.tate.org.uk/art/archive">https://www.tate.org.uk/art/archive</a>

### ■ 개요

- 테이트 아카이브는 영국 미술의 역사를 전문으로 수집·보존하는 최대 규모의 아카이브임.
- 1900년 이후 영국 근현대 미술 관련 문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영국 미술사의 연구 기반을 제공함. 테이트 미술관의 소장 미술품 컬렉션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술가, 미술계 인물, 미술 기관 등의 원본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함.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영국 미술사 자료 약 1,000여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아이템 수는 200만 점 이상에 이룸.
- 편지, 일기, 스케치, 사진, 전시 자료, 오디오비주얼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1차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로 생성된 원본 자료(born-digital)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2012~2014년 진행된 Archives & Access 프로젝트를 통해 약 2만여 점의 아카이브 자료(개별 이미지 수로 5만여 장)를 선별 디지털화하였으며, 이를 테이트 공식 웹사이트의 “Art & artists” 섹션에서 미술품 컬렉션 데이터와 통합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구현함.
- 아카이브 데이터는 아카이브 관리 DB(CALM)에, 미술품 데이터는 소장품 DB(The Museum System, TMS)에 각각 관리되며, 두 DB를 연계하여 작가, 주제, 시대 등 공통 키워드로 미술품과 아카이브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단일 인터페이스를 구축함.<sup>133</sup>
- REST API를 도입하여 내부 소장 DB의 메타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소장품 및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를 GitHub을 통해 공개(퍼블릭 도메인 CC0 라이선스)하는 오픈데이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sup>134</sup>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2012~2017년 Heritage Lottery Fund의 지원을 받아 5개년 프로그램(Archives & Access Learning Project)을 운영하여 전국단위의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워크숍,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 2014년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내에 아카이브 전용 갤러리를 신설하여, 아카이브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를 상설 운영함.
- 아카이브 업무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보존 처리 및 관련 실무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함.

## 2) 프랑스 국립미술사연구소 아카이브 (INHA – Institut national d'histoire de l'art)

설립주체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및 문화부
설립연도	2001년
소재지	Institut national d'histoire de l'art, 2 rue Vivienne 75002 Paris
웹사이트	<a href="https://www.inha.fr/institut/">https://www.inha.fr/institut/</a>

<sup>133</sup>Emily Fildes, “What the Fonds?! The ups and downs of digitising Tate’s Archive”, *MW2015: Museums and the Web 2015*, <https://mw2015.museumsandtheweb.com/paper/what-the-fonds-the-ups-and-downs-of-digitising-tates-archive/> (2025. 12. 5 접속)

<sup>134</sup> Richard Barrett-Small, “Archives & Access project: Open data brings beauty and insight”, *Tate Projects*, 2017, <https://www.tate.org.uk/about-us/projects/transforming-tate-britain-archives-access/archives-access-project-open-data-brings> (2025. 12. 5 접속)

## ■ 개요

- 프랑스의 미술사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공립 연구기관으로, 미술사 자료의 집적과 학술 연구 지원, 국제 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함.
- 2001년 7월 12일자 정부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와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의 공동 감독 하에 운영됨.
- 20세기 초 유명 수집가 자크 두세(Jacques Doucet)가 기증한 예술 및 고고학 도서관(Bibliothèque d'art et d'archéologie)의 유산을 계승한 것으로, 2003년 INHA로 이관되어 계속 확충되어 옴.
- 도서 컬렉션과 더불어 미술사학 및 미술 현장의 1차 자료 아카이브까지 폭넓게 소장한, 학술 도서관 겸 아카이브의 성격을 함께 갖춘 기관임.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약 170만 점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는 필사본 약 1,800점, 희귀본을 포함한 고서 2만 권, 소묘와 판화를 포함한 드로잉·판화 3만 점, 미술가와 비평가들의 자필 서한 4만5천 통 이상, 전시 초대장 9만6천 매, 예술품 사진 75만 장 등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미술사 연구자, 미술평론가, 미술 기관 관련 아카이브 컬렉션 약 200여 개를 신규로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INHA는 자체 개발한 AGORHA라는 플랫폼을 통해 미술사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공유하고 있는데, AGORHA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OAI-PMH)으로 노출되고 JSON, RDF 등의 포맷으로도 제공되어, 외부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얻거나 REST API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음.
-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공통 필사본/아카이브 목록 시스템인 Calames에 INHA의 미공개 자료(원고, 서한, 사진 등) 메타데이터가 등재되어 있어, 연구자들은 Calames를 통해 INHA 소장 필사본, 고문서, 사진, 전시 초청장 등 아카이브 컬렉션의 목록과 서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2006년 자체 디지털 도서관 “Cariatide”를 개설하여 소장 자료의 디지털 컬렉션을 제공함.<sup>135</sup>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매년 약 60명의 국내·외 미술사 연구자를 선발하여 INHA 연구 파트너로 초청하거나 펠로우십을 제공함. INHA에서 제공하는 연구 공간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학술행사에 참여하거나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함.
- 매년 6월에 “미술사 축제(Festival de l'histoire de l'art)”를 주관하는데, 3일 동안 약 200여 개의 강연, 원탁토론, 영화 상영, 워크숍 등으로 구성함. 프랑스内外의 미술사 전문가, 학생, 일반 대중이 모여 시각예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

---

<sup>135</sup>Kaelig Alléaume, “Cariatide, la nouvelle version de la bibliothèque numérique de l’INHA”, *archimage*, 2025.

<https://www.archimag.com/bibliotheque-edition/2025/04/09/cariatide-nouvelle-version-bibliotheque-numerique-inha#:~:text=1image%3A%20Lancée%20en%202006%2C%20la.interface%20de%20Cariatide> (2025. 12. 5 접속)

### 3) 독일 자딕 아카이브(ZADIK – Central Archive for German and International Art Market Studies, University of Cologne)

설립주체	독일 미술상·갤러리 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Galerien und Kunsthändler, 2020년 쾰른대 인문대학 부속연구소로 전환)
설립연도	1992
소재지	University of Cologne ZADIK, Im Mediapark 7, 50670 Cologne
웹사이트	<a href="https://zadik.phil-fak.uni-koeln.de/en/">https://zadik.phil-fak.uni-koeln.de/en/</a>

#### ■ 개요

- 세계 최초의 미술시장 전문 아카이브로, 근현대 미술품 시장의 역사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기록·연구하기 위해 설립됨.
- 미술시장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아카이브화함으로써 미술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미술작품의 유통 경로, 갤러리와 컬렉터의 역할, 경매 문화 등의 역사를 자료로 남겨 프로비던스 연구나 미술경제사 연구에 기여함.
- 1992년 독일 미술상·갤러리 협회(BVDG)가 쾰른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였으며, 이후 30여 년간 독일 및 국제 미술시장의 1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했음.
- 2020년에는 쾰른 대학교 인문대학(Philosophische Fakultät) 산하 학술연구소 Forschungsarchiv ZADIK로 편입되어, 대학의 학술 지원을 받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발전함.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독일 및 국제 미술시장 관련 아카이브 컬렉션 약 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로, 특히 전후 독일 현대미술 시장의 성장과 국제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음.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일부 아카이브 컬렉션은 현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되어 있고, ZADIK 웹사이트의 온라인 검색 기능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조회하고 일부 스캔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음.
- 2019~2021년까지 하우스베델&놀테 경매사(Hauswedell & Nolte)의 1940~1992년 경매 카탈로그, 위탁장부, 기록물을 전면 스캔하고 텍스트 인식(OCR) 및 데이터베이스 색인을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그외 갤러리 도로테 & 콘라트 피셔 아카이브(Dorothee & Konrad Fischer Archive), 미술 기금(Stiftung Kunstmuseum) 문서 아카이브, 컬렉터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레버(G. F. Reber) 아카이브 등 여러 컬렉션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아직 Tate나 INHA처럼 메타데이터 API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거나 하자는 않으며, 내부 데이터베이스 열람 위주로 운영됨.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웰른 대학원생 등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아카이브 정리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미술사 아카이빙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함.
- 자체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와 행사를 개최함.
- 매년 웰른 Art Cologne과 협업하여 특별전, 패널 토크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Art Cologne 현장에 아카이브 전시를 선보이거나 미술시장 관련 토론회(ZADIK Talk)를 개최함으로써 미술시장 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함.<sup>136</sup>
- 1994년에 창간되어 매년 발행되어 왔으며, 미술시장사 자료와 연구를 다뤄옴. 『sediment』는 독일어와 영어 병기로 출판되었고, 초기에는 ZADIK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 기사들을 실었으며, 2022년부터는 동료심사(peer review)를 거친 외부 연구자의 논문을 포함하는 학술지로 발전함.

## 다. 아시아

### 1) 홍콩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Asia Art Archive)

설립주체	шу클레어(Claire Hsu), 장총쭝(Johnson Chang) 및 로널드 아쿨리(Ronald Arculli) 등이 공동 설립
설립연도	2000년
소재지	11/F Hollywood Centre, 233 Hollywood Road, Sheung Wan, Hong Kong
웹사이트	<a href="https://aaa.org.hk/en">https://aaa.org.hk/en</a>

## ■ 개요

- 아시아 현대미술의 역사를 기록·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아카이브로, 아시아 미술계 인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 맥락 속에 제공함.
-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공개 현대미술 연구 자료 컬렉션 중 하나로 평가되며, 수집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출판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비판적 담론 형성과 아카이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현대미술 관련 사진, 영상, 오디오 녹음, 포스터·팸플릿 등의 1차 자료와 서적, 전시 카탈로그, 학술지 등의 2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함.

<sup>136</sup> Charlotte Zander, "ZADIK special event at ART COLOGNE 2025", ART COLOGNE, 2025.

[https://www.artcologne.com/pressreleases/pm\\_0570\\_2025\\_8\\_EN\(GB\).xml?datei=pm\\_0570\\_2025\\_8\\_EN%28GB%29.xml&title=ZADIK%20special%20event%20at%20ART%20COLOGNE%202025#:~:text=Live%20panel](https://www.artcologne.com/pressreleases/pm_0570_2025_8_EN(GB).xml?datei=pm_0570_2025_8_EN%28GB%29.xml&title=ZADIK%20special%20event%20at%20ART%20COLOGNE%202025#:~:text=Live%20panel) (2025. 12. 5 접속)

- 개인 미술가의 아카이브 등 특수 컬렉션도 기증 받아 디지털화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설립 이래 20여 년 간 약 12만 건 이상의 기록을 축적함.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2012년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인 “컬렉션 온라인(Collection Online)”을 개설해 수십만 건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전문 컬렉션 관리시스템(Qi Collections Management System, Qi)를 도입하여 REST API 및 OAI-PMH 등 메타데이터 표준을 지원하고 있음.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2007년부터 자료 활용을 장려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예술가를 초청하였고, 특정 주제 연구를 위한 연구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온라인 비평 저널 『Like a Fever』 등을 발행하며<sup>137</sup>, 아이 웨이웨이(Ai Weiwei),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ls) 등 예술인이 참여한 공개 강연회와 심포지엄을 500회 이상 개최하여 대중과 소통하고 비판적 담론을 형성해오고 있음.
- 이 밖에도 청소년 워크숍, 커뮤니티 아카이브 프로젝트 등 교육·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아카이브 자료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뉴욕과 뉴델리의 지부를 거점으로 아시아 미술사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음.

## 2) 일본 국립아트리서치센터 (National Center for Art Research, NCAR)

설립주체	국립미술관
설립연도	2023년
소재지	Kitanomaru Square (2F), 1-13-12 Kudan-Kita, Chiyoda-ku, Tokyo 102-0073
웹사이트	<a href="https://ncar.artmuseums.go.jp/">https://ncar.artmuseums.go.jp/</a>

### ■ 개요

-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 사무처의 일원으로서 국내·외 미술관·연구기관과 협력해 아트 진흥 플랫폼을 구축함.
- “예술을 연결하고, 심화하고, 확장한다”를 키워드로, 국내·외 미술관 및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을 잇는 새로운 거점으로서, 단순한 조사·연구를 넘어 정보 수집과 국제 발신, 컬렉션 활용 촉진,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교육 프로그램 확충, 그리고 예술가 지원 등을 통해 일본 미술관 활동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함.
- 일본 박물관 컬렉션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삼음.

<sup>137</sup>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https://aaa.org.hk/en/like-a-fever> (2025. 12. 5 접속)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독립적인 미술관 소장품을 보유하지 않고, 주로 정보 자원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예술 자료를 관리·제공함.
- 일본 국립아트리서치센터(National Center for Art Research, NCAR) 산하 5개 국립미술관(도쿄 국립근대미술관, 국립공예관, 교토 국립근대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국제미술관)의 근현대 작품 약 4만6천여 점의 소장목록 정보(국립미술관 소장 미술품 DB<sup>138</sup>)를 통합 검색할 수 있음.
- 아트 플랫폼 재팬(Art Platform Japan, APJ)는 운영하는 통합 연구포털로, 일본 현대미술·박물관 컬렉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제공함. ‘작가사전(Dictionary of Artists in Japan, DAJ)’, ‘전국 미술관 소장품 검색(SHŪZŌ)’ 외에도 근현대 전시·갤러리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함. 작품의 제목과 기법과 같은 기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의 출처(소유 이력)와 같은 역사적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포함됨.
- 일본 내 근현대 미술계 관련 문헌목록, 연구성과, 전시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일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시스템이 중심으로, 5개 국립미술관의 메타데이터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며, 사용자는 작품 약 4만6천여 점과 관련 전거 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음.
- 국립미술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NAM Collection DB), 전시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와 연계되어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춤.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일본 예술 관련 연구 가이드 개발을 통해 학계·자료조사자를 지원함.
- 해외 비엔날레·트리엔날레 등에 일본 현대미술 작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아티스트의 국제 발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국립미술관과 전국의 소속 미술관 간 협력전시도 주관함. 대표 프로그램으로 ‘국립미술관 컬렉션·다이얼로그(Collection Dialogue)’와 ‘컬렉션·플러스’가 있음.

### 3) 일본 일본미술 구술채록 아카이브 (Oral History Archives of Japanese Art)

설립주체	일본의 미술사 연구자들과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비영리 연구단체
설립연도	2006년
소재지	온라인 운영
웹사이트	<a href="https://oralarthistory.org/en/">https://oralarthistory.org/en/</a>

<sup>138</sup> 일본 국립 아트 리서치센터 - 소장품 통합목록 검색시스템(Union Catalog of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Art Museums, Japan)

<https://search.artmuseums.go.jp> (2025. 12. 5 접속)

## ■ 개요

- 도쿄대 카지야 켄지(牧口千夏), 니쇼가쿠샤 대학 아다치 젠(足立元) 등 미술사학자 6인이 모여 아카이브를 공식 출범시킴. 2007년 8월 첫 인터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구술 채록 사업이 시작됨.
- 대학 및 미술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협업 형태로 참여하며, 특정 기관이 아닌 독립된 형태로 운영됨.
- 전후 일본 미술사의 구술 증언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로, 미술계에 종사해온 원로 예술가,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등의 구술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역사 사료로 축적하여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터뷰 녹취록은 채록·전시되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1차 사료로 제공되며,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보존되지만 일부 인터뷰는 영어 번역본도 함께 공개되어 국제 연구자들도 접근 가능함.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2007년 화가 시라가 카즈오(白髮一雄)를 대상으로 첫 인터뷰를 실시한 이래 매년 꾸준히 채록을 진행하여, 2013년까지 누적 70건 이상의 인터뷰를 웹사이트에 공개함.
- 각 인터뷰는 음성 녹음 및 영상 촬영으로 남기며, 전문을 일본어 텍스트(PDF)로 보존함. 웹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인터뷰 전사본과 함께 일부 영상 클립도 아카이브 형태로 공개되어 있음.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인터뷰별 소개 페이지와 전사본(PDF) 다운로드 기능이 갖춰져 있고, 인명이나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음.
- 인터뷰 음성 및 영상을 보존하기 위한 동영상 아카이브 섹션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인터뷰의 녹화 영상과 워크숍 기록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함.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2009년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에서 “구술채록의 가능성(The Possibilities of Oral Art History)”이라는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구술채록의 실천(The Practices of Oral Art History)” 심포지엄을 여는 등 구술 아카이브의 의의와 방법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 2012년 AAA(아시아 아카이브)의 e-저널 『Field Notes』에 본 아카이브의 인터뷰 발췌와 해설을 기고했고, 2013년에는 뉴욕 MoMA의 온라인 플랫폼(Post)에 일부 인터뷰 번역을 제공하는 등 해외 기관과의 컨텐츠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음.

## 4) 대만 미술정보 아카이브(臺灣美術知識庫, Taiwan Fine Arts Archives)

설립주체	국립대만미술관(國立臺灣美術館,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설립연도	1988년
소재지	온라인 운영

### ■ 개요

- 문화부는 대만 미술사 자료를 체계화하기 위해 「대만 미술사 재건 계획(臺灣藝術史重建計畫)」을 추진하면서, 국립대만미술관에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위탁함.
- 국립대만미술관은 장기간 축적한 대만 미술 연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2020년에 공식적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공개함.

### ■ 수집대상 및 소장현황

- 주된 수집 대상은 대만미술전람회(臺灣省全省美術展覽會) 관련 문헌·기록 자료로, 국립대만미술관이 발간한 미술 저널, 학술논문, 연구지, 비평자료 등도 포함하고 있음.
- 26,000여 건 이상의 데이터가 등재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 수가 논문 및 기사 형태로 전문 뷰어를 통해 온라인 열람 가능함.

### ■ 시스템 및 기술적 특성

- 웹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데이터를 6개 영역(臺灣美展·美術理論·美術團體·文獻史料·圖像資料·影音資料)으로 분류하여 메뉴화했으며, 각 영역별 검색 링크를 통해 자료에 접근 가능함.

### ■ 활용 방안 및 연계 프로그램

- 대만 미술사 재구축 계획 사업 일환으로, 국내 여러 기관과 연계되어 있음.
- 아카이브 웹사이트의 ‘관련 링크(相關連結)’ 메뉴에는 문화부, 국사관(國史館) 등 정부 기관과 각지 박물관·대학 미술학과 등 100여 개의 문화·학술 기관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대만 내 문화예술 기관 간 정보망을 구축함.

## 부록 2 자문회의 및 FGI 사전 질문지

---

### 1. 전문가 의견 조사 - 자문회의 사전 질문지

[공통]

#### ■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의 필요성 및 기대 역할

- ❖ 현재 한국 미술 및 기록관리 현장에서 '미술 아카이브' 또는 '아카이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
- ❖ 미술 분야 아카이스트가 담당해야 할 핵심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

#### ■ 미술 아카이스트의 교육과정 설계 방향

- ❖ 기록관리 전공 학생들의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학구적 관심, 관련 수요 현황
- ❖ 미술 아카이브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이론적 혹은 실천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 ❖ 비기록 전공자를 위한 기록관리 입문 또는 기초교육 커리큘럼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이나 사례
- ❖ 미술 아카이브 교육과정에서 실무 기반 교육(실습, 프로젝트, 기관 연계 등)을 구성할 때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기존 기록관리 교육의 어떤 부분을 참고하거나 보완하면 좋을지
- ❖ 이러한 전문 분야에서의 아카이스트 양성은 누구에 의해, 어떤 기관이나 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교육 주체 및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 ❖ 전문인력 양성이 단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로 확장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 향후 운영을 위한 제언

- ❖ 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운영적 요소가 있다면
- ❖ 미술 아카이스트 양성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
- ❖ 미술관, 아카이브 등 관련 기관과의 직무 연계성이나 협업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본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 교육 제도화 혹은 지속 운영을 위한 조건

[제도, 정책]

#### ■ 미술 아카이스트의 제도적 전문성 인정 방안

- ❖ 미술 아카이스트 및 미술 전문 인력 연구 현황
- ❖ '기록관리 전문직'의 외연 안에서 제도화 가능성 (정책적 접근(문화예술연수단원의 학예사/에듀케이터 사례), 그 밖에 정책 제도 마련 방안)
- ❖ 별도의 전문성 인증이나 교육 인증 체계가 필요 여부 (요건이나 정책적 고려사항)

- ❖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기조에서 미술관의 방향성과 아카이브 서비스(디지털) 및 전시/학예 프로그램에서 아카이비스트의 역할
- ❖ 민간기록 주체가 아카이브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건이나,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장치가 있다면 제안
- ❖ 현재 국내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예술 기관에서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의견
- ❖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체계에서 기존 직군과 비교했을 때 미술 아카이비스트가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과 그 정책적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의견
- ❖ 미술 아카이비스트를 별도의 전문 직군으로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도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과제(법·제도, 인력 수급, 예산 등)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 ❖ 본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해외 정책 모델이나 운영 사례가 있다면 소개

## [기록관리]

###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기반

- ❖ 미술 분야에 적합한 오픈소스/기성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 관련 조언
- ❖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획 및 구축 시, 기술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철학, 윤리, 사용자성 등)에 대한 의견

### ■ 미술 아카이브의 지역 기반 운영과 관리체계

- ❖ 미술 분야에서도 지역 미술관 및 문화재단이나 사립미술관, 개인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자문(어떻게 제도 내로 포섭하고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

### ■ 미술관 아카이브 업무 협업시스템 운영

- ❖ 미술관에서 아카이비스트로 근무하는 것이 타 분야 기록 관리와 비교할 때 차별점과 특징
- ❖ 현재 미술관 기록관리 및 아카이브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정책, 표준 지침, 내규 등이 있다면 소개
- ❖ 기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미술관 내부의 다른 부서와 협업하신 구체적인 사례

## [미술사]

### ■ 미술이론 대학원에서 기록 관련 교육과정 적용 가능여부

- ❖ 큐레이터학과 및 예술경영학 전공에서 아카이브 주제로 논문 발표 사례
- ❖ 졸업생 중 미술기관에서 기록 인력으로 활동하는 사례
- ❖ 학부 및 석사 교육과정 중에서 기록 관련과 연계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지, 추가 가능성

## ■ 미술사와 기록의 방법론 방법

- ❖ 비물질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동시대 미술의 기록화에 대하여
- ❖ 기록의 한 방법으로써 구술기록 수집과 해석을 통한 사료의 가치와 해석의 책임까지 미술 아카이비스트에게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지
- ❖ 미술사 연구에서 아카이브가 직접적으로 활용됐던 경험

### [교육학]

##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미술 분야 적용에 대한 진단

-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미술교육 현장에서 체감하신 실질적인 변화나 제도의 효과가 있다면 소개, 제도가 학생들의 진로 설정이나 현장 참여 방식에 끼친 변화
- ❖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미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 특히 미술관이나 시각예술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 기준
- ❖ 정규 교육(대학) 외에 외부 교육 프로그램, 이를테면 기관 특강이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교육이나 인증 제도에 대해 장단점

## ■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과정의 평가 방안 및 제도적 연계

- ❖ 학습자의 성취도나 전문성을 평가함에 있어 특히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방안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과 설계 방법, 평가 지표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이나 실제 적용 사례

### [저작권]

- ❖ 디지털 아카이브에 포함되는 시각자료(작품 이미지 등)의 저작권 처리 방식과 관련한 유의점
- ❖ 미술 아카이브 운영 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저작권 분쟁 사례 및 예방 조치
- ❖ 미술 아카이브 교육과정 내 저작권 교육의 적절한 수준과 구성 방안

### [보존, 복원]

- ❖ 미술 아카이브의 디지털 자료 보존을 위한 필수 고려사항 및 기술적 요건
- ❖ 물리적 기록물(포스터, 필름, 도록 등)의 장기 보존을 위한 기본 원칙
- ❖ 현장에서 실무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존 관리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주제

## 2. 전문가 의견 조사 - FGI 사전 질문지

### [공통]

## ■ 아카이빙 인력 양성과 교육과정 설계 방향

- ❖ 현장에서 체감한 ‘미술 아카이브’ 또는 ‘아카이비스트’의 필요성

- ❖ 아카이빙 실무를 수행할 인력에게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하시는 핵심 역량  
(예: 디지털 기술 이해, 자료 선별 및 해석 능력,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저작권 이해 등)
- ❖ 아카이빙 실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이나 유익했던/필요했던 학습 방식(실습, 기관 연계 등)에 대한 제안

### ■ 향후 운영을 위한 제언

- ❖ 향후 아카이빙 교육이 현장성과 실무 연계를 갖추기 위한 제언
- ❖ 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운영적 요소가 있다면

### [A그룹] 작가 및 작품 특화 아카이브 실무자 그룹

#### ■ 프로젝트 참여 경험 및 역할

- ❖ 프로젝트에서 맡으신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연구팀은 업무 진행 범위 및 구조  
(예: 작가 섭외, 자료조사, 인터뷰,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기술 등)
- ❖ 수집 자료의 범위와 기준 설정의 방식  
(예: 작품 도판, 기사, 전시자료, 서지정보, 약력, 구술채록 등 자료 유형과 우선순위 선정 기준)
- ❖ 해당 작가의 특수성은 무엇이었고, 아카이브화의 일반적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예: 작품의 장르적 매체적 특징, 미상 자료 또는 작품 소실 등)

#### ■ 아카이빙 실무 및 시스템 운영 경험

- ❖ 기록관리 지침서에 따라 작업시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의견
- ❖ 관리지침이나 제도적인 구조와 현장의 실제 요구나 상황 사이에서 겪은 간극에 대한 의견
- ❖ 수집 자료의 공개 범위 설정, 저작권 확인, 후속 활용 등을 고려할 때 윤리적 고민이나 제도적 충돌이 있었던 사례 소개
- ❖ (연구자) 제공된 매뉴얼이나 기준 지침이 실질적 작업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으며, 반대로 현장에 맞지 않거나 미비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 ❖ (담당자)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가진 인력 구조나 규정 측면에서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가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 [B그룹]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 및 협력기관 그룹

#### ■ 기관별 운영 현황 및 특성

- ❖ 귀사의 창립 시기 및 계기, 현재의 사업 범위나 특징에 대해 간략 소개
- ❖ 미술 아카이빙 콘텐츠(작품, 전시, 기록 등)를 디지털화하거나 콘텐츠로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원칙이나 기준에 대한 의견

- ❖ 현재 국내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디지털 활용이 그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
- ❖ 현재 진행하고 계신 아카이브 관련 사업의 협력 기관 및 주요 내용
- ❖ 해당 아카이브 사업을 운영·수행하는 인력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할 범위

### ■ 디지털 아카이빙 협업 구조 및 기술적 환경

- ❖ 미술 아카이브 디지털화 과정에서 외부 기관/업체/인력과의 협업 경험 및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 ❖ 디지털 아카이빙 실무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역량  
(예: 메타데이터 작성, 기록정리 기술, 디지털 보존 등)
- ❖ 민간 기관 또는 예술 현장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재정, 인력, 기술적 기반 측면에서의 한계,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 [C그룹] 공공미술관 및 지역 지역 아카이브 담당자 그룹

#### ■ 기관 현황 및 (미술)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

- ❖ 귀 기관에서 아카이브 구축이 시작된 계기와 주요 현황에 대해 소개
- ❖ 귀 기관에서 구축된 아카이브를 활용한 전시나 프로그램의 사례 소개
- ❖ 귀 기관에서 아카이브의 역할은 무엇이고, 현재 국내 문화예술 현장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 현황
- ❖ ‘미술 전문 아카이비스트 양성’의 필요성
- ❖ 아카이브 구축이나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았던 경험, 실질적 도움 사례  
(예: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 문화예술연수단원, 기록물관리전문가 교육, 미술아카이브 구축 및 기록물관리지침 교육, 전문가 초청 강의 등)
- ❖ (C그룹-a) 1차년도 참여 이후, 후속 연도 사업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이어가셨는지, 또는 보완하고자 한 부분이 있었다면 소개
- ❖ (C그룹-b) 지역 아카이브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끼셨던 아카이브의 중요성
- ❖ (C그룹-c) 지역 중심으로 지역, 미술, 기록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아카이브의 확장 가능성

#### ■ 인력, 조직, 협업 구조

- ❖ 기록물 관리를 중심으로 학예, 연구, 교육 등 각 부서 간 협업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의 협업 강점 또는 한계
- ❖ 실무 추진 시 아카이브 관련 업무 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실무자의 부담이나 조율이 필요했던 지점에 대한 의견
- ❖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 지원을 통한 아카이비스트 파견 인력 운영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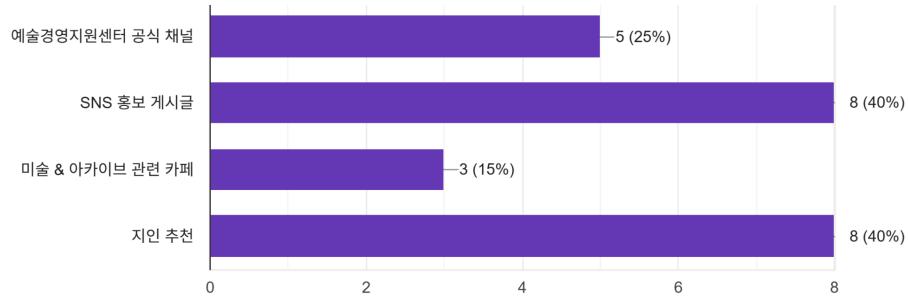
## ■ 제도적 뒷받침 및 교육 연계

- ❖ 현재의 지원사업 및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
- ❖ 공공미술관에서의 아카이브 운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적 장치 제안
- ❖ 실제 미술 아카이브 구축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은 무엇이며, 향후 이를 반영한 미술 아카이비스트 교육과정 개발 시 강조되어야 할 핵심 요소 (예: 미술사, 예술경영, 기록학, 정보관리 등)

## 부록 3 정량·정성평가 개별 응답 분석

### 1. 참여 교육생 - 정량평가 개별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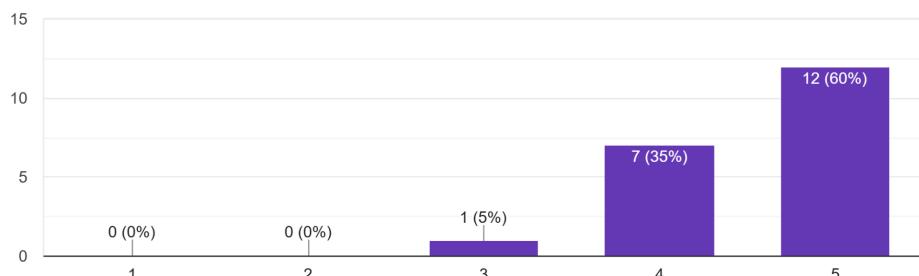
####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로



- ‘SNS 홍보 게시글’과 ‘지인 추천’이 동등하게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SNS 홍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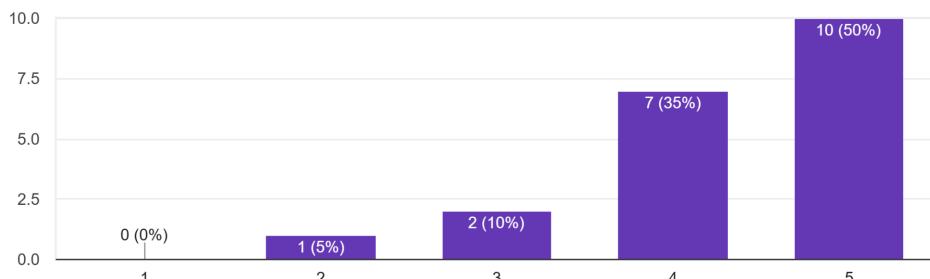
#### [프로그램 전체]

#### ■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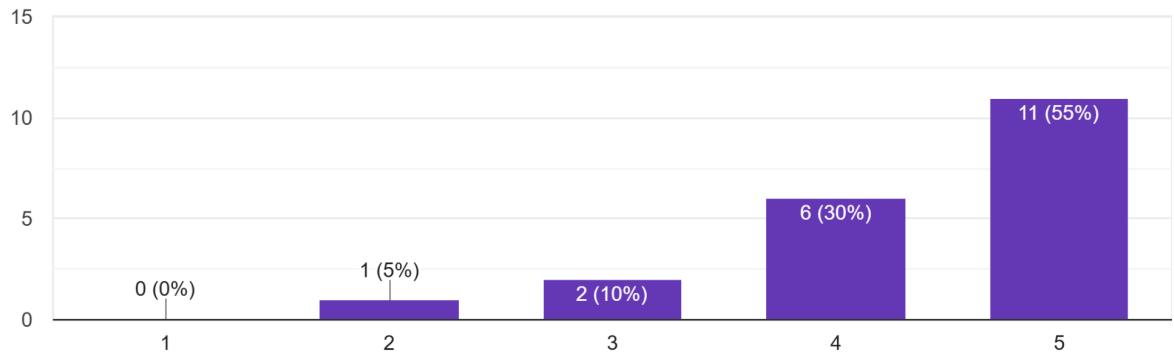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가 가장 많은 응답(60%)을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이 전문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됨.

#### ■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주제·순서)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고, 적절하다고 느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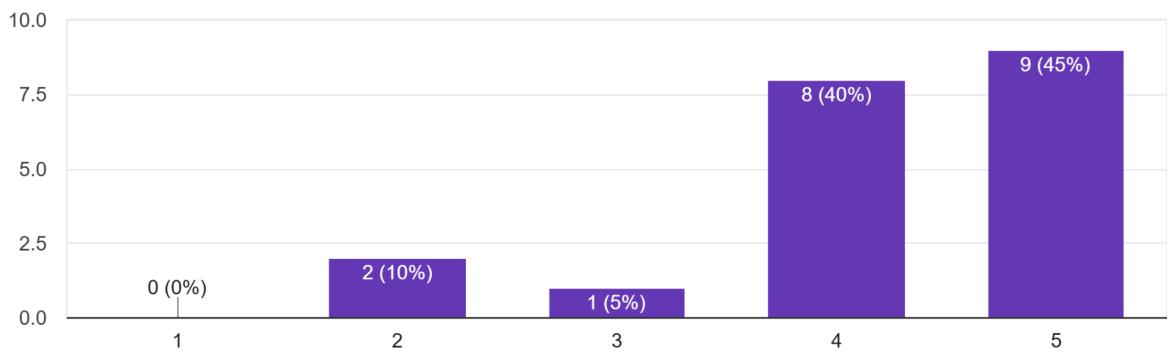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가 가장 많은 응답(50%)을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인원(95%)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의 구성이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됨.

## ■ 강사의 강의 구성과 전달력이 적절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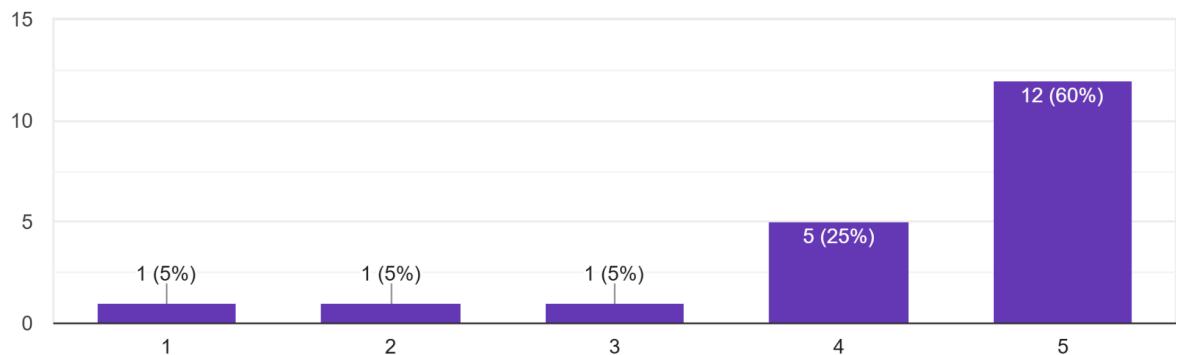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55%)을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인원(95%)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 참여 강사와 강의 구성이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됨.

## ■ 프로그램 구성과 나이도가 교육생이 소화하기에 적절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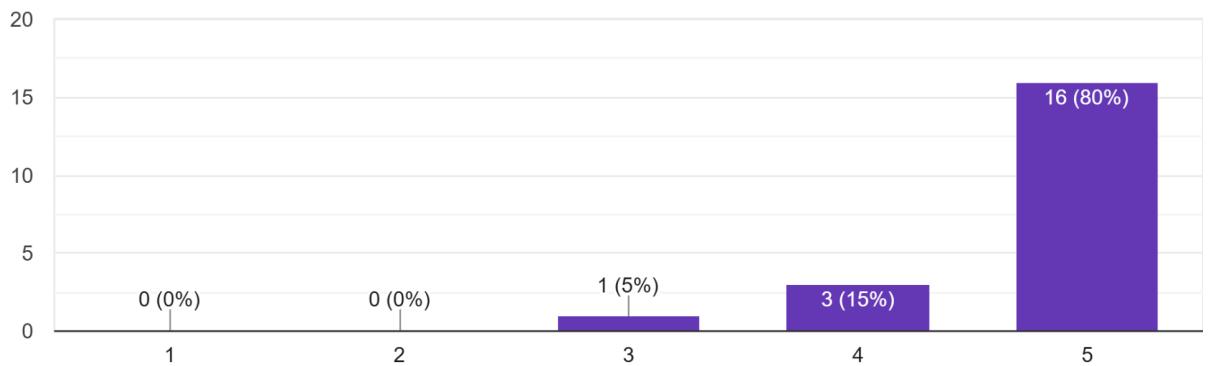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45%)을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인원(90%)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 구성과 나이도가 교육생이 소화하기에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됨.

## ■ 교육 환경(장소/온라인, 음향/화면, 접근성 등)에 만족스러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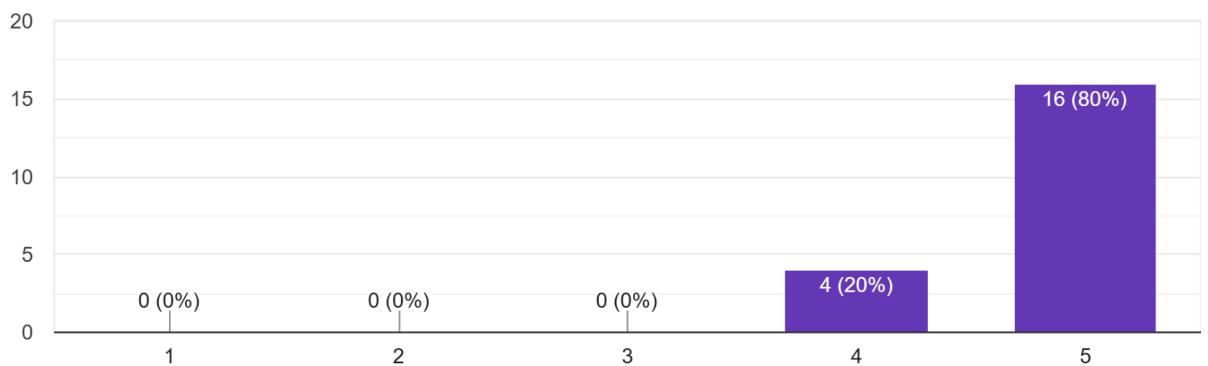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60%)을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인원(85%)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 교육 환경이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파악됨.

### ■ 가이드북·자료 등 교재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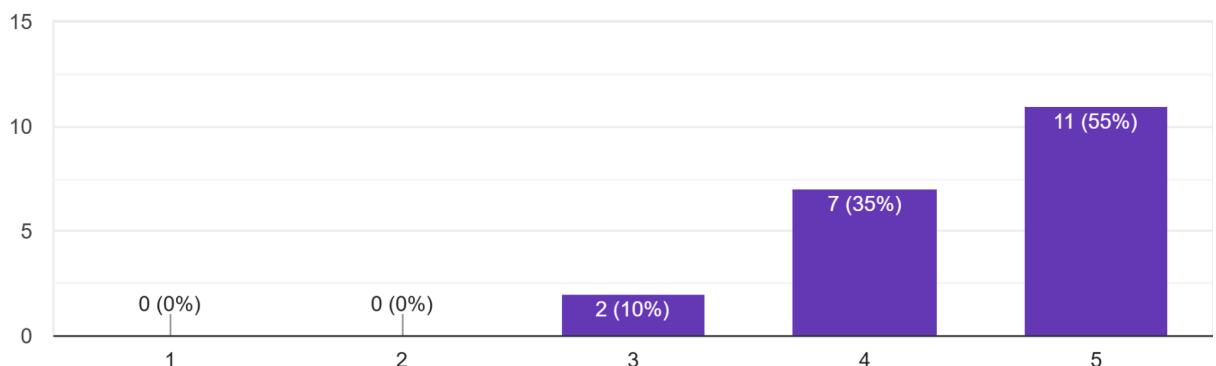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80%)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가이드북 및 자료 등 학습 교재에 만족한 것으로 파악됨.

### ■ 공지, 자료 제공 등 운영 측면은 만족스러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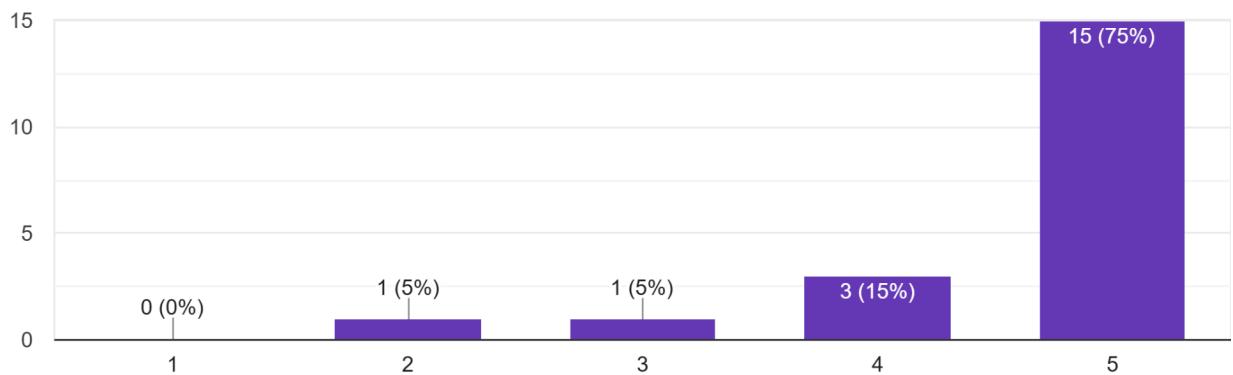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80%)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이 4점(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공지, 자료 제공 등 운영 측면에 만족한 것으로 파악됨.

### ■ 프로그램 강의시간(2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55%)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강의 진행시간이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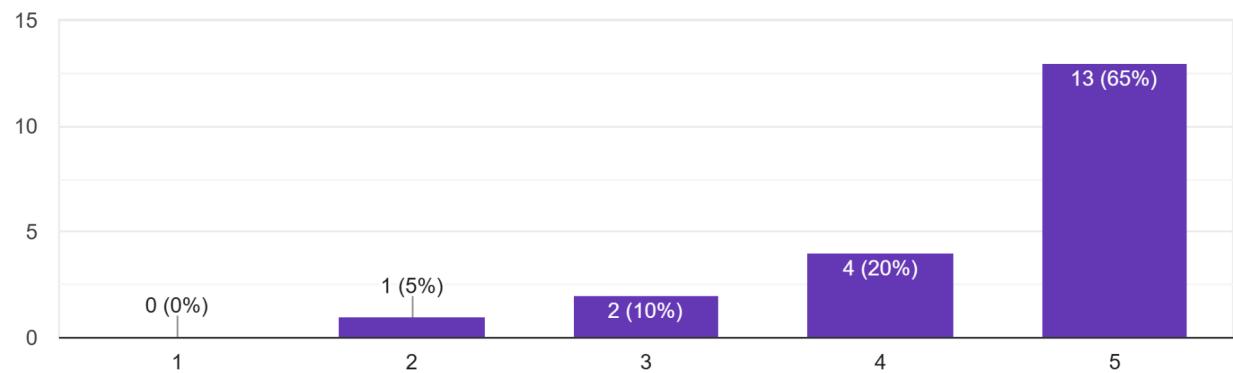
### ■ 프로그램 참여인원(20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75%)을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인원(95%)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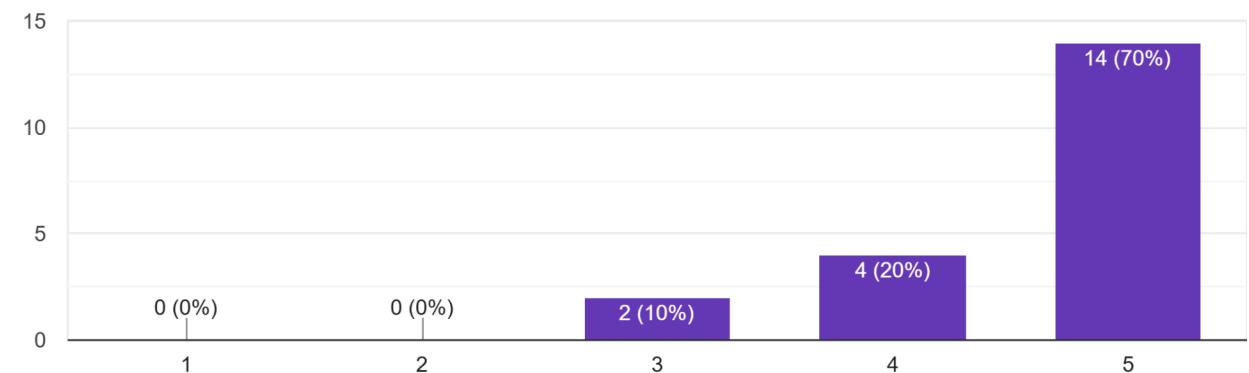
### [이론/사례 강의]

### ■ 이론 및 사례 강의 회차가 적절했다고 느끼시나요?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65%)을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인원(95%)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이론 및 사례 강의 회차가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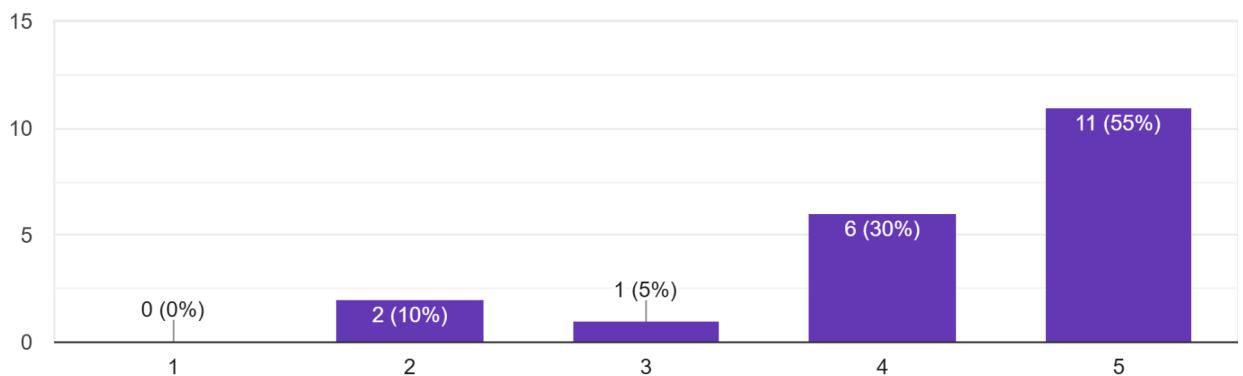
### ■ 이론 강의 주제는 적절했다고 느끼시나요?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70%)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이론 및 사례 강의 주제가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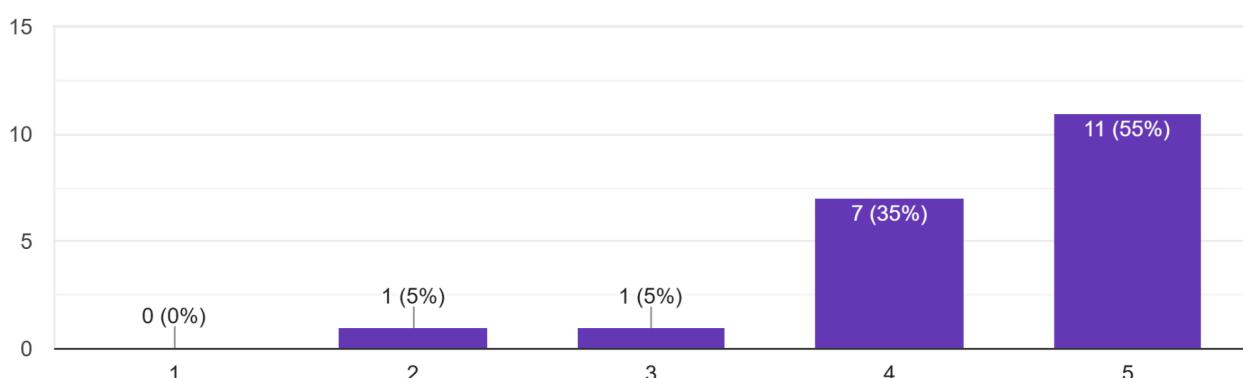
#### [실습/발표 강의]

##### ■ 실습 및 발표 강의 회차가 적절했다고 느끼시나요?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55%)을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인원(90%)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실습 및 발표 강의 회차가 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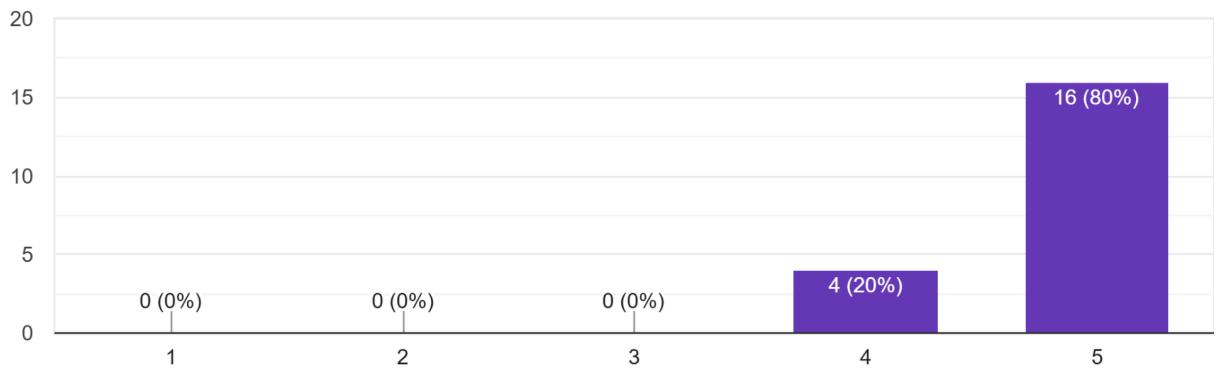
##### ■ 실습 강의를 통해 실무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55%)을 차지하였으며, 과반수 인원(90%)이 3점(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실습 및 발표 강의가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현장 견학]

### ■ 기관 현장 방문 수업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나요?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80%)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이 4점(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기관 현장 방문 수업이 유익했던 것으로 파악됨.

## [미술 아카이비스트 능력 함양]

### ■ 교육을 마친 후 미술 아카이비스트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복수응답)

분석력 - 기록의 구조를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능력	14명	70%
해석력 - 기록의 맥락을 읽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	22명	60%
기획력 - 아카이브를 사회적 자원으로 확장하는 능력	11명	55%
커뮤니케이션 - 작가·기관·연구자 등과 협업하는 능력	10명	50%
기술력 - 데이터·시스템·디지털 툴을 운용하는 능력	9명	45%
윤리적 판단력 - 정보 공개·비공개의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5명	25%
비판적 사고 - 기록의 권력과 맥락을 성찰하는 능력	4명	20%

- ‘분석력’이 가장 많은 응답(70%)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따라 ‘해석력’과 ‘기획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미술 아카이비스트가 함양해야 할 능력이라고 선택하였음.
- 실습과제와 현장 견학을 통해 직접 아카이브 자료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며 기획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됨.

## 2. 참여 교육생 - 정성평가 개별 응답 분석

### ■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 **아카이브의 개념과 중요성:** 많은 교육생들이 “아카이브와 아카이비스트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필요성을 처음 명확히 이해했다”고 답변함. 미술 분야에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미술 아카이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다는 의견이 다수. 특히 미술 분야의 교육 내에서 평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기록관리 이론을 배움으로써 전체적인 시야가 넓어졌다는 의견.
-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실무:** 실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배운 것이 새로웠다는 응답이 많았음. ‘자료의 수집 → 분류/정리(기술) → 보존 → 활용에 이르는 아카이브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알게 되었다는 의견. 한 교육생은 “기록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지 등 실무 절차를 처음 배웠다”고 했으며, 더불어 아카이비스트의 실무 역량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
- **디지털 아카이빙 도구와 기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활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접한 것도 큰 배움으로 제시됨. AtoM, ArchivesSpace, Omeka S 등 오픈소스 아카이브 소프트웨어의 존재와 활용 방법을 알게 되었고, 국제적인 메타데이터 표준(Dublin Core, VRA Core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학습했다는 답변 존재. 기존에 몰랐던 디지털 기술 용어와 개념(예: 온톨로지 기반 설계 등)을 배워 시야가 넓어졌다는 의견.
- **특화된 아카이빙 방법론:** 일부 교육생들은 작가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연보 작성’이나 ‘구술채록’ 등의 특수한 방법론을 처음 접했다고 밝힘. 예를 들어, 작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는 법이나, 구술 기록을 채록하여 아카이브 자료로 만드는 구술사 아카이빙 기법 등을 새롭게 체득하는 기회가 됨. 이러한 심화 주제들을 통해 아카이브 작업에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견.

### ■ 본 교육을 통해 향후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나요?

- **직무 역량 강화:** 가장 많은 응답은 “현업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로 분석. 기록물 분류 기술, DB구축 등 실무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향후 관련 업무(예: 미술관 자료관리, 아카이브 구축 업무 등)를 맡게 될 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몇몇 교육생들은 “이번에 배운 메타데이터 작성법을 앞으로 자료 관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직무역량 강화에 자신감을 보임.
- **기관 업무 개선 및 프로젝트 추진:** 교육생 중 상당수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시했음. 예를 들어, 현재 근무 중인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에 아카이브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기록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데 이번 교육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 작성. “우리 기관에도 아카이브를 구축하도록 제안할 계획”, “배운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여 기록관리 체계를 잡는데 활용하고 싶다” 등 기관 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는 응답 다수.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개인 진로 개발 및 전문성 제고:** 일부 교육생들은 개인적인 커리어 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이번 과정을 계기로 “아카이비스트로서의 진로 방향을 확고히 정했다”, “향후 아카이브 전문직으로 이직하거나

대학원 진학 등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등 경력 개발에 유익했다는 의견. 또한 대학원 연구나 개인 프로젝트에 학문적·실무적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는 답변도 다수. 예를 들어 미술사나 기록학을 전공하는 교육생들은 이번에 얻은 지식을 통해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거나 논문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타 활용 계획:** 이외에도 몇몇 교육생들은 자신만의 개인적인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예를 들어, 어떤 교육생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작가의 아카이브를 직접 만들어볼 용기가 생겼다”거나, “동료들과 함께 작은 기록 수집 모임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전함.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이 향후 다양한 활동 및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다수.

### ■ 가장 인상 깊었던 회차/주제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장 견학 및 컬렉션 수집 사례 (9강):** 가장 많은 교육생들이 9회차 현장 견학 수업을 가장 인상 깊었던 회차로 언급.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미술 아카이브 현장을 견학하고, 서고 방문과 전시 관람을 통해 자료의 수집·보존 과정을 눈으로 본 경험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 교실 강의에서 배운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전문가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본 것이 기억에 남았다는 반응. “책이나 강의로만 듣던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보니 실감이 났다”, “아카이브 공간을 직접 둘러보면서 큰 동기부여가 됐다” 등의 소감을 제시.
- **디지털 아카이브 DB 구축 실습 (7~8강):** 7~8회차에 걸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습 세션도 매우 인상 깊었던 회차로 자주 언급. ‘Omeka 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직접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해본 경험이 특히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는 평가. 교육생들은 이 세션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며 이해를 깊게 했고,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성취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다수.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던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를 직접 해보고 나니 개념이 확 와닿았다”, “내가 만든 작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보면서 뿌듯했다” 등 실습을 통한 배우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의견이 다수. 강사와 보조강사의 세심한 지도로 처음 다뤄보는 도구를 재미있게 익혔다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존재.
- **구술채록 및 연보 작성 (6강):** 6회차의 구술채록/연보 작성 주제를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한 교육생 다수. 작가 아카이브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세션에서, 작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는 연보 작성 방법과 예술가의 육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구술채록 기법을 배운 것이 신선하고 뜻깊었다는 의견평소 접하기 어려운 구술사 아카이빙 실무를 직접 경험해본 덕분에, 기록의 인간적 측면과 아카이브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는 의견. “작가 분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특히 흥미로웠다”, “연보를 작성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등의 구체적인 이유 제시.
- **그 외:** 이외에도 교육생들은 각자 다른 회차를 인상 깊었던 수업으로 채택하였음. 예를 들어, 첫 강의인 아카이브 개론(1강)을 통해 기록학 전반에 대한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국내·외 아카이브 현황과 프로세스(2강)를 다룬 [이론/사례] 강의를 통해 국제 기준과 사례를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또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례(3강)처럼 기술 관련 주제를 다룬 수업에서 새로운 도구를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는 응답도 일부 존재.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가 분석되며, 특히 앞서 언급된 현장 체험과 실습 위주의 수업들이 교육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분석됨.

### ■ 가장 이해가 어려웠던 회차/주제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카이브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소개 (3강):** 다수 교육생들이 3회차 강의를 가장 이해가 어려웠던 강의로 채택함. ‘ArchivesSpace’, ‘AtoM’, ‘Omeka’ 등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특징을 한꺼번에 다루기에, IT 관련 기술적 배경 지식이 많지 않은 수강생들에게는 내용이 다소 방대하고 기술적으로 느껴졌다는 의견.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들과 용어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와 따라가기 벅찼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등의 반응. 특히 각 소프트웨어별 세부 기능이나 시스템 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다수.
- **디지털 DB 설계 및 구축 실습 (7~8강):** 앞서 인상 깊었던 세션으로 언급되기도 한 7~8회차 실습은 동시에 난이도가 높았다는 지적도 존재. ‘Omeka S’를 활용해 직접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전문 용어(예: 온톨로지, API, 스키마 등)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혼란을 느낀 교육생들이 일부 존재. “메타데이터 필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 당황했다”, “실습 중에 기술적인 오류가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려웠다” 등 실습 진행 중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함. 시간 제약으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피드백도 있어, 내용이 매우 유익했지만 속도와 분량 면에서 버거웠다고 느낀 것으로 분석됨.
- **아카이브 기술(Description) 개념 (5강):** 5회차의 ‘기술(記述)과 메타데이터’ 주제를 어려워한 교육생들도 있었습니다. 기록학에서 말하는 ‘기술 (description)’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여, 메타데이터 작성과 무엇이 다른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는 의견. “기술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설명은 들었지만 완전히 숙지하진 못한 것 같다” 등의 솔직한 소감 존재. 즉, 기록관리학 특유의 개념과 용어들이 낯설어서 해당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로 분석됨. 다만 이러한 이론적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육생들은 “어렵지만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좋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이 다수.
- **기타:** 이 밖에 초반 강의에서 “생각보다 내용이 방대해서 따라가기 벅찼다”는 의견이 소수 존재. 특히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수강한 경우 초기 용어들의 흥수에 당황했다는 피드백도 존재.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내용이 전문적이라 어려웠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다”고 함께 언급하고 있어, 난이도를 견디며 얻은 보람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음.

### ■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좋을 주제/콘텐츠는 무엇인가요?

- **디지털 아카이빙 심화 교육:** 상당수의 교육생들이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길 원함. 이번에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배웠지만 시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다른 틀에 대한 소개를 추가로 듣고 싶다는 의견을 전함. 예를 들어, “Omeka S 외에도 ArchivesSpace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법도

실습해보고 싶다”, “메타데이터 표준이나 데이터 구조 설계를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는 제안 존재.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적 측면을 좀 더 보강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

- **현장 사례 및 실무 경험 공유 확대:** 교육생들은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더 접하고 싶어함. “다른 미술관이나 기록원에서도 어떻게 아카이브를 운영하는지 궁금하다”, “현업 전문가들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해결 과정도 듣고 싶다”는 식으로, 실제 기관들의 아카이브 사례 발표를 추가로 포함해주면 좋겠다는 제안 존재. 현재 커리큘럼에도 사례가 있었지만 더 다양한 규모나 분야(예: 소규모 갤러리 vs 국공립 기관)의 케이스스터디를 접할 수 있다면 현실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 또한 강사 초청 측면에서 기록관리 분야 외에 미술계 기획자나 큐레이터의 시각을 들을 기회도 있으면 흥미로울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
- **실습 및 참여형 활동 강화:** 실습 위주의 학습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이를 더 확대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몇몇 교육생은 “실습 시간이 다소 촉박했으니 다음엔 회차를 늘리거나 더 여유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언급 했고, “참여형 워크숍이나 프로젝트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추가되면 배우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로 작은 아카이브를 실제 구축해본다든지, 수료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심화 실습 기회에 대한 의견도 제시.
- **특정 주제 추가 보강:** 몇몇 교육생들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추가되면 좋을 주제를 건의함. 대표적으로 아카이브 관련 법률/윤리 분야를 꼽았는데, 저작권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 등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를 짚어주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 하나 언급된 것은 매체별 아카이빙 기법으로, “사진이나 영상 등 매체별 보존 기술이나 디지털화 방법도 조금 다뤄주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이밖에 근현대미술사 배경지식이나 해외 선진 사례 연구 등 관련 주제를 보충해주면 더 풍부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제언도 존재.
- **후속/연계 프로그램 마련:**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도 계속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에 대한 기대감 제시. 예를 들어, “이번이 초급과정이라면 중급이나 고급 심화과정도 열렸으면 좋겠다”, “수료생들끼리 정보 교환이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면 한다”는 등의 의견 피력. 즉,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가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음.

### ■ 수료 이후, 아카이브 관련 활동(연구, 기획, 기관 제안 등)을 희망하고 있나요?

- **직접 기관에서 적용:** 상당수 교육생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기관에서 아카이브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밝힘. 특히 미술관, 박물관, 아트센터 등에서 일하는 교육생들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 기관의 아카이브를 체계화하겠다”, “상사에게 기록관리 개선안을 제안해볼 예정” 등 현업 적용 계획을 전함. 이런 응답들은 교육이 끝난 후에도 실제 업무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시도를 할 의지로 분석할 수 있음.
- **연구 및 기획 활동:** 일부 교육생들은 보다 학문적이거나 기획적인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미술사 자료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 “지역 예술인의 기록을 모아 아카이브 전시를 기획해볼 생각” 등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응답자 존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생의

경우 “논문 주제로 활용할 계획”, 프리랜서 기획자의 경우 “독립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동료들과 시작하고 싶다”는 등, 배운 내용을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 활동을 희망함.

- **전문 경력 개발:** 또 다른 일부는 아카이스트로서의 경력 쌓기를 계속하고자 함. “이번 수료를 계기로 정식 기록연구사 자격 취득이나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려 한다”, “다른 아카이브 기관 인턴십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경험을 더 쌓고 싶다” 등, 이번 교육을 발판으로 전문성을 키워 커리어 전환 또는 성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교육 수료를 새로운 출발점 삼아 계속 학습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됨.
- **신중하거나 미정인 경우:** 극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교육생들은 “바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의견을 제시함. 예를 들어, 현재 업무와 아카이브가 직접 연관이 없는 분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기회가 오면 해보고 싶다”거나 “우선은 공부를 더 하고 추후에 도전하고 싶다”고 응답.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교육생이 수료 후 크고 작은 형태로 아카이브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본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이유를 함께 작성해주세요.)

- **체계적이고 알찬 커리큘럼:** 가장 많이 거론된 이유는 교육 내용의 체계성과 충실히 제시됨.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도 아카이브 전반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핵심을 두루 익히게 해주는 알찬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다수. 교육생들은 기초 개념부터 현장 적용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해준 점을 높이 사주며, 비슷한 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는 의견을 작성함.
- **전문적인 강사진과 생생한 사례:** 많은 응답자들이 강사진의 전문성을 추천 이유로 작성. 현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이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가르쳐 준 덕분에 “현장에서 바로 통용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교과서에 없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호평. 이러한 실무 전문가들과의 만남 자체가 큰 가치였기 때문에, 기록관리나 미술 분야에 관심 있는 동료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는 반응으로 분석됨.“강사님들의 열정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었던 점만으로도 추천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처럼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추천 의향으로 이어짐.
- **실습 기회와 참여형 학습:** 교육생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록을 정리하고 시스템에 입력해보니까 이해가 빨랐다”,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해볼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며 실습 위주의 진행을 장점으로 작성함. 이런 참여형 학습 경험은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것이므로, 비슷한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과정을 추천하겠다는 의견으로 분석됨.
- **높은 만족도와 네트워킹 효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주변에 이 교육을 믿고 권할 수 있다고 답변. 교육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 것도 부가적인 이득으로 언급되었는데, “열정 있는 동료 수강생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인적 네트워크 형성 측면도 만족스러웠다는 답변.

- **기타:** 몇몇은 추천에 따르는 조언을 제시. 예를 들어, “완전 처음 접하는 사람보다는 기본적인 관심이나 준비가 된 사람에게 특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또는 “업무와 병행하기에 일정이 빠듯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라”는 실용적 충고를 곁들인 경우도 존재. 그러나 전반적으로 “배울 가치가 충분한 훌륭한 교육이니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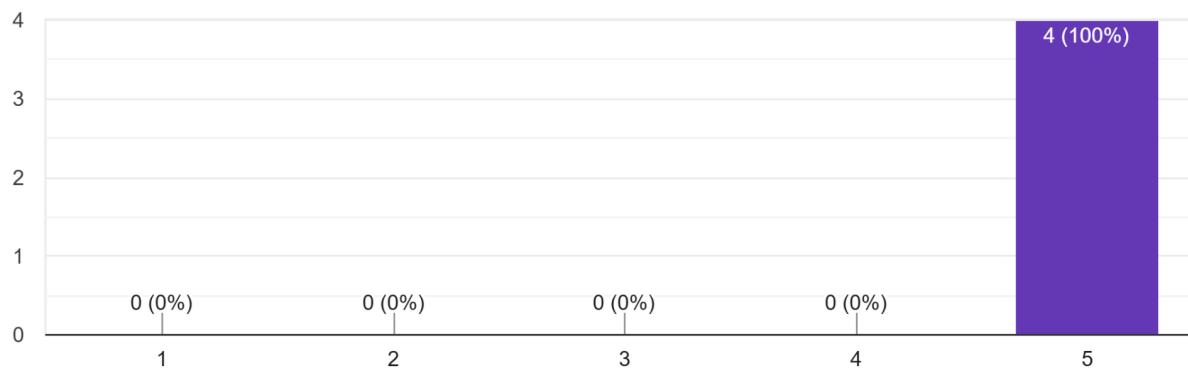
### ■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해주세요!

- **감사와 만족 소감:**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남김. 특히 교육을 주최한 기관과 강사진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다수. “이런 훌륭한 교육을 기획해 주셔서 감사하다”,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 덕분에 많이 배웠다” 등 감사의 말과 함께, 교육 참가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는 글이 주를 이룸.
- **프로그램 지속 및 발전 희망:** 여러 교육생들이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함. 이번 교육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혹은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음에 심화 과정이나 후속 과정이 열린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주변 동료에게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겠다” 등 프로그램의 연속성에 대한 희망을 밝힌 응답도 존재. 이는 이번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반영된 것으로, 교육생들이 향후에도 추가 학습 기회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 **건의사항 및 제안:** “전체 교육 기간을 1~2주 정도 더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주중 저녁시간뿐 아니라 주말 워크숍 형태로도 열어주시면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 일정과 시간 구성에 대한 개선 의견 존재. 또한 “실습 때 사용했던 자료나 매뉴얼을 수료 후에도 참고할 수 있게 공유해주시면 좋겠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료생 커뮤니티가 있으면 정보 교류에 도움이 될 듯하다”는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을 제안한 의견 존재.
- **기타 소감:** “이번 교육을 통해 아카비스트라는 전문직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배운 것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겠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배워 즐거웠다” 등의 의견.

### 3. 워킹그룹 - 정량평가 개별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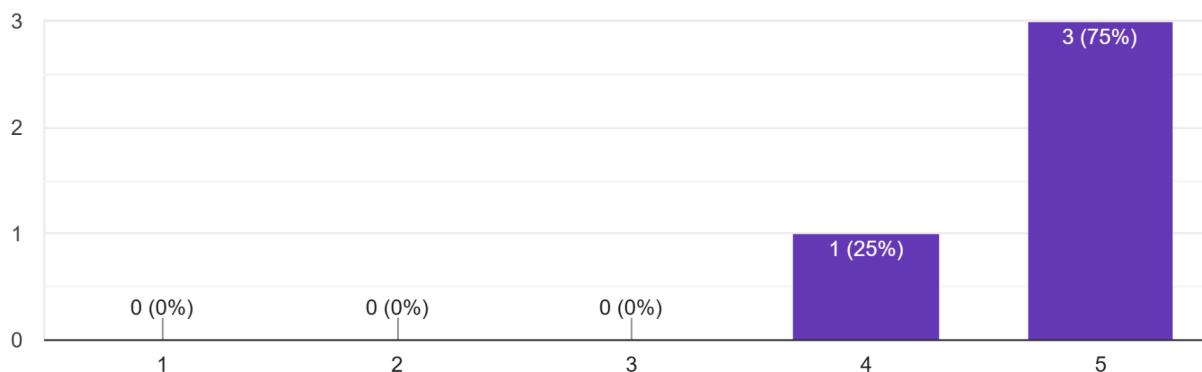
#### [프로그램 전체]

##### ■ 본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과 일정은 원활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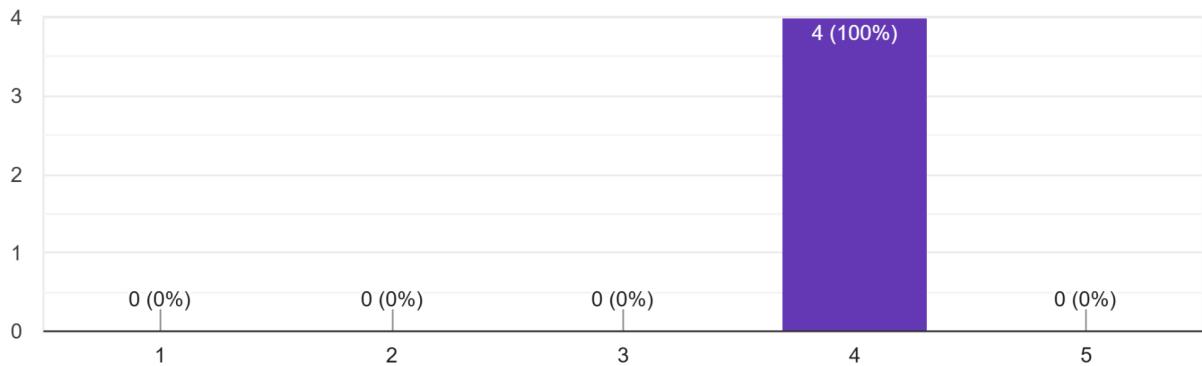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이 전체 응답(100%)을 차지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일정이 원활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 커리큘럼(주제·순서)이 10회차 구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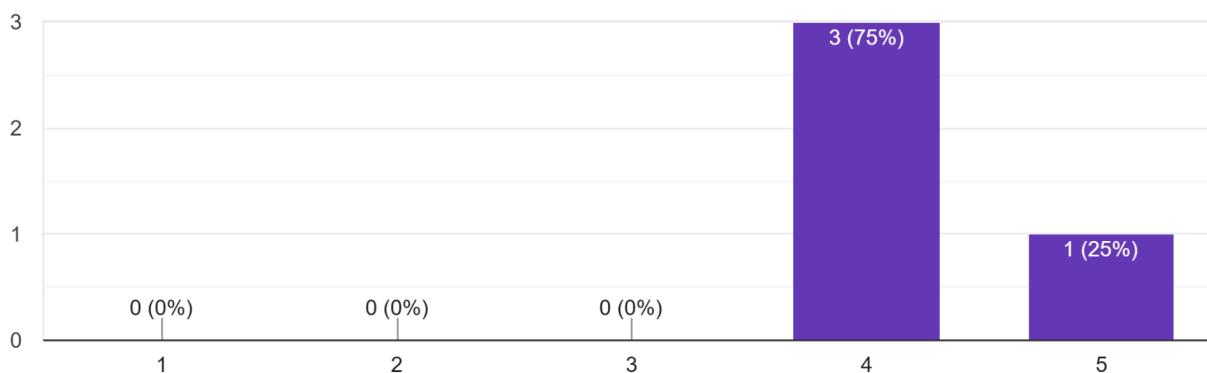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75%)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100%)이 4점(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구성이 10회차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됨.

### ■ 교육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태도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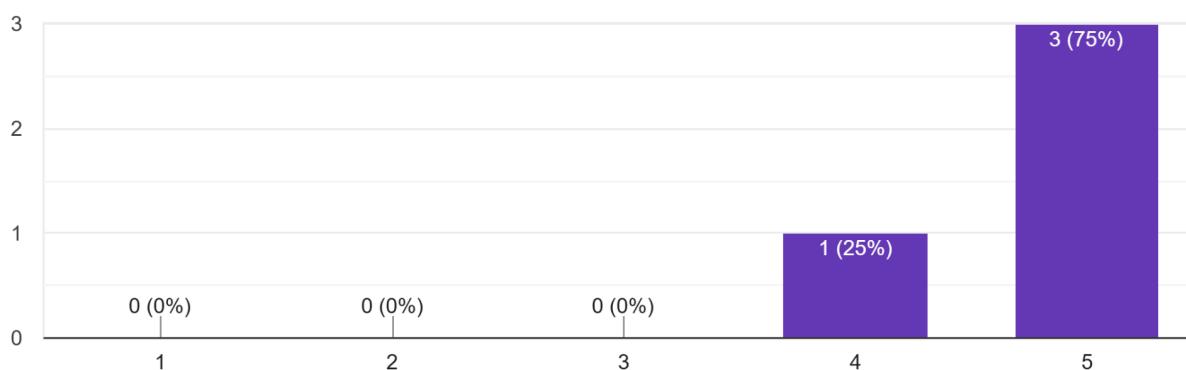
- ‘그렇다’가 전체 응답(100%)을 차지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참여 교육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태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했던 것으로 파악됨.

### ■ 강의 내용이 교육생 수준과 잘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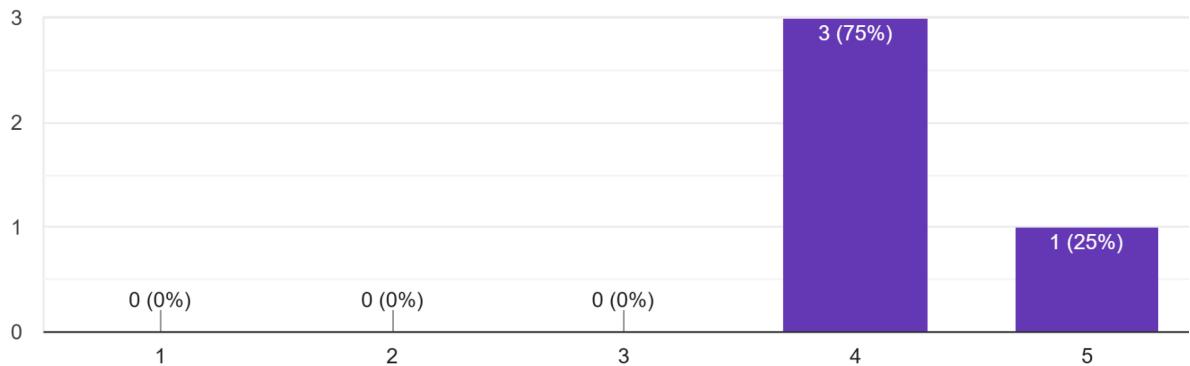
- ‘그렇다’가 가장 많은 응답(75%)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100%)이 4점(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강의 내용이 교육생 수준과 잘 맞았던 것으로 파악됨.

### ■ 교육 환경(장소/온라인, 음향/화면, 접근성 등)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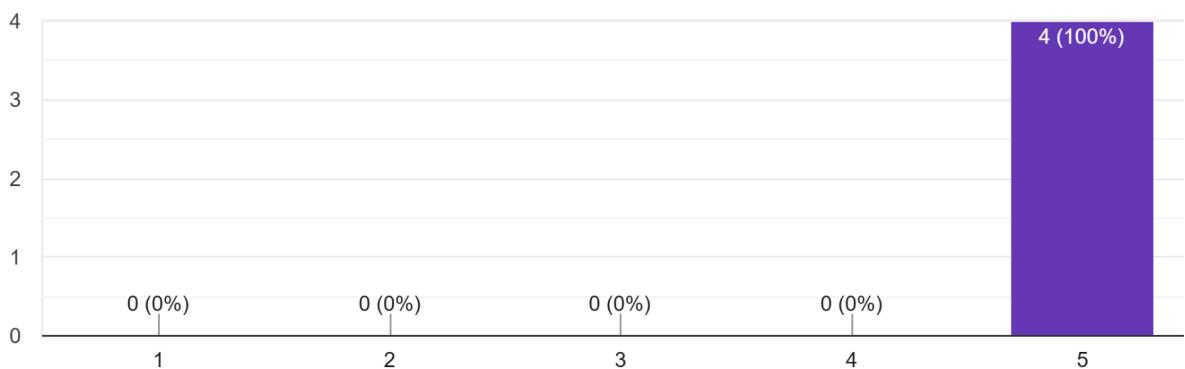
- ‘매우 그렇다’가 가장 많은 응답(75%)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100%)이 4점(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환경에 만족한 것으로 파악됨.

### ■ 본인의 강의가 프로그램 목적 및 커리큘럼과 잘 부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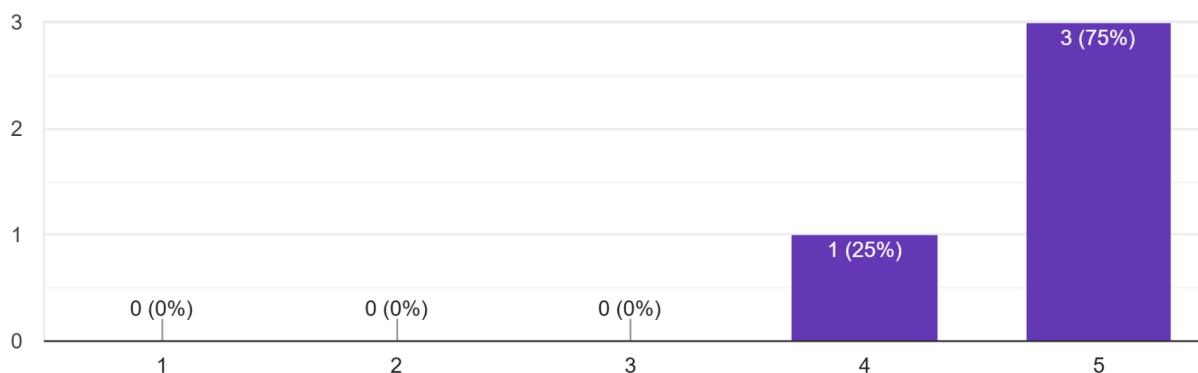
-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75%)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100%)이 4점(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의 각 강의 내용이 프로그램 목적과 커리큘럼과 잘 부합되었다는 것으로 파악됨.

### ■ 운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사전 협의, 일정 조율, 사후 피드백 등)은 원활하였습니까?



- ‘매우 그렇다’이 전체 응답(100%)을 차지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운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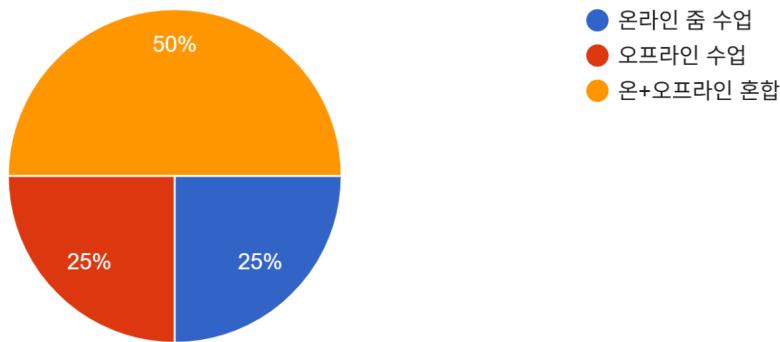
### ■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다시 초청된다면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



- ‘매우 그렇다’이 가장 많은 응답(75%)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인원(100%)이 4점(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에 초청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론/사례 강의]

### ■ 이론 및 사례 강의는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느끼셨나요?



- ‘온+오프라인 혼합’형이 가장 많은 응답(55%)을 차지하였으며, 이론 및 사례 강의의 경우 진행에 있어 경우에 따라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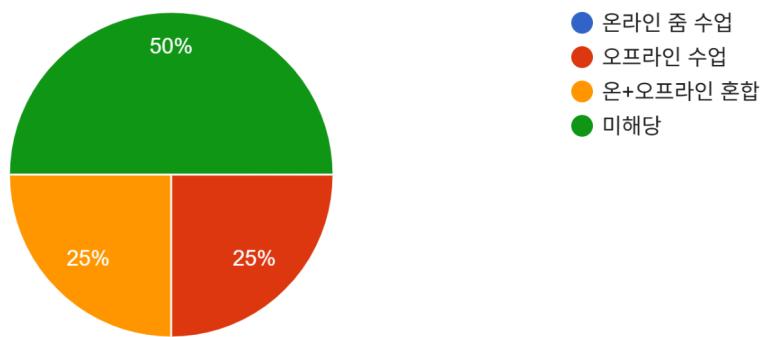
### ■ 이론 및 사례 강의는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느끼셨나요?



- ‘1시간~2시간 내외’가 전체 응답(100%)을 차지하였으며, 이론 및 사례 강의의 경우 1시간~2시간 내외의 강의가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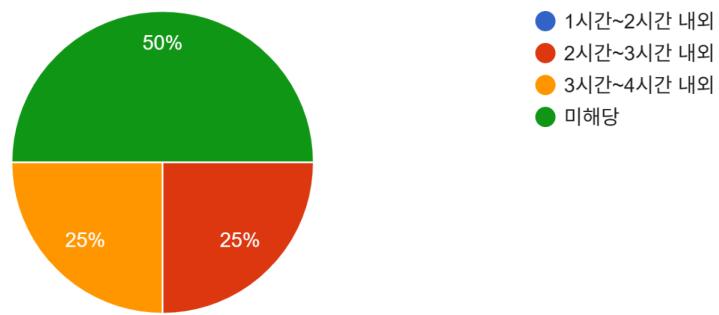
## [실습/발표 강의] \*실습/발표 강의를 진행한 강사만 응답

## ■ 실습 및 발표 강의는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느끼셨나요?



- ‘온+오프라인 혼합’형 혹은 ‘오프라인 수업’이 실습에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선택되었음. 각 실습 강의의 성격에 따라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됨.

## ■ 실습 및 발표 강의는 회차당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느끼셨나요?



- ‘2시간~3시간 내외’ 혹은 ‘3시간~4시간 내외’가 실습에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선택했되었음. 마찬가지로 각 실습 강의의 성격에 따라서 적정 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됨.

#### 4. 워킹그룹 - 정성평가 개별 응답 분석

##### [프로그램 전체]

■ 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선하거나 보완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 강의 주제, 교육생 구성, 강의 흐름, 시간 배분, 실습 방식 등)

- **세분화된 실무 중심 커리큘럼에 대한 요구:** 여러 강사는 “향후 미술 아카이스트 교육이 보다 세분화된 실무 커리큘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수집과 도큐멘테이션, 정리와 기술, 디지털 보존, 아카이브 시스템, 이용자 서비스 등 실제 업무 단위별로 모듈을 나누어 교육한다면, 직무별 역량을 보다 명확히 기를 수 있을 것은 의견. 또한 “금번 프로그램의 교육생 다수가 미술 분야 전공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교육 구성은 기록 관리 전공자에게는 사례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익숙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미술 분야 종사자에게 학습 효과가 더 높도록 설계”되었다는 의견. 더불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폭을 미술 분야로 한정하고, 그 대신 기록 관리 이론과 실습 내용을 현행보다 더 심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미술 아카이스트의 전문성이 세부 미술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생을 한정하는 대신 기록 관리의 핵심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 **소규모·팀 기반 실습 구조의 필요성:** 실습 회차의 경우, 운영 인원 규모(20명 인원)와 강의 진행 시간(2시간 이내 발표 및 피드백 시간)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 존재. “실습 전 브레인스토밍이나 문제 정의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의 사전 준비 과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 **입문·기초 과정으로서의 의의와 향후 심화 과정 필요성:** 강사진은 이번 프로그램이 첫 개발·시범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미술 아카이스트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 분야를 균형 있게 포착하고 입문·기초 실습 과정으로서 의미 있게 구성”되었다고 평가. 동시에, 향후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구축 실습이나 이론 중심 심화 과정 등 단계별·수준별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교육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 특히, 미술 아카이스트 분야는 인지도와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생들의 전공·실무 경험·이해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명확한 타깃층 설정과 수준별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됨. “일반 과정에서는 현 프로그램과 같이 아카이브의 개괄적 개념과 보편적인 관리 방안을 다루고, 심화 과정에서는 미술 분야의 세부 영역(예: 회화, 설치 미술, 퍼포먼스 미술 등)을 구분하고, 특히 설치 미술이나 퍼포먼스 미술처럼 기록의 생성 과정(기록화) 자체가 중요한 분야에 특화된 기록 관리 및 실습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직무 확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역량’ 정의와 장기 성과 관리:** 일부 강사는 최근 아카이스트의 역할이 기록관리에서 나아가 디지털 환경, 정보산업, 문화기획, 예술창작 등과 연계된 협업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 아카이빙, 기술 기반 기록물 관리, 예술가 협업 등 동시대 실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탐구하는 전문가 워크숍 및 응용 실습형 모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아울러 이와 같은 교육 사업은 단기 정량 지표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 교육생들의 후속 진로, 현장 참여, 재이수 여부 등의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성과 평가·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 **교육 시간의 배분:** 이론 강의와 실습 시간이 각각 2시간으로 배정되었는데, 사실상 이론 수업을 2시간 동안 집중력 있게 이끌어가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론 수업 배정 시간을 1시간 30분 내외로 압축하고, 그 시간을 실습에 쓰는 것을 제안. “실습은 준비 및 정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시간 배분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 ■ 교육생들의 반응 및 참여 분위기는 어땠나요?

(강의 진행 중 교육생들의 태도, 질문, 토론 참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높은 열의와 참여 의지:** 강사진은 전반적으로 참여 교육생들이 미술 아카비스트 직군 및 직무에 대해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응답함. 미술-기록에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강의 주제에 공감하며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존재함.
- **실습·현장 견학 회차에서의 높은 집중도:** 특히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기관에 방문하는 현장 견학으로 진행된 회차에서 전시 관람, 보존서고 견학, 실물 자료 열람과 더불어 관련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는 피드백 존재. 실제로 미술 아카이브 업무가 진행되는 공간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론이 실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교육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분석됨.
- **자유로운 질의·토론 환경 독려 필요성:** 일부 강사는 사례 교육 시간을 교육생들이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낀 것 같았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학생·연구자들은 본인의 논문과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으나, 보다 많은 교육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심리적/구조적 장벽이 있었다”고 평가 하였음. 이를 위해 실시간 Q&A, 수강생 수 축소 등 보다 자유로운 질의·토론을 촉진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 제안됨.
- **온·오프라인 환경에 따른 참여 양상의 차이:** 일부 강사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육생들이 집중하는 태도”가 두드러졌으며, 온라인 수업에서는 오히려 질문이 좀 더 자유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고 언급. ‘온·오프라인’ 각각의 장단점을 혼합형 강좌별 주제에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 향후 미술 아카이브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이론 수업 주제나 시도해보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국내 사례 중심 구성, 보다 다양한 직군과의 협업 시뮬레이션, 멘토링 기반 세션 등)

- **전문 이론·기술 주제에 대한 심화 요구:** 강사진은 향후 이론 강의에서 정리와 기술(기술 원칙, 다중 분류, 시소러스, 메타데이터 표준 등), 디지털 보존(파일 포맷, 마이그레이션, 웹 아카이빙 전략 등),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온라인 컬렉션, 디지털 전시), AI를 활용한 아카비스트 실무(Vision, NLP, LLM 등), 국내 기관 사례 연구, 멘토링 기반 세션 등 전문화된 이론·실습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기를 희망하였음. “보존 및 미술사가 관련 수업과 실습 시간이 추가로 확보”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됨.

- **사례 개괄식에서 맥락 탐구로의 전환 필요성:** 미술 분야 아카이비스트를 실제 전문 직군으로 준비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사례를 개괄적으로 나열하기보다 “한두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그 과정과 맥락을 깊이 탐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하나의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나 전시 기획 사례를 단계별로 추적하면서, “기획-기록-운영-활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사례 학습과 실습을 연동한 Theory-to-Practice 설계:** 사례 학습과 실습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보다는, 강의에서 다른 사례를 기반으로 소규모 모의 활동이나 시뮬레이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등 “이론-워크숍 결합형(Theory-to-Practice) 구조”로 설계될 필요성이 강조됨. 이를 통해 단순한 ‘사례 청취’를 넘어 실습을 포함한 ‘재현·응용’으로 전환하는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기획·협업 역량을 다루는 과정 설계:** 이론적 측면에서 “아카이비스트의 기획 역량과 협업 능력”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기존 강의에서 큐레이터의 기획 사례를 통해 ‘기획자로서의 아카이비스트’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면, 향후에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정비와 매뉴얼화, 정보화 시스템 설계, 자료 열람 프로그램 기획, 출판·인쇄물 제작, 공공 프로그램 및 아카이비스트 재교육 과정, 아카이브 전시 기획 등 아카이비스트가 수행하는 기획의 세부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수업이 유용할 것이라는 제안. ‘이론-워크숍’ 결합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생들이 실제 기획안을 직접 작성해보는 과정과 협업하는 실무 경험을 통해 기획적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실습/발표 강의]

■ 결과 발표/워크숍 운영에서 느낀 점과 현장 피드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참여 교육생들의 이해도, 실습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수행 과정 등에서 흥미롭게 보신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 **선행-후속 강의 간 연계성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 필요:** 일부 강사는 실습 회차에 있어 선행 강의와 후속 강의가 보다 긴밀히 연결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실제로 ‘분류 및 기술’ 회차에서 생산한 참여 교육생들의 실습 자료는 ‘Omeka’보다는 ‘AtoM’이나 ‘ArchivesSpace’와 같은 전통적인 카탈로그 도구에 더 적합한 구조였다는 평가. 향후에는 강의 간 과제 설계 단계부터 도구 특성과 데이터 구조를 함께 기획하거나, Omeka에 적합한 별도 실습 자료를 생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제시됨.
- **피드백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생의 열의와 참여 태도:** [실습/발표] 강의에서 진행한 피드백 과정에 다수 교육생들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임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 “낯선 도구와 실습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태도”가 관찰되었다는 의견.

■ 실습 내용이나 난이도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 시간 내 소화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교육생의 사전 지식이나 배경과의 간극은 없었는지 등의 의견을 주셔도 좋아요.)

- **Omeka 실습의 난이도와 분량 조정 필요성:** 소프트웨어 실습에 대해 “일부 수강생은 매우 만족했으나, 다수는 어렵게 느낀 것 같다”고 평가. 짧은 시간 내에 전문적인 개념을 전달함에 있어 미술 아카이브 분야를 처음 접하는 교육생들에게는 난이도와 정보량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이를 위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실습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강의별 난이도의 차이와 세분화 필요:** 다른 한 강사는 자신이 담당한 실습·강의는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 조정이 필요 없었다고 평가하였음. 이는 강의별·도구별로 난이도 체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습 회차를 하나의 수준으로 통일하기보다는 주제와 도구 특성에 따라 난이도와 ‘단계(입문-중급-심화)’를 세분화하여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 [표 목록]

---

- [표 1] 미술 아카이브 학술 연구 현황 – 시기별 비교분석 (2000~2019)
- [표 2]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채용공고 최근 현황
- [표 3]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 [표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 [표 5] 아르코예술기록원 채용공고 최근 현황
- [표 6] 대전시립미술관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 [표 7]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 [표 8]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 [표 9]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관련 채용공고 최근 현황
- [표 10] 국내 기록 및 미술 관련 전문 인력 제도 및 법령 현황
- [표 11] 주요 국가별 기록원 및 법령 현황
- [표 12] 예술산업아카데미 –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 워크숍〉 (2023) 세부 커리큘럼
- [표 13] 실무 양성 프로그램 –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012) 세부 커리큘럼
- [표 14]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4, 온라인 교육 입문반) 세부 커리큘럼
- [표 15]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4, 온라인 교육 심화반) 세부 커리큘럼
- [표 16]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4, 현장탐방) 세부 커리큘럼
- [표 17]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5) 세부 커리큘럼
- [표 18] 실무 양성 프로그램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실무 기초교육〉 (2025, 현장탐방) 세부 커리큘럼
- [표 19] 전문직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오픈소스 기록시스템 워크숍〉 (2024) 세부 커리큘럼
- [표 20]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 (2024) 세부 커리큘럼
- [표 21] 작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 (2025) 세부 커리큘럼
- [표 22]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 〈디지털 아카이비스트〉 (2021) 세부 커리큘럼
- [표 23] 여름방학 ACC 직군탐색 – 〈디지털 아카이비스트〉 (2023) 세부 커리큘럼
- [표 24] ACC 전문인 직군탐색 장기과정 – 〈아트아카이비스트〉 (2025) 세부 커리큘럼
- [표 25] 〈예비 전문인 연수 프로그램〉 (2024) 세부 커리큘럼
- [표 26] 대학연계 프로그램 – 〈개념부터 실습까지: 디지털 아카이브 기획 워크숍〉 세부 커리큘럼
- [표 27] 대학연계 프로그램 – 〈오픈 아카이브 OPEN ARCHIVE〉 세부 커리큘럼

- [표 28] <은평 로컬기록 아카이비스트> (2022) 세부 커리큘럼
- [표 29] <라키비움 프로젝트> (2013) 세부 커리큘럼
- [표 30] <라키비움 프로젝트> (2018) 세부 커리큘럼
- [표 31] <디지털 아카이빙 툴킷 워크숍> (2020) 세부 커리큘럼
- [표 32] 국내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분석
- [표 33] Certificate 과정/ First Year (가을 학기) 세부 커리큘럼
- [표 34] Certificate 과정/ First Year (봄 학기) 세부 커리큘럼
- [표 35] 디지털 아카이브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일부)
- [표 36] 조르조 치니 재단 — ARCHiVe 온라인 아카데미 세부 커리큘럼(일부)
- [표 37]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 FRAME 아카이브 연수 프로그램 Basics (기초 과정) 세부 커리큘럼
- [표 38]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 FRAME 아카이브 연수 프로그램 Advanced (고급 과정) 세부 커리큘럼
- [표 39] 프랑스 아카이비스트 협회 (AAF) — 직무 연수 프로그램 <특수 아카이브 이해하기> 세부 커리큘럼(일부)
- [표 40] 유럽 문화 센터(ECC) — <퍼포먼스 아트 아카이브와 기록 과정> (2024) 세부 커리큘럼
- [표 41] 더 포토그래퍼스 갤러리 — <Starting an Archive> (2025) 세부 커리큘럼
- [표 42] 호주 아카이브 협회 — <아카이브 기초 온라인 학습 시리즈> 세부 커리큘럼
- [표 43]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AA) — 예비교사 및 교사 대상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세부 커리큘럼
- [표 44] C-Lab — <Independent Art Spaces of Taiwan (IAST)> 세부 커리큘럼
- [표 45] 국외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분석
- [표 46] 국내 기록학 분야 대학 교육 과정 현황
- [표 47] 국내 기록학 영역별 교과목
- [표 48] 국내 미술 분야 대학 교육 과정 현황
- [표 49] 국내 미술 이론 분야 영역별 교과목
- [표 50] ACA 직무명세서 영역 및 일반지식
- [표 51] 자문회의 참여자 명단
- [표 52] 전문적인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표 53] 미술 아카이비스트의 핵심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견
- [표 54]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프로그램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 [표 55] 미술 아카이비스트 제도화·자격화 연계 가능성 및 정책 제언
- [표 56]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관련 평가 및 제언
- [표 57] FGI 참여자 명단
- [표 58] 전문적인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표 59] 미술 아키비스트의 핵심 역량과 역할에 대한 의견
- [표 60]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프로그램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 [표 61] 미술 아키비스트 제도화·자격화 연계 가능성 및 정책 제언
- [표 62]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제언
- [표 63]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차시별 교육프로그램 구성
- [표 64]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개요
- [표 65]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 소속 분포
- [표 66]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 전공 및 학위 분포
- [표 67] 「미술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 미술 아키비스트 직무에 대한 이해도 분포
- [표 68] 참여 교육생 정량평가 만족도 분석
- [표 69] 워킹그룹 정량평가 만족도 분석
- [표 70] 워킹그룹 정량평가 만족도 분석
- [표 71] 미술 아키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입문과정 커리큘럼(안)
- [표 72] 미술 아키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심화과정 [A트랙 (기록학 전공자 대상): 미술 맥락 강화] 커리큘럼(안)
- [표 73] 미술 아키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심화과정 [B트랙 (미술 전공자 대상): 기록관리 체계 강화]  
커리큘럼(안)
- [표 74] 미술 아키비스트 교육 프로그램 심화과정 [A/B트랙 실습(통합형)] 커리큘럼(안)

## [그림 목록]

---

- [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 [그림 2] 연구 추진 체계도
- [그림 3] 서울시립미술관 조직도
- [그림 4]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 [그림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도
- [그림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 [그림 7] 대전시립미술관 조직도
- [그림 8]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조직도
- [그림 9] 광주비엔날레 조직도
- [그림 10] 사비나미술관 Youtube “직업탐색 #5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비스트 이지은”
- [그림 11] Archives Gig 웹사이트
- [그림 12] AGORHA 웹사이트
- [그림 13] 호주 박물관 및 갤러리 협회 (AMaGA) 웹사이트 Librarian/Archivist 채용공고
- [그림 14] 오하라 예술재단 연구원(아카이비스트) 채용공고
- [그림 15] 교육 일정 참여 가능 여부 교육생 응답 분포
- [그림 16]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표지
- [그림 17]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1. 시작하며] 질문들
- [그림 18]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2. 프로그램 개요] 운영개요 / 교육생 안내사항
- [그림 19]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3. 강의자료] 회차별 강의자료
- [그림 20]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4. 주요 매뉴얼] 기관 지침
- [그림 21]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5. 용어 모음집] 기본 개념
- [그림 22]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6. 더 알아보기] 국내·외 주요 미술 아카이브 기관
- [그림 23]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6. 더 알아보기] 실무 팁 모음
- [그림 24]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6. 더 알아보기] 강사진 소개
- [그림 25]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오픈채팅방 커버 및 특게시판 공지 예시
- [그림 26] 클로징 토크 진행 현장 사진

## [참고문헌]

---

### 도서 및 단행본

- 곽건홍, 『동아시아의 아카이브 비교연구』, 서울:선인, 2016.
- 리처드 오벤든, 이재황 역, 『책을 불태우다-고대 알렉산드리아부터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지식 보존과 파괴의 역사』, 서울:책과함께, 2022.
- 스벤 스피커, 이재영 역, 『빅 아카이브-마르셀 뒤샹부터 소피 칼까지 요식주의에서 비롯된 20세기 예술』, 서울:홍시커뮤니케이션, 2013.

### 학위논문

- 김기현,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0.
- 김예지, 『기록관리학 연구자의 학문적 연계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20.
- 김연희, 『자크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과 '포스트 인터넷' 아카이브 이미지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흥익대학교, 2023.
- 김주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개선 방안-국가기록원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21.
- 김지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의 아트아카이브로서의 방향 모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23.
- 박종연,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체계의 역사성 연구 - 1919 ~ 1950년』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20.
- 안대진,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19.
- 이연창, 『관계형 아카이브 플랫폼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22.
- 이지은,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5.
- 이혜린, 『아카이브와 현대미술- 기록 생산과 수집기록물을 활용한 미술작품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21.
- 정명주,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6.
- 정숙영,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기록전문직의 계속교육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20
- 주선영, 『퍼포먼스 아카이빙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21.

### 간행물

-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 방안』, 국가기록원, 2006.
-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국립예술자료원, 2010.

- 『(가칭)국립사서인재개발원 건립 기본계획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18.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21.
-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 『사이버아시아문화전당 개발방안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2007.
- 『학예사 제도 및 미술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미술관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문화체육관광부, 2019.
-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문화체육관광부, 2023.
- 『제3차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3.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2024.
- 『시각·공연예술 분야 직군분석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 『국외미술관 한국 현대미술 작품 소장 현황 및 확대 방안 연구 - 북미권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모델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 『2023 전국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조사』, 한국박물관협회, 2023
- 『예술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인적자원 관리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 『문화예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인적자원 관리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운영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패러다임 전환 방향 모색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 『예술아카이브 운영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 『박물관 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 연속간행물

- 강주연, 김태영, 배성중, 이승채, 오효정, 「국내 기록관리학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권 2호, 2019.
- 김달진, 「한국 미술아카이브의 분포 상황 및 수집 여건과 과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집, 2012.

- 김순희, 「기록관리 전문가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40권 3호, 2009.
- 김유승, 「기록전문직 교육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20권 1호, 2020.
- 김유승, 박지영, 박태연, 손승희, 윤은하, 이민영, 전보배, 현문수,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21권 1호, 2021.
-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 운영 구상: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아카이브 운영구상」 , 『한국근현대미술사학』 , 24호, 2012.
- 김장환, 「기록관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관한 단상(斷想)」 , 『기록학연구』 , 79호, 2023.
- 김장환, 황진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 고찰」 , 『기록학연구』 , 84호, 2025.
- 김주관, 「아시아문화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 , 『호남문화연구』 , 37권, 2005.
- 김지아, 「예술기록에 관한 분류·기술 사례 연구-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 , 74호, 2022.
- 김철효, 「국내 미술아카이브Art Archives 설립 시도 사례」 , 『조형 아카이브』 , 1권, 2009 .
- 김혜민, 「동시대 아카이브 미술의 세 가지 유형과 그 가치에 관한 연구」 , 『인문사회21』 , 12권 5호, 2021.
- 김혜영, 이경남, 김장환, 「기록관리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 연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22권 1호, 2022.
- 남현우, 정성인, 「미술관 이미지저작권 아카이브 모델 연구」 , 『한국과학예술포럼』 , 23권, 2016.
- 박장호, 크리스 로, 「슬기와 민 – 폐리지 060421~170513' 전시의 탈근대적 아카이브 특징에 대한 연구」 , 『전시디자인연구』 , 33권, 2020.
- 송초룡, 「아트 아카이브 아웃리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한국예술연구』 , 45호, 2024.
- 여진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21권 2호, 2021.
- 오민지, 김영호,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의 분류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박물관학보』 , 42호, 2022.
- 윤민희, 「예술 · 디자인영역 이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13권 4호, 2007.
- 이경래, 「아카이브 아트(archival art)'의 동시대 기록학적 함의 연구」 , 『기록학연구』 , 64호, 2020.
- 이명규,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 연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49권 제1호, 2015.
- 이상민, 「기록관리학과 아카이스트 교육훈련제도」 , 『기록보존연구』 , 11호, 1998.
- 이윤정, 정연경 「기록관리 교육지침서 개발을 위한 핵심 범주와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20권 1호, 2020.
- 이윤정, 정연경 「국내외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55권 1호, 2021.

- 이지은, 「미술 아카이브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권 3호, 2023.
- 이지은, 「미술 아카이브 전문인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권 1호, 2024.
- 이지희, “Review of the Archival System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6(2), 2023.
- 이혜린, 「현대미술에서의 아카이브 담론과 ‘아카이브 아트의 재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권 1호, 2024.
- 이호신, 「미술관 기관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례연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권 4호, 2018.
- 이호신, 「예술창작 행위로서의 기록에 대한 고찰-아카이브 아트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80호, 2024.
- 정송이, 「예술문화 분야에서의 메타 아카이브(Meta Archive)」, 『박물관학보』, 45호, 2023.
- 정연경, 「기록 전문직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권 1호, 2010.
- 정숙영, 김순희, 「영미의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국내 계속교육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권 1호, 2021.
- 정힘찬, 김수정,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국가기록원 계속교육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권 3호, 2018.
- 조애란, 김민경, 윤은하, 「미국 공공기록관리법(PRA)을 통한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연방과 주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권 2호, 2019.
- 조은성,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발전을 위한 과제 모색-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조성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5호, 2023.
- 조은성, 「아트아카이브의 동적 기술(Dynamic Description)을 위한 RiC-CM 적용 가능성 연구-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82호, 2024.
- 조희선, 안지연, 이승희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미술 아카이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탐색」, 『미술교육연구논총』, 78호, 2024.
- 지가은, 「뮤지엄 아카이브의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과 교육적 기능 : 테이트의 ‘아카이브와 엑세스 프로젝트(2013-2017)’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5권 3호, 2022.
- 지가은, 「아카이브 기억의 재현 불가능성과 미래적 픽션의 재구성 김아영과 린제이 시어스 작품 연구」, 『현대미술사연구』, 55집, 2024.
- 황동열, 「예술아카이브의 현황과 도입방안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2호, 2007.

## 웹사이트

게티 연구소 <https://www.getty.edu/research-institute/>

광주비엔날레 <https://www.gwangjubiennale.org>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https://edu.archives.g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acc.go.kr>  
국립아시아문화박물관 아카이브 <http://archive.acc.go.kr>  
국립예술자료원 <https://www.archivists.or.kr>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https://ica-atom.org/>  
국제텔레비전아카이브연맹(FIAT/IFTA) FRAME <fiatifta.org frame.information.com>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http://daljinmuseum.com>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뉴욕대학교(NYU) <https://tisch.nyu.edu>  
뉴욕현대미술관 아카이브 <https://www.moma.org/research/archives/>  
대만 미술정보 아카이브 <https://twfineartsarchive.ntmofa.gov.tw/>  
대전시립미술관 <https://www.daejeon.go.kr>  
더 포토그래퍼스 갤러리 <https://thephotographersgallery.org.uk>  
독일 자딕 아카이브 <https://zadik.phil-fak.uni-koeln.de/en/>  
동덕여자대학교 <https://grad.dongduk.ac.kr>  
리움미술관 아카이브 <https://www.leeumhoam.org/leeum/edu/archive>  
미국 공인 아카이비스트 교육원(ACA) <https://www.certifiedarchivists.org>  
미국 기록관리협회(SAA) <https://www2.archivists.org/>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https://njp.ggcf.kr/pages/archive>  
베일러 대학교 <https://museumstudies.artsandsciences.baylor.edu>  
부산현대미술관 <https://pap.deu.ac.kr>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https://www.archivists.or.kr/>  
서울대학교 <https://meehak.snu.ac.kr>  
서울시립미술관 <https://sema.seoul.go.kr/kr>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https://semaaa.seoul.go.kr>  
서울아트가이드 <https://www.daljin.com>  
숙명여자대학교 <https://policy.sookmyung.ac.kr>, <https://cultureartsedu.sookmyung.ac.kr>  
스미소니언 미국미술 아카이브 <https://www.aaa.si.edu>  
아르코예술기록원 <https://artsarchive.arko.or.kr>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AA, 홍콩) <https://aaa.org.hk/>

아카이브랩 <https://www.archivelab.co.kr>  
애크런 대학교 <https://bulletin.uakron.edu/course-search>  
여기 은평 아카이브 <https://www.eparchives.net>  
영국 런던 예술대학교(UAL) <https://www.arts.ac.uk>  
영국 아카이브즈 및 기록협회(ARA) [www.archives.org.uk](http://www.archives.org.uk)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UCL) <https://www.ucl.ac.uk>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s://gokams.or.kr>  
오하라 미술관 [ohara.or.jp](http://ohara.or.jp)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https://k-artmarket.kr/kada/kada\\_new/main/index.do](https://k-artmarket.kr/kada/kada_new/main/index.do)  
유럽 문화 센터(ECC) <https://ecc-performanceart.eu/performanceworks>  
이화여자대학교 <https://my.ewha.ac.kr/ewhavag/>, <https://arthistory.ewha.ac.kr>  
일본 국립 아트 리서치 센터 <https://ncar.artmuseums.go.jp/>  
일본 국립 아트 리서치센터 - 소장품 통합목록 검색시스템 <https://search.artmuseums.go.jp>  
일본 독립행정법인국립공문서관 (National Archives of Japan) [www.archives.go.jp](http://www.archives.go.jp)  
일본 아카이브학회 (JSAS)[www.jsas.info](http://www.jsas.info)  
일본미술 구술채록 아카이브 <https://oralarthistory.org/en/>  
임시공간 <http://spaceimsi.com>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https://www.jma.go.kr>  
조르조 치니 재단 <https://www.cini.it/en/events>  
조지 이스트먼 뮤지엄 <https://www.eastman.org/>  
테이트 아카이브 <https://www.tate.org.uk/art/archive>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INA) <https://www.ina.fr/>  
프랑스 국립미술사연구소 아카이브 <https://www.inha.fr/institut/>  
프랑스 아키비스트 협회(AAF) <https://www.archivistes.org>  
프랫 인스티튜트 <https://www.pratt.edu>  
한국기록관리학회 <https://ras.jams.or.kr/>  
한국기록학회 <https://ksas.jam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한국미술정보센터 <http://www.artarchives.kr>  
한국사립미술관협회 <https://www.artmuseums.or.kr>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https://www.daarts.or.kr/visual/artist>  
한국예술종합학교 <https://www.karts.ac.kr>  
호주 박물관 및 갤러리 협회 (AMaGA) <https://amaga.org.au>

호주 아카이비스트 협회(ASA) [www.archivists.org.au](http://www.archivists.org.au)

홍익대학교 <https://hongikaesthetics.org>, <https://arthistory.hongik.ac.kr/arhistory/index.do>,  
<https://hicam.hongik.ac.kr/hicam/index.do>, <https://artsmba.hongik.ac.kr/artsmba/0202.do>,  
<https://cn.hongik.ac.kr/grad/ex/timetable.jsp>

AGORHA <https://agorha.inha.fr/>

Amia Education Committee <https://amiaeducomm.wordpress.com/>

ARCHiVe <https://www.archive-venice.org/academy/?filter=.aoa>

Archives Gig <https://archivesgig.com/?s=art>

C-Lab <https://clab.org.tw/en/project/iast/>

RIMPA [rimpa.com.au](http://rimpa.com.au)

## 웹자료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K-PAAN) 누리집, 2018. <https://www.ihakorea.go.kr/k-paan/>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법령 해석 사례, 법제처, 2007.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9254&rowIdx=5006&utm\\_source](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9254&rowIdx=5006&utm_source)

사비나미술관 Youtube “직업탐색 #5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비스트 이지은”,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A2oRxmA4l-s&t=374s>

최해리, 「예술기록관리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국립예술자료원 개원 기념 세미나 〈예술자료관리의 중요성과 국립예술자료원의 역할〉 (2011년 3월 25일, 예술가집 다목적홀) 발표 참고. 2011.

<https://blog.naver.com/chumnuri2010/100143452126>

Carlaarton, “Getting to Know You: The L. Jeffrey Selznick School of Film Preservation”, 2015.

<https://amiaeducomm.wordpress.com/2015/09/30/gettingtoknowyou-selznick/#:~:text=The%20L,a%20Masters%20of%20Arts%20Program>

Emily Fildes, “What the Fonds?! The ups and downs of digitising Tate’s Archive”, *MW2015: Museums and the Web 2015*.

<https://mw2015.museumsandtheweb.com/paper/what-the-fonds-the-ups-and-downs-of-digitizing-tates-archive/>

Kaelig Alléaume, “Cariatide, la nouvelle version de la bibliothèque numérique de l’INHA”, *archimage*, 2025.

<https://www.archimag.com/bibliotheque-edition/2025/04/09/cariatide-nouvelle-version-bibliotheque-numerique-inha#:~:text=Image%3A%20Lancée%20en%202006%2C%20la,interface%20de%20Cariatide>

Richard Barrett-Small, “Archives & Access project: Open data brings beauty and insight”, *Tate Projects*, 2017.

<https://www.tate.org.uk/about-us/projects/transforming-tate-britain-archives-access/archives-access-project-open-data-brings>

## 보도자료

경기문화재단·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 2024년 전시와 주요 계획”, 2024년 1월 22일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개관 및 한국미술정보센터 2010-2014”, 2015년 6월 18일

<https://daljin.com/?WS=33&BC=cv&CNO=361&DNO=12753>

리움미술관, “한국근현대미술의 연구 토대를 확장하는 ‘리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오픈”, 2024년 10월 22일

문화시설추진단-박물관과, “온라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오픈… 한국현대미술 중요자료 3000여건 공개”, 2021년 12월 22일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4881>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2024~2028)”, 2024년 12월 30일

[https://www.mcst.go.kr/site/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25.jsp?pSeq=80](https://www.mcst.go.kr/site/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25.jsp?pSeq=8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23년‘작가 연구-조사-비평’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성황리 마무리’, 2024년 1월 31일 <https://www.arko.or.kr/board/view/4057?page=&cid=1807667>

Charlotte Zander, “ZADIK special event at ART COLOGNE 2025”, *ART COLOGNE*, 2025.

[https://www.artcologne.com/pressreleases/pm\\_0570\\_2025\\_8\\_EN\(GB\).xml?datei=pm\\_0570\\_2025\\_8\\_EN%28GB%29.xml&title=ZADIK%20special%20event%20at%20ART%20COLOGNE%202025#:~:text=Live%20panel](https://www.artcologne.com/pressreleases/pm_0570_2025_8_EN(GB).xml?datei=pm_0570_2025_8_EN%28GB%29.xml&title=ZADIK%20special%20event%20at%20ART%20COLOGNE%202025#:~:text=Live%20panel)

## 기타자료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v3.0)』, 국가기록원, 2019.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아카이브 운영 규정』, 국립현대미술관, 2014.

『2024 미술관 연보』, 국립현대미술관, 2025.

『미술자료 기록관리 지침』,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24.

『미술자료 기록지침 보완: 사진작품』,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미술자료 기록 방식 사례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시각·공연예술 분야 직군분석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직무 가이드 라인』,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2025.

## 예술경영지원센터 귀하

미술 아카이비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연구진

호경윤(비(B)파운데이션 대표)  
이다영(비(B)파운데이션 책임연구원)  
박수정(비(B)파운데이션 연구원)  
오빛나(비(B)파운데이션 연구원)

---

### 협력 연구

안대진(아카이브랩 대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겸임교수)  
유예동(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학예연구사,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담당)  
이지은(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비스트, 독립 아카이비스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황진현(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사)

---

본 연구의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합니다.

---

### 발행일

2025년 12월

---

### 발행처

예술경영지원센터

---

### 연구기관

비(B)파운데이션

